



건축사

특집 I\_여성건축인과 디자인 경쟁시대

II\_제1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센텀시티 신세계 UEC

당진 동일교회

스타 갤러리 브릿지

인천하버파크호텔

경기대학교 종합연구동

**KIRA**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485**  
<http://www.kira.or.kr>  
**200909**

# 어젠다를 먼저 생각합시다!

Let's start with Agenda!

2009년은 건축계에 상당히 의미 있는 한해이다. 건축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였고, 그동안 각기 다른 길을 걸던 건축계의 3단체가 통합을 합의한 해이기 때문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3단체 통합은 건축계가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나이갈 방향에 대해서 직접 개입하고 같이 고민하며 함께 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제 건축계는 우리나라의 건조환경을 책임지는 공공적 의무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이유와 논리로 회피할 수 없으며, 이 의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활선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행동해야 하는 때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작년 12월 발족하였지만 대통령 직속위원회로서 대통령의 여러 정책과 공약사업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고, 또한 아직 가동 초기인 전으로 감안한다면 지금 당장 건축계를 위한 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의 정신을 근간으로 탄생되었으며, 건축계의 큰 기대를 안고 시작되었음을 잊지 않는다면 최소한 건축계에 대해서 위원회는 앞으로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인지 또한 건축계는 위원회에 무엇을 기대하고 건축계가 위원회 활동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도록 활동과 방향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 위원회의 활동이 건축계와 함께 가고 있음을 알기 위해서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한다는 말인가? 3단체 통합은 건축계가 스스로 기획하고 결정한 무척 자랑스러운 활동이다. 그러므로 이를 계기로 건축계는 통합의 에너지를 모아서 건축발전의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 통합된 협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그간 우리사회는 우리나라의 도시와 건축의 저열함에 대해서 건축계를 비난하였고, 우리나라 아파트의 획일성과 문화적 무미건조함에 대해서 관과 민 모두가 건축계를 싸잡아 비하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현상이 전적으로 건축계의 지능적 무능함과 건축가의 의식의 무력함 때문에 발생된 일인가? 우리나라의 영세자 영사업자 비율이 전체 자영업자 중에서 15%에 이르는 신업구조는 선진국의 2~3%에 비교하면 왜 우리나라에 허접한 근생건물들이 이렇게 많은지 알 수 있다. 또한 과거의 위정자들은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미래에 입주할 집을 담보로 미리 금융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온 국민이 잠재적 투기꾼의 길을 열어준 케인즈식의 경제논리가 현재의 아파트의 형식과 문화를 이끈 측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일인가?

우리나라 건축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는 일은 건축가의 치열한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높은 수준의 건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건축계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여야만 가능한 일이다. 통합된 협회는 그러한 흐름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시도하여야 한다. 우선 발주제도를 포함한 여러 법과 제도들을 개선하며, 현상설계경기의 심사방식을 개선하여 상상력으로 가득찬 수준 높은 건축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일, 그리고 계약제도 등을 개선하는 것이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 내는 일들이다. 건축계를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다. 협회들의 통합을 계기로 만명이 넘는 건축사와 수만명의 건축사보와 보조원들, 수천명의 건축대학 교수들과 만명에 가까운 건축전공 학생들 이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서 소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건축계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과거보다 활선 강한 자아와 정체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최근에 건축의 지적재산권을 건축가의 것으로 돌려놓은 몇몇 건축가의 노력이 있었다. 이 얼마나 훌륭한 성과인가? 이와 같이 건축가의 권리와 권익을 찾는 일 역시 통합협회의 일이다.

이 시대의 새로운 기술은 건축의 흐름을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이슈다. 지속가능성과 녹색성장은 건축계가 당면한 중요한 분야이며, 정보화사회를 반영하는 정보기술 역시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현재는 유비쿼터스로 대표되고 있지만 전 산업분야로 확산된 IT는 건축 생산의 전 과정과 건축의 철학적 개념적 기반까지도 바꿔놓을 것이다. 건축계는 급박하게 변화하는 현실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새로운 기술과 변화된 기준은 당장 설계원 가의 상승으로 이어지며 건축계를 압박하고 있다. 이렇듯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흐름은 누가 준비하고 어디로 이끌어갈 것인가? 통합협회는 기술적으로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면 당장 건축기술연구소라도 열어야 하지 않겠는가? 건축계가 건축에 내재된 자율적 논리에만 집중해서 건축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를 외면한다면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건축적 의식의 감옥에 갇혀있는 것과 같다. 우리의 목표는 물론 이러한 감옥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통합협회는 그 중심에 있으며 건축계에 희망을 갖게 한 장본인이다. 이미 많은 고민과 노력이 수행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건축계 전체에게 발표하고 같이 시작하는데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자, 무엇을 먼저 시작할 것인가? ■



김상길 / Kim, Sang-gil, KIRA  
(주)에이텍 종합건축사사무소

## 약력

- 서울시립대학교 졸업 및 동대학원  
박사과정 이수
- 홍익대학교 대학원 졸업
- 희망제작소 부설 도시공간연구소  
소장
- 새건축시협의회 정책위원장
- 홍익대학교 겸임교수
- 서울시 및 경기도 건축위원회 위원

# 이 땅 위에 건축사만은 살아남아야 한다.

Architects must survive in our country

백에 백, 천에 천이면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죽겠나고 아우성이다.

불경기의 터널 속에서 유독 건축사가 겪고 있는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첫째 이유는 정부의 주택정책과 건축행정에서 비롯되었다.

시골 논밭까지 들어찬 아파트들이 오늘의 건축사를 모두 망쳐 놓았다.

덤핑만 있고 디자인이 없는 아파트는 건설만 있지 설계라곤 없는 부동산을 양산했고, 재산가치의 상승만 노렸지 정작 주거의 본질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당신”이였다.

이러한 주택정책에 비하면 건축행정은 솔직히 바위에 계란치기나 다름없었다.

경제부처에 파묻힌 건축부서가 힘도 못쓰다가 난데없이 건축사에게 날벼락을 날렸다.

몇십 명에서 겨우 백단위에 진입하더니 느닷없이 연간 1,000명의 건축사를 쏟아냈다.

크고 작은 일거리 가리지 않고 정작 한 건 나타나면 우르르 아비규환이나 다름없다.

결과는 너무나 뻔했다. 일없고 돈 없는 건축사는 직업의 대열에서 낙오하기 시작했다.

1등이던 대학의 커트라인, 취직에 민감한 수험생들로 순위조차 찾기 어렵게 되었다.

꿈에 부풀었던 건축을 포기하고 다른 전공으로 옮겨가는 학생들과 경력자도 상당하다.

도대체 건축의 나락이 그 어딘지, 건축사의 절망은 또 어디까지인지 그 가늠조차 힘들다.

둘째 이유는 우리 건축사에게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른다.

일거리들이 지천으로 쌓려 있을 때, 모아둔 복지연금을 걸핏하면 쪼개버리곤 했다.

복역방에서 일감을 찾고 짐장수들에게 끌려 다니면서 직업자랑을 한 게 큰 잘못이었다.

창작보다는 모방에 또 모방보다는 바로 눈앞의 이익에 현혹되기도 했으니 말이다.

무엇보다도 확실한건 남들이 정부와 정책에 맞서 뭉치고 싸울 때, 우리는 불구경만 했다.

우는 얘기 젖 준다고 우리 주장과 투쟁이 미약한 만큼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오고 말았다.

지금에 와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굴 탓하는 것만큼 더 비보스런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이제 더 이상 물려날 곳도 또 더 이상 떨어질 나락도 없다는 즉사필생의 한가지 길 뿐이다.

그동안 어떤 이유이던 간에 끊어져 있던 관계의 다리를 복원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가 된다.

제1은 행정당국과 정부정책과의 고리를 다시 연결하지 않고는 그 길이 안 보인다는 것이다.

갓 출범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더불어 지금의 해법도 찾고 내일의 비전도 마련해야 한다.

세계화로 가는 선진국가간 경쟁에서 건축정책만큼 더 중요한 문화경쟁력도 없기 때문이다.

다음 제2는 모든 건축관련 단체가 통합된 하나의 주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관철하는 일이나.

건축 내부의 분열이 있는 한 외부와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그 다음 제3은 건축사에게 국민은 건축주이기 이전에 봉사와 헌신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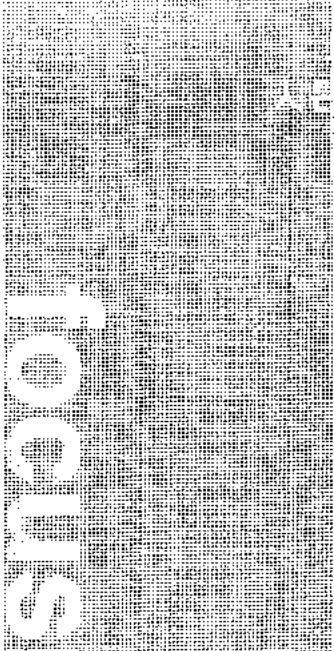
흔자 잘 먹고 잘사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 속에 파고들어 아픔을 같이 하는 건축사라야 한다.

건축이 죽으면 건축사도 따라 죽고 결국엔 이 땅위에 건축문화도 사라질 것이다.

죽기를 각오하고 건축을 살리지 않는 한 건축사는 국가와 민족의 영원한 죄인이 된다.

우리 모두 건축의 마지막 자존심과 건축사의 마지막 자긍심에 뜨거운 불을 붙이자.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우리 건축사의 영광을 위해서, 오로지 이 길밖에 또 방법이 없다. ■



김영수 / Kim Young-soo, KIRA  
(주)건축국 종합건축사사무소

## 약력

-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및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 역임
- (사)대한민국 국제문화교류협회 회장
- 녹청련(녹색건축 청색도시 시민디자인연대) 공동대표

# 수주상황의 불균형 / 턴키제와 발주제도

## Unbalance of Order / Turn-Key and Outsourcing

『평가위원들의 주량은 어떻고 골프 핸디캡은 얼마인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까지 파악돼 있다』고 전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최저가 낙찰제 공사는 건설사들이 제시한 응찰가의 60% 선에서 낙찰되는 반면 턴키방식은 응찰가의 90% 선에서 낙찰가가 결정된다. …심사위원회 후보군을 ‘상시 관리’ 하는 데 워낙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형업체가 아니면 어렵다는 얘기다. 대한건설협회 조사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발주된 턴키 공사 8조368억원어치 중 시공능력 상위 10개 사가 수주한 공사는 금액 기준으로 77%다.

월 글은 파주시의 턴키 공사 로비 사건이 터진 후 중앙일보에서 8월에 기획한 기사 중 일부다. 지난해 전체 공공 공사의 23%(107건, 12조2,850억원)를 차지하는 턴키공사의 주요 이슈로 로비문제 외에도 위에서 보는 바같이 공사비 담합의혹, 대형 건설사로 치우친 수주 불균형 등이 거론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설계 업체로 참여해야 하는 건축사사무소의 시공사 의존도가 점점 커져간다는 것이다(시공사의 본업과 건축사사무소의 본업은 서로 달라 상충 될 때 독립적 의견 고수가 힘들어진다).

1995년 턴키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주기적으로 로비문제가 불거지고 그때마다 심사제도를 바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형건설사는 왜 턴키공사에 목맬 수 밖에 없을까? 거기에는 정부공사의 발주제도가 상당한 짐을 한다고 본다. 여태까지도 그래왔지만, 건설선진화위원회에서 2012년 계기로 건설공사 발주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는 시안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개선된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즉 최저가 낙찰제 공사는 60%내외에서 운찰로 되고, 턴키공사는 90% 내외에서 기찰(운찰반대-계획수주)로 되어 조금만 노력하면 이윤차이가 엄청 확보되는데(소문처럼 로비에 공사비의 10% 내외를 사용해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턴키에 전력투구하지 않겠는가?

현재 턴키심사의 주요 큰 항목이 설계, 낙찰가, 시공능력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 현실은 낙찰가와 시공능력도 비슷하고 설계로서 거의 결정된다. 좋은 설계를 평가하기 위한 변수들과 적절한 낙찰가를 결정하기 위한 변수들은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또 종속적일 수 있다. 시공능력은 차치하고라도 나머지 두 영역의 변수를 잘 조합하여 평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설계만 위주로 보는 것이 현재 관행으로 운영되는 턴키제도이고, 가격만 보는 것이 최저가제도다. 둘 사이의 거리를 좁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사위원회를 어찌하고, 또 뭐를 어찌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또 남는 문제가 중소 대규모 시공사간의 균형 발전 문제다. 중소업체 사람들 말처럼 심사위원 관리가 힘들어 최저가 공사에만 들어가다 보니 반익빈 부익부는 더 벌어져 견전한 구조형성이 않된다. 최저가가 아니라 적절한 공사비가 보장되는 제도여야(설계시공 일괄이든, 단순 시공도급제이든) 이윤의 밸런스가 맞아야하며 계획 수주 간의 밸런스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설계와 가격의 두 가지 변수를 조합한 종합적인 평가가 어렵다면 계획설계를 먼저하고, 그를 바탕으로 한 기술력과 디자인에 의한 공사비를 대안 입찰 턴키 내지는 최저가 제도의 수정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럴 때 건설 발주방법에서 오는 운찰과 계획 수주, 이윤의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며, 나아가 시공사와 설계사 각각의 본래 목적에 적합한 기술과 디자인을 개발하게 되어 진정한 건축문화의 선진화로 가는 초석이 다져진다고 생각된다. ■



오성훈 / Oh, Seom-hoon, KIRA  
(주)건축사사무소 어반엑스

### 학력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및 동대학 대학원 졸업
- AA School 수학
- 한국건축기협회 편찬위원회 위원장
- 본지 편찬위원회 위원
- 국민대학교 건축과 겸임교수

## 회원작품 | Works

윤세한 / 정희원, (주)해안 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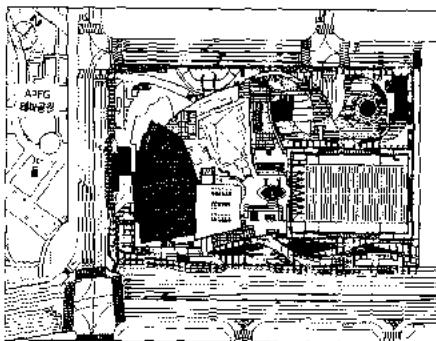
by Yoon, Se-han, KIRA

김기성 / 정희원, (주)한증 건축사사무소

by Kim, Kee-seong, KIRA

# 센텀시티 신세계 UEC Centumcity Shinsegae U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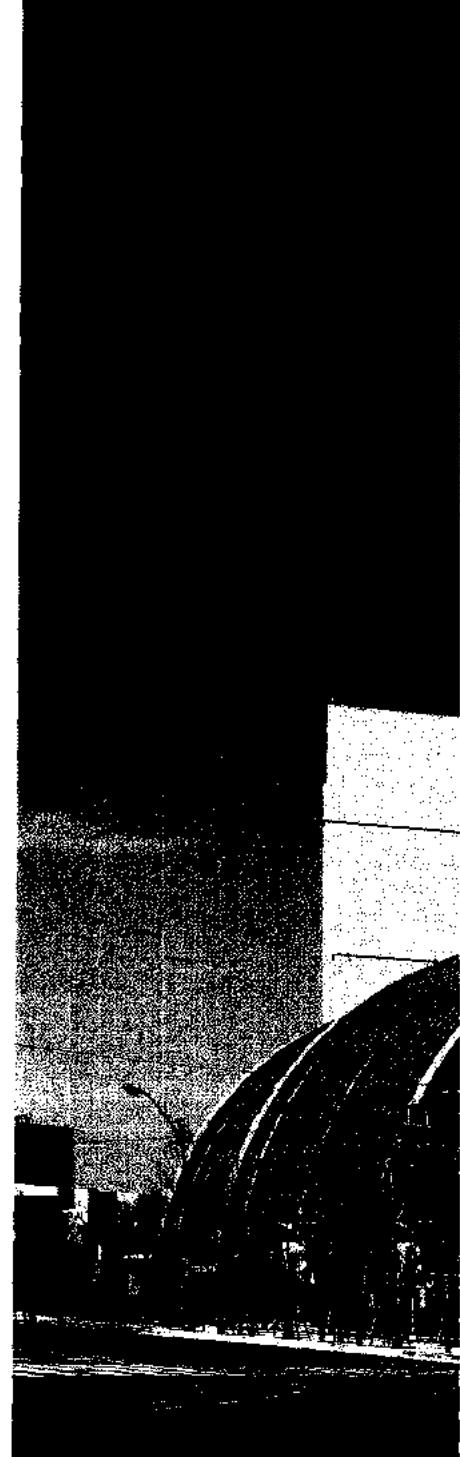
### ● 배치도



### ● 건축개요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95번지
지역/지구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주요용도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 및 접객시설, 운동시설
대지면적	40,711.50m <sup>2</sup>
건축면적	20,290.49m <sup>2</sup>
연면적	293,906.80m <sup>2</sup>
진폐율	49.84%
용적률	343.44%
규모	지하 5층, 지상 14층
구조	지하: 철골철근콘크리트 지상: SRC기둥+철골가세 물조
외부마감	THK30 화강석률갈기, THK24칼라복층유리, 칼라알루미늄그릴
내부마감	화강석, 페인트, 비닐계 쉬트, 카펫타일
사공사	신세계건설(주)
건축주	(주)신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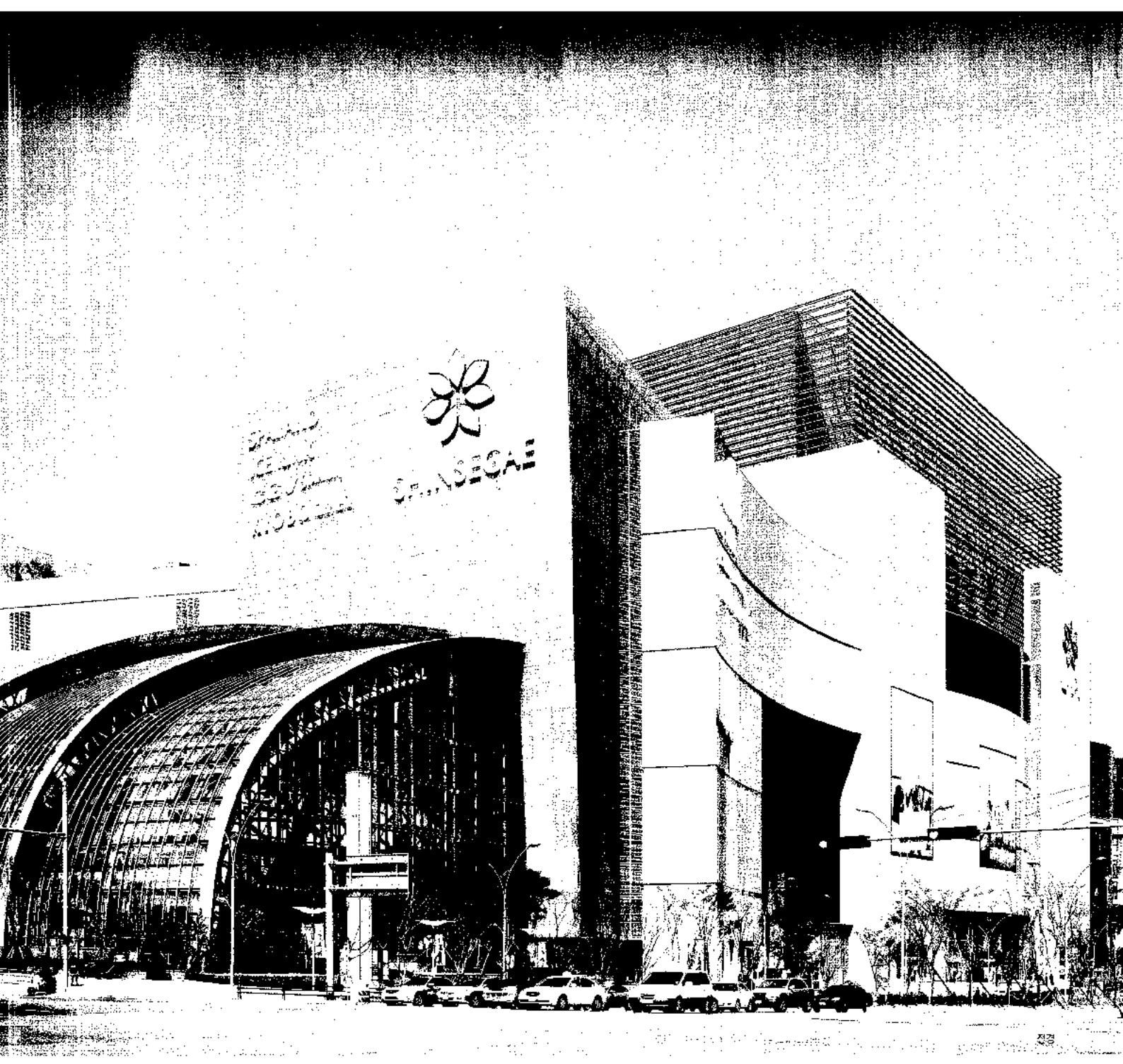
Location 1495, U-dong, Haeundae-gu, Busan, Korea  
Site area 40,711.50m<sup>2</sup>  
Bldg area 20,290.49m<sup>2</sup>  
Gross floor area 293,906.80m<sup>2</sup>  
Bldg coverage ratio 49.84%  
Gross floor ratio 343.44%  
Structure S.C.R  
Bldg. Scale B5, F14



### 단일매장 면적기준 세계 최대규모의 백화점

옛 수영비행장 부지였던 센텀시티 신세계 UEC(Urban Entertainment Center)는 BEXCO(부산 전시컨벤션센터)와 DMZ(Digital Media City), APBC 테마공원과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개발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쇼핑, 음악, 오락, 문화 기능이 복합된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조성하여 부산을 국제적 관광명소, 나아가 다양한 복합 기능을 갖춘 첨단 미래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소비자의 요구와 트렌드를 명확히 읽어내고 그것을 건축물이라는 그릇에 담아 부산의 랜드마크로 새롭게 태어난 신세계 UEC는 3개 블록 건물 간에 다양한 기능에 부합하는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UEC 전체 건물매스가 단일 건물로 인지될 수 있도록 원전하게 조합된 수평, 수직적인 정원을 통해 친환경적인 공간을 연출하였다. 바다와 안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신세계 UEC는 시각적, 공간적 연계를 통한 자연친화적인 열린공간을 만들고자 해운대 바다의 낭만이 살아나는 외벽 디자인과 장관 및 수영만, 해운대의 바다 등 풍경과 어우러지는 외관 디자인에 고명도, 저채도의 색체계획으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국내에서 최초로 'Oro Venetiano' 석재를 사용하여 고급스러운





음을 더하였고 물갈기 처리기법을 통해 건축물의 일체미와 동장한 볼륨감을 살렸다. 전체 UHPC 단지의 연계성을 고려한 광장과 수준 높은 조경 계획을 통해 질 높은 오픈스페이스를 제공하며, 야간경관은 빛의 우화를 주제로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동양 최대규모 복합쇼핑몰로서의 상장성을 보여하였다.

지하 5층, 지상 14층 규모로 쇼핑, 문화, 웰빙, 엔터테인먼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백화점, 스파랜드, 아이스링크, 스포츠 클럽, 실내골프장, 교보문고, OGV 영화관 등 6개 엔터테인먼트 시설과 국내 최대 규모의 식품관 등이 들어서 그 규모와 도입시설만으로도 세계 최대 쇼핑몰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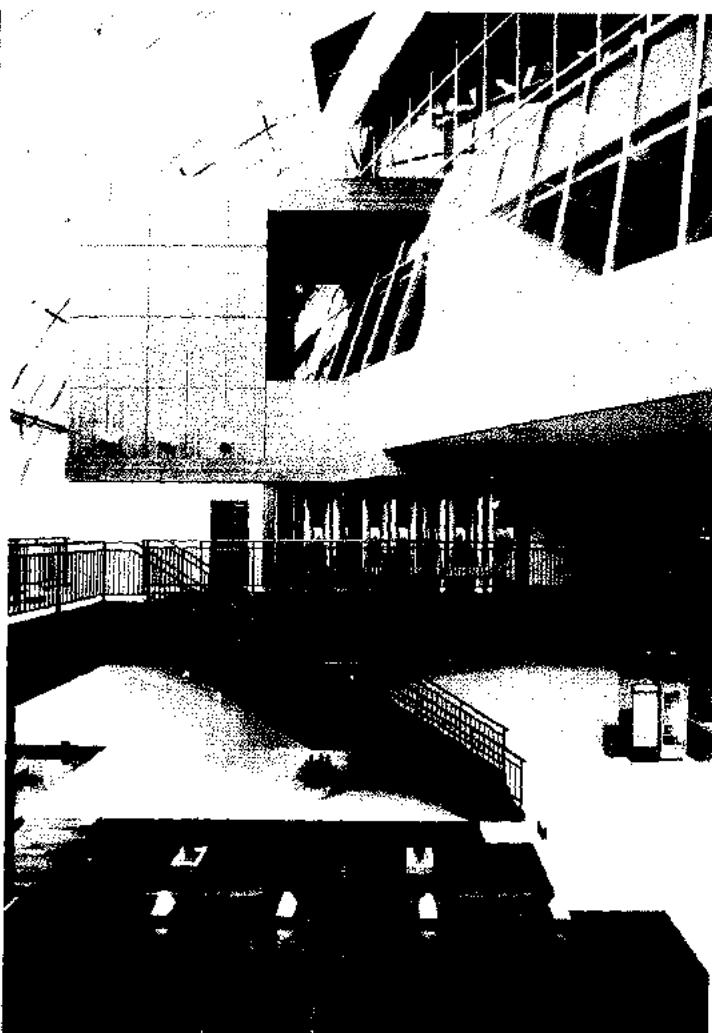
**배치계획** 주변환경과의 컨텍스트를 고려하여 각 용도시설 및 블록 간에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APEC 테마공원과의 시각적, 공간적 동선연계를 통해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였다.

**입면계획** 거대한 매스로 분절 된 신세계백화점의 기존 이미지에 미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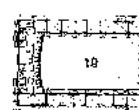
향적 디자인을 가미한 것으로, 센텀시티점 외벽을 훌려싼 석재는 오로 베네지아노(Oro-Veneniano)라는 그급석재를 사용하여 연한 회색과 밝은 갈색에 7개 이상의 입지와 결에서 발하는 석이 어우러지게 설계하였다. 또한 스텀 메쉬 낮면에서 감미로운 빛을 표현하는 메탈할드아이드와 아이스링크 등의 특수시설을 은은하게 비추는 커튼월면은 그 자체로 도심 속의 새로운 아이콘을 제공한다.

**조명계획** 수영만을 통해 은은하게 비추는 조명계획은 바다가 주는 에너지를 흡입력 있게 포용하고 있고 빛의 바다를 대표하는 신세계 UEC는 자연이 연주하는 황금색 바다의 빛을 오묘하게 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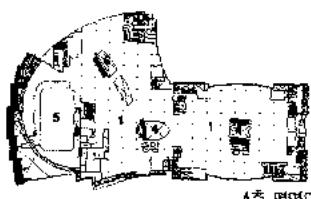
특수시설은 내부에서 나오는 간접적인 빛을 통해 바다와 하늘 그 틈새를 비집고 비쳐오는 빛으로 표현하였으며, 아이맥스는 태양의 훌러내리는 빛과 해수면에 반사되는 빛을 표현하고 있다. 동관 상부 골프레인지는 환상적으로 피어오르는 물안개를 연출하고 있으며, 동관/서관의 입면은 해돋이와 해넘이에 황금색으로 물든 바다를 표현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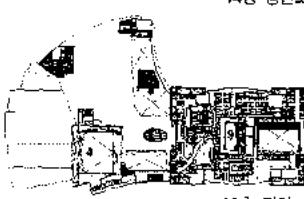
01_ 박회성	05_ 애니 스윙크	09_ 스프츠센터
02_ 주치산	06_ 보이드	10_ 콩포장
03_ 스트랜드	07_ 옹호선	
04_ 아노리옹	08_ 유흥경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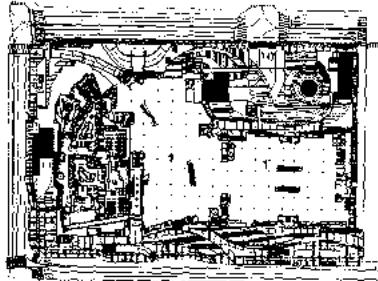
1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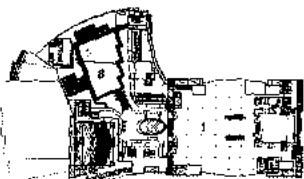
4층 명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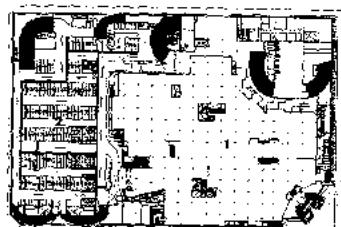
10章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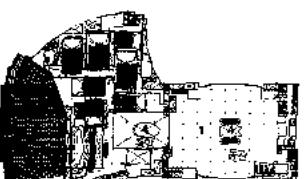
1卷 평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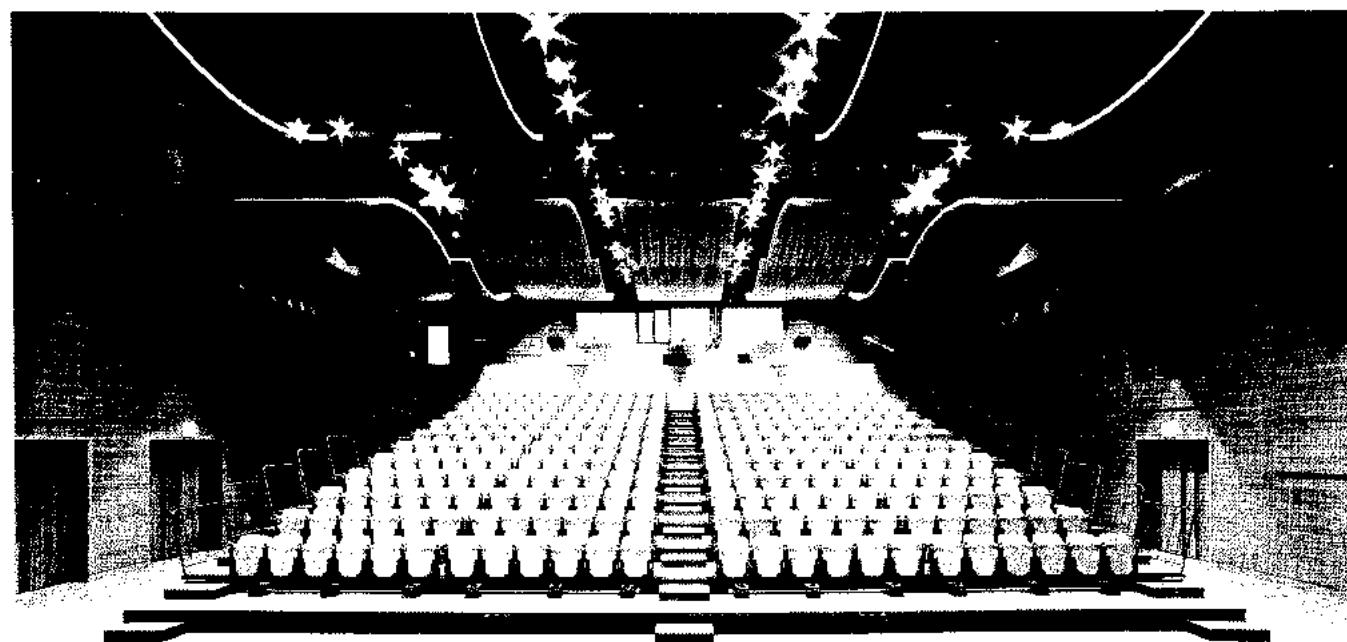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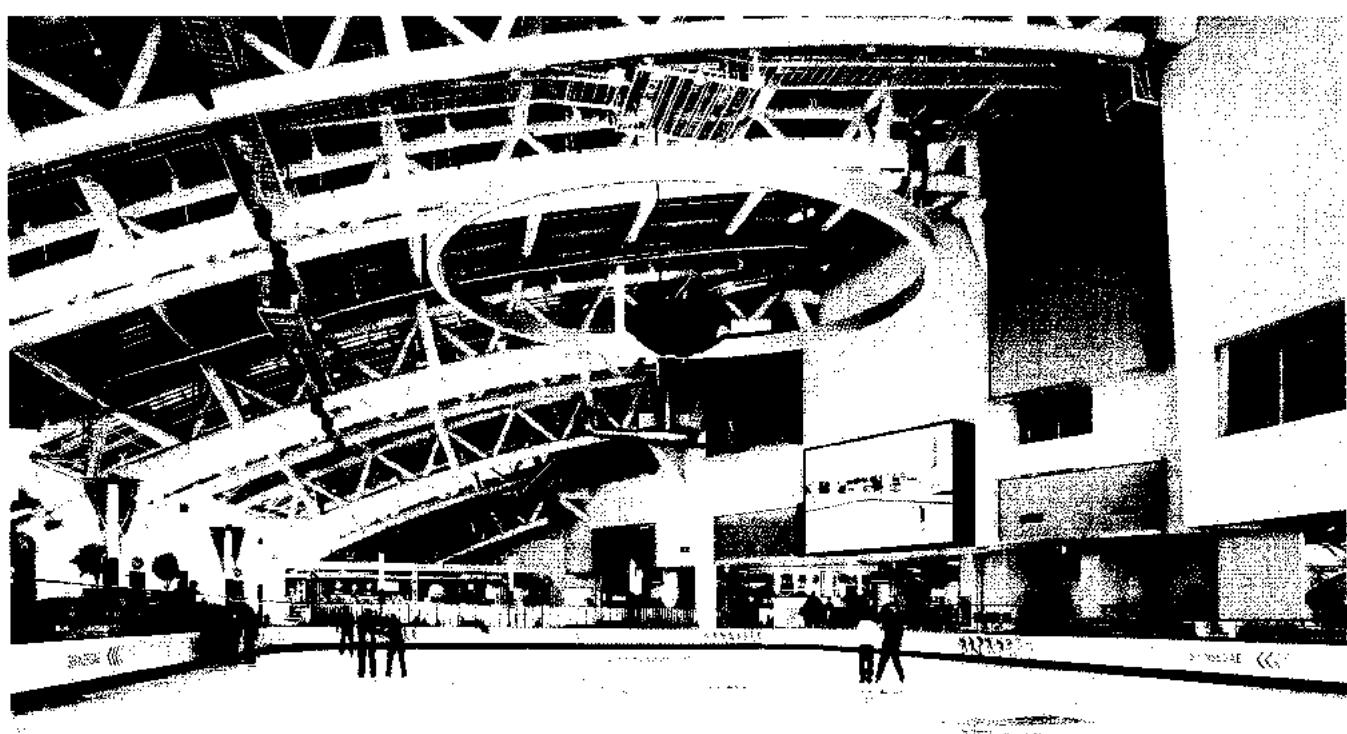
088 08면도



자하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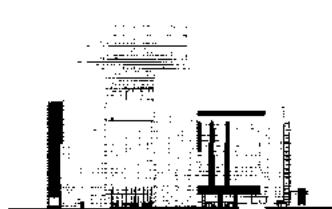
8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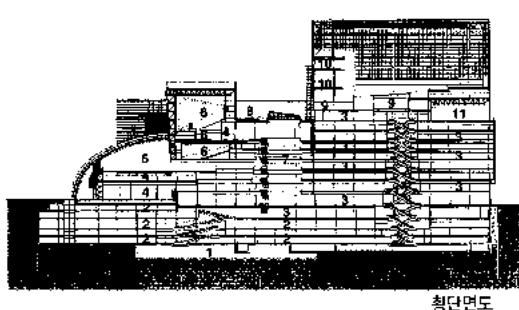
 1. 서관 VoD 전경  
 2. 스파트니스홀  
 3. 아이스링크(4층)  
 4. 문화홀(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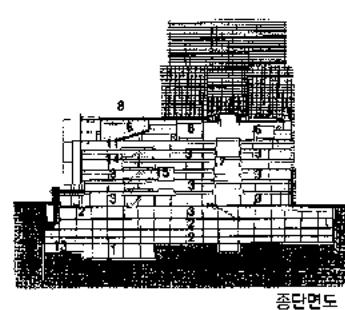
정면도



우측면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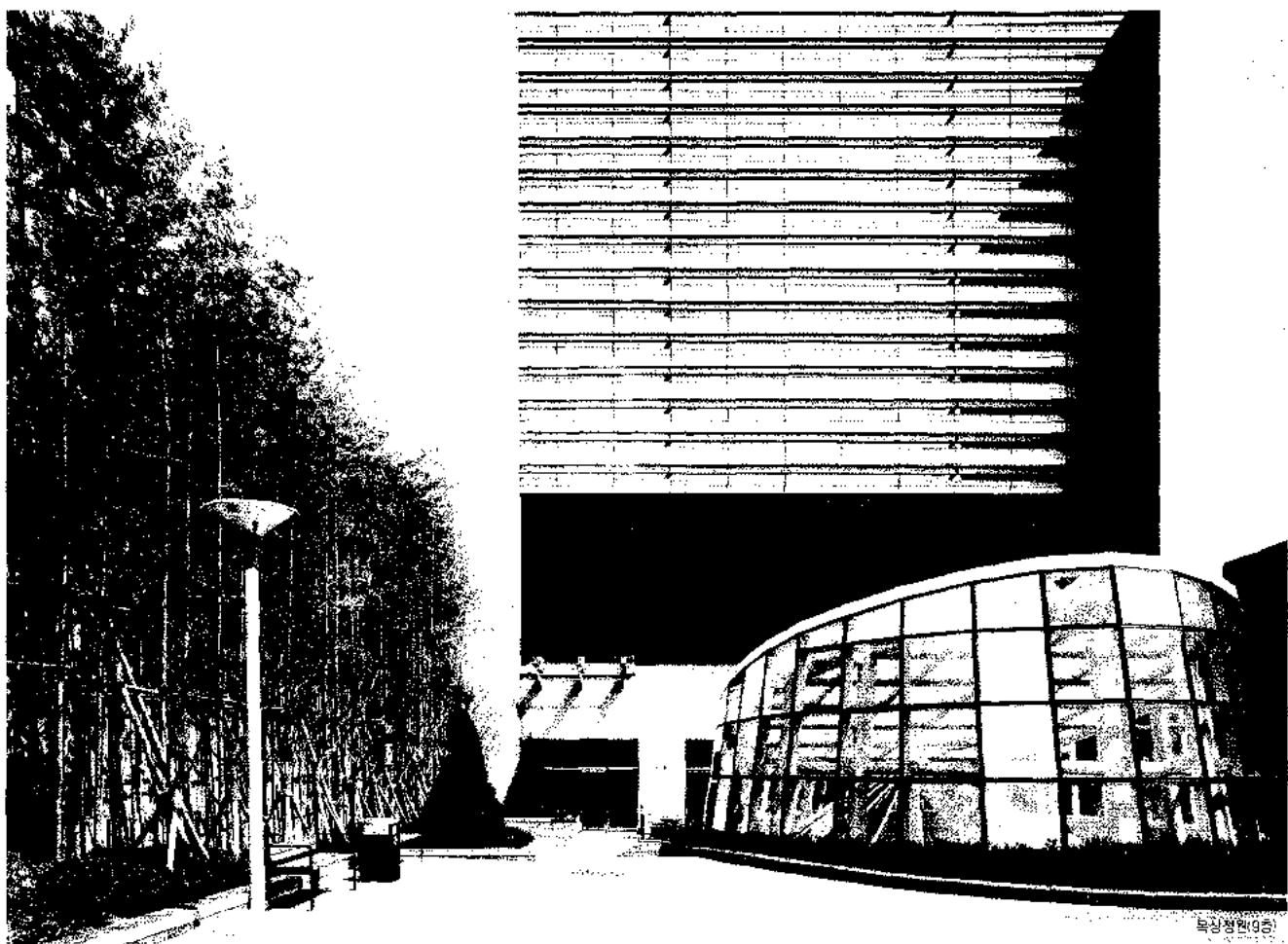
종단면도

- 01. 서수소
- 02. 수차장
- 03. 흙파전
- 04. 스파트니스
- 05. 아이스링크
- 06. 영화관
- 07. 중앙아트리움
- 08. 복장실
- 09. 스포츠센터
- 10. 골프장
- 11. 문화홀
- 12. 빅화설 출연 버드나루
- 13. 기계술
- 14. 대강사
- 15. 백화점 서관 보이드



아이맥스 애경

스마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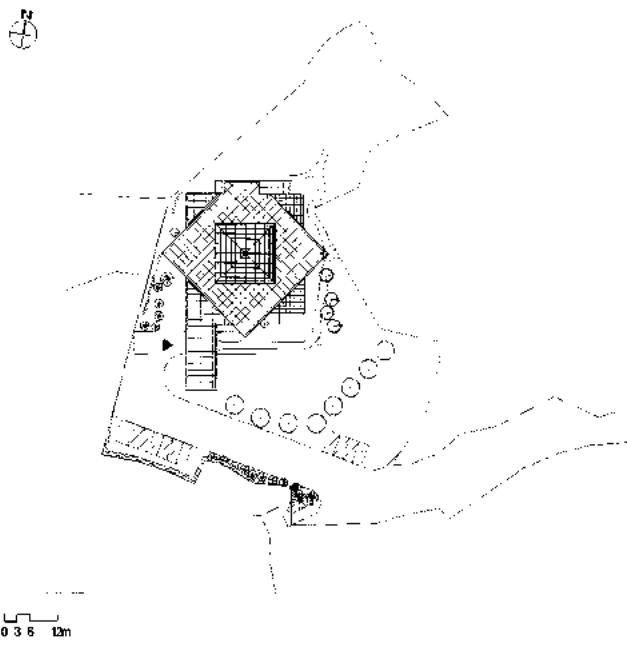


복성정원(9층)



## 당진 동일교회

Dang-Jin Dongil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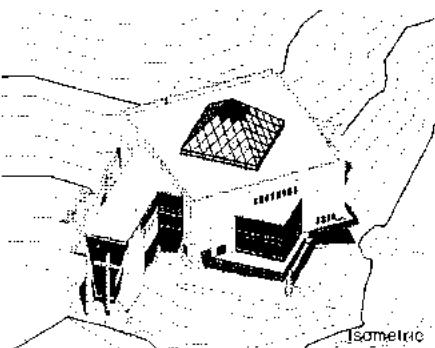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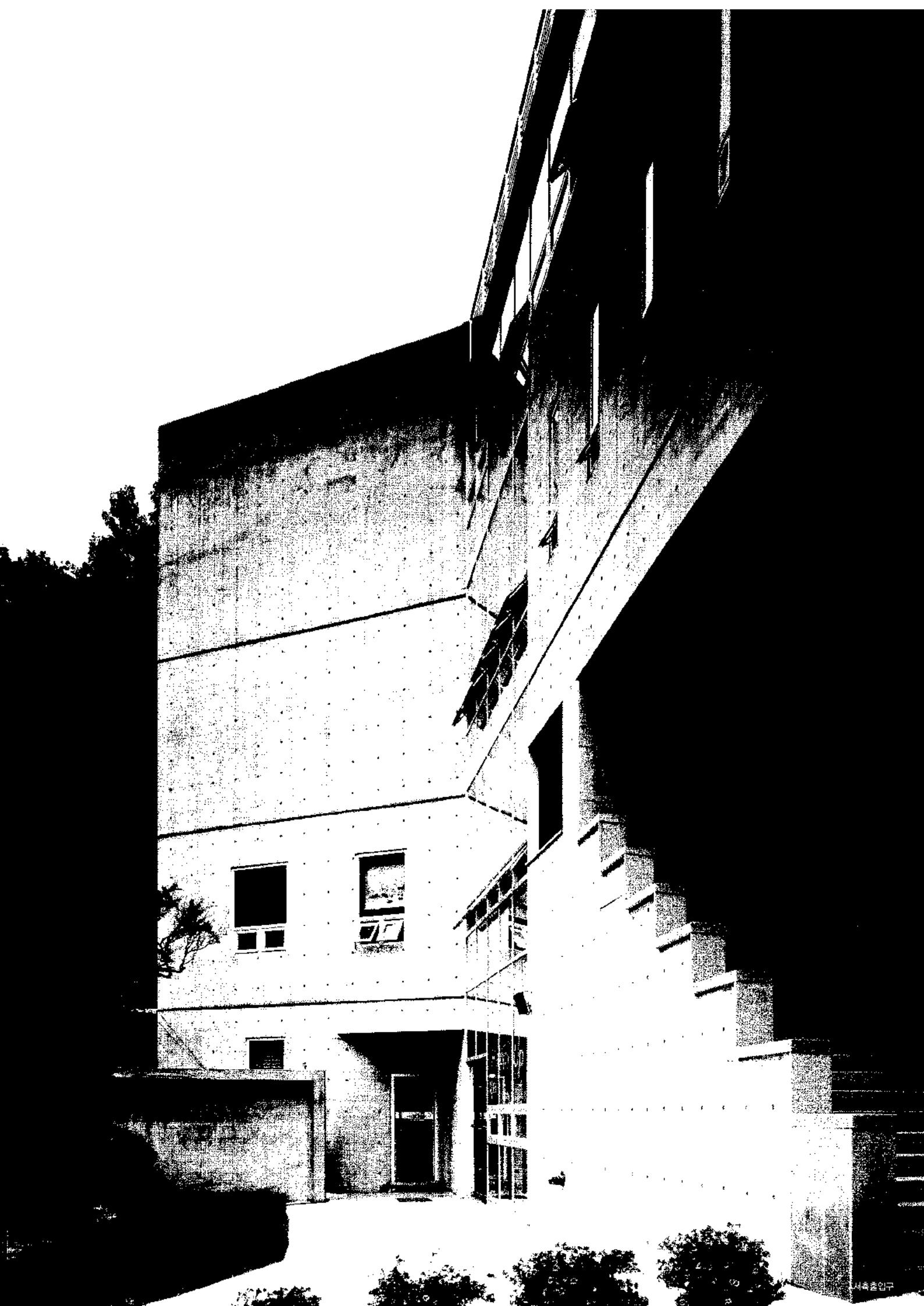
## ● 배치도

## ●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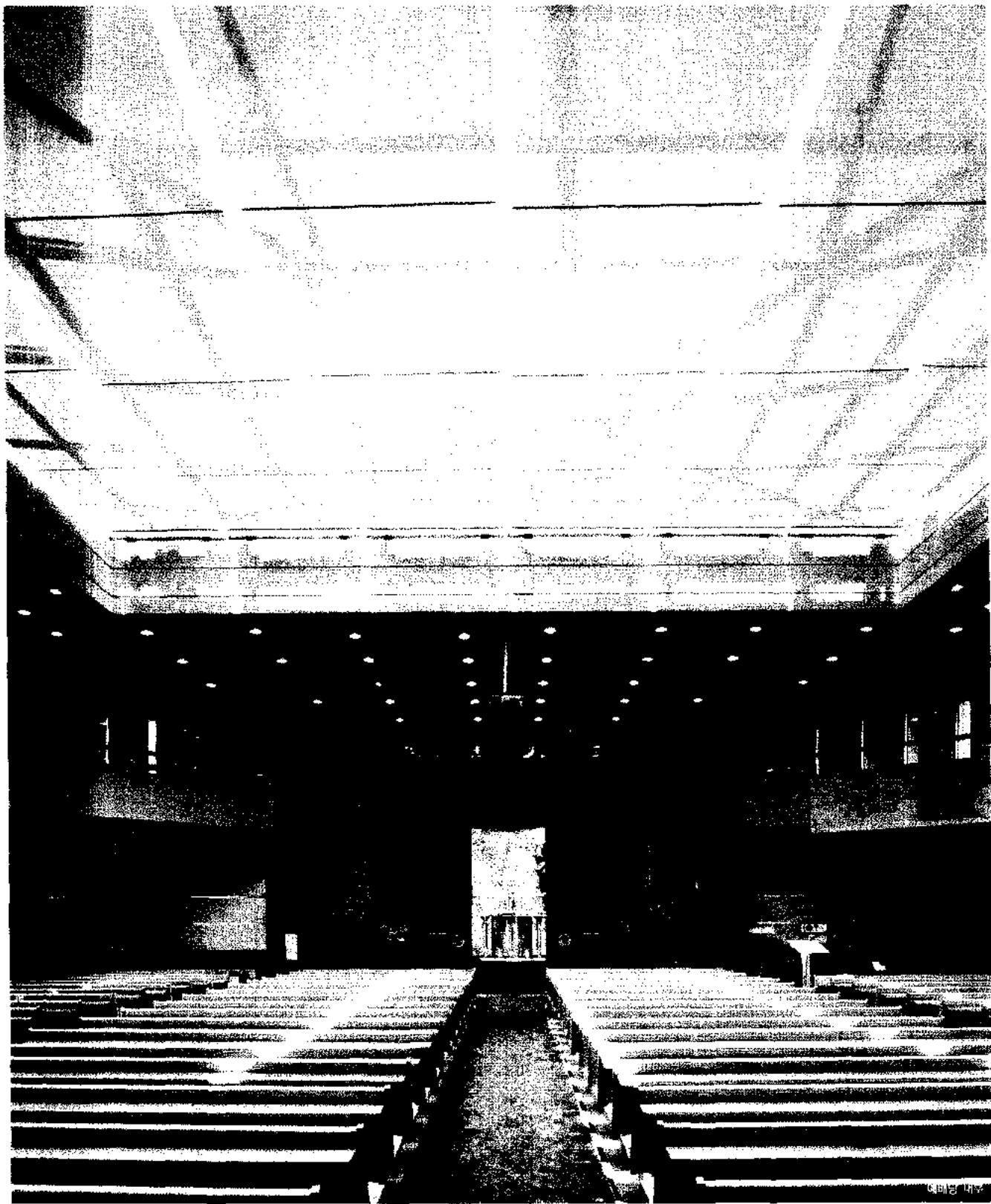
**대지위치**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시곡리  
**지역/지구** 관리지역  
**주요용도** 종교시설  
**대지면적** 4,676.00m<sup>2</sup>  
**건축면적** 969.60m<sup>2</sup>  
**연 면 적** 2,706.60m<sup>2</sup>  
**건 폐 율** 20.74%  
**용 적 률** 46.31%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대리석, 노출콘크리트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복층유리  
**구 조** 베이스구조기술사사무소  
**전 기** 신한전설  
**설 비** 삼화ENC  
**시 공** (주)동명종합건설  
**감 리** 칸·도시 건축사사무소  
**설계담당** 김여현, 김용담, 구유동, 정문주

**Location** 995-3, Sigok-ri, Dangjin-gun,  
Chungcheongnam-do, Korea  
**Site area** 4,676.00m<sup>2</sup>  
**Bldg area** 969.60m<sup>2</sup>  
**Gross floor area** 2,706.60m<sup>2</sup>  
**Bldg coverage ratio** 20.74%  
**Gross floor ratio** 46.31%  
**Structure** R.C.R  
**Bldg. Scale** B1, F3





세축출입구



예배당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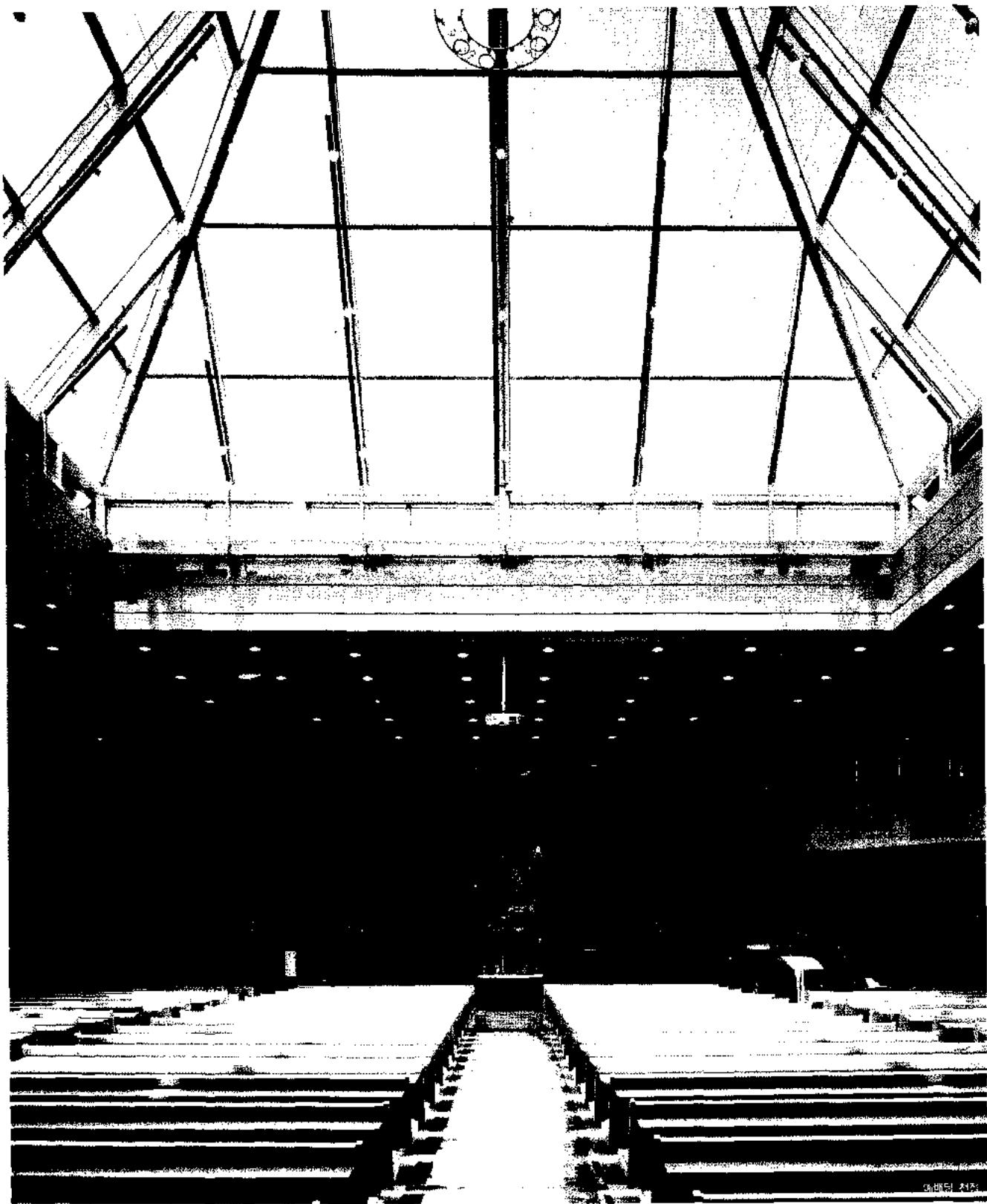
대지는 당진읍의 북동쪽 인적 드문 산속의 양지바른 동산위에 있다. 삽여년전 천막에서 시작한 교회가 이제는 산기슭에 아담하게 터를 잡고 수많은 어린이아들이 뛰노는 어린이집과 예배당을 짓고 주변을 공원처럼 아름답게 꾸며놓았다. 짧은 기간에 크게 성장한 교회는 서쪽 동산위에 터를 닦아놓고 새 예배당을 지을 준비를 하고는 나를 찾아왔다.

동산에 올라서서 소나무숲이 우거진 아름다운 주변경관을 바라보며 이곳에는 성령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보는 예배가 아닌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성서의 첫머리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록되어

있다. 주변의 아름다운 산과 숲, 청량한 공기, 맑고 푸른 하늘, 이것들이 야 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가 아니겠는가. 이 앞에서 믿는 자들은 겸허하게 꾸밈없이 순수한 모습으로 경배드림 이 마땅할 것이다.

영화관으로, 예식장으로 변모해가는 새롭게 세워지는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숨이 막히는 답답함을 느낀다.

높게 높게만 올라가던 붉은 네온의 십자가탑들이 이제는 화려하게 치장하고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을 내려다보면서 거부하는 몸짓으로 우뚝서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시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셔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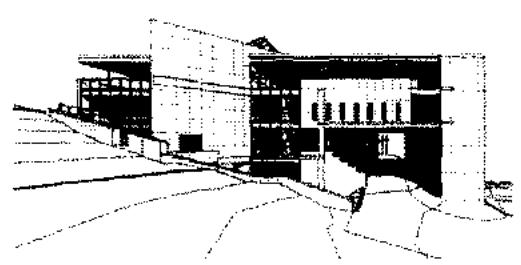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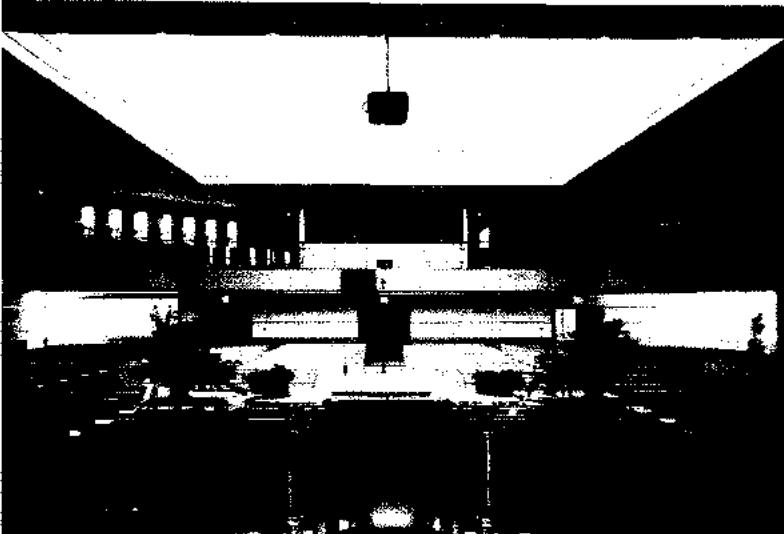
예배당 천장

우선 주변의 자연을 최소한으로 건드리기로 하고 기존의 소나무들은 최대한 제자리에 살리기로 하였다.

덕분에 건물은 준공되는 순간부터 오래전부터 이곳에 세워져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농산위에 세워진 교회는 하늘을 향해 지붕을 열었다.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빛이 성령의 세례이기를 기대하면서… 노출콘크리트로 마감된 외벽은 그저 수수하게 서있다. 진입부의 은빛 십자가는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에게 말을 건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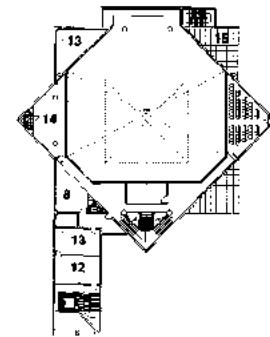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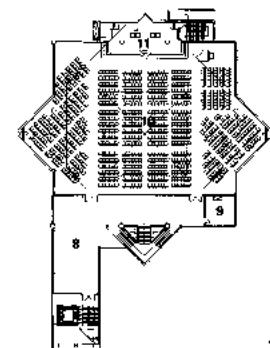


1. 예배당 전경  
2. 내예배당 강대당  
3. 서예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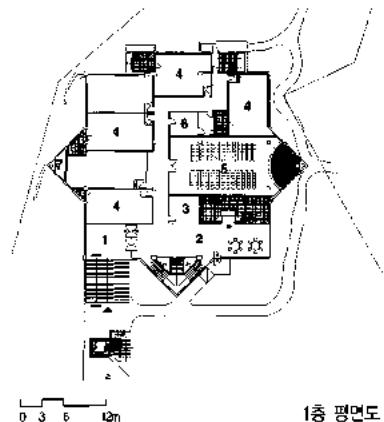
01\_ 현관 05\_ 세미나실 09\_ 유아실 13\_ 기도실  
02\_ 흙 및 카페 06\_ 원장실 10\_ 예배당 14\_ 자모실  
03\_ 사무실 07\_ 빌코니 11\_ 강대 15\_ 대크  
04\_ 교실 08\_ 로비 12\_ 음양실 16\_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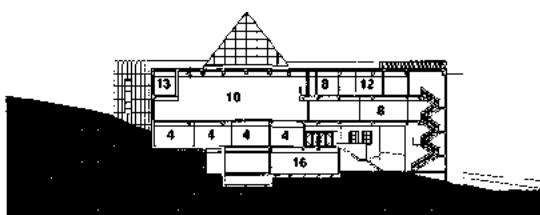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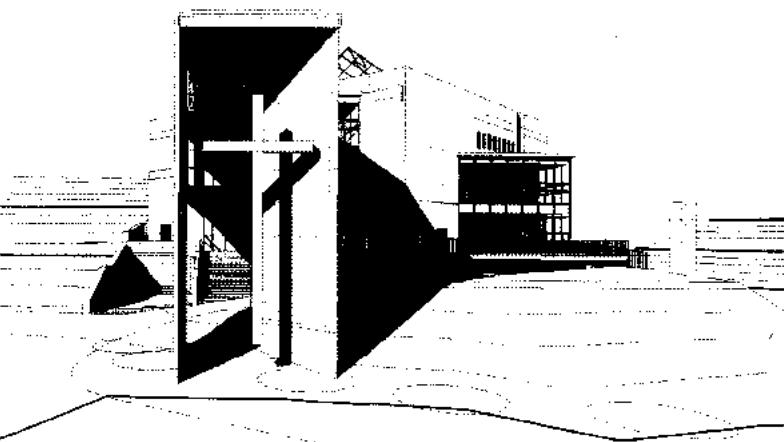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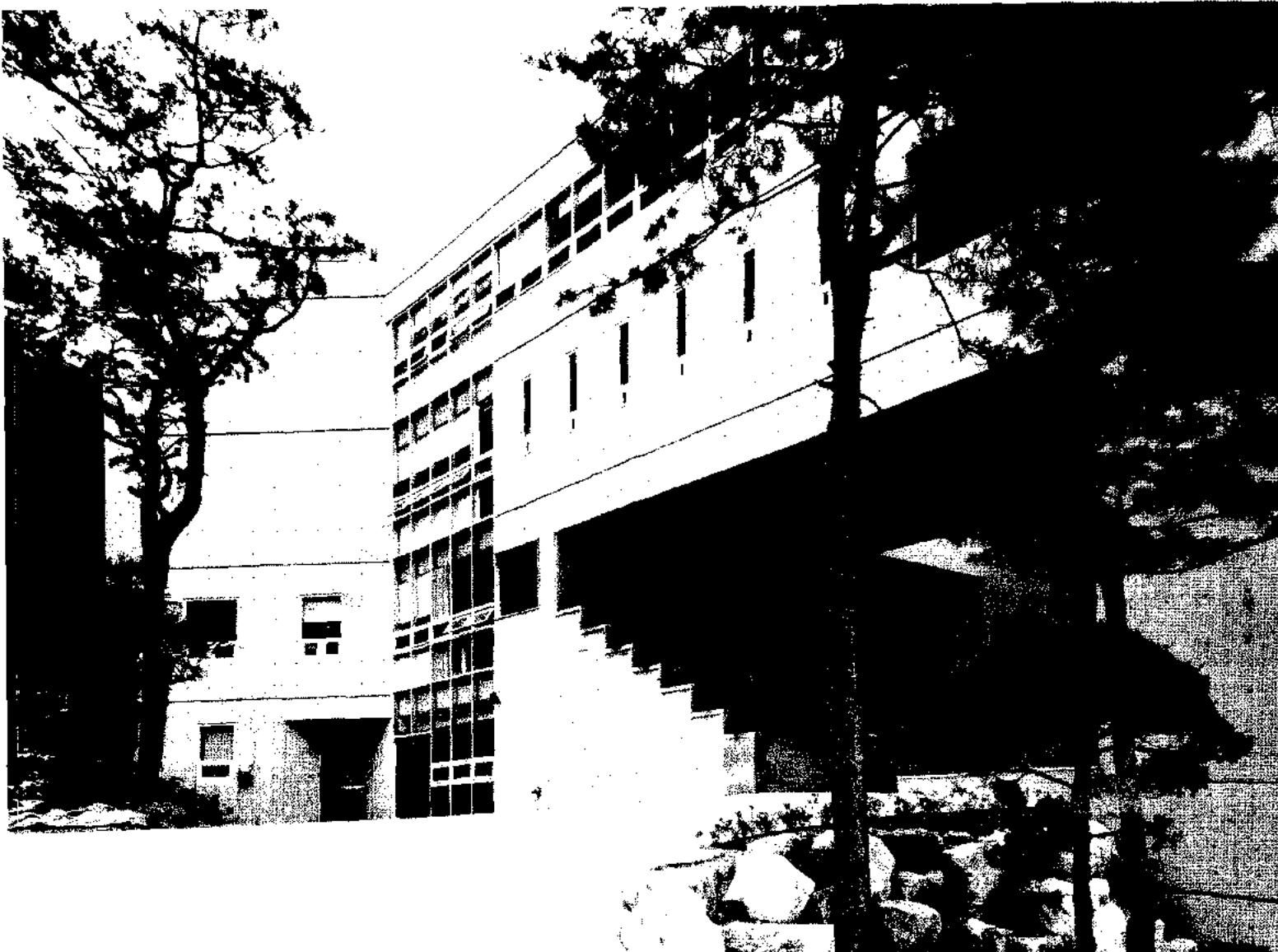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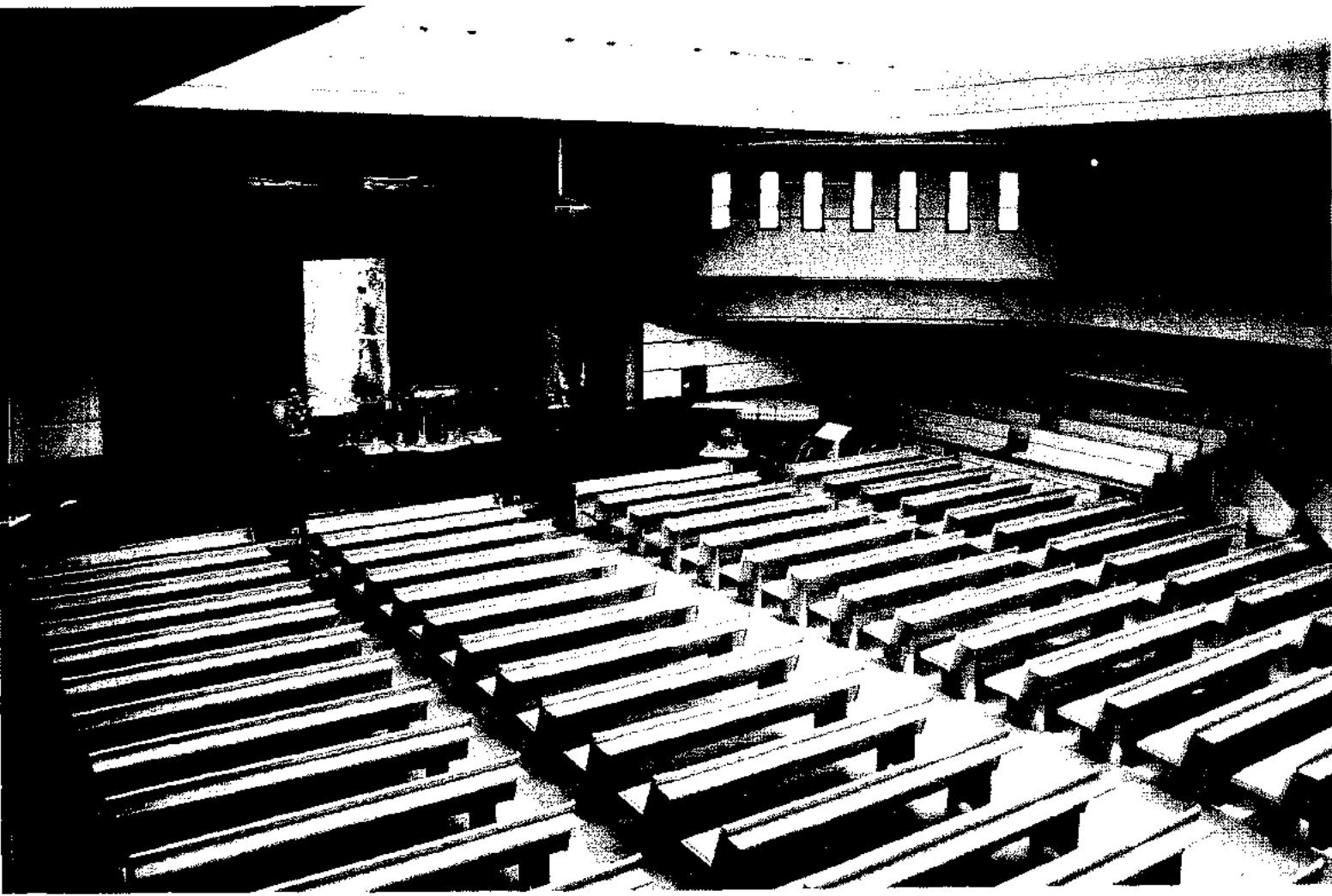


1층 평면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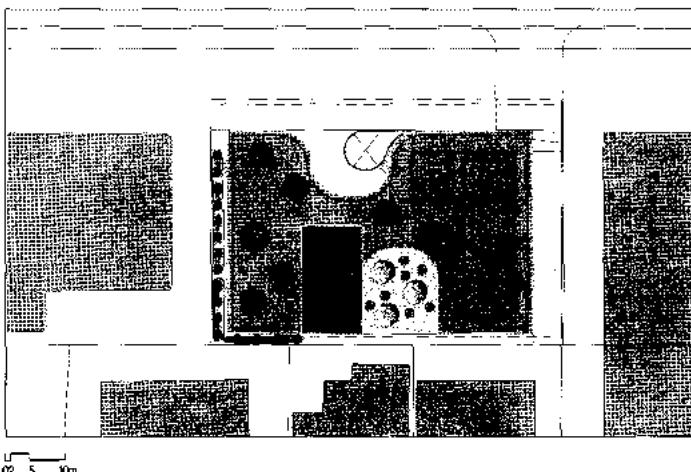


## 회원작품 | Works

조민석 / (주)건축사사무소 매스터디스  
by Cho, Min-suk  
박기수 / 정희원, (주)건축사사무소 매스터디스  
by Park, Ki-su, KIRA

# 스타 갤러리 브릿지 Star Gallery Bridge

### ● 배치도



### ● 건축개요

대자위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3-3번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주요용도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850.88m <sup>2</sup>
건축면적	507.64m <sup>2</sup>
연면적	9,078.51m <sup>2</sup>
건폐율	59.66%
용적률	695.87%
규모	지하 5층, 지상 13층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	스틸커튼월, Thk24, Fritted Glass
구조설계	터구조
토목설계	한국지오
기계·전기	하나기연
시공사	MGL 건설
건축주	(주)에이치에스지
사장	김용관

Location 1533-3,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Site area 850.88m<sup>2</sup>  
Bldg area 507.64m<sup>2</sup>  
Gross floor area 9,078.51m<sup>2</sup>  
Bldg coverage ratio 59.66%  
Gross floor ratio 695.87%  
Structure S.R.C  
Bldg. Scale B5, F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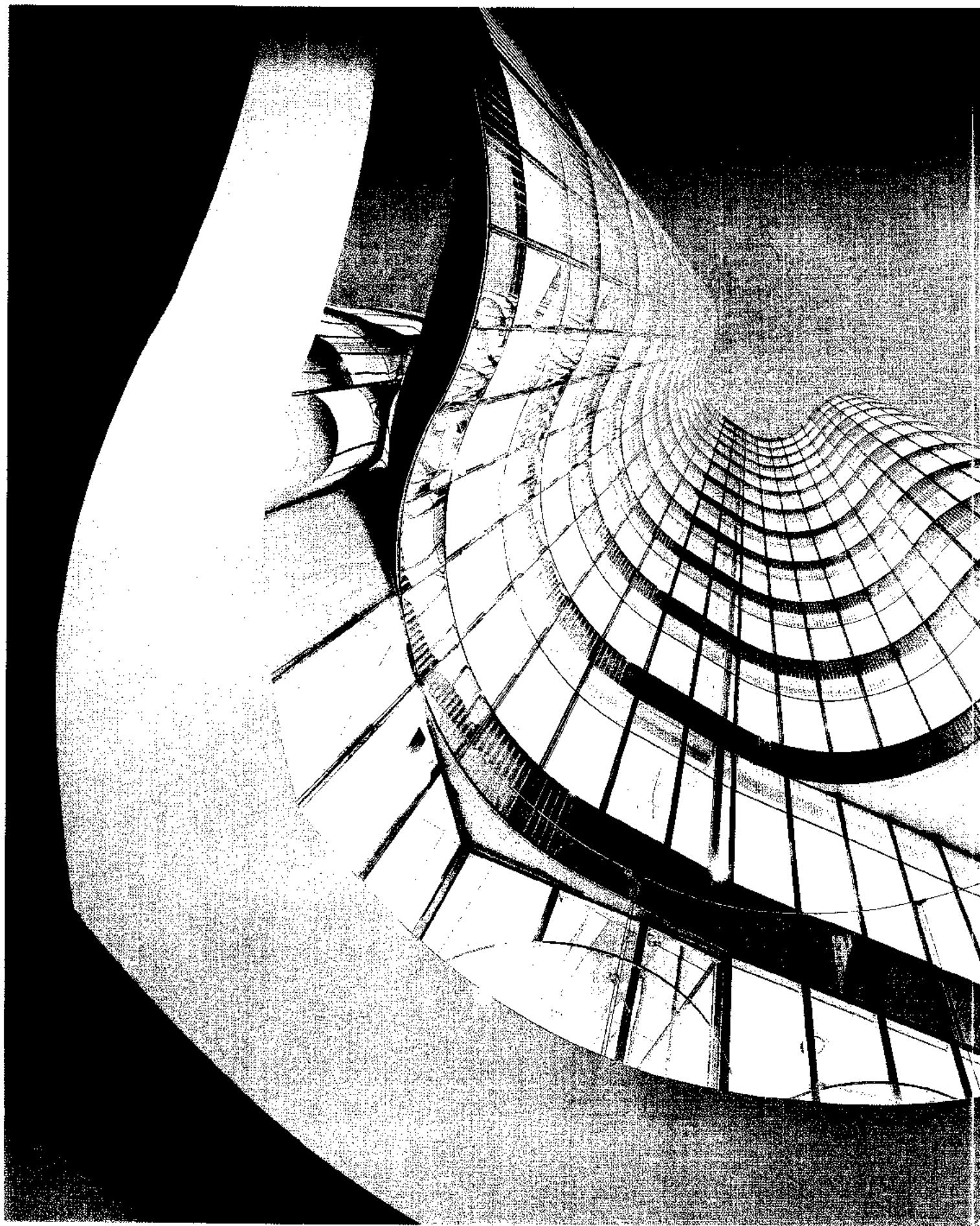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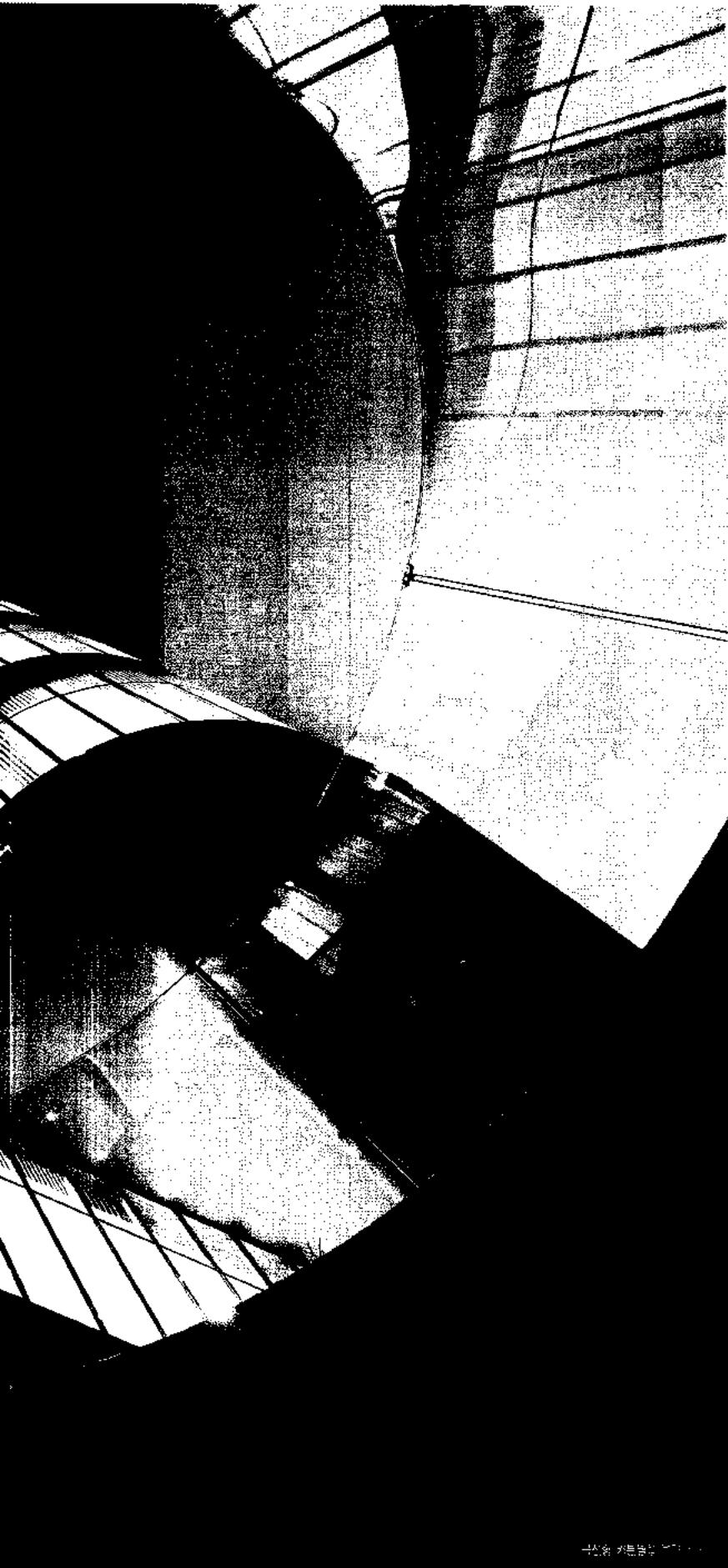
ENCE

아동나 종합감전

아동학원







이 업무용 건물은 하나의 타워를 양쪽으로 잡아늘여, 두 개로 갈라진 타워 사이가 표면장력으로 인해 오목해진 듯한 형태로 계획되었다. 평면은 두 개로 갈라진 사무공간과 코어가 훌 역할을 하는 폭 5.5m의 브릿지로 연결되어있는 H형 평면으로 계획되었다. 기존의 오피스 코어 공간이 공용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노출이 되지 않은 공간으로 계획되었던 것과 달리, 이 '사회적인 브릿지(Social Bridge)' 공간은 전망이 앞뒤로 드여있어 이 타워에서 가장 외부와 접촉을 많이 하는 공적인 성격을 갖는 공간이다.

거대한 Glass Curtain을 연상케 하는 곡선형의 입면은, 형태적으로 건물의 인상을 특징지을 뿐 아니라 대지의 전면폭(31m)보다 긴 39m길이의 창을 갖는 평면이 되도록 하여 사무실의 채광조건을 좋게 한다.

곡선형 커튼월에는 Fritted Glass를 사용하여 외벽에 접하는 실내 공간의 용도나 물리적 조건에 따라 불투명에서 투명으로 농도를 달리하는 입면이 되도록 하였다.

곡선의 글라스 커튼월로 계획된 북쪽 입면과 달리, 남쪽 입면은 두 개의 슬림한 타워가 두드러져 보이는 수직적인 입면으로 계획되었다. 코어가 드러나는 부분은 브릿지공간(Void)과 대조되는 Solid한 느낌의 돌로 마감하고 각층의 사무공간에 계획된 목재 발코니에는 난간을 대신하는 Stainless Steel Mesh로 마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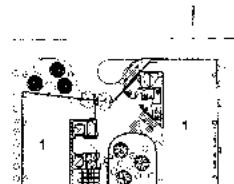
인접건물들과 불과수 미터를 두고 면해있는 동/서측 입면은 반투명한 Polycarbonate로 마감하여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채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개층 단위로 엇갈려 배치 되어있는 각 층 사무실 천장의 원형 각진 등 Cove와, 불규칙하게 뿌려진 듯 배치된 다운라이트는 야간에 독특한 경관을 연출한다. ■

- 01\_근린생활시설
- 02\_방재실
- 03\_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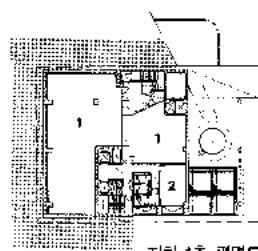
옥상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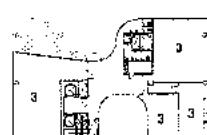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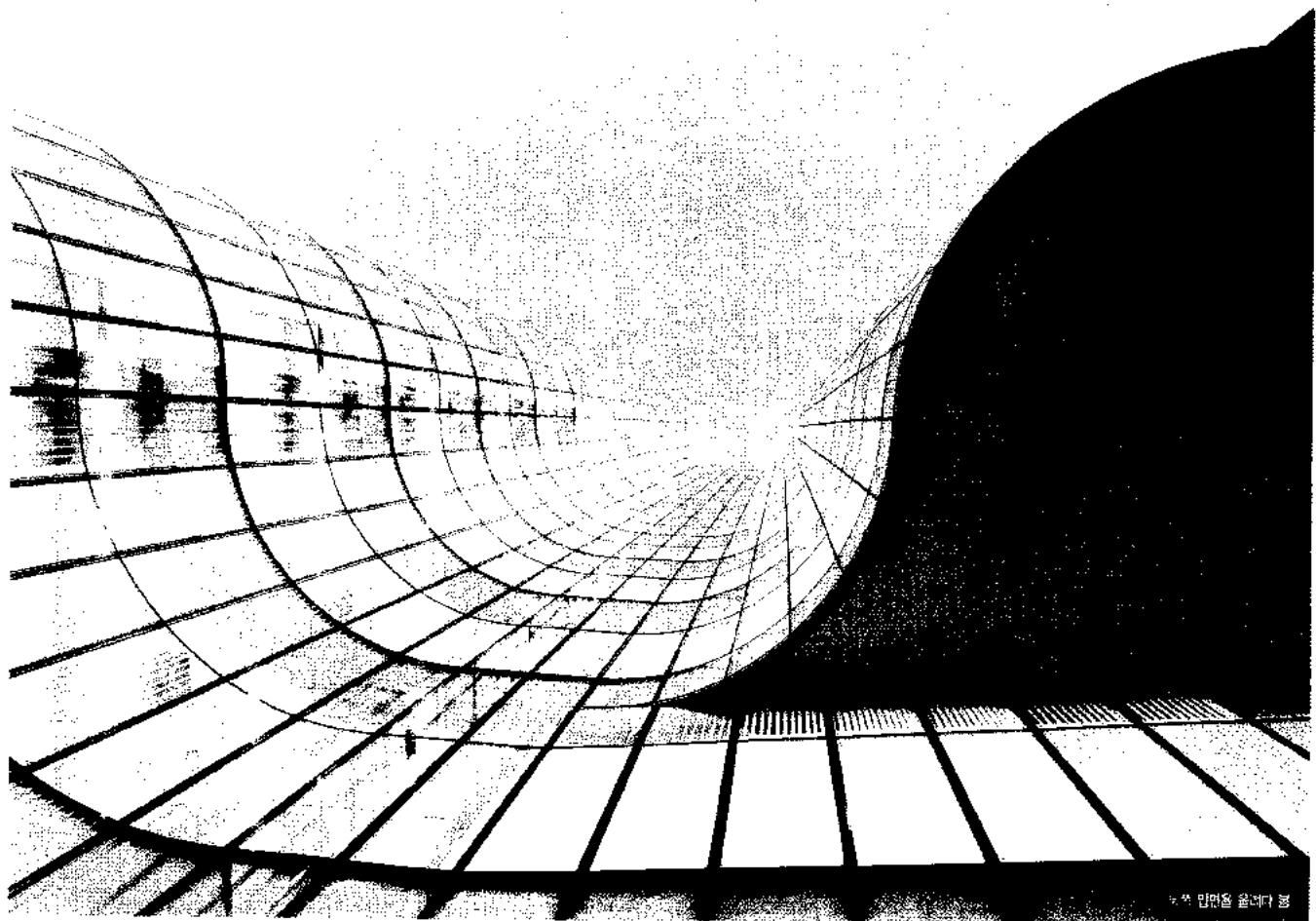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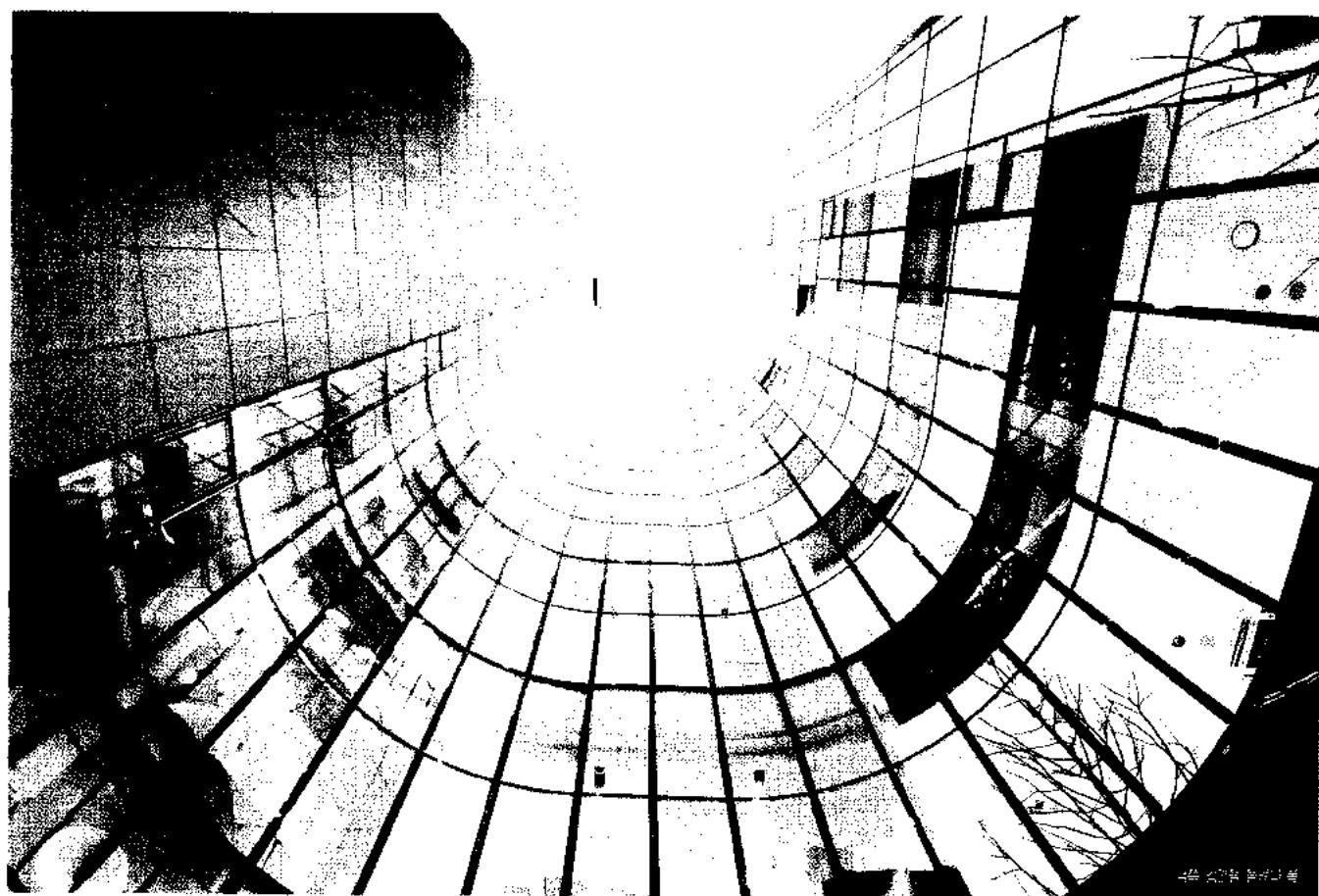
3층~1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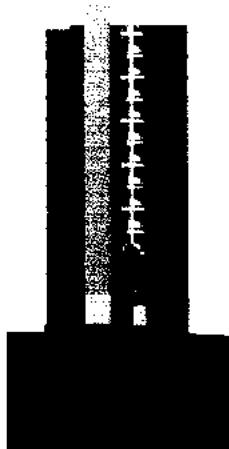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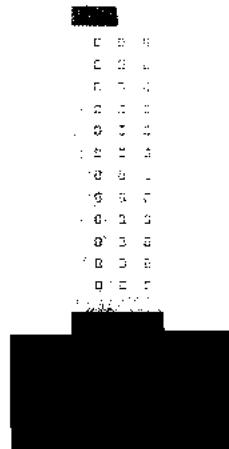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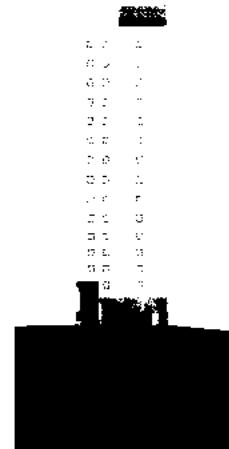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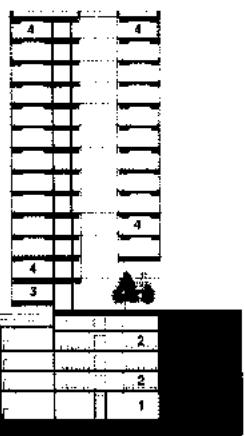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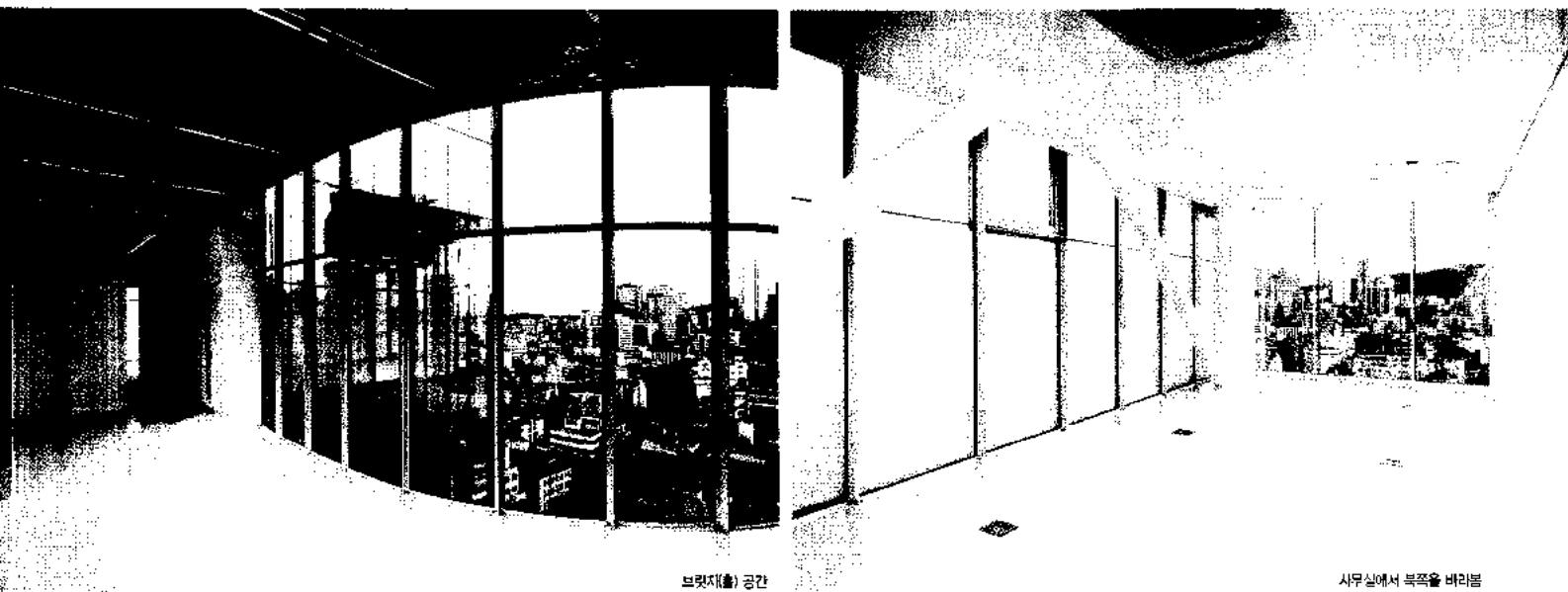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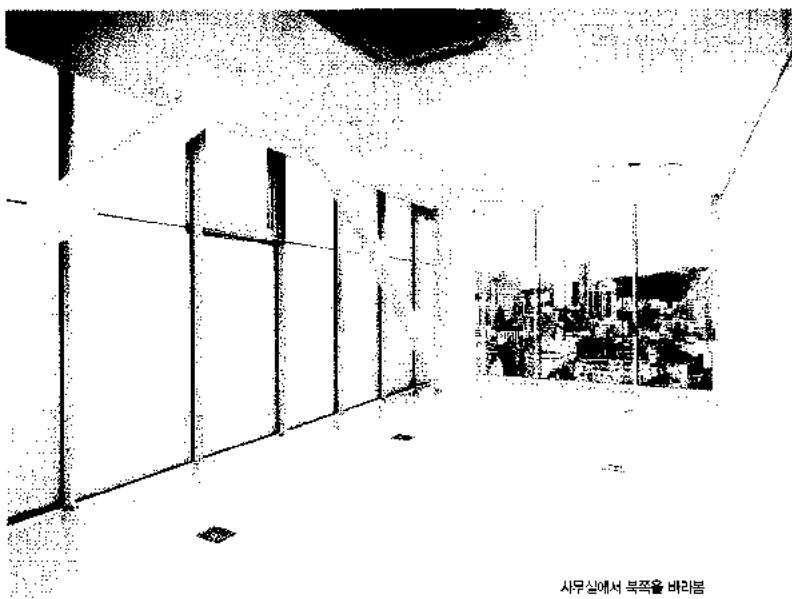
- 01\_ 기계/전기실
- 02\_ 주차장
- 03\_ 근린생활시설
- 04\_ 일부시설



단면도



브릿지(을) 공간



사무실에서 북쪽을 바라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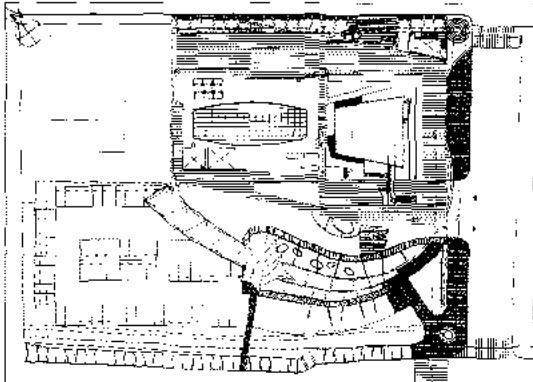
112

사무실에서 남쪽을 바라봄

## 인천하버파크호텔

Incheon Harbor Park Hotel

## ● 배치도



## ● 건축개요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대지면적	7,090m <sup>2</sup>
건축면적	2,836m <sup>2</sup>
연 면 적	20,067m <sup>2</sup>
건 폐 율	40.01%
용 적 율	209.88%
규 모	지하 2층, 지상 15층
외부마감	알루미늄 루버, T24 칼라복층유리, T10 강화유리, 볼소코팅 아연도강판, 화강석
주요시설	객실(213실), 전문식당, 스카이라운지, 대/중 연회장, 비즈니스센터
설계담당	총괄_최창섭, 박명협 인회석, 김미경, 이경환, 김삼수, 이석우, 정민희, 이상출, 김태근, 천명혁

Location Hang-dong, Jung-gu, Incheo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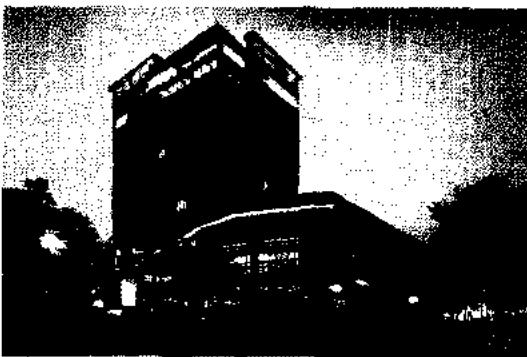
Site area 7,090.5m<sup>2</sup>Bldg area 2,836m<sup>2</sup>Gross floor area 20,067m<sup>2</sup>

Bldg coverage ratio 40.01%

Gross floor ratio 209.88%

Structure R.C.R

Bldg. Scale B2, F15



인천하버파크호텔은 인천시 항동 (구) 경찰청부지에 자리한 호텔이다. 이 호텔은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대비한 수박시설의 확충과 인천지역의 균형발전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75%의 바다조망과 주동을 북서쪽으로 배치하여 통경축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 도로변의 여유공간 확보로 호텔 외부공간과의 연계성이 우수하다.

매스의 조형 및 입면은 동대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주동조형의 상징성, 파도를 조형적으로 표현한 역동성, 내지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수렴성의 성격을 갖는다. 외부공간 프로그램은 크게 환영의 거리, 빛의 광장, 노을못 정원 / 노을빛 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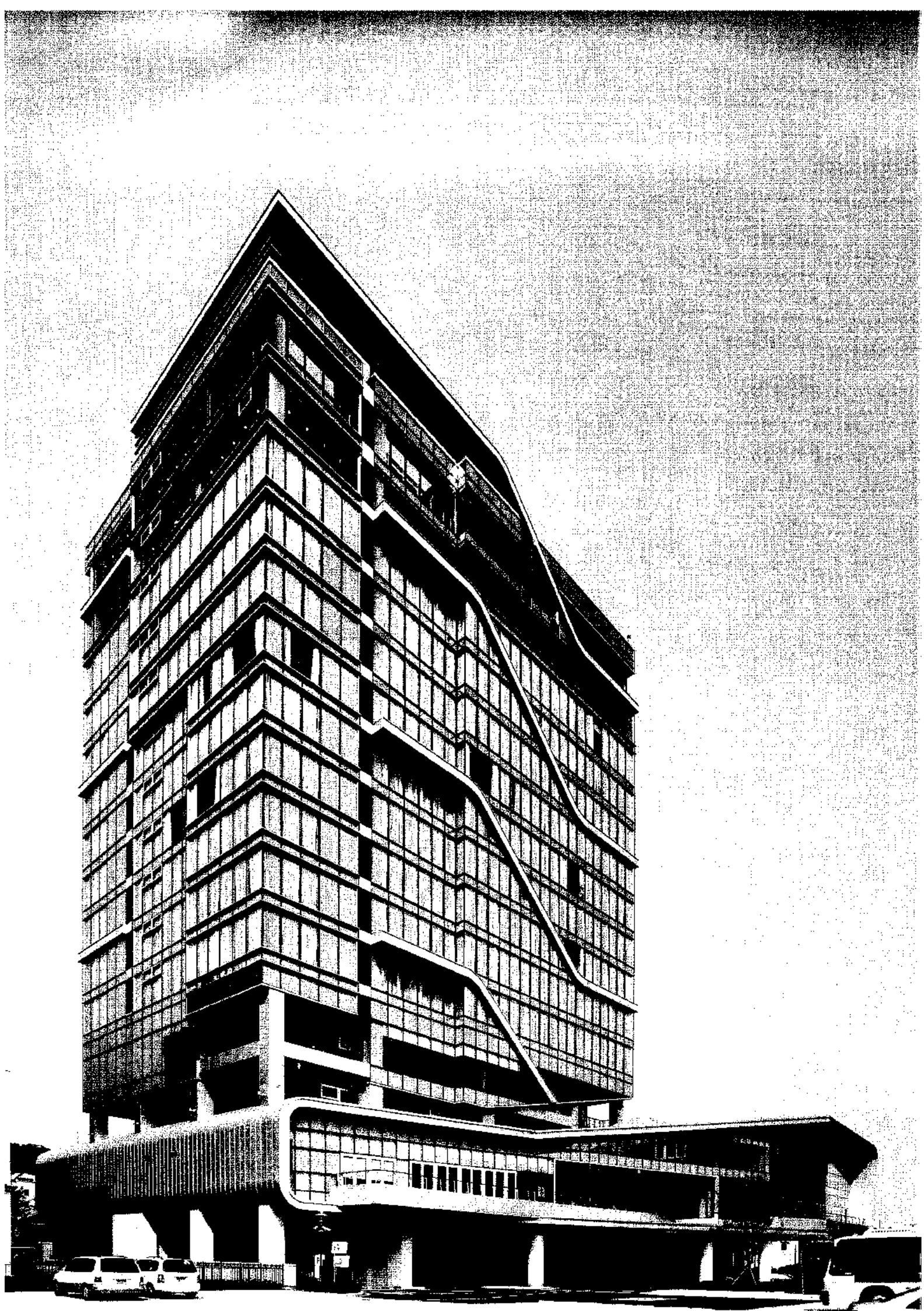
벽, 저층부의 옥상정원으로 나뉜다.

관광객들의 휴식처가 되는 만남의 공간, 호텔 진입 공간, 이벤트 공간, 지역 역사를 도식화한 도판타일, 마운팅, 바다로의 열린 조망 등 각 외부 공간 계획은 다양한 가치관, 역사문화적 흔적, 산업의 활발한 흐름이 공존하는 도시, 지역경관이 지니는 감성적 특성을 살려 계획되었다. 또한 각 층의 내부공간은 명확한 조닝과 안정성(지하 1층), 다양한 기능과 행사(1, 2층), 이외데크를 연계(3층), 바다조망의 확보와 편의시설(4층), 바다조망의 라운지와 전망대(15층) 등의 성격을 갖는 커뮤니티 공간과 함께

께 조망과 프라이버시를 확보한 객실층으로 구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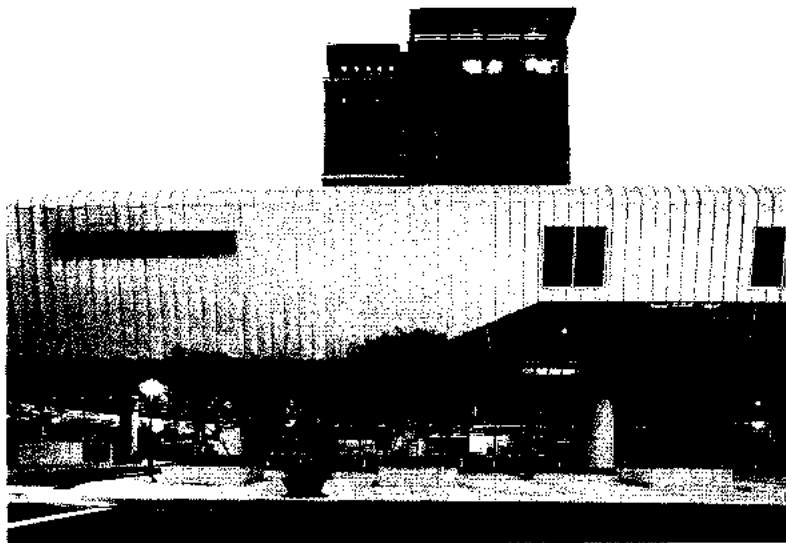
인천하버파크호텔의 부지는 우수한 자연경관과 근대건축물이 밀집한 역사적으로 가치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다.

인천하버파크호텔은 향후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입국할 관광객을 위한 숙박 및 편의 공간을 제공하게 되며 지역주민에게는 외부공간을 개방하여 만남과 휴게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구도심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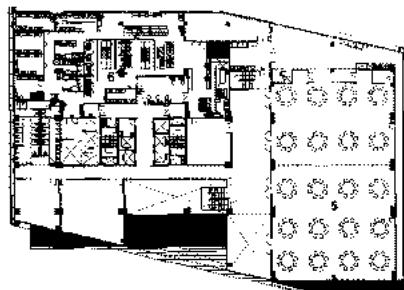




2층  
1. 선관  
2. 관관  
3. 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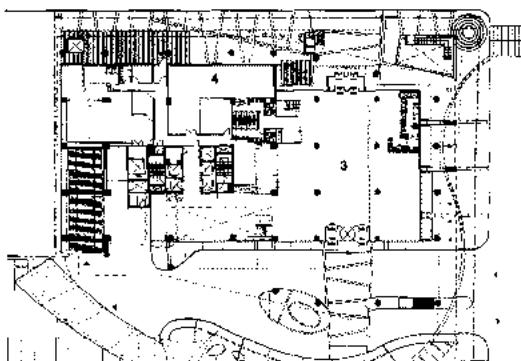
01. 차주차장 05. 대연회장  
02. 계약률 06. 복합주방  
03. 모비 07. 승연회장  
04. 관리사무실 08. 힐트니스  
09. 휴게실  
10. 풋스탠  
11.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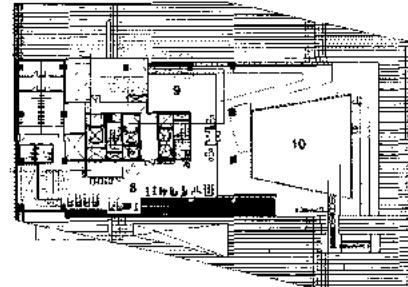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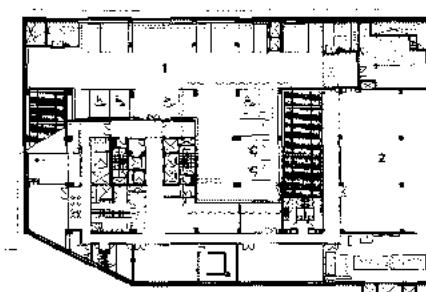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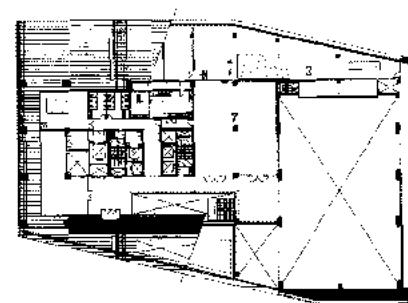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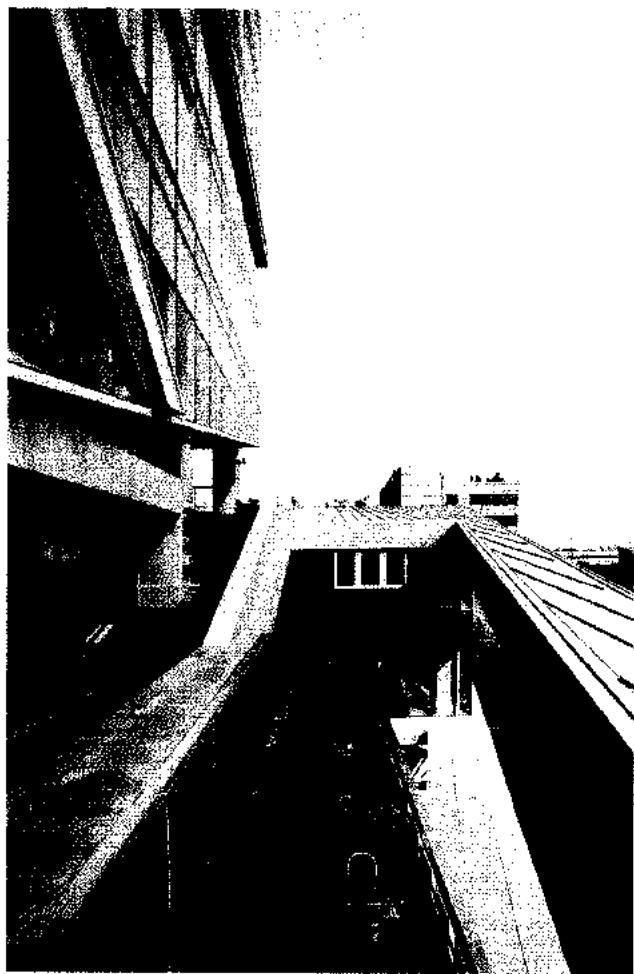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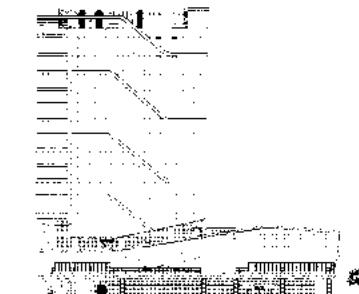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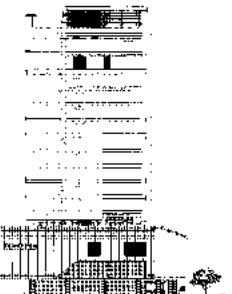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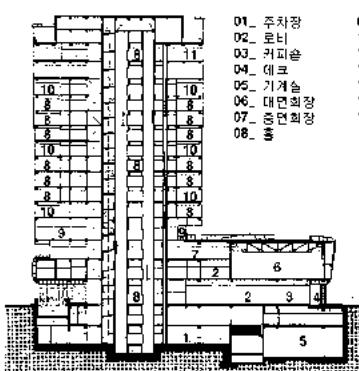
1 3  
2 4 5  
1. 주차입구 4. 라운지  
2. 대크 및 옥상정원 5. 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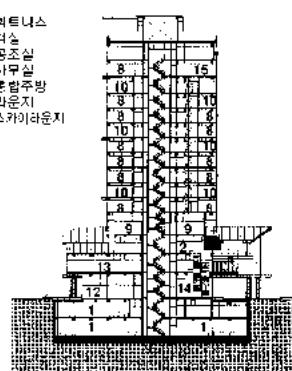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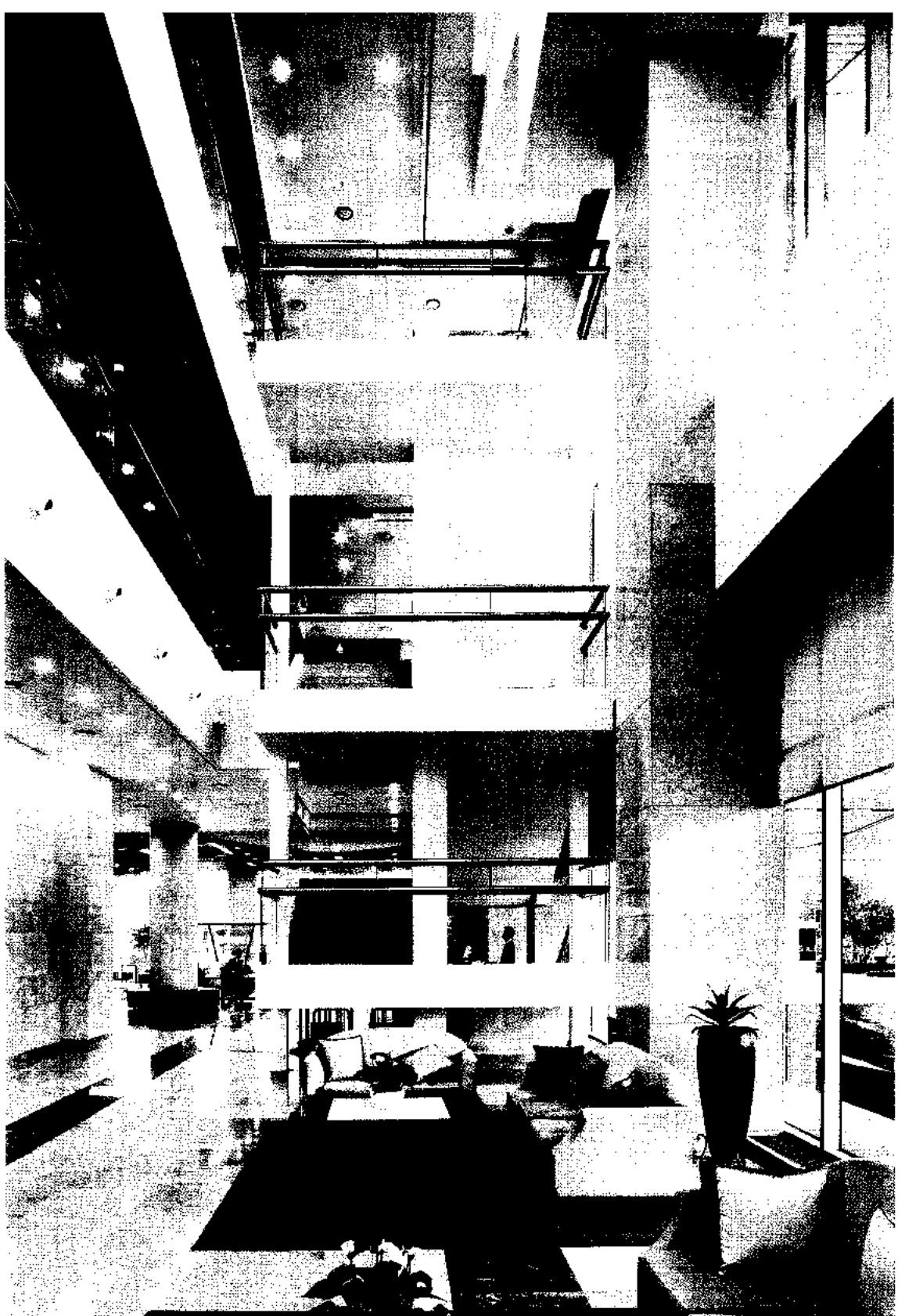
우측면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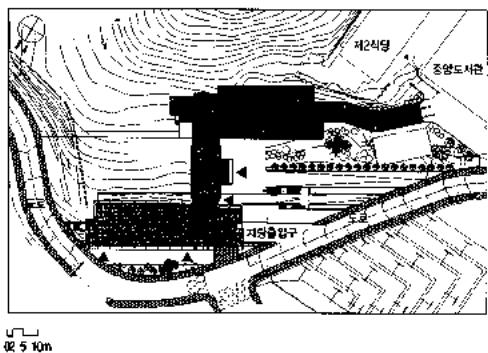
종단면도



## 경기대학교 종합연구동

### Kyonggi University Research Complex

## ● 배치도



##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94-6번지 외 65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임야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교수연구실)
대지면적	486,907.00m <sup>2</sup>
건축면적	31,884.18m <sup>2</sup> (중축:1,699.18m <sup>2</sup> )
면적률	122,870.26m <sup>2</sup> (중축:7,405.05m <sup>2</sup> )
건폐율	6.55%(중축:0.35%)
용적률	22.76%(중축:1.50%)
규모	지하 2층, 지상 8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THK3 알미늄쉬트/불소수지도장
구조설계	가나구조기술사사무소
설비·전기	(주)수양엔지니어링기술사사무소
시공사	대양건설주식회사
설계담당	문일성, 박정원, 김승훈
사진	채수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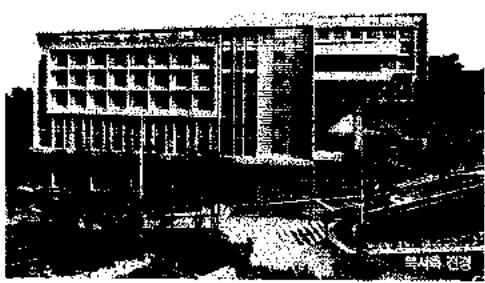
Location San94-6, Iui-dong, Yeongtong-gu, Suwon-si, Gyeonggi-do, Korea  
 Site area 486,907.00m<sup>2</sup>  
 Bldg area 31,884.18m<sup>2</sup>  
 Gross floor area 122,870.26m<sup>2</sup>  
 Bldg coverage ratio 6.55%  
 Gross floor ratio 22.76%  
 Structure R.C  
 Bldg. Scale B2, F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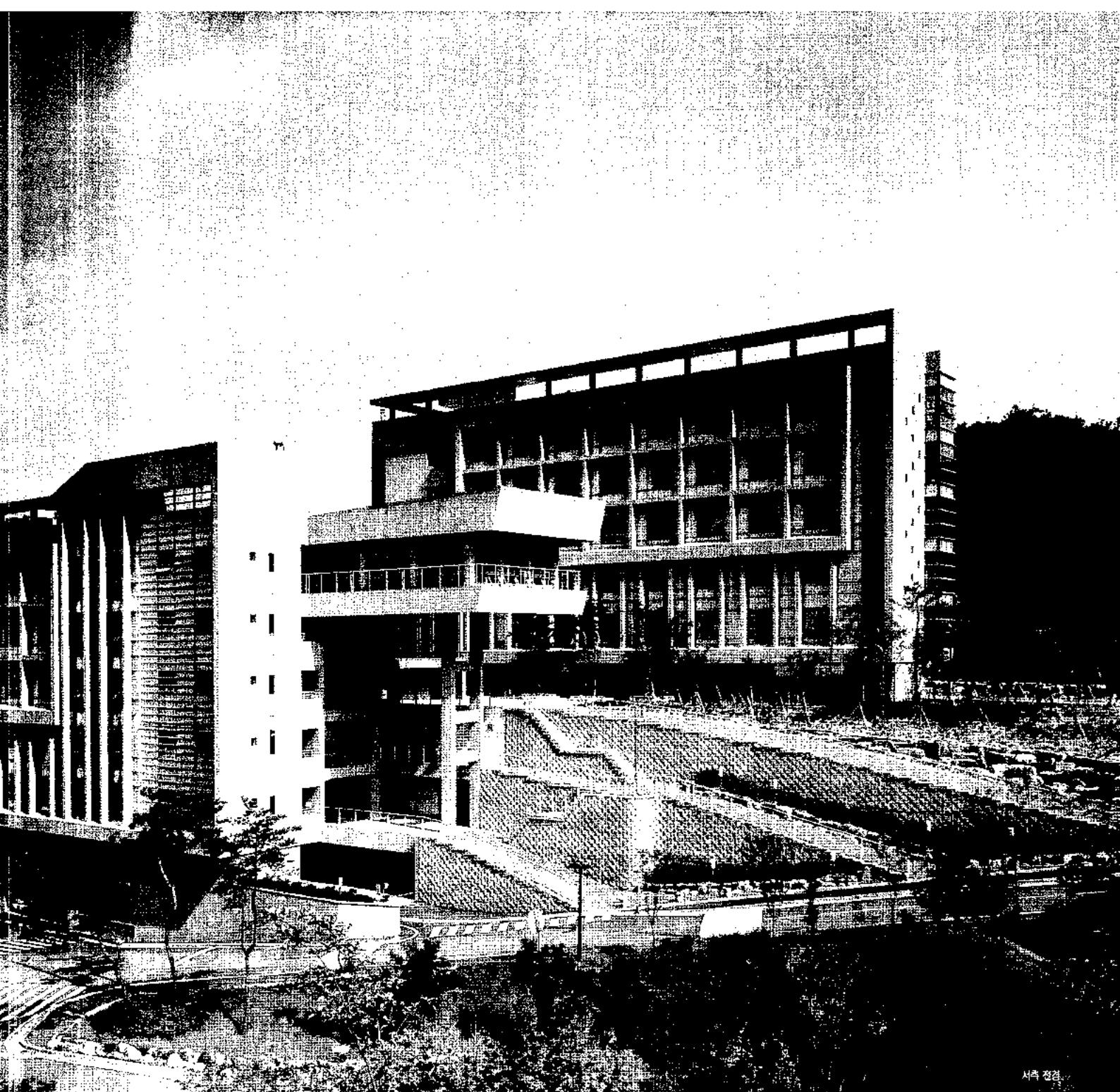


## 세계와 미래로 열린 창

경기대학교 종합연구동은 경기대학교 개교 후 최초로 설계경기방식으로 실시한 프로젝트였다. 대지의 위치는 수원캠퍼스 중앙에 위치하며 약 24m의 고저차가 있는 수렴 대로서 비교적 양호한 녹음이 우거져 있어 훼손하기 아깝게 느껴졌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요소는 자연훼손의 최소화, 인공조경의 배제, 기존 자연수림의 최대한 이용을 기본개념으로 교수연구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쾌적하고 정숙한 분위기를 창출하고자 노력하였다.

배치계획\_대지의 고저차를 이용하여 입체적인 필로티 주차방식과 연구실로의 접근방식을 최적화 하였다. 건물의 매스계획은 2동으로 분리하고 이 2동을 이어주는 아트리움을 통하여 연구원들의 커뮤니티공간을 마련하였다. 2개의 연구동 매스와 아트리움은 레벨이 다른 대지를 소유하고 있고 지형의 고저차를 이용한 매스들의 조합은 조형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고 건물의 어느 부분에서나 자연수림의 조망권을 갖는





서측 전경

동시에 대지의 고저차를 이용, 진입광장의 입체적인 녹지축을 통한 접근성을 확보 할 수 있었다.

**평면계획** 주어진 스페이스 프로그램상 중복도형의 연구실 배치는 피할 수가 없었고 쾌적한 연구동의 공간조성과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복도의 자연채광, 자연환기에 중점을 두었으며 각 층마다 회의실, 휴게공간을 배치하고 간단한 샤워시설과 조망이 양호한 휴식공간을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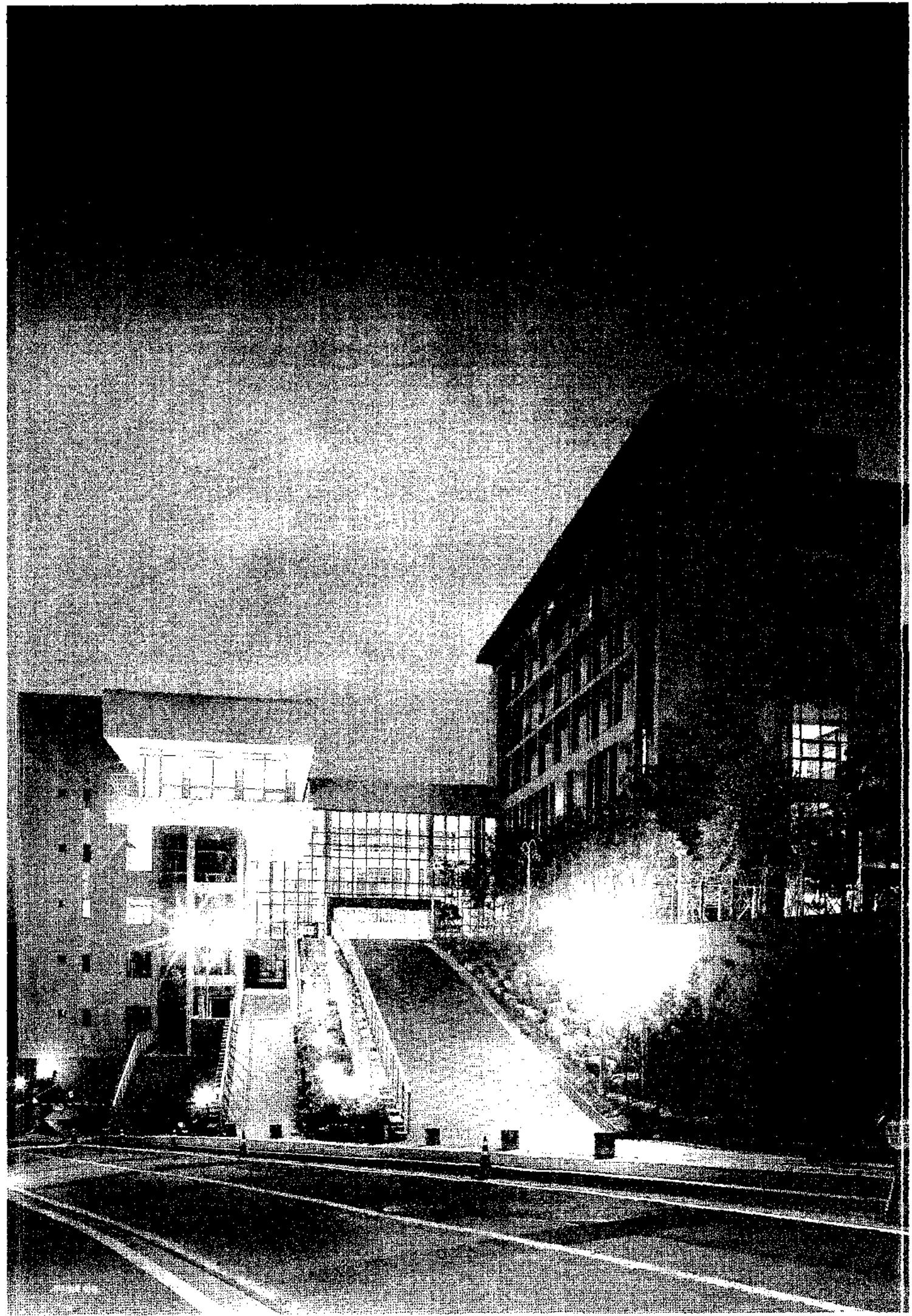
**입면계획** 경기대학교를 대표하는 '새로운 지식의 세계와 미래로 열린 창'의 이미지표현과 우리나라 전통건축의 창호문양과 경기대학교의 CI에 기초한 입면디자인, 뒷도체침의 정돈된 이미지 표현으로 첨단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단면계획** 경사진 지형에 순응하는 단면계획으로 토목공사의 최소화, 공

간변화를 통한 체험의 다양성부여, 유지관리의 효율성 및 주변자연을 고려한 기능별 적정 층고계획, 절·성토량을 합리적으로 계획하여 경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조경계획** 인공조경을 최대한 배제하고 기존 자연생태계를 최대한 활용하며, 경사진 전면도로를 의식하여 입체적인 녹지공간을 통한 각 층별 접근성을 극대화 하려 하였다.

아트리움과 식당\_경사진 대지 때문에 3개층 높이차이로 벌어진 2개의 연구동을 이어주는 아트리움은 커뮤니티의 장이며 홍보 및 전시공간이다. 3층 높이의 투명한 외파는 후정의 자연수림과 진입광장의 풍경을 남고, 전면 좌측에 매달린 식당은 진입광장의 오브제로서 휴먼스케일의 외부공간을 의식함에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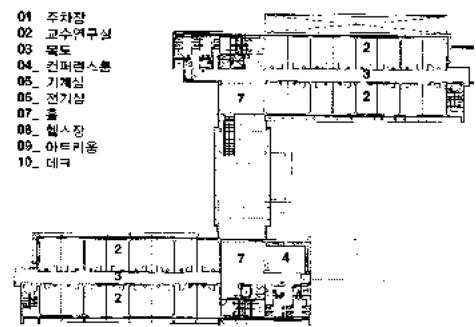


모습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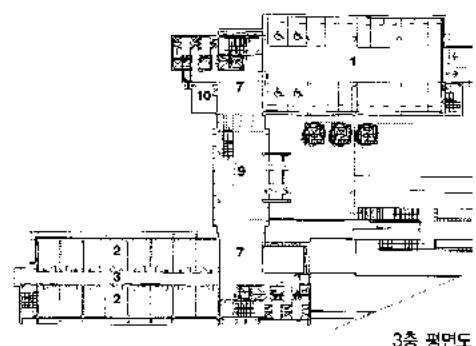


모습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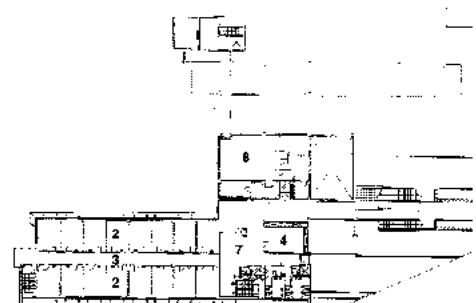
- 01\_주차장
- 02\_교수연구실
- 03\_목도
- 04\_컴퍼런스룸
- 05\_기계실
- 06\_전기실
- 07\_홀
- 08\_헬스장
- 09\_아트카페
- 10\_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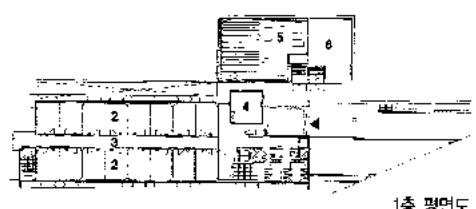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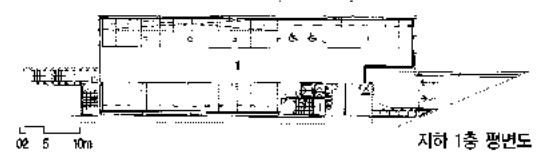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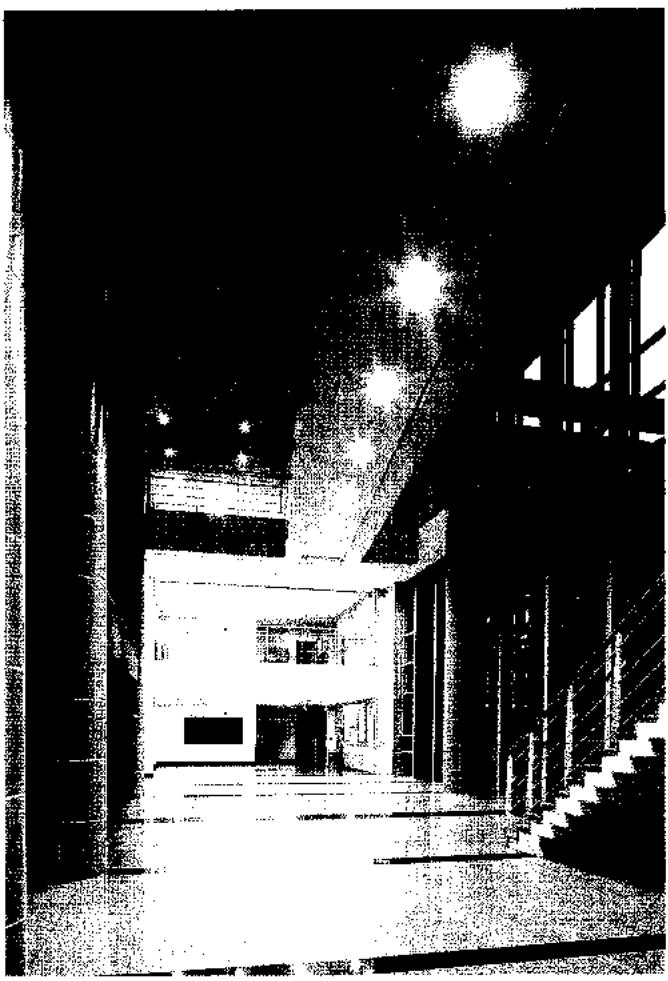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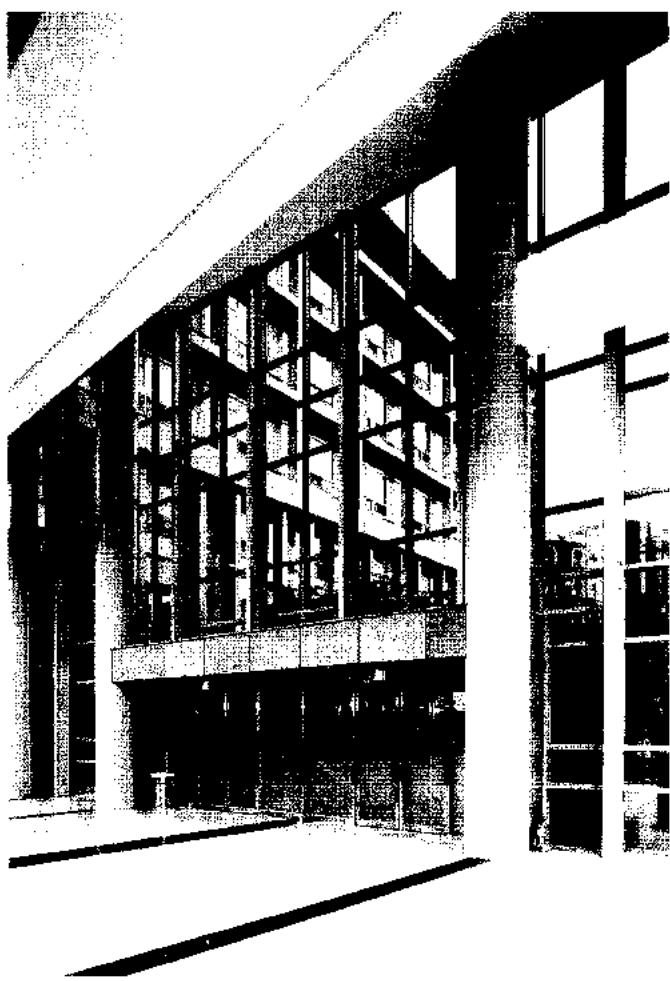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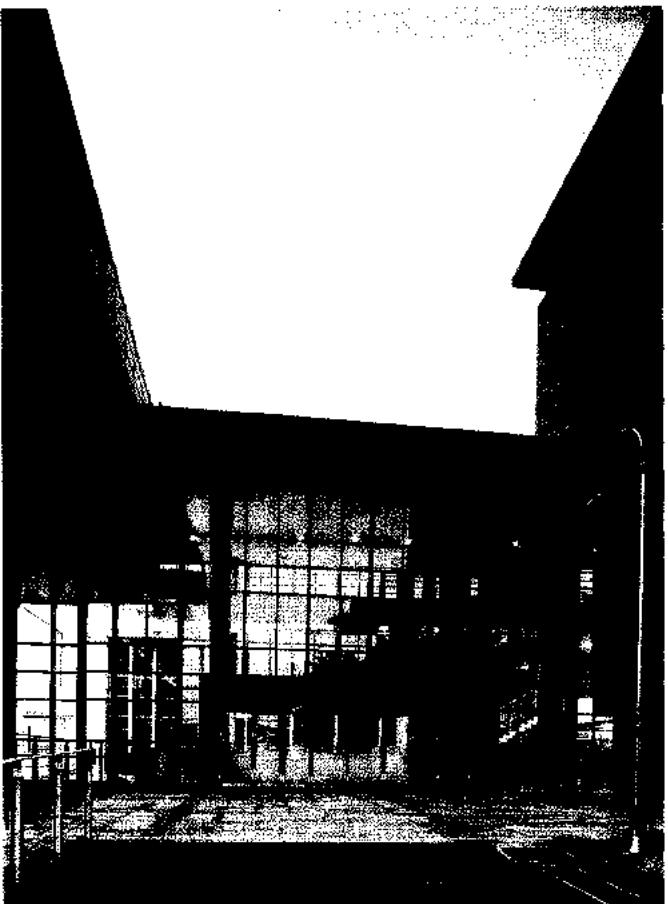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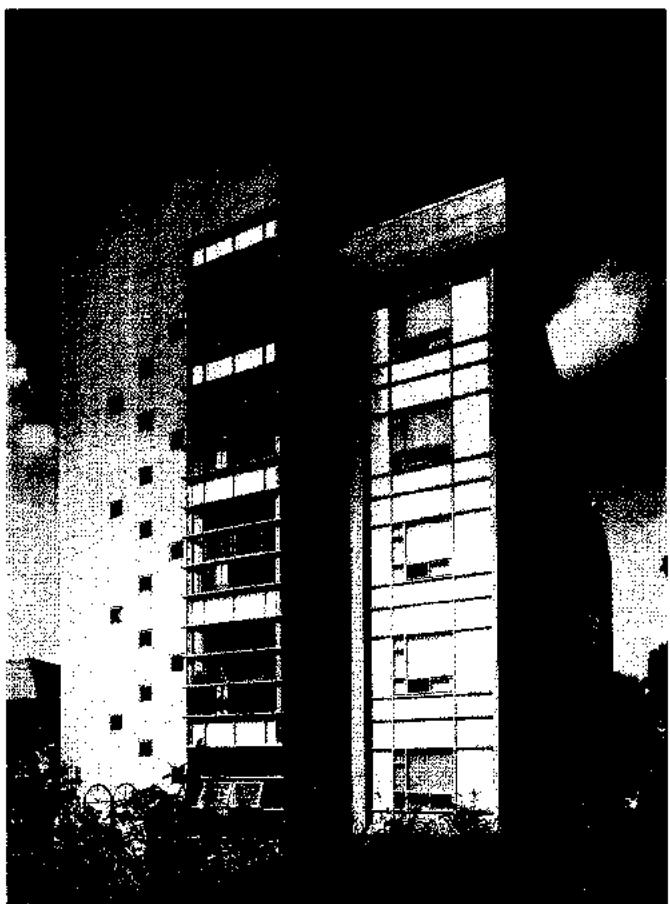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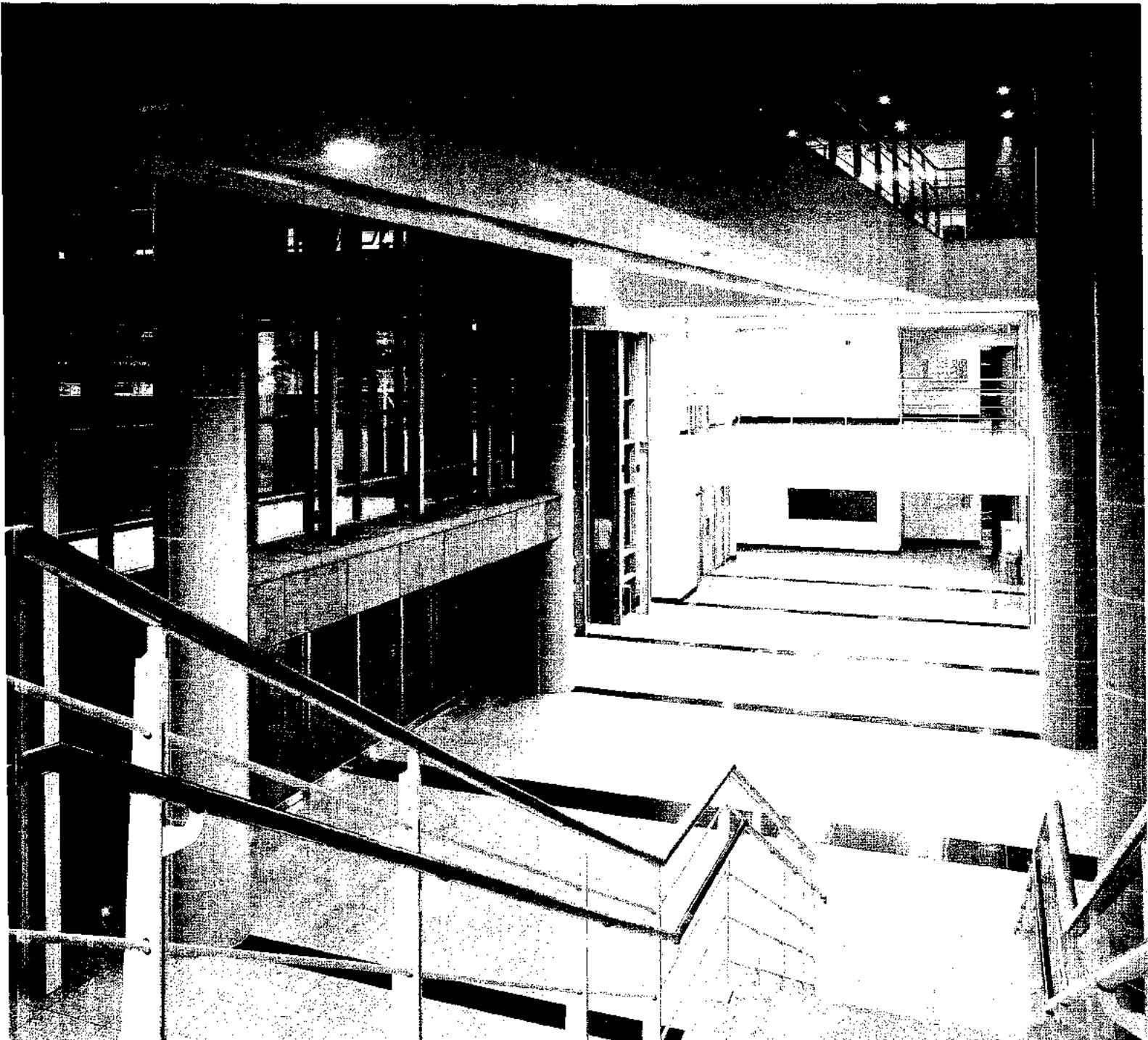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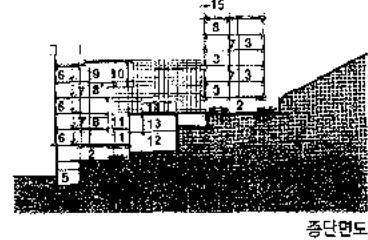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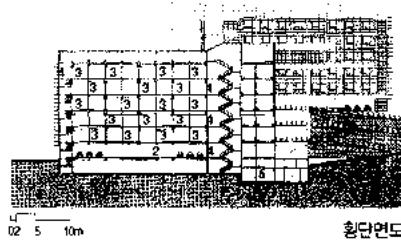




1. 포도주 선경  
2. 주출입구  
3. 미드리움에서 본 주출입구  
4. 이트리움 내 연결보도자

5. 4층에서 본 이트리움

01_ 말로니	06_ 화장실	11_ 통로
02_ 주차장	07_ 복도	12_ 기계실
03_ 교수연구실	08_ 컨퍼런스룸	13_ 월스워
04_ 개인실	09_ 주방	14_ 전경
05_ 오수처리실	10_ 식당	15_ 지동



## 여성건축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Past, Present, and Future of Women Architects

이재림 / 대한여성건축사회명예회장, (주)지담 종합건축사사무소  
by Lee, Jae-rim

### 서 언

#### 현황점검 및 개선 방향 모색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며 경제적인 면에서는 국가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사회 전반적인 인식과 복지 수준은 경제성장 속도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성에 대한 인식은 경제 소비의 주체에서 경제생산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며 과거에 비해 많이 변화되었고 여성의 사회 참여율 역시 10년 전과는 큰 차이를 보이며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여성으로서의 근본적인 어려움과 사회활동을 충분히 포기하게 만드는 불평등한 현실은 여성인력이 해마다 늘어난다는 정부의 통계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즉 현실적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당국의 의지와 정책이 아직은 미흡한 듯 하다.

#### 건축환경의 변화

과거 산업화 전략에 따라 고성장과 공급자 우선이었던 건축정책은 현재 관리 및 사용자 우선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나. 그리고 앞으로는 건축과 환경이 공존하고 자연이 존중되는 친환경 그린네트워크 정책이 추진될 것이 분명하나. 또한 여성건축사를 비롯한 신진여성건축인들은 남성의 관점에서 조성된 환경에서 남녀노소가 평등적으로 살아왔던 기준의 상황을 비판하며 사용자 중심의 생활환경 창출을 목표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다른 분야의 여성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축환경의 변화는 미래의 여성건축인들이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분으로서 여성건축사들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 '건축기본법'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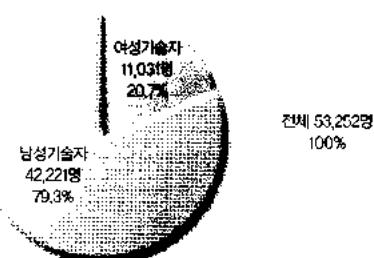
건축의 정체성 및 개념을 재정립한 '건축기본법'의 발효는 우리 여성건축인들과 건축계가 힘을 합하여 탄생시킨 역작이라 할 수 있다. '건축기본법'은 건축행위를 건설의 보조수단으로 여겨 여성과 신진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었던 그 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 건축 본연의 가치와 건설의 상위 개념으로서의 체계를 확립한 일종의 「선언법」이다. 이 법령의 시행은 향후 여성건축사를 포함한 신진건축인들에게 직업 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고 디자인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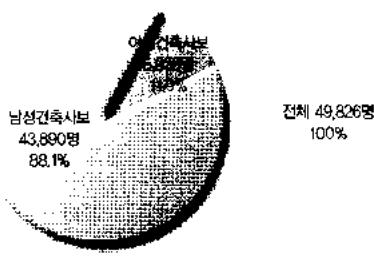
#### 여성건축인들의 활동 점검

예전에 비해 건축관련학과에 진학하는 여학생들이 눈에 띠게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여성건축인력의 배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업계에서 차지하는 여성인력의 비중이나 영향력은 아직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성건축인력은 어렵게 취업의 문을 통과하고 난 후에도 남성중심의 기업문화속에서 여성에 대한 선입견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결혼·출산·육아·자녀교육의 의무로 많은 부담감을 느낀다. 이러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한건축사협회와 교육과학기술부의 통계자료를 보면 2006~2008년 까지 건축관련 전공자 중 졸업자는 남성 79~75%, 여성 21~25% 수준이며 대학졸업자의 취업률은 남성 84.9%, 여성 79.0%로 여성의 취업률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비율은 근소하지만 여성 인력의 이직률, 취업만족도 등 세부적인 통계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림 1>에서 보여시듯 대한건축사협회에 등록된 여성기술사는 전체 53,252명 중 11,031명으로 20.7%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술자는 대학 졸업 후 1년, 전문학교 졸업 후 3년, 고등학교 졸업 후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재직한 경력자를 말한다. 이 수치는 건축관련 졸업



<그림 1> 기술자 등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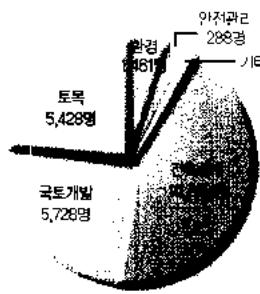


<그림 2> 건축사보 등록현황(대한건축사협회 2009년 8월)

## 건축환경변화에 따른 제도 변천과 미래예측



〈그림 3〉 건축사 등록현황(대한건축사협회 2009년 8월)



〈그림 4〉 등록현황(한국건설기술인협회, 2008년)

자의 여성비율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그림 2〉의 건축사보 현황을 보면 전체 등록자 49,826명 중 여성건축사보는 5,936명으로 11.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그림 3〉의 건축사 등록현황을 보면 전체 등록자 8,034명 중 여성건축사가 345명으로 4.3%를 차지하고 있다.

위 세 그림을 종합하면, 여성건축기술자 비율은 20.7%, 여성건축사보는 11.9%, 여성건축사는 4.3%로 상위직에 올라갈수록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여성의 중요 포기는 퇴직으로 이어지고 복직의 기회도 용이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여성건설전문인력이 활동하고 있는 분야는,

건축설계\_ 10,740명(44.9%), 국토개발\_ 5,728명(23.9%), 토목\_ 5,428명(22.7%), 환경\_ 1,461명( 6.1%), 안전관리\_ 288명( 1.2%)로 분포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자료에 따른 것으로 건축사무소에 근무하는 여성들의 인적사항이 누락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여성건설전문인력이 대부분이 건축설계분야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여성건설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건축인력이 경력 5년에서 10년 사이에 중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은 10년 이상의 경력자 수가 적어짐은 물론 소속집단을 이끌 수 있는 여성건축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을 의미하게 된다. 또한 전체 여성기술인력의 활동 공백을 초래하여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직장 내에 상위직 여성의 부족하여 를 모델을 찾을 수 없고 목표와 동기 부여의 확신이 어려워 이직 및 중도 포기로 악순환 될 가능성도 있다.

건설업계에 진출하는 여성인력이 꾸준히 증가하는데 비해 건축분야는 건축설계 등 몇 분야에 뻗증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는 네트워킹과 정보 부재 그리고 사회의 고정 관념이나 선입견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1960~2000년까지는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을 근간으로 하여 개발성장시대를 지향 함으로써 택지공급 시스템, 도시지역의 개발, 주택공급 촉진, 기존 시가지 정비 등 건축물의 양적 팽창이 실현되었었다. 반면에 지금은 과거의 성장방식에서 생기 도시문제의 해결대안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 정책들이 행정 전반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자연환경과 도시경관의 훼손은 물론 기반시설의 과부하와 공해 등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발생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주도의 '자속 가능한 개발'을 선언하며 국토관리시스템, 선계획·후개발, 복합도시개발 등의 조치를 단행하였다. 분당신도시의 탄생이 대표적 예이다. 말 많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건축기준을 강화하는 등 건축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들이 시작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건강한 삶 풍요로운 삶에 대한 국민 의식이 고조되면서 도시와 건축환경에도 이에 걸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택성능평가

2006년 개정 시행된 '주택법'에 의해 '주택성능평가 제도'가 일정규모 이상의 주거단지에 적용되고 있다. 공동시설에 대한 생활환경 등급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제도는 설계기법은 물론 신기술·신공법·신소재 개발을 통해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주요사안이 된 것이다.

### 친환경 인증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2002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다. 그 후 2003년에는 주거복합 건축물과 업무용 건축물, 2005년에 학교, 2006년에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이 추가되었고 앞으로도 인증대상이 확대될 것이다. 건축의 질을 판가름할 척도이기에 설계기법 등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 에너지 절약형 건축

2004년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하고 있으며 절전형 LED 등의 설비 설치가 권장되고 있다. 어느 순간 민간건축물도 이를 수용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 도시경관 개선

경관은 주변과의 조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관기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 경관화보를 위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즉 건축과 다른 시설물의 어울림을 위한 Total-Design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수용여부가 건축사를 포함한 건축전문인들의 능력을 기능케 하는 강력한 수

단이 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건축설계에 차중되어 있는 여성건축사 들에게는 업무영역의 확장과 디자인 경쟁력의 강화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가 될 것이다.

## 건축기본법의 이해와 여성건축사의 역할

국가의 경제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건축분야는 건설위주의 산업화정책이 추진되어 온 지난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위기를 겪으며 부침 이 거듭되었다. 설계와 디자인 총사업자가 대다수인 여성건축인들의 경우에는 자본논리와 시장경쟁이라는 틀속에서 자립기반도 갖추지 못 한 채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다행히 인간의 다양한 삶과 거주방식을 존중해야 하고 공급자 위주의 생활환경을 바판하는 목소리가 대두되면서 시작했고 건축개의 노력을 통해 이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으로써 '건축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건축기본법'은 건축물의 실계행위만을 규정했던 기존의 '건축법' 체계와는 달리 건축의 태생에서 소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건축의 행위로 인정하는 거시적 개념의 확장 프로세스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즉 건축의 조사 및 기획, 계획 등 건축물 축조 이전 단계와 설계, 디자인·인수업무, 감리, 시공은 물론 공공 디자인(지구단위계획·도시개발계획 포함), 도시경관, 친환경계획 등 건축의 포괄적 개념을 대상으로 하는 전 영역을 건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건축기본법'에 의하면, 건축의 개념은 결과물의 총체적 탄생배경과 사후관리까지를 포괄하는 것이다며 이에 따르는 책임과 권한이 건축사 및 건축전문가에게 위임되는 것이다. 이 방향의 시행은 모든 건축인들에게 직업으로서의 성체성과 양질의 디자인이 담보될 여건을 제공할 것이다.

삶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사회 문위기로 보아 앞으로의 건축은 감성과 여성성을 바탕으로 한 주거문화가 생활편의시스템(IT)과 결합된 복합체로 진화할 것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건축기본법'의 이해와 적용은 여성이며 소비자이고 생산주체자인 여성건축인들의 경제성 확립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곧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 건축기본법의 취지 요약

- ① 건축에 대한 기본 이념을 국가가 새로이 정의
  - 건축설계, 감리에 한정된 건축개념의 확장
  - 기획, 계획, 설계, 감리, 조사검사, 공공디자인, 도시경관, 실내디자인, 안전 및 사후관리개념 포함
- ② 국가 주도적 건축정책의 수립 및 실천
  - 건설정책의 하급 단위가 아닌 국가 정책목표로 설정
  - 건설의 상위 개념
- ③ 국가 건축정책위원회와 전국 광역자치 단체별 건축위원회 상설

## 의무화

- 건축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시, 도시에 광역건축정책위원회 설치 권장
- ④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정의
  - 국가정책과 공공성 우선
  - 건축주의 허가사항 임의적 변경 불가, 건축을 문화적 신물로써 인정함
- ⑤ 전문가의 창의성과 독립성 보장
  - 설계권, Design 합법화
  - 건축가, 설계사 등 유사어 사용불가
- ⑥ 건축문화 진흥촉진 및 국가의 재정지원 의무화
- ⑦ 건축관련 재 법령 정비시 건축기본법의 취지에 뇌합하도록 규정

## 결 어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우수한 여성건축인력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과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다. 즉 작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작업효율을 높여 일에 대한 만족도와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는 정책과 사회적 문위기의 조성이 필요한 것이다. 건축관련 단체에서는 여러 경로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출산, 육아, 승진, 재취업 등 근무조건의 개선, 직장 내 남성문화의 순화, 그리고 자유경쟁이라는 미명 하에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도의 개정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할당제의 도입 등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관심사이며 미래 자원인 친환경 건축, 자원절약형 건축, IT기반 건축 등으로 여성건축사들의 분야를 확대해야 하며 진입이 어려운 건축분야에는 새로운 관점을 접목시켜 디자인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 우리는 급속 성장으로 인한 몸살을 앓았다. 이러한 어간에서 건축사들이 특히 여성건축사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석을 수 밖에 없었다. 또한 과거의 후유증에 끌려 규제의 냄새아래 거대해진 프로젝트의 견고함과 불공정한 경쟁체제 때문에 신진건축사나 여성건축사들의 시장진입은 그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건축을 늘려싼 주변 환경의 변화와 다가올 미래의 건축환경은 행복한 삶을 척도로 하는 친환경·친여성적인 패러다임의 구현에 목표를 들 것이 분명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성건축인들의 가능성은 열려있나고 생각된다.

"여성"은 미래를 이끌 핵심 아이콘이며 여성성의 반영은 그 국가의 문화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것이기에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이는 여성건축사들이 디자인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 DIA

정현아 / Dia Architecture co.  
by Chung, Hyuna

dialogue, diagram 등에 쓰이는 접두사 'dia-'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through, across, between 등으로 설명된다. 즉, 사이나 관계, 혹은 과정의 시공간을 가로지르는 의미를 가진다.

건축사사사무소 디아(dia)건축은 바로 이러한 관계적 가치를 지향한다. 일상 속에 숨어있는 크고 작은 스케일의 수많은 관계망(場)에 주목하고 있다. 가장 일상적인 모습에 나타나는 사회 상의 투영, 혹은 그 정황들에 관심을 가지고, 복잡 다단해지는 현대 사회의 다중적 상황을 명확하면서도 풍부하게 담아내는 공간체계로 완성하고자 한다. 작고 사소한 것들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바탕으로, 복합적이면서 열린 가능성을 만드는 공간 패턴의 제안과 그것을 물성적으로 구축하는 방법적 연구를 목표로 두고 있다.

관계적 가치에 주목한다는 것은 건축에서 다른 가치가 좀 더 동적(動的)인 것으로 옮겨가는 혹은 확대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은 단지 여러 요소들을 조형적으로 조합하는(Compositional) 방법으로 생산하는 것을 넘어서, 상황에 맞게 주제와 조건들을 설정하는(Conditional) 방법을 통해 그 가치를 질문하는 것이다. 결과로 구축된 스타일이 아니라, 과정의 방법적 연구 또는 그 심惶적 성격 스스로가 건축적 의미를 가지는 이유이다.

## 복합 체계 – 단순 구법 Complexity, Simple Construction

종종 현대 사회의 다중적 성격을 반영하는 공간체계는 상반된 여러 가치가 공존하거나 다양한 가능성을 지녀야 하기에 혼성된 양상으로 드러나기 쉽다. 하지만, 복잡한 것(Complicated)과 복합적인 것(Complex)은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복잡'은 다수의 가치가 하나의 체계로 정리되지 않아 혼돈스러운 것이고 '복합'은 다수의 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열린 체계를 가지는 것이다. 또한 복합적인 공간체계는 상대적인 가치와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반응하는 유연한 모델이 되어야 하기에, 그것의 구축방식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요구한다. 즉, 공간의 기변성, 사용자에 반응하는 환경 등을 해석하는 보다 유연하고 가벼운 해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물적 대상을 통하여 구축되는 건축은 그 스스로가 태생적으로 단단하고 강한 속성을 지닐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복합적인 체계는 가능한 최대로 단순한 해법, 가벼운 구축으로 구현하려는 지속적 탐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건축은 물적 대상 그 자체로 대화하므로, 무엇보다 물성 자체의 새로운 실험과 연구가 가장 강력한 도구라 믿는다. 재료에 대한 관심은 온전히 새로운 재료에 대한 실험만이 아니라, 이미 익숙한 재료를 다른 방식으로

축조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또한 외부 세로를 내부에 사용하는 등의 관습적 사용을 넘어서는 시도,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재료 등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즉, 복합적 성격을 가지는 공간체계의 가장 단순한 방식의 구현과 공법을 탐색하고 있으며, 바로 재료, 에너지 효율 등의 여러 분야를 통합하는 단순 명쾌한 해결방식의 탐구와 관심이 가장 진보적이며 지속 가능한 건축의 실현이라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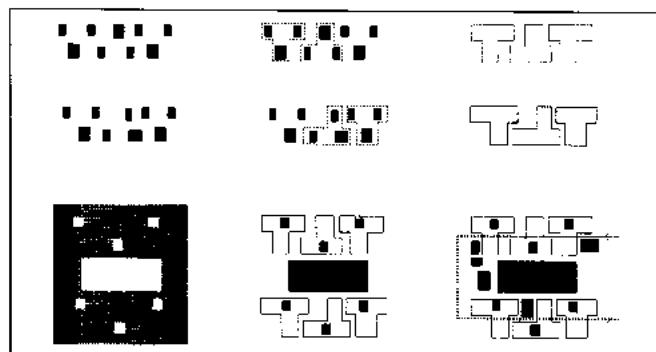
## 약자 건축 Minority Architecture

현대는 거대 담론, 대형 개발, 그리고 스타 건축가가 요구되는 시대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시대에서 오히려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틈새들에 주목하고 있다. 작지만 가치 있고, 소외되어 있지만 잠재력 있는 도시 건축작업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규모는 작더라도 취하는 전략에 따라서 그 스스로 건강한 힘을 가지고, 나이가 도시에도 변화의 촉매제로서 충분히 작동할 수 있는 건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동적인 벡터가 되는 작지만 강한 건축의 가능성을 보고, 이러한 도시 약자의 건축적 한계에 도전하는 것이 바로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이라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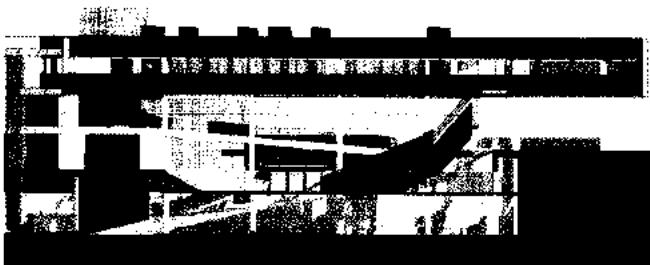
## Project 1. 용인 독수리학교, 2008

용인 독수리학교 제안의 경우는 대안학교의 교육체계와 운영방식에 대한 스터디에서 출발하였다. 소규모로 출발한 모임이 점점 그 서클을 성장시키고, 그것을 다시 분화시키며, 또다시 소모임을 시작하여 계속해서 커다란 조직으로 키워내는 것에서 '성장하는 클러스터(Cluster)' 모델을 생각하였다. 교실 군(群)은 개별학습과 모둠학습의 두 개의 다른 교육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체계여야 했다. 학년 간 혹은 학년별로 다양한 커뮤니티를 끊임없이 생성하는 교실 체계를 제안하였다. 생성되는 방식도 여러 크기로 이루어져도록 하였다. 이는 또한 다시 전체적으로는 공용공간과 결합되면서 느슨한 고리(Loop)를 형성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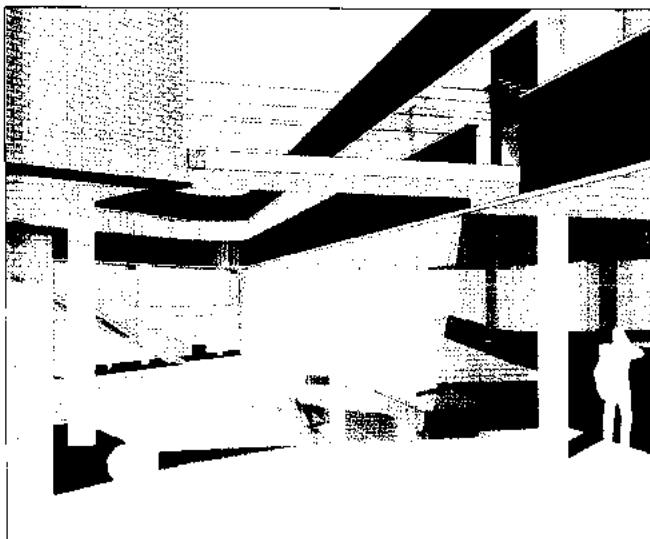
학교의 성격을 큰 틀 안에서 자유로운 움직임을 수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대지 외부로는 조금 베타적이되 안마당을 향해서는 내-외부 경계를 무너뜨리는 시도를 하였다. 또한 대지의 레벨도 인공적으로 두껍게 다루어 건물과 외부공간, 지면의 다양한 차이를 통해 수많은 시선 교차를 만들어 크고 작은 열린 관계들을 생성하도록 하였다.



〈그림 1〉 독수리학교 클러스터 디어그램



〈그림 2〉 독수리학교 입면



〈그림 3〉 독수리학교 입구부분

### Project 2. 평창동 주택, 2008

평창동 주택은 일반적인 주택의 조건들과 얼마 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혼자 사는 건축주의 라이프스타일도 그렇고, 대지 남쪽은 가로마하고, 북쪽은 수려한 북한산으로의 조망이 가능한 조건도 그랬다. 1인 주거라 공간의 위계보다는 각 실들의 개성이 중요하였고, 실들의 독립성보다는 개방감을 살려야 했다. 각 공간은 가족 누군가를 대변하는 공간이 아니라, 시각에 따라 쓰임에 따라 느슨하게 규정되는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었다. 또한, 전통적으로 선호되는 일조방향과 완전히 상반된 대자의 전망을 어떻게 내부 공간구조와 연계할 것인가가 들어야 할 소제였다. 따라서, 진입도로에서부터 시작하여 전망이 가장 좋은 거실까지 오르는 선형 동선체계의 변형에서 전체 공간체계

를 취하였다.

대지 진입에서 앞마당과 데크공간을 거쳐 2.5층으로 들어올려진 거실로서 서서히 오르는 동선을 대지 가운데 배치시켰다. 그리고, 그에 매달린 각 실들은 상대적으로 조건이 양호한 대지 모서리로 놓아, 실들은 동선의 연속된 흐름 속에 있으면서도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각기 성격이 다른 외부공간으로 확장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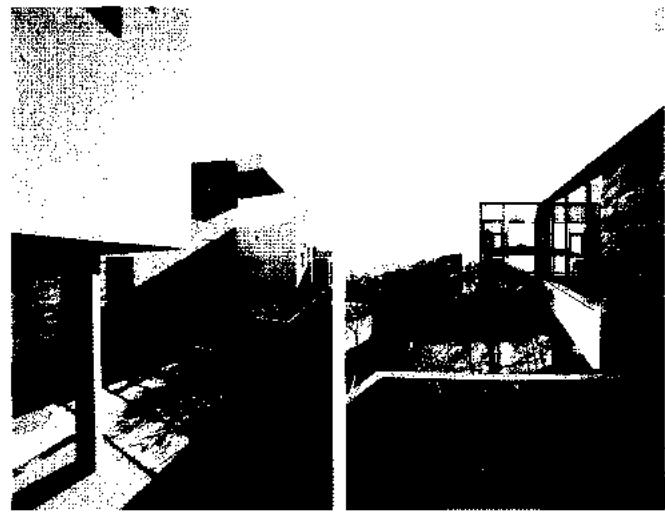
스킵된 레벨과 돌출된 매스, 다양한 외부공간으로 대지 한쪽에서는 시선을 재빨리 다른 공간으로 유도하고, 대지의 모서리에서는 시선을 사방으로 확장하려 하였다. 되감기는 동선과 교차하는 시선으로 걸어 온 길을 되돌아보게 하여, 내·외부공간은 서로가 서로를 이끌도록 설정하였다.

### Project 3. 신사동 근린생활시설, 2008

신사동 근린생활시설은 상층부 주거를 가지는 임대건물로, 강남 뒷골목에 위치하였다. 고밀도·좁은 내지에서 피하기 힘든 사선 매스의 한계와 주변 다세대와의 충돌, 임대시장의 불확정성, 주거의 프라이버시 문제 등을 안고 있었다. 이에 동선방식을 층마다 약간씩 다르게 설정



〈그림 4〉 평창동주택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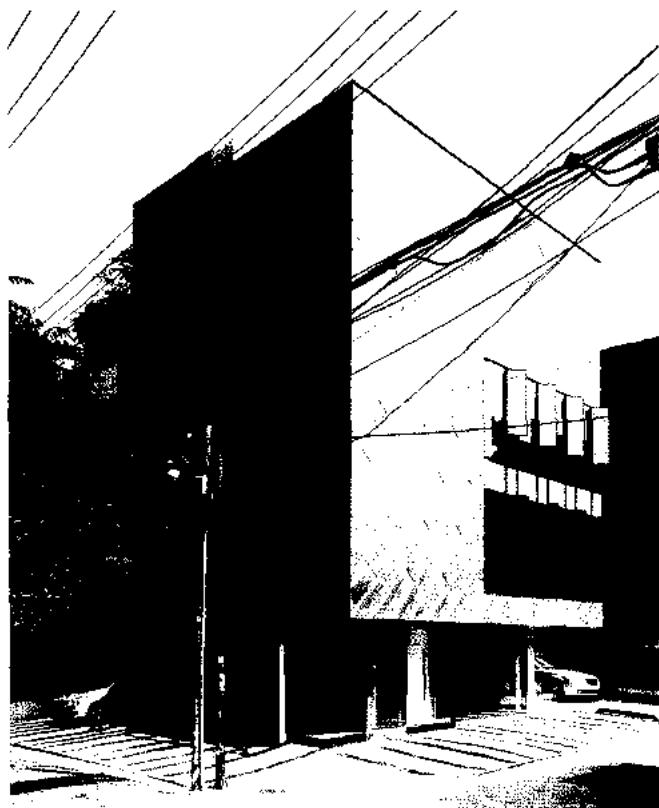


〈그림 5〉 평창동주택 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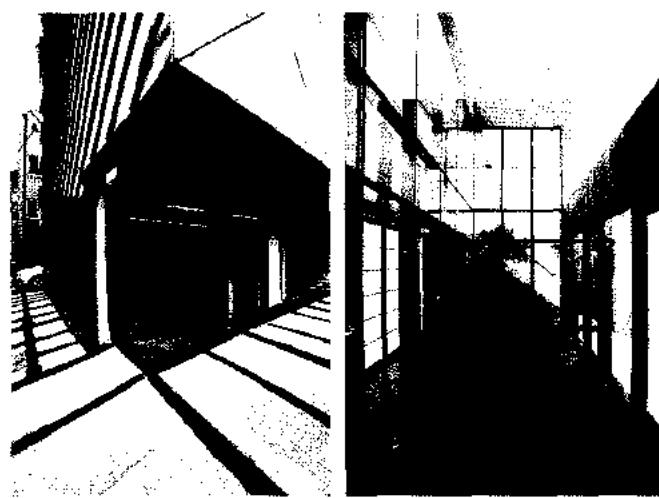
〈그림 6〉 평창동주택 거실 통출부

하였다. 저층부에선 매스와 외피 사이로 끼어든 일자계단으로 도로의 움식임을 2층까지 자연스레 연장하고, 3층에선 기능적인 코어 방식으로 슬며시 비뀌었다가, 4, 5층에 이르면 다시 속도를 늦추면서 주택 내부로 이어진다. 하나로 이어지는 동선이지만 반복적이지 않아 속도의 원급이 가능하고, 각층의 공간과 만나는 방식의 차이로 총마다 차이 나는 도시의 요구를 수용하게 하였다.

다세대와의 충돌은 동판으로 감싼 폐쇄적 외피에 텍스처를 주어 완화하고, 주거층에는 중정을 놓아 내부로의 오픈을 극대화 하였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집이라 주방-식당은 축소하였고, 실들의 구분은 모호하게, 위계는 등등하게 물었다. 이러한 딱딱한 겹질에 대비되는 유연한 내부구성은 건물의 성격을 보다 중성적으로 만들어,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용할 여지를 주고자 하였다.



(그림 7) 신사동근생 전경



(그림 8) 신사동근생 계단입구

(그림 9) 신사동근생 주거부

램으로 변용할 여지를 주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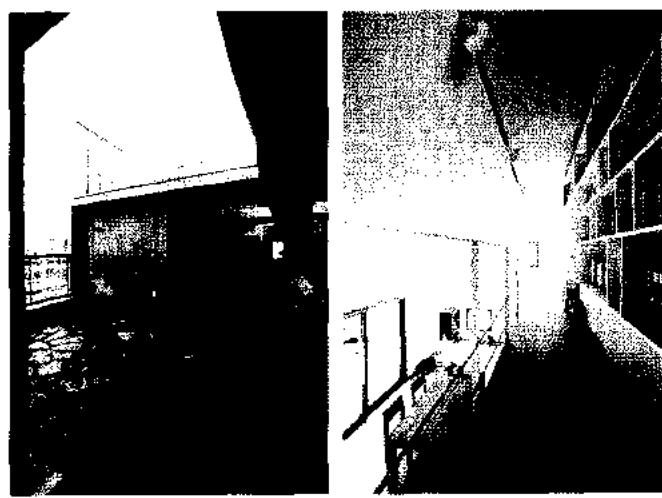
#### Project 4. 대전 한의원주택, 2009

대지는 신도시 아파트 주변부에 들쑥날쑥 들어선 상가와 나대지 사이에 위치하였다. 경사지붕이 법규로 요구되었지만, 우리는 안쪽으로 모이는 경사지붕을 취하여 밖으로는 최대한 원초적인 형태를 유지하고자 했다. 외부로는 고집스레 막힌 늦 보이나 2층 마당을 통해 내부로는 개방적인 방식을 취했다.

1층 한의원에선 시선의 수평적 흐름으로 기능적인 동선을 유도한 반면, 2층 주택은 경사지붕으로 확보한 높은 천장고와 고창을 통해 다방향으로 시선을 분산하면서 동선과 시선을 최대한 깊고 멀리 가져가게 하였다. 드자 평면 형식을 통해 LDK 부분이 침실 부분과 분명히 구분됨과 동시에 서로 마주보며 경계를 허문다. 외관과 한의원은 부뚜막 같이 거칠고 투박한 물성을 만들려 했고, 주택은 밝고 부드럽게 풀었다. ■



(그림 10) 대전한의원주택 전경



(그림 11) 대전한의원주택 안마당

(그림 12) 대전한의원주택 주택실내

## 緣門… 行하는 건축

### Design in Action

유석연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by Yoo, Suk-yeon

'내기 했던 작업'이라는 말보다 '내가 관여했던 작업' 이런 말을 더욱 편히 말하게 되는 요즘, 건축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부지, 주변의 도시공간, 이와 관련하여 지어질 건축물 등-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관여된 일인지, 어떤 사람들에 영향을 미치는 일인지에 대한 생각이 우선했던 일련의 작업들이 어찌면 건축의 조형을 만들어내기 위한 일종의 방법론에 불과했을 수 있다는 성찰을 하게 한다.

대학시절부터 둘째 번 가시작 성과에 대한 집착과 건축의 구대적 작업 방식에 대한 익숙함이 아직 그대로 잠재의식 속에 남아 있었음을 일깨우고 있다.

민·관·전문가들이 협업을 통해 진행하여야 하는 작업들을 위해 몇 년씩 오랜 시간을 들여 노력했음에도 결과가 누구에게 어떤 혜택을 준 것인지, 만들어진 물리적 결과가 주민들의 일상에 어떤 도움을 준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괴로웠던 경험들이 그런 감각을 더욱 선명하게 하고 있다. 보이는 것 보다는 보이지 않는 관계를 디자인하려는 생각에서 나온 일련의 작업들을 되짚어 본다.

물리적인 것에 내재하는 관계를 드러남으로써 보이지 않는 변화를 기대하며 했던 작업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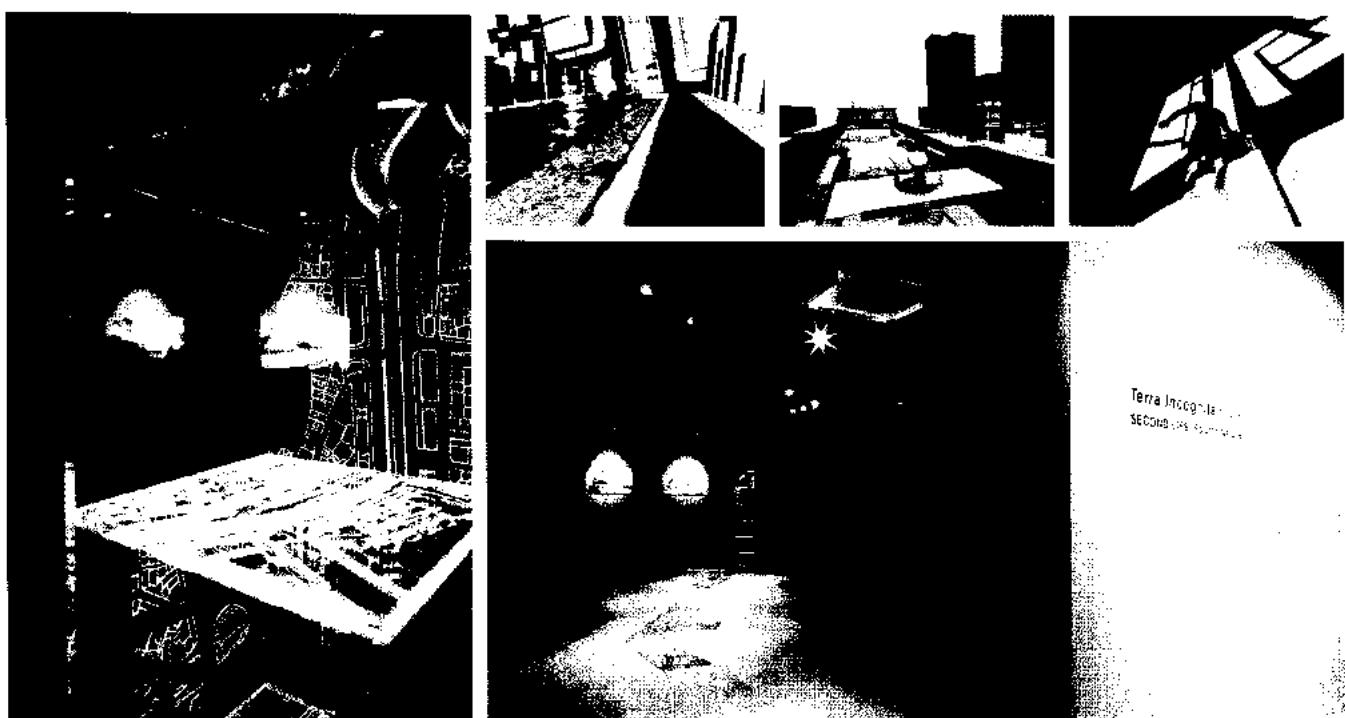
작업개념의 주관적 개발과 일관됨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주어진 대상

에 따라 다양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나를 버리고 어떤 행위도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다는 '행함에 대한 열린' 태도를 추구하는 것이 지금의 세계관이 아닐까.

Terra Incognita 마지막 땅 :  
SECOND LIFE, Fourth Nature(2009)

현실세계와 닮은 골로 실제 생활을 담을 수 있는 기상세계 www.secondlife.com에서의 공간실험이나, 21세기 들어 복원된 서울의 새로운 도시공간, 청계천의 시작점에서 4.3km 구간을 세컨드라이프의 가로, 세로 254m의 공간에 인체적으로 건축한 '청계천 타워'에 건축가, 아티스트, 사진작가, 도시과 학생들의 도시작업-청계천, 좋은 장소만들기-을 담았다.

전세계 140만이 넘는 유저들이 대지를 분양받아 실제 현실세계와 공존하는 또 다른 도시공간을 구축하고 생활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Second Life를 공간적 대상으로, 새로운 [도시+건축+예술] 공간의 가능성을 만들어 보는 '공간생산'과 전 세계 누구든 들어와 걸어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등 '현실 생활과의 소통'을 실험하였다.



Terra Incognita 마지막 땅 SECOND LIFE, Fourth Nature(2009)

#### **살기 좋은 지역(마을)만들기 :**

### 거창 숲옛마을 만들기 + 우산 슬로우월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삶의 질 향상', '지역 공동체 활성화', '마을 재디자인' 등 3개 분야로 이루어진 행정자치부의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은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소득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및 주민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 활성화시킬 방안 등 총체적 범위의 고민을 해야 하는 작업이다. 행정자치부 외에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등 여러 중앙행정부처들이 비슷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통 테마마을 사업', '일상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농촌종합개발사업' 등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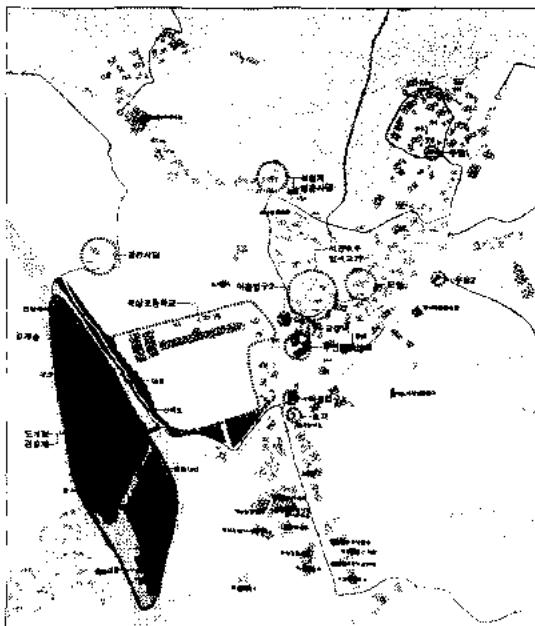
거창 갈계리 슬옛마을의 경우나 전남 장흥의 우산 슬로우월드(명시대 건축대학 연구진과 협업)의 경우 모두 희망세작소 부설 도시공간연구소를 통하여 했던 작업이다. 건축, 조경, 디자인, 예술 등의 분야 외에도 주민 교육, 지역 산업, 주민 커뮤니티 관련한 전문가들과 행자부,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지역 주민들이 함께 수도 없는 회의를 거쳐 협

업하는 과정에 수많은 이해관계를 해결해야 하고 무엇이 가장 절실한 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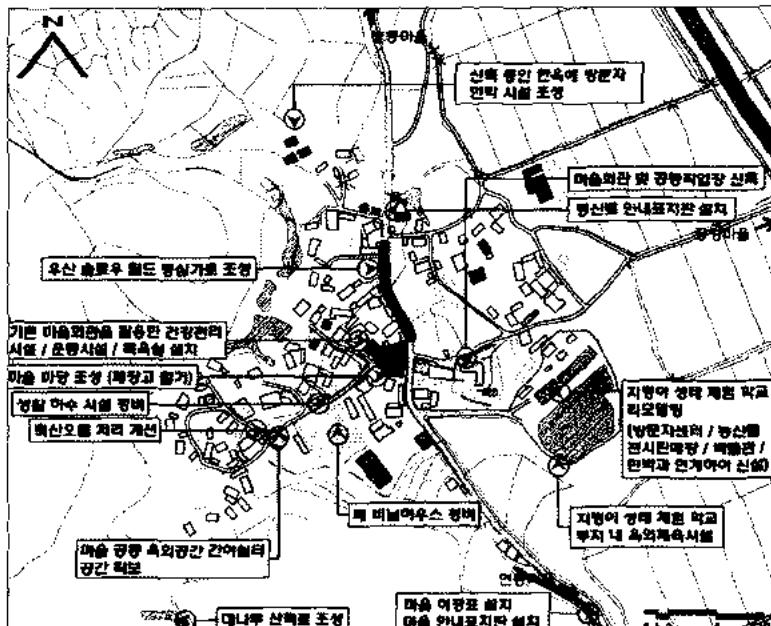
지역에 대한 애정과 전문가로서의 책임감 만으로 수년간 마스터플랜부터 세부사업기획 및 실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켜내기란 어려운 일이다. 기초적인 생활마저 영위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전문가들이란 잠시 왔다가는 사람들일 수 있으며, 많은 경우 최대한의 노력보다는 최소한의 행위만을 해주고 떠났던 행태로 인한 선입견을 정신적으로 버텨야 하는 과제도 흔하기 때문이다.

보통의 경우 예산을 내려 보낸 중앙부처에서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원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조사와 상세한 분석,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문제의 파악조차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가장 전문가의 개입이 절실한 부분이나 사회적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단체나 개인 차원에서 수행하기에 지속 가능한 상태는 분명 아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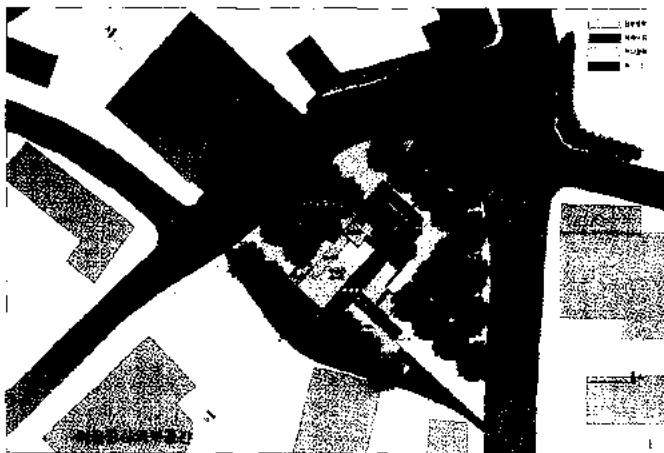
유증 도시에서 유행처럼 벌어지는 '공공디자인'과 '공공미술' 사업 역시 기본적으로 같은 속성을 갖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보다



#### 〈그림 1〉 거찰 숲 맷마을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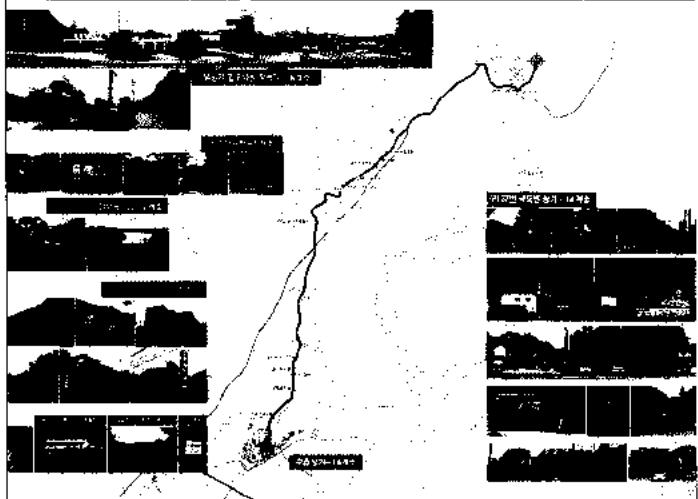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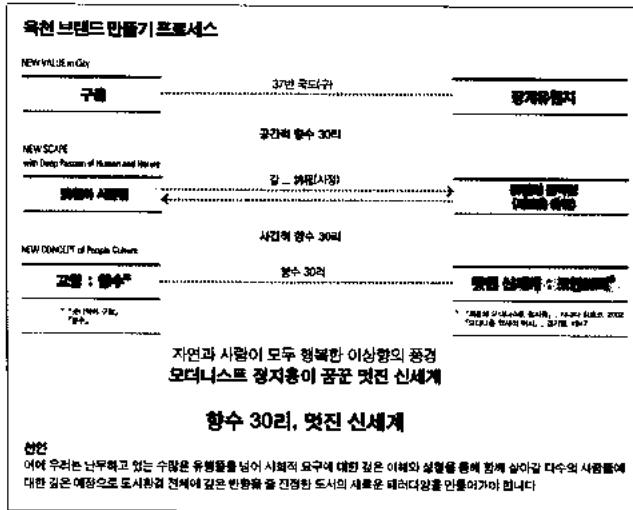
〈그림 2〉 운산 솔로운월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 (그림 3) 우산 숲로우월드(마을중심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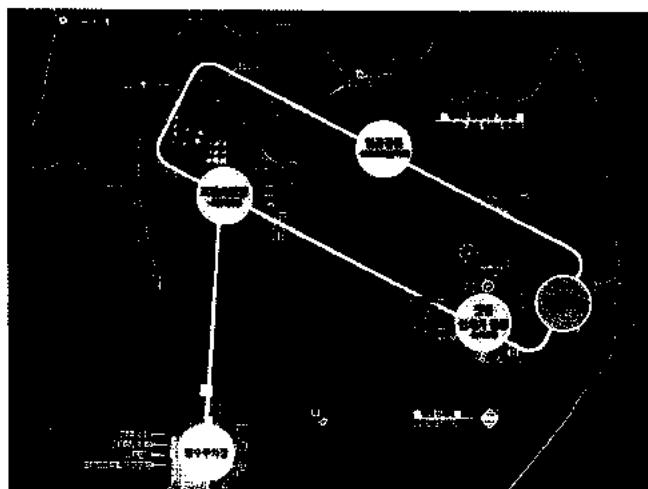


(그림 4) 우산 숄더워크드(전역중심 외부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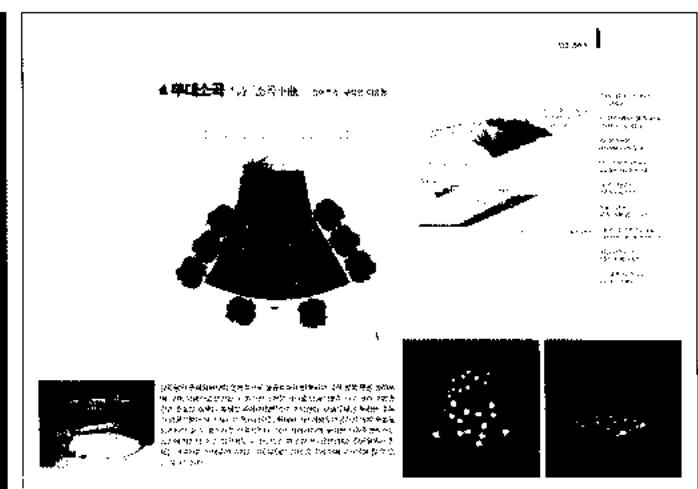


〈그림 5〉 횡수 30리 멋진 신세계 1

(그림 6) 학습 30회 면진 시세계 2



〈그림 7〉 양수 30리 면진 신세계3



(그림 8) 학습 30회 면적 시각화(음대소곡-1)

사람들을 위해 어떤 것이 중요한지 결정하는 것이 사업의 기획에 앞서 중요하므로 결과의 가시성을 목표로 두기 보다 진정성을 가지고 상당한 조사 및 분석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마음이 급한 관과 주민들을 설득하여 공감대를 만들고 매 단계마다 함께 협의, 조정하는 과정의 진행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지역 및 주민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므로 관여하는 전문기의 가시적 성과보다 사업을 통해 시역에 남게 되는 결과의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할 것이다.

항수 30리 며지 신세계

정부가 전국의 지자체 중 가장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역을 선별하여 지원해주는 '신활역사업'의 일환으로 시인 정지용의 고향 옥천을 대상지로 한 작업이다.

대청댐 수몰지역이 많아 접근이 어려운 곳이 많은 반면에 아름다운 생태환경이 고스란히 유지되어 있고, 고속도로, 국도, 철도 등 국가 기간시설들이 모두 이 지역을 지나가므로 교통이 무척 편리한 반면에 머무르지 않고 지나가는 지역으로 소외감이 상당한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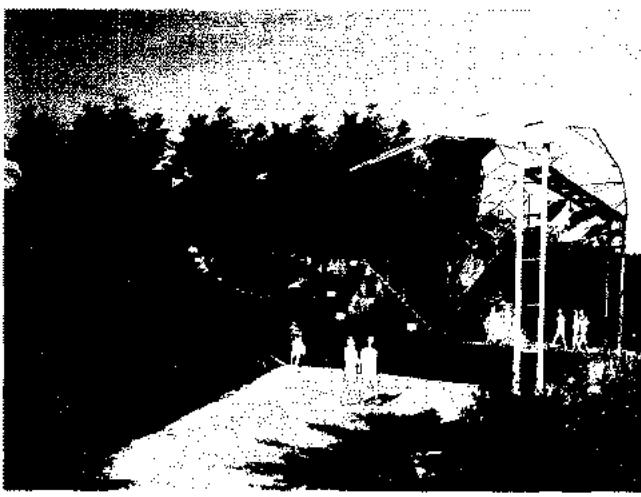
전 국민 누구나 한 구절쯤은 출연거울 수 있는 '한수' 등 시문학의

중심지로서 시인 정지용 생가와 문학관이 있는 구읍을 이 지역의 문화자산으로 삼아 옥천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새로운 시가지(신읍)가 생겨 낙후된 구읍의 근대적 도시구조를 그대로 보존하여 이 지역만의 특별한 문화환경으로 만들고, 구읍에서 오래된 장계유원지까지의 노정을 '향수 30리' 라 하여 문화적으로 개발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다.

기성 시가지인 구읍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프로그램, 장계유원지에 이르는 (구)국도변의 상가, 모텔 등의 긴판 디자인 개선, 오래된 장소의 묘한 느낌을 살리면서도 시문학의 향취와 내용을 더하여 새로운 개념의 문화관광지로 개선하고자 한 장계유원지의 다양한 프로젝트 등 많은 작업이 있었다. 물리적인 디자인 개입에 더하여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방문하였을 때 경험을 유도할 건축학교, 지역탐색, 시문학학교 등 다양한 교육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특별한 것에 워래 그대로의 오래된 향취가 남아 있다는 생각을 지역과 곳을 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장 중요시하였다.

무언가 디자인을 통해 색깔을 입힐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한 디자인 분야와 공공장소를 다룬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오브제적 관성이 남아있는 미술 분야와의 태도 조율과 작업방식이 다른으로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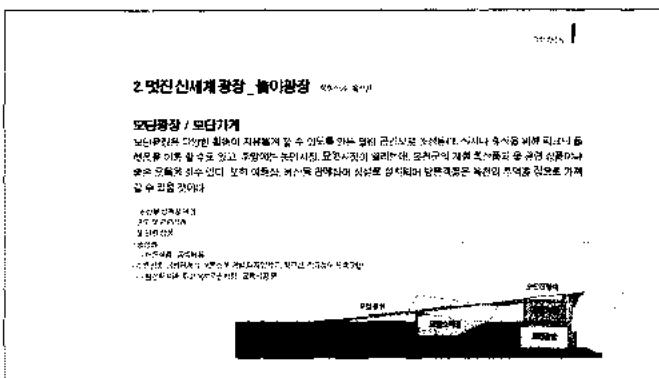
(그림 9) 향수 30리, 멋진 산세계(무태소곡-2)

한 속도와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는 여전히 앞으로의 진행을 위한 숙세로 남아 있다. 또한 지역을 위한 주민을 위한다는 말 속에 숨어 있는 전문가의 자의성 또한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여타의 지역(마을) 만들기 사업과는 달리 지역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대한 개입을 통한 지속가능성 부문에 대한 논의가 적었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물처럼, 공기처럼 주민들과 함께 하는 환경의 개선보다는 지역의 성장동력이 없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것이 지역을 살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 지역의 조건으로 기인한 것이 이유이긴 했다. 하지만, 방문객을 위한 환경과 주민들의 일상생활 환경의 요구사항이 분명 다르므로 사업의 실행과정에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이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정이 분명히 도래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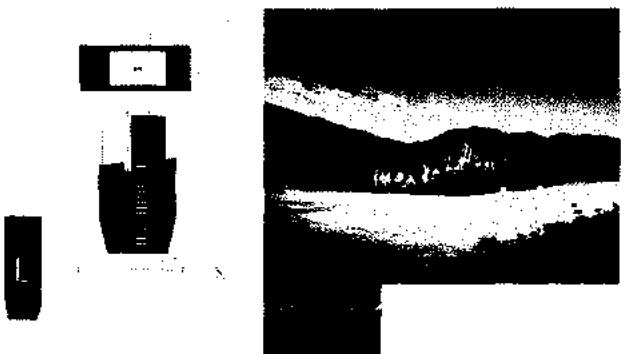
미국 메사추세츠주 노스 앤드로스라는 소도시에 있는 메사추세츠 현대 미술관 Mass MOCA의 경우, 지역민들의 절대 다수가 근무했던 공장이 문을 닫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역민들과 민간이 많은 펀드를 모금하는 등 노력하여 옛 공장건물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의 미술관을 개관하였다.

미국에서 가장 큰 현대미술관으로 전세계에서 전시를 보러 오는 유명 세를 치르고 있길 하지만, 도시구조는 예전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유



〈그림 10〉 향수 30리, 멋진 신세계광장\_높아광장-1

학습을 활성화시키거나 같은 녹색환경을 찾기위해 그 곳에 전민대기 위치한다.  
전민대는 속내의 경관미와 풍경에서 학습을 할수있어 그곳에 도달하면 학습하고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운정을 만들었다.  
감상으로 대문 책의 이미지와는 달리 깊은 드로인과 관현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림 8〉 청수 30리, 멋진 신세계광장\_놀이광장-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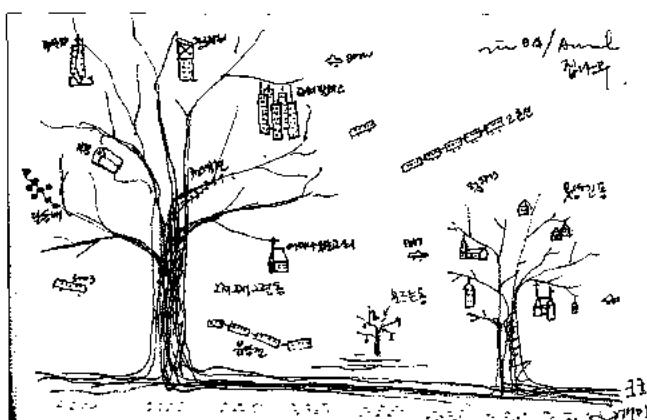
지한 채 작은 화랑, 커피숍, 호텔 등으로 용도를 바꾸는 방식으로 활성화되었고, 지역민들의 상당수를 미술관의 운영 인력으로 받아들여 지역의 생활과 문화행위가 함께 발전하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관과 전문가가 주도하여 진행하는 빠른 발전도 가능하겠지만 지역 주민들이 합의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한 개발이야말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느리지만 효과적인 방향이라 하겠다.

## Architecture : SIE - Simple / Identity / Emotion

정수진 / 건축 : 에스아이(SIE)  
by Jung, Su-jin

'공간', 건축을 설명하기 위해 공간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건축가는 거의 없을 것이다. 잘 계획된 집이라 잘 계획된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공간이란 빈 곳, 공간은 비어있는, 건축 작업이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다.

하나의 공간은 목적, 주변을 둘러싼 조건, 구성 요소와 그것들에 관한 해석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은 사용방법이나 사용주체 등에 의해 냄새 변하게 마련이다. 공간을 형성하는 물리적인 요소는 정해진 장소에 고정되어 있지만 공간은 그에 개입된 복잡한 상황과 감정이입에 의해 사사각각 변화한다. 배일을 생활하는 내 방과 나의 기분의 상관관계처럼 공간은 사람의 기분에 의해 달라지고 사람 또한 공간의 분위기에 의해 달라진다. (그림 1)



(그림 1) 정수진/2008

공간을 만들기 위한 프로세스는 일반적이다. 개념 설정, 피규어 (figure) 잡기, 매스 모형 만들기, 도면 그리기, 투시도 그리기 등 모두가 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 중 피규어 작업은 정말 중요한 개념에서 구체적인 건물로 전환되는 중간과정으로써 이 작업의 원료는 전체 프로세스의 30% 정도의 작업 원료 시점이 된다. 피규어를 간단히 설명하면 개념이 좀 더 발전한, 구체적인 매스의 이진 난계이며 내지 분석에서 프로그램 조닝까지의 과정이 모두 녹아있는 총체적인 하나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피규어의 만족스러운 완성은 프로젝트의 즐거운 완성을 예견한다. 그러나 간략한 두세개의 선이나 면으로만 들어진 피규어는 극도의 추상과 상상을 요구하며 치밀한 계산을 요구한다. 절제되고 압축된 선 하나, 심지어는 의미가 남기지 않은 선 하나를 찍는 것조차도 최악을 지지르는 양 사람을 주눅 들게 하는 것을 보면 참 어렵게 건축에 접근하는 방법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연필

과 종이가 맞닿는 순간 공간의 생성이 일어나고 그것은 건축주의 주머니 속 돈과 연관되는 일이니 신중해야 할 입장에 당연하기도 하다. 건축 작업이 참으로 즐겁거나 쉽다고 말하는 그들에 대한 존경은 그야말로 대단하다. (그림 2)

기본 평면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다음은 바로 모형제작으로 들어간다. 성성들이 조각조각 쌓아가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늘어다보니라면 심시에는 실제로 모형 내부를 돌아다니는 듯한 착각 속에 빠지는 즐거움을 느낀다.

녕면과 모형작업이 동시에 이루어 빠져되다보면 어느새 하나의 집이 생겨나 있다. 3D란 컴퓨터의 힘을 빌기도 하지만 수시로 커졌다 줄었다 하는 스케일감의 상실은 정확한 계획을 방해하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 그다지 믿음직스러운 품은 아니다. 원시적이지만 손이 움직이는 노동, 그중 노형 만들기는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성화한 방법이다.

내부와 외부, 요소들과 표피, 심지어는 아주 사소한 선반 하나의 위치까지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모형이기 때문에 내부 모형의 섬세한 완성은 건축가뿐 아닌 일반인들의 공간 이해를 위한 가장 직설적 도구이다. 그러나 이렇게 가구까지 배치된 디테일한 모형을 보면서도 인테리어 디자인 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요구를 받을 때는 참으로 당황스럽기 짜이 없다. 과연 인테리어라는 부분이 건축과 별개인 부분인지, 꼭 그 분야의 전문가가 무엇인가 특별함을 더해야만 좋은 집의 완성을 보는 것인지 눈고리 하나끼지 그 집의 분위기에 꼭 맞게 골라야 만족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건축과 인테리어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현실이 참으로 난감할 때



(그림 2) Ecological Cinema Figure Process

### 기 한두번이 아닙니다.〈그림 3〉

단순 명료한 기능과 평면, 매스암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쓸데없는 학장을 한 입면을 그려야 할 때가 있다. 도면의 하전함은 무엇인가 모자란 듯한 불안감을 조성하여 자꾸만 덧붙이게 만든다. 입면을 그리는 어려움. 입면은 그리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필요한 위치에 스스로 개구가 생기고, 그들이 필요한 곳에 캐노피가 달리고, 경계 지어져야 할 곳에 벽이 서는 그것이 바로 입면 그리기가 아닌지 모르겠다.

말하는 건축(architecture parlante)이란 굳이 설명을 위한 부가적인 장치 없이도 공간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충분히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4〉

현재 우리의 건축환경에서 가장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부분이다. 대부분의 설계경기나 제안서는 외부를 보여주기 위한 극단적인 노력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엄청난 비용이 투자된다. 서울로 돌아와서 작업한 8년 동안 내부 공간의 중요성을 위한 투시도나 실내 모형을 강조한 경우는 실로 단 한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또는 공간을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한 장의 곱게 칠해진 외피의 조건보다는 그것이 품고 있는 내·외부의 구석구석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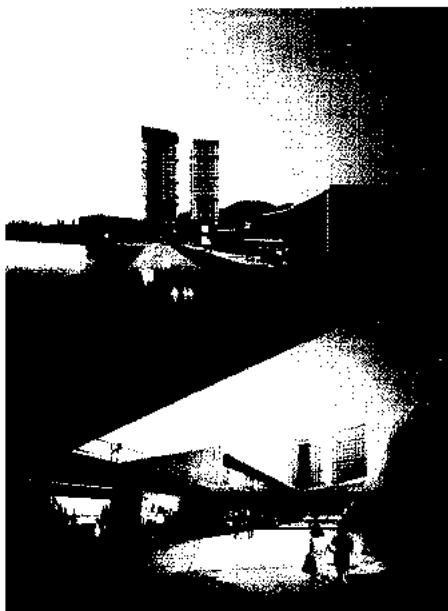
〈그림 3〉 smk



〈그림 4〉 세민금번전소

### 중요하지 않은가 모르겠다.〈그림 5〉

본다는 것은 공간의 인지를 위한 가장 큰 감각이다. 보기-보여지기, 보는 주체-보여지는 객체 등의 상대적인 방법은 비단 건축 뿐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에 적용되는 관계이기도 하다. 보기의 여러 가지 방법들 - 자세히 보기, 끌어보기, 훑기 보기, 상상하기 등등…, 그러나 하나의 대상이 마음속에 들어온 이후의 본다는 행위는 단순히 대상을 객관적으로 보기 보다는 마음속 심상 이미지로 변형시켜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상과 주체의 보기관계를 위한 세심한 고려는 변화하는 공간의 원동력 즉 살아있는 공간 만들기의 원천이 된다.



〈그림 5〉 여수 익스포 마리나 리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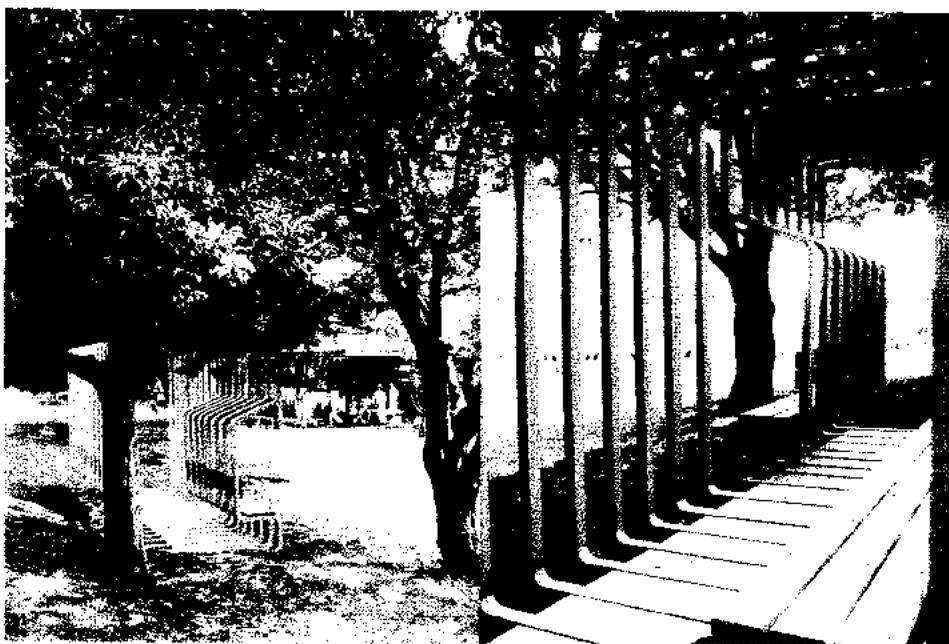
‘어디?’〈그림 6〉는 움직이는 공간에 관한 개념적인 작업이다. 최근 중요한 사회적 화두로 등장한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정의를 내리기 위한 이 작업의 답은 그런 정확한 구분이 어디에 존재하느냐는 되물음으로 끝을 끗는다. 공공이라 명명된 장소에서 익명성을 띤 다수의 행위 안에는 공동의 큰 주제와는 딴 소리가 있는 개인적인 단위 행동이나 사고가 여전히 존재되어 있다.

투명한 3개층 레이어는 각각 많은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으로 군집된 상황을 분석한 것이지만 그것을 이루는 사각의 단위 모듈은 여전히 우랄적이고 지극히 고유한 개인적인 모듈로서 공적인 공간에 속해있음을 표현한다. 여기서 모델로 삼은 시청 앞 광장은 상황 예를 들면 월드컵축제나 촛불 시위 등에 따라 기능이나 역할이 명확하게 규명된 장소라 할지라도 그 개체의 공간 점유방법 또는 순간적인 사고 방법에 따라 그 성격이 모호해진다. ‘어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公(公)과 私(私)라는 공간의 부름에 관한 갑작스러운 대답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간단히 말하면 그런 구분이 존재할 수 있느냐는, 오히려 역의 질문이라 하겠다.

‘보기-보여지기’에 관한 또 하나의 결과인 ‘보기-1: 동화(同化)’〈그림 7〉은 제주도의 ‘여미지 식물원’이라는 특별한 장소에 설치된 휴게 의자이다. 이것은 장소에 따라 물리적 요소의 역할이 사람의 시선 즉 인식의 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표현한 작품이다. 일상의 바쁜 틀



(그림 6) 어디?(2009)



(그림 7) 코가-1(문화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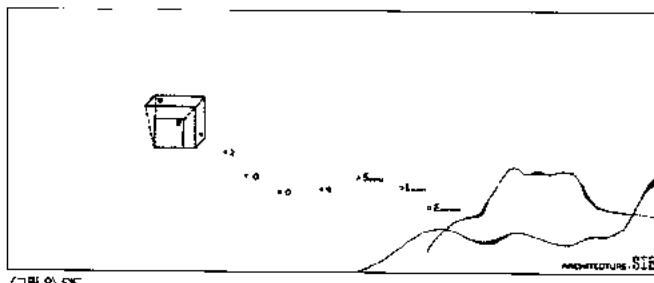
히 도시의 매개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새롭고 신선한 장소로 시선이 이동하게 되면 본다는 행위는 이미 일상의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나무·바다·바람이라는 이국적인 풍경의 푸르고 성실한 생명체들을 가득 모아 놓은 식물원, 비록 사람의 손에 의해 가꾸어진 인공적인 장소라 하더라도 이미 꿈꾸어 오던 파라다이스의 환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대상에 몇대어진 4각 프레임은 대상을 조각내고 간섭하는 등 대상의 객관성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 하나의 영상으로 자리 잡아버린 주관적인 대상은 더 이상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보는이로 하여금 심상 이미지를 간직하게 한다. 열리지도 닫히지도 않은 4각 프레임의 공간 영역은 그 내·외부에 자리잡은 사람의 시선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대

상과 직면하게 한다.

프레임 밖에서 대상을 직접적으로 보는 것, 프레임 내부에서 프레임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상을 보는 것. 이 두 방법에는 명백한 시각적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장소와 상황에 동화된 사람들에게 프레임은 그 역할을 상실해 버리고 오히려 프레임조차 대상을 강조하는 역할을 할지도 모르겠다.

건축은 살아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작업이다. 공간은 단순히 보여지는 물질적 요소들의 조합이나 그들의 순차적인 놓임에 의해서가 아닌 우발적이고 가변적인 환경적 조건과 심리적 사건이 결부된 동시적 현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건물은 정해진 장소에 고정되어 있지만 공간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생명체이다. 이런 생명력 있는 구조와 구체화를 위해서는 보여지는 구조물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결과들이 치밀하게 상상되어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과장되지 않게 명료한 구성, 재료의 솔직한 표현, 잘 고려된 기능의 종족과 더불어 보일듯 보이지 않는 건축가의 의도는 군더더기가 없어야(Simple)하고, 자신감을 가지고(Identity), 상대방에게 느낌(Emotion)으로 다가설 때 비로소 공간의 인생 드라마가 완성되지 않을까. ■



(그림 8) SIB

## 건축적 프로그래밍

### Architectural Programming

김정임 / (주)아이아크 건축사사무소  
by Kim, Jeong-im

얼마 전 모 병원의 신축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암 센터에 방문하여 진찰실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대부분의 병원은 의사와 환자가 데스크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게 된다. 이 병원에서는 데스크를 측면 벽에 붙여 놓고 의사와 환자가 나란히 앉게 되어 있었다. 함께 모니터 화면을 들여다 보며 병세를 설명하고 환자의 어깨를 다독이며 격려하는 의사의 모습을 보며 이런 작은 환경적 세팅의 변화가 사람들 의 관계에 어떤 변화의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건축이 할 수 있는 일이 가시적인 결과물(visual object)로 나타나는 물리적 환경을 구축하는 일만은 아닐 것이다.

작업을 하면서 건축주가 요구하는 프로그램의 기능적 배열을 넘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뉴에 보이지 않는 역학관계(dynamics)들을 조절하는 장치로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배치하고 섞고 연결하고 또 어떤 새로운 요소들을 끼워 넣을 것인가를 많이 생각한다. 이를 통해서 공간의 사용패턴이 바뀌고 사람들의 관계가 바뀌고 나아가 의식까지 변화되는 과정이 흥미롭다. 이러한 건축행위를 통해 자유로운 개인과 열린 공동체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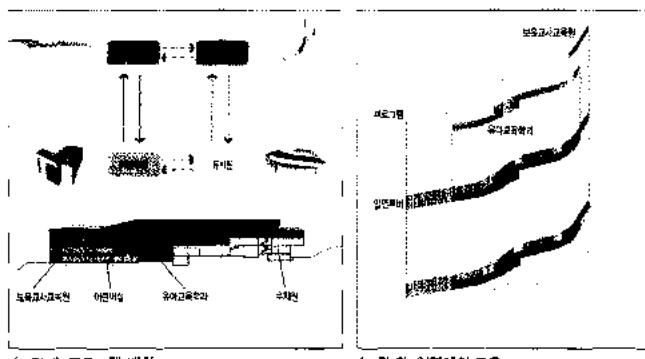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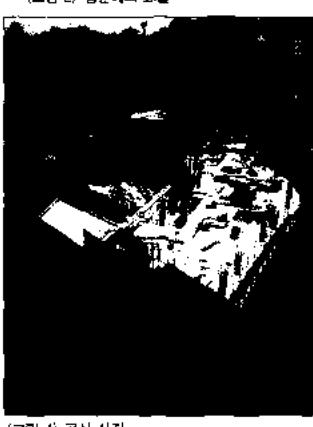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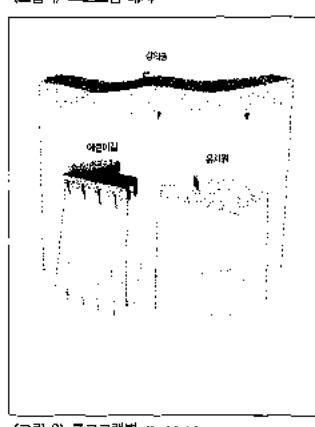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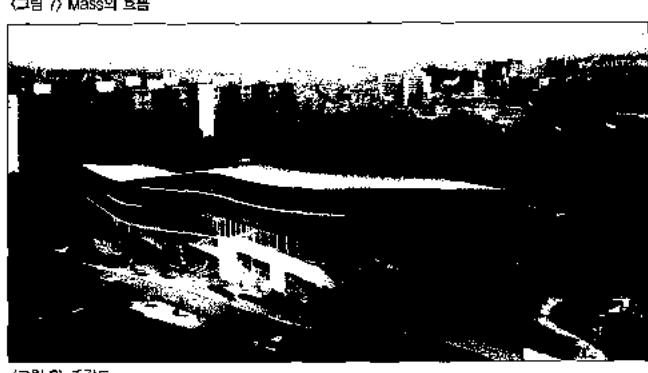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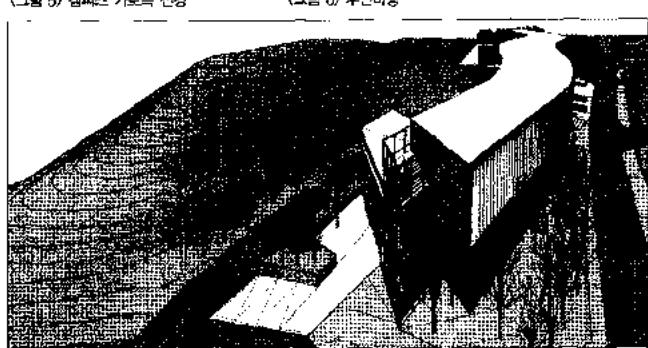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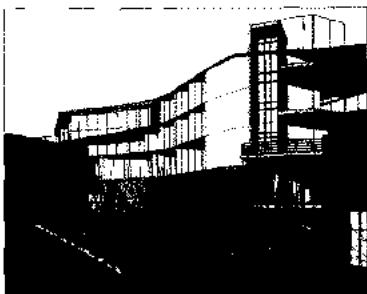


그림 2) 입면에의 표출



배재대학교 유아교육센터\_ 의도적 교류를 통한 새로운 관계의 추구

배재대 유아교육센터는 4개의 기관이 같이 사용하는 건물이다. 유아 교육학과를 모태로 해서 학과에서 식영하는 유치원, 보육교사를 양성 하는 보육교사교육원과 거기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이렇게 4개 기관 이다. 그런데 이 조직은 너무나 뚜렷한 위계를 가지고 있다. 4년제 대학인 유아교육학과와 1년제 수료기관인 보육교사 교육원에서는 재학생 간의 차별과 갈등이 감지되었고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의 운영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보였다. 어른들이 만들어낸 차별적 권리주의가 여과 없이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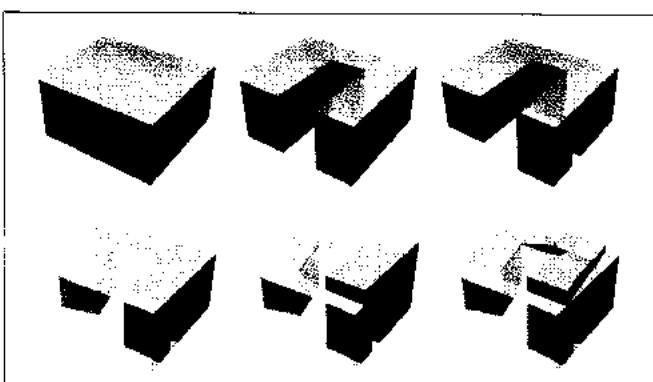


개선이 필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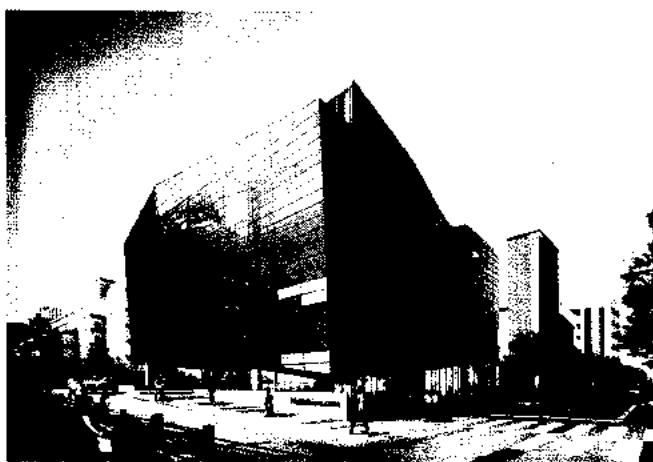
대지형태 때문에 길쭉하게 구성된 강의동 매스에 유아교육학과와 보육교사교육원의 요구 실들을 층간구획이 아닌 단면상에서 순차적으로 연속되도록 배치하였다. 이용 패턴을 시선으로 계획하여 실제적 이용동선은 줄이면서도 누 개 학과가 한 층을 공유하게 한 것이다. 사용자들은 복도를 걸으며, 계단을 오르내리고 화장실을 사용하며 끊임없이 만나고 부딪힐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 사이의 긴밀하거나 느슨한 관계들을 반영한 단면상의 배치와 내부동선의 연결은 투명한 외피를 통해 외부로 표출되며, 이는 서측의 일사차단을 위한 수직루버를 통해 극대화된다.〈그림 1〉, 〈그림 2〉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주 출입구가 완전히 대칭되는 양 끝자락에 위치한 별개의 매스로 구성되어 있다.〈그림3〉 이는 각각이 개별적인 하나의 건물로 인지되기를 바라는 건축주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건물의 본 매스와 후면의 독립적 매스의 사이 공간으로 진입하면 폴리카보네이트와 유리로 이루어진 반외부적 성격의 공용공간을 통해 유치원과 놀이마당, 어린이집이 시작적으로 연결, 서로 상호 작용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그림 6〉 또한 6개 교실의 중심에 있는 공용공간은 도시의 광장과 같은 공식인 성격으로 계획되어 어린이들이 모이고 흩어지고, 서로 비라보고, 어울리고, 소통하면서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4〉

분리되고 단절된 공간에서 교류는 일어나지 않는다. 자주 만나고 쉬이고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공간에서 교감은 시작되고 친화와 이해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그림 7〉, 〈그림 8〉



〈그림 9〉 매상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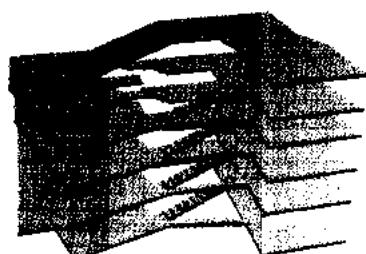
〈그림 10〉 투명한 블록을 형성하는 타공판

### 네이션 닷컴 사옥\_소통을 통한 효율의 추구

네이션 닷컴은 동명의 패션회사 사옥 별관이다.

길 긴 너편에 있는 본관과 비교했을 때 실제 연면적은 적더라도 긴률이 작아보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축주의 요구가 있어 대지경계선에서 법적 및 공사조건상의 최소 이격거리를 제외한 최대 블룸을 만든 후 건폐율, 용적률, 지상주차 등 법적 사항 반영 및 차광, 환기위한 중정의 설치 등 환경적 캐리티를 만들어 가면서 블룸을 떨어내는 순서로 작업을 하였다.〈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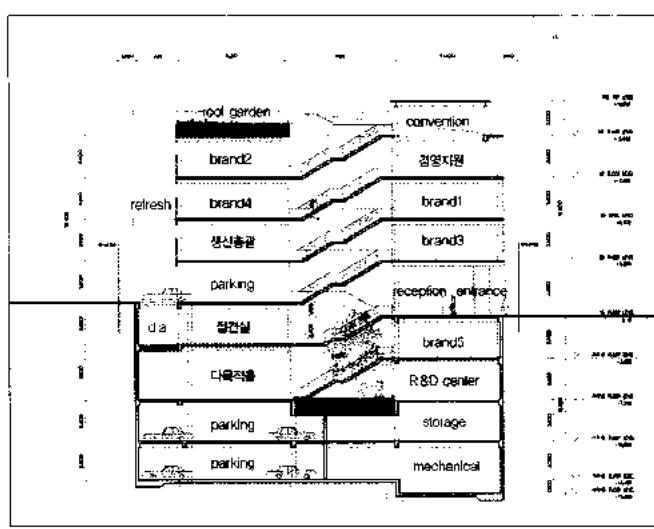
최초의 최대 블룸대로 타공판을 이용한 스크린을 설치하여, 냉어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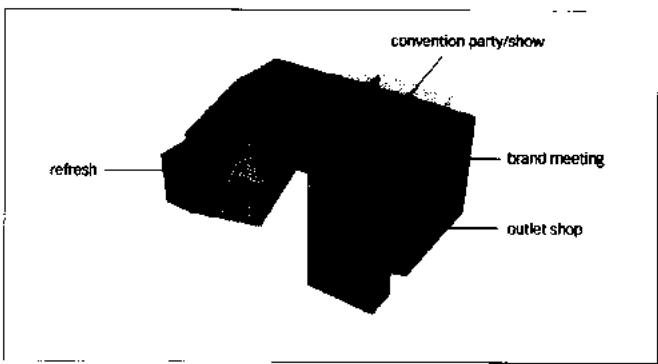
〈그림 11〉 Skip Floor



〈그림 12〉 중정을 중심으로 한 work space의 연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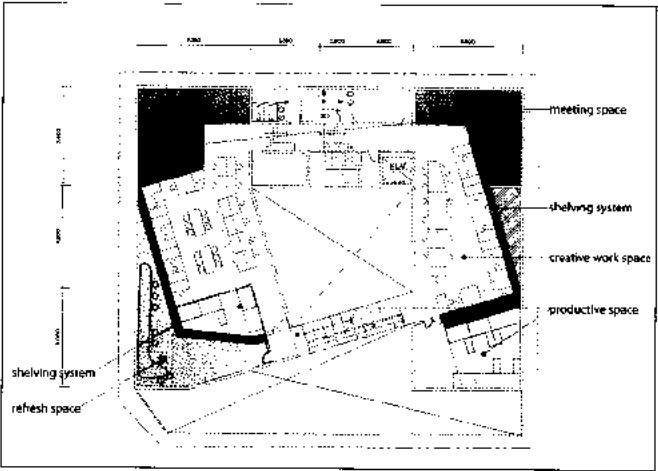
〈그림 13〉 단면상의 프로그램 배치



〈그림 14〉 외부통신



〈그림 16〉 준공사진



〈그림 15〉 내부공간조직

서의 물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외부에서 볼 때 전체 건물 불륨이 커보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인근 아파트로의 시각적 차폐를 통한 상호간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였다.〈그림 10〉  
네티션 닷컴 내에는 현재 6개의 브랜드가 있는데 판매량에 따라 브랜드의 생성, 소멸 및 확대, 축소가 빈번히 일어난다고 한다.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구조가 필요했다.

중정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반 층씩 스크립트되고 브릿지와 외부계단으로 연결되어 브랜드의 확장 및 축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내부 중정을 통해 브랜드 간의 일하는 모습들을 마주볼

수 있어서 시각적 소통을 통한 하나의 회사로서의 일체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11〉, 〈그림 12〉

6개의 브랜드를 써포트하는 생산총괄기능은 단면상에서 이용이 편리한 중간 위치에 경영지원본부는 최상층에 배치하였다.〈그림 13〉 또한 패션브랜드 사옥으로서 외부적 이미지 창출과 소통을 위해 내부의 활발한 활동들이 외부로 표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1층 스트리트 레벨의 아웃렛 매장, 브랜드 미팅 장소, 직원들의 리프레쉬 공간, 최상층의 파티나 소규모 패션쇼를 위한 공간 등이 투명한 유리 매스로 구성되어 도시공간 쪽으로 열려있을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14〉

6개의 브랜드 각각은 하나의 독자적 회사처럼 운영되어 하나의 브랜드 공간에서는 디자인 기획부터 샘플제작까지의 전 과정이 이루어진다. 각 난계별로 디자이너와 샘플제작자가 밀접하게 일 할 수 있는 환경이 요구된다. 내부공간조직을 각 기능에 따라 creative work space, production space, meeting space로 나누고 각 기능공간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보관물들을 수납하는 shelving system 자체가 파티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네티션 닷컴 사옥의 프로그램 배치는 패션디자인 회사의 작업공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관찰을 통해 내부적으로는 효율적 소통과 외부적으로는 효과적 소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한다.〈그림 16〉 ■

## 자연과 건축의 역설적 조화

### Paradoxical Harmony of Nature and Architecture

한지형 / 아주대학교 건축학부  
by Han, Ji-hyeong

땅은 건축의 존재 이유가 되고, 이를 둘러싼 자연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관대함으로 오만할 수 있는 건축에 겸손함을 일깨워주곤 한다. 자연에 인간의 손길이 너해서야 하는 순간마다 느끼게 되는 부담감은 아마도 건축의 행위가 그의 유기적 속성에 반하게 되고 훼손시키게 될까봐 염려 하는 차원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닐런지.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건축의 원리에 기반을 두기 보다 땅을 이해하고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을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내재적, 표상적 성격이 서로 다른 자연과 건축이 과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일까? 역설적 조화를 통해 서로의 존재를 강조하는 절제의 건축, 대비의 건축을 추구하고자 한 다음의 두 프로젝트에는 이러한 고민이 담겨있다.

#### 가평 백둔리 주택

가평의 한적한 마을 산 어귀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 지형(Topology)에 대한 해석이 이 주택의 배치와 공간 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땅을 어떻게 쓰면서 균형감있고 조화로운 배치를 할 수 있을까? 땅 레벨 변화의 정도가 크고 굴곡이 심한 땅의 조건을 긍정적으로 이용하여 공간간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함으로써 이 장소에 맞는 설계에 이르게 되었다.

기존 경사 지형의 조건을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대지에 순응하면서 절제된 인공미를 결부시키기 위해, 땅의 생김새와 주변을 해석하면서

합리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 곳이 평지가 아닌 경사지이기에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었는데, 토사 흐름과 물에 대한 배수처리를 합리적으로 하여 십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여기에 3개의 평행한 벽을 둘러싸 미 벽들이 중요한 공간적, 구조적, 시각적 역할 등의 디중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 역할 중 하나는 땅의 흐름에 맞는 배치로 배수처리와 연관되어 있으며 자연적 담이 집의 벽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함으로써 단순히 공간을 구분짓는 드립된 기벽이 아닌 집의 연장으로 인식시키는 것이다. 또 다른 역할은 레벨의 차이를 극복하면서 공간을 구분짓는 낮은 구획담을 끼고는 낮은 관목 식재나 텃밭 가꾸기 등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두 개 영역으로 구분됨으로써 시선의 변화와 동신의 흐름을 유도하는데 이렇게 첫 번째 만나게 되는 벽은 집 전체 구성에서 핵심적 요소가 되고 있다.

건축 형태의 단순하고 정제된 표현으로 건축을 구현하고, 지면과 연결된 거친 재질의 담과 떠있는 차가운 사각형 볼륨의 내비가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주택의 진입에서부터 단계별로 경험하게 되는 공간의 시퀀스적 변화가 있으며 내외부 공간의 부과 작용으로 안과 밖이 하나가 된다. 자연스러운 영역구분과 시선의 처리가 다양하여 건축적 사원스의 완급이 조절되고 있다. 다음으로 별저실 공간에 대한 호기심을 유도하면서 어느 지점에 다다랐을 때 모습을 드러내는 수법을 적절히 구사함으로써 공간의 긴장감과 완화를 의도하였다. 그리고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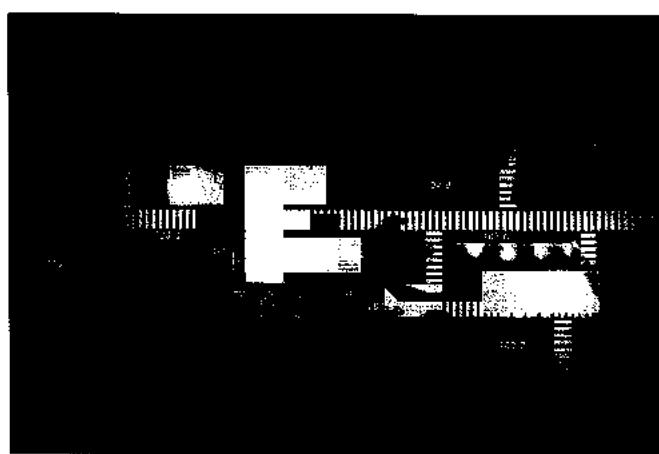


그림 1) 평행한 3개의 벽으로 경계를 구분하고 흐름을 만들면서 자연 경사에 순응하도록 공간 구성을 한 가평 백둔리 주택의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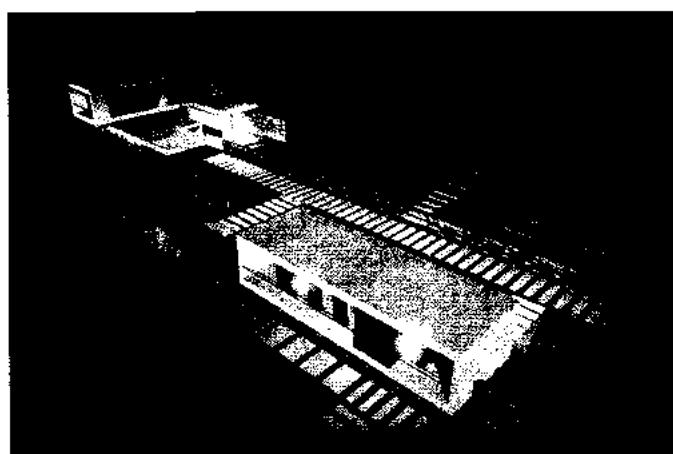


그림 2) 자연과 건축의 대비되는 조화를 보여주는 조감도



〈그림 3〉 진안로에서 바라본 주택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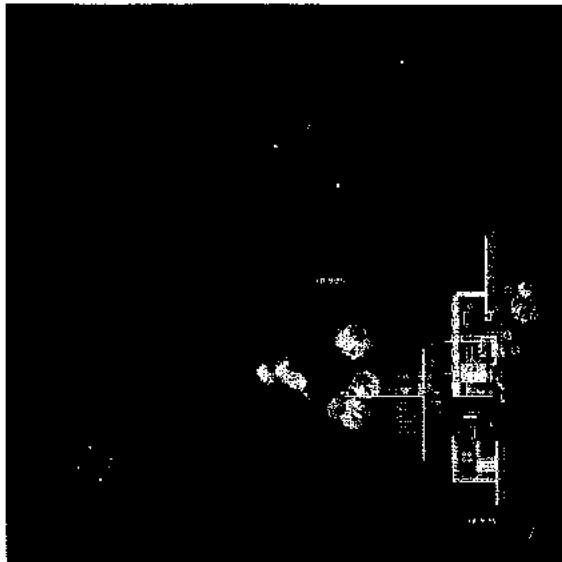
〈그림 4〉 춘공 당시의 모습(2009)

경을 위한 액자 효과를 적극 이용하여 집안에서 계절의 변화를 감지하고 자연과 소통하는 것을 건축적 매개 장치를 통하여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인간과 자연의 거리를 조절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건축 공간의 경험적이고 시각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기능적 차원에서 융통성있는 공간계획으로 변화 가능성에 대처하고자 하았는데, 사용 가족 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이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아버지의 사적인 공간 영역, 공동 공간 영역, 아들 가족 공간 영역, 손님 공간 영역 등 공간의 성격별 영역의 분할 관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때에 따라 공간의 융통성있는 개폐가 가능하고 냉난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설계에 반영되었다. 또한, 별채는 외부로 연결된 출입문의 독립적 설치로 아래층과 위층을 따로 따로 쓸 수도 있고, 하나로 연결하여 쓸 수도 있다. 그리고 치후 증축의 가능성도 염두에 둔 배치 계획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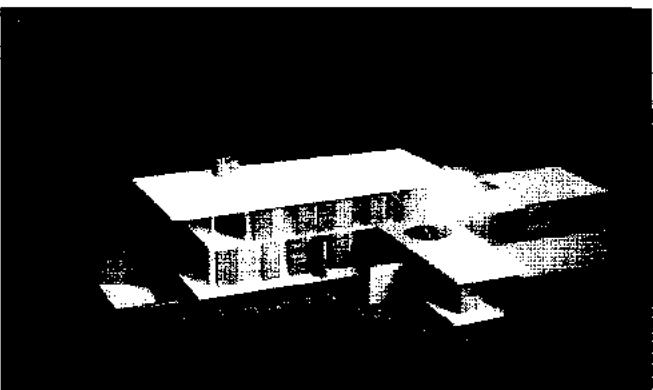
### 양평 수입리 주택

남한강의 시원한 풍광을 안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터에 한적한 삶을 담고자 한 이 집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됨을 꿈꾸는 한편의 시와도 같다. 산과 강을 바라보고 있는 이 집의 마당은 아마도 세상 모두를 품고 있는 듯하다. 이 장소가 지닌 잠재적 가치를 끌어내고 일상의 삶을 담아내기 위해 건축과 랜드스케이프(Landscape)를 일체화하여 설계하고자 하였다. 즉, 땅이 가진 맥락, 주택 프로그램의 분리와 건축주의 요구 등을 받아들이면서 기능을 충족시키고, 건축과 랜드스케이프가 조화되는 자연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주택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연의 풍경, 인공의 형태, 인간의 행위가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주거 공간, 주변 자연 환경과 건축 공간의 통합 등으로 나타나는 인공과 자연의 대비와 조화를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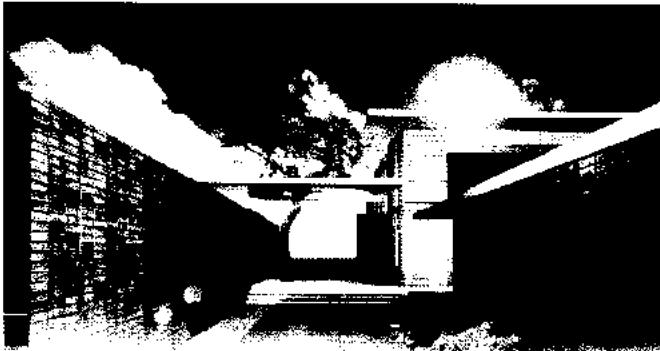
이 주택 설계에 있어서도, 가평에서와 마찬가지로, 담은 중요한 공간적 의미를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로 도입되었다. 눈앞으로 넓게 펼쳐진 풍경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진입로를 따라 우후죽순으로 개발되어 눈을 어지럽게 만드는 온갖 것들을 거쳐야만 한다. 이러한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단절이라도 시키듯이 뻗어있는 담을 따라 들어가면 정적이고 평화로운 공간으로 유도된다. 여기에서 담은 경계의 구분 역할 뿐만 아니라 마당의 내향성을 또한 확보해준다. 또한, 수평적으로 펼쳐진 구성의 주 요소인 담은 집의 일부로 이어져 구조체의 연출을 하기도 하고 다시 외부로 뻗어나가 영역의 확장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 대지에 남아있던 기존의 작은 건물을 리노베이션(renovation)하여 주택의 일부로 편입시키고, 주생활이 이루어지는 본채와 서재의 기능을 갖는 사랑채로 구분하고, 강가에 정자가 배치시킴으로써 주택의 전체를 구성하였다. 담을 따라 진입하여 중앙에 나무가 심어진 반(半) 외부공간이 본채와 사랑채를 분절시키면서 집의 본격적인 입구가 된다. 그리고 나눔과 연결을 동시에 고려하여 남한강과 마당을 걸터 앉아 볼 수 있는 텁마루기 두 채를 연결해주고 있다. 사랑채의 반투명한 새질인 유리와 목재 프레임이 한옥의 창호지 문을 떠올리게 하고, 문을 열면 언제라도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다. 강가에 면하여 배치된 정자는 자연과 인간이 일체감을 가지게 되는 공간이 되며 외부화된 내부가 되고 있다.



〈그림 5〉 양수리 주택의 배치도와 2층 평면도



〈그림 6〉 수평적으로 균형있게 펼쳐진 공간구성을 보여주는 주택 모형



〈그림 7〉 동선 유도와 공간 분절을 보여주는 딤과 전입로의 모습



〈그림 8〉 밤에서 바라본 본체와 사랑채의 모습

이 주택의 설계는 또 다른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한국적 정서와 조형의 의미를 담고 있는 집을 만들기 위해 우리 한옥의 공간적, 형태적 요소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되, 절제된 건축 형식으로 변안하였다. 또한, 나무, 전돌 등 자연 재료의 은은한 느낌을 살려 단순하고 절제된 건축형태와 결합시킴으로써 사는 사람의 취향과 격조를 담아내고자 하였다.

내부 공간에서도 절도있는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열린 조망이 가능한 2층 주인침실과 연결된 테라스와 아래층 거실의 넓은 유리창은 내외부의 상호 관입을 가능하게 하였고, 식당 공간을 수직적으로 열어 높음으로써 상하 연결된 공간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것은 거주자의 일상적 편의성과 기호를 고려한 합리적 내부 공간 구성과 땅이 가진 잠재적 가치를 건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채워짐과 비워짐이 하나가 되어 승화되었고, 내외부 공간의 연속성이 공간의 긍정적 모호함을 이끌어낸다.

툇마루의 떠있는 바닥면과 시원하게 뻗어나온 지붕들 사이에서 이 집은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의 커를 두는 듯 수평적으로 펼쳐진 집이 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조희와 균형을 이루며 대지에 밀착되어 뻣어나가듯 배치된 채들과 담들이 함께 한다. 열림/닫힘, 따뜻함/차가움, 가벼움/무거움, 수평/수직, 단순성/ 복합성 등의 대비적 공간 구성과 형태 표현에 의해 내외부 공간의 극적 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시적 감수성을 불러일으키는 이 집에 갖든 멋과 정취를 상상하면 마음이 즐겁다.

건축설계의 방법에 정도는 없지만 우리는 항상 무엇이 더 좋을지, 그리고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건축은 자연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함께하고,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되풀이하곤 한다. 건축과 자연의 역설적 공존 미학을 만들어가기 위해. ■

## 노인과 아이들, 그리고 여성을 위한 연구

### Study For the Elderly, Children, and Women

박혜선 / 인하공업전문대학 건축과  
by Park, Hae-sun

#### 복합화 · 복합시설

호황기에는 업종 세분화가 강하게 진행되는 반면 불황기에는 점포들의 복합화가 추진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최근 창업시장에서는 메인 상품과 관련 상품을 함께 구비해 고객을 모으는 '복합매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던데, 이마 고객들은 한 곳에서 필요한 상품들을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일 것이다.

한편, 정부 주도로 시행되어왔던 학교시설사업이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바뀌어가면서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학교시설 복합화라는 말이 부쩍 많이 들린다. 학교시설 복합화란 보육시설,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노인 복지시설 등 주민생활에게 필요한 시설을 학교를 중심으로 복합적, 입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각급 학교의 부지와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학교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도시 재개발에서는 더더욱 복합이라는 용어를 흔히 접할 수 있다. 주상복합, 업무복합, 스포츠·오락복합, 복합환승센터 등. 덕분에 우리는 영화보고 쇼핑하고 밥 먹고 운동하는 것을 헛빛 한번 안 보고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 원래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나 복합시설이란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익이 적절히 맞을 때 만들어지는 것 같다.

#### 노인 연구

2002년 현재의 대학으로 부임하면서 뒤늦게 박사과정을 진학하였고, 그 이수과정을 통해 노인복지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 우리도 머잖아 인구의 오분의 일이 노인이 될 것이고, 우리의 주거나 시설도 가장 사회적 약자인 노인이나 장애인에 맞추어 만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노인시설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농어촌의 고령화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실제는 소일거리가 없는 노인들이 모여 있는 도시가 더욱 문제이다. 우리나라에는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내용은 차치하고)이 무수히 마련되어 있고, 환자들을 위한 병원이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으나 나이를 먹어가며 노인들의 건강상태의 변화에 따라 케어를 담당할 시설이나 기관을 찾기 어렵다. 병약해진 노인은 가족이 돌보기 어려운 상태가 되면 선택의 여지없이 곧바로 요양원이나 병원으로 가야한다. 물론 그때까지 가족이 받는 고통이란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러한 생각이 지역

사회에서 노인을 돌보는 'aging in place'란 개념이고, 최근에는 노인을 따로 격리해서 시설에 모시는 요양시설보다는 집에서 머물면서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가까운 재가시설을 이용하는 형태로 점차 노인케어의 개념이 변화하는 추세를 이해하게 되었다. 복지 선진국에서도 재정 부담이 큰 시설보호나 의료적 서비스의 경우는 최소한의 수요를 만족하도록 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집중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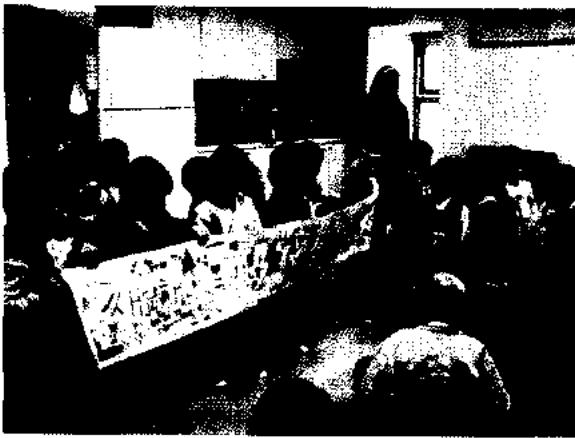
노인들을 위한 재가시설에 대해 연구하다 보니 그 중심엔 '주간보호시설'이 있는데, 최근의 시설들은 단독으로 존재하기보다는 다른 복지 시설이나 일반시설들과 녹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도심에서는 자가상승과 부지 부족 등으로 기존 노인복지시설과 지역시설을 복합화하는 사례가 많다. 한편, 여러 복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국가나 지자체가 신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복수의 시설을 동시에 건설하거나, 기존시설을 증축 혹은 재건축하면서 복지시설을 추가로 건립하고 있다. 이것은 시설의 건립과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행정적인 요구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모두에도 언급했듯이 이용자는 여러 가지 목적의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다. 물론 영화만 보러 온 사람이 쇼핑객들과의 불필요한 등선고지에 짜증이 나듯이, 한 가지 목적을 갖고 방문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번잡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시설의 집약화로 인해 규모와 내용면에서 충실히 질 수 있다는 장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 노인복합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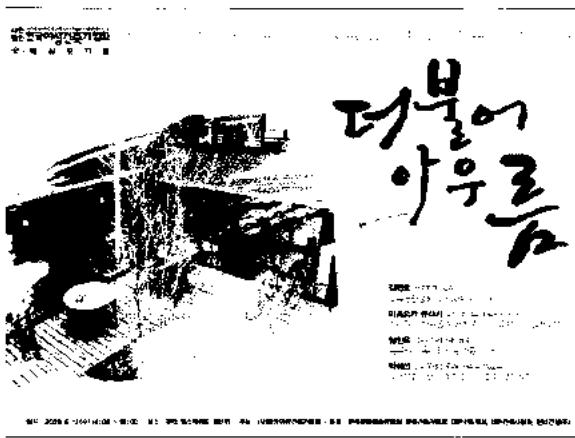
서론이 길어졌으나, 이러한 경유로 필자는 노인건축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노인복합시설에 주목하게 되었다. 노인복합시설은 '복합'이라는 용어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매우 다양한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노인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면 모두 '노인복합시설'이다. 노인복합시설로 박사논문을 쓰게 되면서, 복지시



(그림 1) 뿌리와 새싹 커뮤니티 센터 전경(원쪽이 노인여가시설, 오른쪽이 어린이집)



〈그림 2〉 뿌리와 새싹 커뮤니티 센터에서의 세대간 교류 모습



〈그림 3〉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노유복합시설 국제실품지엄



〈그림 4〉 후지노베 보육원의 원어머니들



〈그림 5〉 유유 레이서비스센터 데이트에서의 세대간 교류의 모습

설들이 한 곳에 모아져 있는 국내 시설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조사하게 되었다. 사실 현재의 종합사회복지관은 공급자의 행정적 편의의 위해서 여러 복지시설들이 함께 지어졌으나 진정한 의미의 '복합'이라고 하기 어렵다.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상가건물에 많은 점포들이 입주해 있는 것과 유사하다.

종합사회복지관에는 다양한 이용자 계층을 위한 시설들이 있는데 대상자는 노인과 유아, 아동, 주부가 주류이다. 청소년과 장애자도 해당이 되나 소수이고 많은 사설들이 어린이집과 노인주간보호센터니 경로당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인자라 자연스럽게 노인과 유아시설의 복합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기까운 일본의 사례를 찾아보면서 유로복합(幼老複合) 사설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일본의 유로복합에 대해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세대간 교류'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었으며, 유로복합의 중심 테마인 세대간 교류가 현대사회 가족 내 문제에 대한 치유,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서의 공생이란 면에서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세대간교류협회 (Intergenerational Unity Association)' 린 기관도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세대간 교류

2007년 우리나라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2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저 수준이라고 한다. 가구당 가족수도 매년

감소되어 미혼 1인 가구, 한 부모 가구, 노인 가구 등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조부모와 한 가구에서 사는 대가족을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나. 할아버지, 할머니와 가끔씩만 만나는 요즈음 아이들은 노인들과 도대체 어떻게 접해야 할지 모른다고 한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집 안에 조부모도 형세도 없는 아이들을 가진 가정이 일반화 되었다.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과 함께 이러한 부모의 육아 불안의 증대는 또나시 출산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 이카리 코이치(碇 浩一)가 주장한 '노유공생'이란 개념이 설득력을 가진다. 그는 어린이집을 지역사회의 핵으로 하여 영유아기로부터 아이와 노인이 생활의 장을 공유하는 새로운 지역사회 모델을 제안하였다. 도시화, 산업화가 가져온 핵가족화, 그리고 해가족화로 인한 여러 가지 가족 간의 갈등,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대가족 사회에서의 장점을 현재의 사회적인 시스템 내에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핵가족화에 따라 조부모와 접촉 기회가 적어진 요즈음의 아이들은 이전과 같이 조부모 기능에 대해서 제작할 수 있었던 체험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체험을 지역사회 노인과의 교류에 의해 보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노인과의 교류는 실제 조부모와 접하는 것에 가까운 경험이 가능하여 정신적인 평안을 주는 장으로서, 또한 문화가 전해지는 장, 사회활동의 미니체험이 가능한 장이 될 수 있다. 세대간 교류에 대해서 아이들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워 폭 넓은 인간관계를 기질 수 있으며 타인에 대한 배려를 통해 풍부한 정서를 키울 수 있다. 물론

노인들에게도 아이들과의 교류는 삶의 활력이 되고 생의 보람이 된다.

## 노유복합시설

이러한 생각들에 대한 필자의 제안을 통해 지난해 여성건축가협회 노인복지분과는 노유복합시설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했다. 그 후 보육분과와 협동으로 2009년 2월 일본의 유로복합시설을 견학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지난 6월 '노유복합시설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일본에서도 노유복합에 대한 개념을 실천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은 선진사례라고 한다. 하지만 미리 세대간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곳을 조사하여 방문하였으므로 견학지의 대부분은 세대간 교류에 대한 효과가 긍정적이었다. 특히 사가미하라시의 후치노베 보육원과 유유데이서비스센터의 사례가 흥미로워 그 곳의 부원장이 심포지엄에 초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노유복합시설 심포지엄을 준비하면서 특히 고민에 빠졌던 것은 일본의 사례가 중심이 되고, 국내에는 소개할 만한 노유복합시설의 사례가 없다는 점이었다.

그러던 중 발표자 중 한 분이었던 김찬호 교수의 소개로 대전에 있는 '뿌리와 새싹'이라는 어린이집과 경로당이 함께 지어진 곳을 알게 되었다. 대덕테크노밸리의 한 아파트단지에 인접한 곳에 위치한 뿌리와 새싹은 2008년 10월 개원된 곳이었다. 뿌리와 새싹어린이집과 뿌리문화원이란 명칭의 노인여가시설이 함께 만들어진 곳이다.

한화그룹의 자회사인 (주)대덕테크노밸리가 대덕테크노밸리 신도시를 운영한 후 기업의 사회적 기여의 한 방법으로 노인과 아동이 함께 생활하면서 건강한 지역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역커뮤니티센터를 설립하고자 하였다고 한다.

현재 이곳은 지역주민의 지녀와 입주사업체 근로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영유아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직장보육시설인 뿌리와 새싹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 노인여가시설은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활동위주의 노인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설은 (주)대덕테크노밸리가 관평동에 대지 약 200평, 건평 약 217평의 2층 건물을 시공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고, 센터의 운영은 (사)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 위탁운영을 맡고 있다. 공동육아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이 함께 자리하여 어린이와 노인을 중심으로 가족이 어울리는 생활공동체, 세대 간의 소통공동체, 이웃 간의 마을공동체로 지역의 공동체를 되살리는 커뮤니티센터를 지향하고 있다. 실제 방문해 보니 부부이신 원장님과 사무장님이 아이들을 대리고 열심히 보육과 세대간 교류에 힘쓰고 계셨을 알 수 있었다.

아쉬웠던 점은 법규적 제약으로 두 시설이 복합되거나 연결되지 못하고 별동으로 지어졌다는 점. 그리고 아직 개관한 지 얼마 안 되어 세대간 교류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노유복합시설은 인생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시기를 사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면에서 각별히 취급되어져야 한다. 물론 이 시설의 이용자 층위를 캐어하는 주체가 여

성 혹은 주부라는 면에서 더욱 관심이 간다. 노인과 아이들의 교류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다. 내가 키워야 할 아이들의 사회적 교육을 담당하고, 내가 부양해야 할 부모들의 케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주제라서 연구하는 보람을 느끼나 부담 또한 적지 않다.

##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일본 노유복합시설을 방문·조사를 하면서 노유복합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잘 계획된 시설에서는 오히려 교류가 없고, 독립적으로 만들 어지고 연결통로도 변변치 않은 시설에서 원활한 세대간 교류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하드웨어로서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가의 의도와 실현여부에 대해 회의가 드는 부분이었다.

공간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해하여 계획하고 실현하는 '사람'이 없이는 건물은 단순한 겁데기에 불과하다. 즉 어떠한 좋은 시설도 그에 걸 맞는 소프트웨어 없이는 의도된 공간으로의 쓰임새가 무의미해진다. 공간의 유무나 설비여부 보다는 시설 운영자의 가치관, 의지, 노력, 기획력 등에 따라 세대간 교류에 큰 차이를 가졌다. 그러나 사람은 환경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의지를 갖고 구현하려는 곳에서 하드웨어는 훌륭한 소프트웨어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서 하드웨어가 몽사해야 한다고 연구의 미무라를 하면서 느끼게 되었다. 다른 건축에 있어서도 아마 공통된 과제일 것이다. 건축가는 그릇 뿐 아니라 담아내는 콘텐츠의 구성과 실현에도 힘써야 함을 깨달았다.

## 노인복지연구의 향후 추이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더욱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서 많은 인프라의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실제 지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전후 노인복지시설을 둘러싸고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금후도 그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노인시설의 확대, 보육시설의 축소 및 전환이 중심을 이룰 것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설간 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노인에 대한 문제는 사회·심리적인 연구, 복지서비스, 정책에 대한 연구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직접 실생활에서 부딪치는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므로 너 많은 공부와 경험이 요구된다.

연구자, 혹은 설계자의 입장에서, 또한 노인과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해결해야 할 저출산·고령화를 놀라싼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

개인적으로 이 분야에서는 아직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시각에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가족의 문제, 내 이웃의 문제가 연구 주제가 되고 공간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된다는 점에 감사함을 느낀다. ■

# 학교환경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 리서치 : 친환경과 장소성

## Design Research focused on School Environment : Green & Sense of Place

이선영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by Rieh, Sun-young

학교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 오랜 기간에 걸쳐 머무르게 되는 공공시설로서 주거와는 또 다른 의미로 개인의 생애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초등학교는 보호자의 손을 떠나 독립성을 익히며 사회성을 키우는 배움의 장으로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육체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는 특별한 장소이다. 이 장소에서의 경험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기억 속에 각인되어 일생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학교공간의 질과 내용은 신중하게 연구되고 구축되어야 할 당위성을 갖는다.

근래 몇 년간 필자의 연구주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춘 건축의 친환경문제나 장소성의 문제를 초등학교라는 특정시설에 적용시켜 더 나은 시설로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디자인리서치로 요약될 수 있다. 친환경성, 장소성, 거주 후 평가가 키워드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단순한 에너지 절감이라는 친환경적 건축설계의 한계를 넘어 그런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어린 시절부터 체험하는 환경교육의 장으로서의 환경친화학교, 하나의 장소로 각인되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학교 내 장소성의 구축문제, 그리고 정책차원에서 새로이 시도되고 있는 운동장 없는 초등학교 시설에 대한 행태 및 인식분석을 통한 거주 후 평가 및 대안제시 등이 그 주된 내용이다.

개인적으로 학교시설에 집중하게 된 계기는 2003년 과학재단의 연구 지원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필자가 건축가로서 대학에서 교편을 잡게 되면서 연구와 실계의 전문이 시연스럽게 시도되고 있던 시점이었으며 국내 친환경건축에 대한 인식이 살비엔지니어 위주로 왜곡되고 설계분야가 위축된 상황에서 건축가가 친환경설계를 주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던 때이기도 하다.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의 설계과정의 보형화?: 가장 석설한 시도로 생각되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던 중 과학재단의 연구비를 2년간 지원받게 됨에 따라 대표적 공동시설이면서도 건축사의 양적, 질적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학교시설을 친환경 설계모형으로 발전시키는 시도가 이루어 진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2007년 연구년기간 동안 풀브라이트재단 지원으로 University of Hawaii에서 '초등학교 내 이동의 징소성 구축'이라는 연구주제로 확장시킬 기회로 이어졌고 현재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2년간 진행되는 '도시형 운동장 없는 학교에 대한 거주 후 평가'로 이어지면서 연구의 성격이 다변화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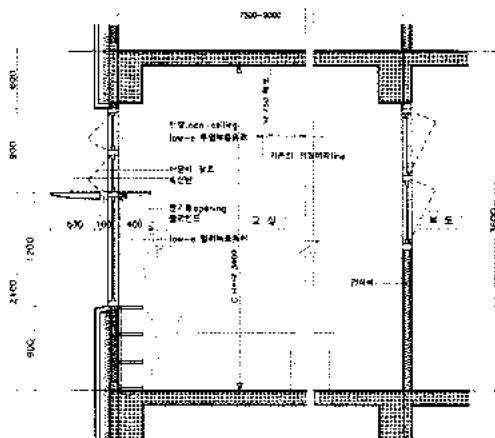
건축분야만으로 국한시키자면 대부분의 연구자들의 연구주제가 본인의 학문적 배경에 따라 다양성은 있되 개인의 역량과 주변여건에 힘입어 하나의 주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게 되거나 하나의 주제가 다

양한 측면을 보듬어 저변0: 넓히지는 양상을 띠게 되는데 반하여 본인은 건축가로 출발하여 아카데미아로 합류하게 된 개인적 배경으로 인하여 과거 국내외에서의 설계실무 경험을 통해 관심이 있던 특정시설에 연구주제를 접목시켜 체계화시키는 디자인리서치로 연구의 성격을 굳하게 된 것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연구프로젝트의 개요를 소개하고자 한다.

환경친화형 초등학교 설계모형개발(2003~2005)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환경친화형 학교는 에너지절약학교나 생태학



(그림 1) 채광과 활기 최적화로 제안된 교실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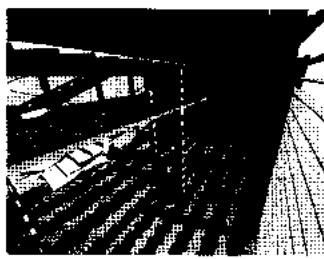


**(그림 2) 빛선반과 반사판 설치 후의 채광성능 검증 (Lightscape 시뮬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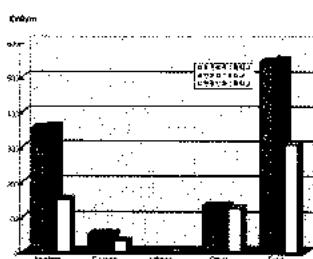


#### 〈그림 4〉 저학년교실의 환기검증(Airpeak 시뮬레이션)

〈그림 5〉 아트리움의 환기감증(Airpeak시뮬레이션)



〈그림 6〉 아트리움/부탁은실 일광성능 검증(3ds MAX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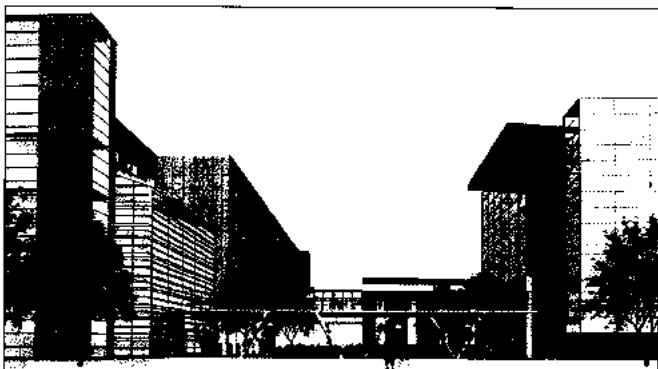
〈그림 7〉 Energy-10을 사용한 에너지사용량비교

Layer	Material	Thickness (mm)	Debye St.
1	Insulation	0.00	0.00
2	Brickwork	30.00	30.00
3	Brickwork	35.00	35.00
4	Brickwork	100.00	100.00
5	Brickwork	100.00	100.00
6	Brickwork	12.00	12.00
7	Brickwork	12.00	12.00
8	Brickwork	12.00	12.00
9	Brickwork	12.00	12.00
Total Thickness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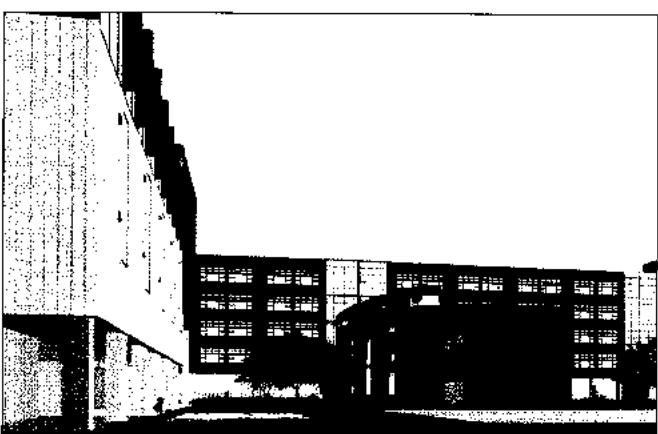
  

Layer	Material	Thickness (mm)	Debye St.
1	Insulation	0.00	0.00
2	Brickwork	20.00	20.00
3	Brickwork	25.00	25.00
4	Brickwork	100.00	100.00
5	Brickwork	100.00	100.00
6	Brickwork	12.00	12.00
7	Brickwork	12.00	12.00
8	Brickwork	12.00	12.00
Total Thickness		300	

〈그림 8〉 Energy-10을 사용한 에너지사용량 검토



〈그림 9〉 계획안 투시도 1



〈그림 10〉 계획안 투시도 2

교리는 이분법을 넘어 교육매체로서의 친환경 공간장치들을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수용하여 학생들의 일상에 노출시키는 교육시설모형을 모색하고 이를 구체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에너지 절감형 교육시설은 유지 관리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넘어 교육환경의 질을 업그레이드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설비에 의존하지 않는 자연형 디자인으로 설계된 학교의 경우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공간

자체가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의 효과가 있다. 본 연구는 건물에너지의 성능에만 주목하는 에너지 질약학교에서 더 나아가 친환경요소의 쇼케이스를 통한 저변 확대를 위해 설계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아트리움, 비오톱, 태양열 집열판, PV패널, 지열 관련 설비, 우수 집수장치, 절수형 변기 등 다양한 환경교육과 자원절약을 겸하는 장치들을 설계에 접목시켜 환경친화형 학교로 설계하되 사이트설계부터 계절에 따른 축열체의 전략적 배치를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검증하고 Lightscape와 Airpak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자연형 디자인을 위한 체광, 환기를 검토하였다.

제안된 계획안의 에너지 총사용량을 Energy-10으로 피드백을 거쳐 에너지절감형학교로 설계함과 동시에 관련되는 공간요소들을 가시화함으로써 환경교육의 도구로 사용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실내공기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친환경재료와 폐기물을 줄이는 재료 및 구축방식의 선택 및 설계 전 과정을 체계화해서 보여줌으로써 건축가가 친환경학교로 계획하는 과정을 스텝바이 스텝으로 설명하였으며 구체적인 설계안이 도면, 투시도와 함께 부록으로 첨부되어 이해를 높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축뿐만 아니라 증개축에도 적용될 수 있는 친환경 설계모형개발을 통해 노후화진행과 더불어 유지관리가 열악한 기존 교육시설의 환경 친화적인 리노베이션을 유도하는 작업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연구의 말미에는 당시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교육시설의 친환경인증 시안에 대한 보완책을 넣었으며 설계자의 친환경전략과 시스템작동에 대한 이해를 수월하게 하고 평가에 도움이 되도록 체크리스트를 포함시켜 인증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넘어 실질적으로 친환경교육시설로 구축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마무리 하였다.

#### 초등학교 시설내 아동의 장소성 구축에 관한 연구(2006~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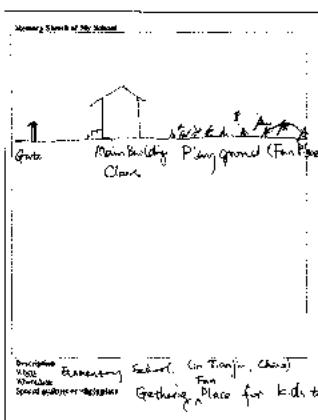
유년기의 장소는 세상과 관련 맷게 되는 개인의 정체성의 틀을 이룬다. 특정 장소에 대한 유년기의 애착은 세상에 대한 이미지와 자아개념의 구축에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장소성은 현재의 한 어린이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일생의 기억에 영구적으로 각인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한 순간의 기억을 추상적으로 모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성인들은 자신이 경험했던 장소의 기억을 통하여 유년기를 반추하게 된다. 우리가 유년기의 물리적 환경의 중요성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장소에서의 경험의 점진적 축적이 가지는 영향력에 대하여 수긍한다면 이러한 장소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연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아동들은 방과 후 시간을 포함하여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들의 학교가 제 2의 집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환경 내에서 장소성 구축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일찍이 피아제는 장소에 대한 애착 없이는 인지능력의 발달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러 측면에서 풍부한 물리적 환경이 그들의 삶에 관여하게 될 때 아동들은 더 긍정적인 정체감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들의 인지능력

은 충분히 개발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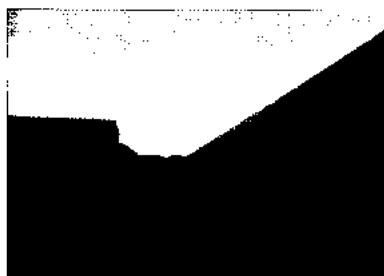
본 연구프로젝트의 목적은 초등학교 환경에서 장소성을 중대시키는 특성들을 찾아내는 작업이다. 그 내용은 학교환경에서 아동의 특정장소에 대한 애착의 양상을 찾아내는 일, 그 공간의 질, 행태적인 특성, 환경에 대한 인지방식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는 장소에 대한 애착이 비록 개별적인 경험일지라도 장소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요소를 특정 장소가 가지게 될 때 궁극적으로 많은 아동들이 장소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덩어리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작업은 성인들의 초등학교에 대한 장소의 기억을 조사하고 그 환경의 긴 시간에 걸친 영향을 찾는 일이다. 두 번째 작업은 어린이의 현재 학교환경에서의 실시간 경험을 분석하는 일이다. 현상학적 측면으로 접근한 질적 연구의 들을 수용하면서 어린이의 학교환경에 대한 실존적 경험을 이해하기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글, 말, 그림을 통한 묘사가 주된 데이터가 되었다. 이 연구는 독특하고 온화한 기후를 가진 까닭에 어린이의 외부환경과의 교감이 관찰되기에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하와이에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가설은 장소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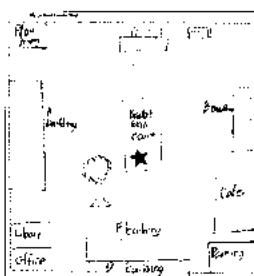
(그림 11) 유년기학교의 풍부한 기억스케치



(그림 12) 유년기학교의 빈약한 기억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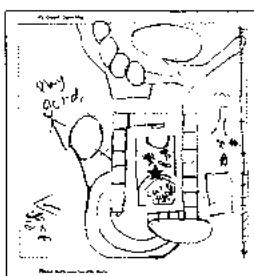
(그림 13) 빈약한 장소성을 가진 학교(하와이 소재 A School)



(그림 14) A School 5학년 학생의 학교 소개 스케치



(그림 15) 다양한 장소성 구축을 보인 학교(하와이 소재 W School)



(그림 16) W School 5학년 학생의 학교 소개 스케치

학교들이 어린이의 반달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매일 일상에서 경험한 어린이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 장소를 생생하고 긍정적인 기억으로 각인시킨다는 것이다. 이 작업을 위하여 환경의 질, 공간의 분절감과 특징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는 3개의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고하년 80여명의 학생들이 인터뷰되었다. 학교환경내 공간의 성격과 질이 어떻게 장소성을 구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드러내기 위하여 스케치, 설문, 인터뷰가 병행되었으며 아동들의 응답에서 나타난 이러한 물리적 환경, 형태, 가치, 감각적, 감성적 장소의 양상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학교설계를 위한 중요한 사실들이 발굴될 수 있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개개인의 어린 시절 학교 공간에 대한 기억스케치를 통하여 그 장소의 대한 묘사, 기억들을 생생히 살아내어 어떠한 학교들이 궁극적으로 긍정적이며 생생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는가를 추적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성인의 기억과 현재 아동의 학교 내 장소에 대한 경험을 연계하여 장소성을 둘러싼 아동기 물리적 환경의 질과 성장후의 각인이라는 조각난 지식의 실체들을 통합할 수 있었으며 건축설계와 아동의 발달단계의 간극을 메우려는 시도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어린이의 성장발달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장소성이라는 측면에서 들여다 볼 때 더 나은 학교시설의 설계를 위해 건축가들이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들을 들추어낸 것이 본 연구가 가져온 성과라 할 수 있다.

#### 도심내 운동장 없는 초등학교시설의 거주후 평가 및 개선방향을 위한 질적 연구(2008~현재)

전 세계적으로 교육시설 계획은 그 방향과 질의 확보에 있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 변화의 주된 방향은 크게 평생교육의 장이라는 시역사회의 핵으로의 변환, 도시화의 진행으로 인한 복합화와 집적화, 환경 친화적인 시설로의 전환이라는 3가지라 할 수 있으며 그 중 빌자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화와 관련된 복합화, 집적화는 다음과 같은 계획 관련 이슈들을 아우르게 된다.

먼저 주어진 대지의 잠재력을 십분 발휘하여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공간적 요구를 어떻게 유연하게 충전시키고 연결하는가의 문제, 둘째, 고밀도의 주변택역에 어떻게 다양한 공간들을 삽입시키느냐의 문제,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빈약한 예산에서 어떤 시으로 공간을 집적시켜 공시비를 절감시키면서 교육의 질은 확보하느냐의 문제가 그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도심형 소규모학교의 새로운 계획방향을 모색하게 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에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위 교실 당 학생 수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켜나가는 문제와 맞물려 신축 및 증개축을 앞둔 초등학교의 숫자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높으며 이러한 와중에 도심 내 지가상승과 관련하여 학교용지의 확보문제는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 개정된 우리나라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은 그동안 금기시 되어 온 체육장의 기준면적 완화라는 급 처방을 내어 놓았고 이는 결정적으로 도심 내 소규모 학교시설의 전면적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 인접 시설의 공동사용을 전제로 하는 이러한 완화조치는 그간 당연시 여겨온 초등학교의 외부공간에 대한



〈그림 17〉 운동장 없는 학교에서의 체육수업장면(서울 D초등학교)



〈그림 18〉 운동장 없는 학교의 달리기트랙(서울 H초등학교)

인식을 전환시키고 있다. 학교를 단지 학습의 장으로 인식하는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이러한 조치와 커리큘럼에 따른 대안적 공간의 확보는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성장기 어린이의 삶의 장으로서 학교를 인식한다면 이는 엄청난 변화를 의미하게 된다. 초등학교는 그 자체가 어린이들이 사회성을 점진적으로 억혀가는 출현의 장이고, 신체발달과 인지발달이 급격히 일어나는 장이며 미적욕구가 가속화될 수

있는 잠재적 장소이므로 정서발달과 인지발달이라는 또 다른 측면의 고려도 이러한 학교의 규모축소와 더불어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수도권에 지어진 현재 사용 중인 운동장 없는 학교에 대한 거주 후 평가를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 주어진 교과과정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로 인식된 학교시설이 새로운 규정에 맞추어 변화될 때 우선순위가 부여되는 개별공간에 대한 파악과 이러한 변화가 재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는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들 학교에서 보이는 공간구성의 양상과 이를 사용하는 이용자 측면의 인식 및 정서적 반응, 인지도 측면의 파악은 단순히 수치화 될 수 없는 질적 연구(Qualitative Study)를 요구한다. 개별적 차원의 공간경험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만이 거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도심형 소규모 학교에 대한 계획 방향 설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지어진 수도권의 운동장 없는 학교들에 대하여 디자인 모형을 구축한 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하여 다양한 환경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 질 것이며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이용행태 관찰 및 기록이 심층인터뷰와 더불어 병행된다. 그리고 기준의 표준 설계학교와 현대화학교에서의 조사결과와 비교분석을 거쳐 도심형 운동장 없는 초등학교가 가지는 공간적 특성이 이용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게 된다. 이때 파악된 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추출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도심형 소규모 학교시설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설계하는 건축가와 입안자들에게 요구되는 공간의 질과 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 앞으로 수없이 쏟아져 나올 새로운 교육시설의 계획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내용이다.

#### 다양성의 회복, 장소의 회복을 위한 질적 연구의 의미

현대사회의 예측 불가능한 변화는 동시대인에게 이미지와 스피드를 넘어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갈구하게 한다. 장소에 매이지 않는 테크놀로지가 발달할수록 더욱 장소의 중요성을 절감하며 더 나은 곳으로 몰려들게 되는 현상의 기저에는 다양한 인간을 이해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사려깊은 공간에 대한 욕망이 깔려 있다. 이미지에 집착하거나 타성에 젖은 설계방식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더 나은 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질적 연구와 디자인리서치의 중요성이 유년기 장소의 기억과 학교공간을 접목시키는 연구에서 필자는 환경심리학뿐만 아니라 정신분석학, 발달심리학, 치리학 분야가 만나는 접점에 건축이 위치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 환경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삽입된 환경친화학교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교육학과 생태학이라는 학문분야간의 크로스오버를 경험하였다. 이는 이미지가 난무하는 시대에도 인가성의 회복과 일상의 회복이라는 근본적인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는 다양한 배경에서 커온 각양각색의 건축가와 연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다.

우리나라의 건축계는 지금 젠더를 넘어 다문화, 외국인 등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배경의 건축가들이 가시적으로 활동하는 새로운 시기를 맞고 있다.

또한 지금은 건축문화의 수준 향상과 더불어 사용자로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우리 건축계가 이러한 다양성을 대승적으로 수용하여 더 나은 건조환경을 이루는 데에 필자가 시도하는 바와 같은 현상학적 기반의 질적 연구가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



## 진화되는 도시건축 이미지, Skin의 패션화

### The proliferation urban architecture image the becoming skin as a fashion

강소연 / 607Square, 실내건축, 공학박사  
by Kang, So-yeun

#### 서문

다양면서 융합할 수 있는 두 장르, 건축과 패션에 대한 관심의 표명과 이에 따른 인식의 전환에 대한 출발점에서 시작한 연구로서 아연구는 새로운 소통을 찾으려는 의도로 서술되었다.

최근 건축과 패션은 도시환경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예술의 한 영역으로서 3차원적 조형성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근본요소를 공유하고 있으며 시대적 문화현상의 반영물로 다양한 내적 의미의 외적 표현으로 해석되고, 신체는 의복을 통하여 새로운 공간을, 공간은 새로운 의복으로 신체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상반된 가치를 구분하여 건축과 패션이 다양하고 변화로운 방식의 모습으로 협업하여 유기적이고 연계적인 관계로 진화되고 예술과 대중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브랜드 이미지, 디자인 트렌드 경향으로 미래를 위한 지속적이고 자유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다.

○ 관한 특성은 건축의 스키피(Skin)에서도 표현되며 최근에는 패션의 관점에서 건축으로의 새로운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패션과 건축은 문화의 물리적 표현의 핵심으로써 패션의 재료(Fabric)는 마치 건물의 스킨과 같이 얇고 투명한 작품의 고선과 흐름, 겹침과 투명함, 다양성과 풍부함으로 하나의 패션을 연상하고 연계시킨다. 현대건축의 복표는 의복에서의 변화와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의복들의 이미지 중첩은 경험, 아이디어, 디자인에서 건물과 의복간의 깊은 공통성을 보여주며 의복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들(예: 접다-Fold)은 옷을 입는 실제적인 방법들이 그렇듯이 건축 디자인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건축과 의복은 물리적, 문화적, 심리적 차원에서 피부를 감싸면서 접촉되고, 보이고, 느껴진다. 따라서 '입는다'라는 점에서 건축과 패션은 닮았다. 건축가와 패션 디자이너는 무엇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외연상 입지에서 신체의 움직임을 실루엣에 적용하는 작업, 건축 설계의 디테일한 레이아웃의 배치는 패션과 건축이 구조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속성이라 할 수 있다.

#### 표피, 상업과 예술성의 공존

표피에 대한 정의를 내리자면 공간의 내부를 가싸고 보호하는 막이며, 물리적으로는 건축물과 자연의 경계를 짓는 부분이고, 구조적으로는 구조체와 표피로 구분된다.<sup>1)</sup> 표피의 의미는 표면적인 의미와 표상·인식적인 의미로 나뉜다. 이는 표피가 마치 패션 또는 그림의 캔버스처럼 시각적으로 인식되고 해석할 수도 있으므로 회화적으로 표현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반적으로 외피(Envelop), 파복(Covering), 클래딩(Cladding), 표면(Surface) 등의 용어와 함께 건축물의 표면을 지칭하는 어휘로 쓰이지만, 본 장에서는 현대 건축공간의 다이적 의미를 포함하는 표피-Skin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신체에서 피부는 그 자체에 다양한 층을 포함하고 있어, 하나의 기능으로 작용하는 피부조직이기도 하고 모두를 통칭하여 피부라 하기도 하며 때로는 그 형태나 기능이 분화되어 피부층이 하나의 기관을 형성하기도 한다. 피부에서의 이러한 특징이 건축의 표층에서도 같은 의미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피부는 신체를 감싸며 내부의 기관들을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표피라는 용어는 건축의 표면으로 신체의 피부처럼 인간이 접하는 가장 일상적인 시점이다. 특히 현대에 들어서 표피는 여러 건축가들의 디자인 어휘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전에는 공간과 의미로만 작용하던 표피가 그 자체로서 중요하게 인식되어 전체를 나타내던 기표와 기의가 눈리보면서 기표 자체가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또한 관심의 주변부에 머무르며 의미의 표현수단의 역할을 담당한 재료, 디테일 등이 재소명되면서 표면의 자유로운 형태, 재료의 물성이 중요하게 인식된다. 표피의 형성은 건축의 본질적인 물음에서 시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명확한 한계를 정의하는 것 또한 어렵지만 현대 건축에서의 두드러진 양상은 표피의 사용성 획득으로 구축되어진 신체의 턱월함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패션 상업공간에서 표현되어지는 외피와 파사드 표현을 포함하는 표피의 연출경향은 한 제품의 진열에서부터 판매상품 및 공간으

1) 이정렬, 현대건축의 표피: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3.40호, p.11

2) 표상(Representation)이란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측면의 실체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형이상학적, 상징적 측면을 건축가의 인식과 재해석을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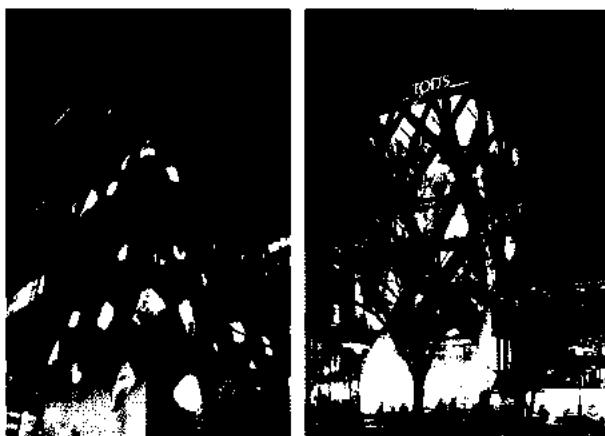


그림 1) 표피의 다양성[Toyo ito-MIKIMOTO(좌)-TOD'S(우), 일본]

정보전달을 위해 사용된 확장된 기능이 제시되고 있으며 표피연출이 장식영역에서 확대되어 복합적인 매체와 기술의 적용으로 상품과 사람, 장소 그리고 디자인 트렌드와 브랜드 이미지를 반영하는 속성을 지니게 되었다.

#### 도시 건축의 이미지 \_ 표피의 패션화

따라서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sup>3)</sup>의 표피의 표현경향은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면서 외피와 파사드를 포함하는 장식적 영역에서 확대되어 복합적인 매체와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다. 패션과 건축은 문화의 물리적 표현의 핵심으로 연출되고 이러한 상관성은 패션의 재료(Fabric)가 마치 건물의 표피와 같이 가장 얇고, 투명한 직물의 곡선과 흐름, 겹침과 투명함, 다양성과 풍부함으로 오늘날의 어떤 건축물들은 하나의 패션을 연상하고 연계시킨다.<sup>4)</sup> 또한 표피의 다양성은 공간의 구성적 역량을 표출할 수 있는 하나의 영역으로 설정되어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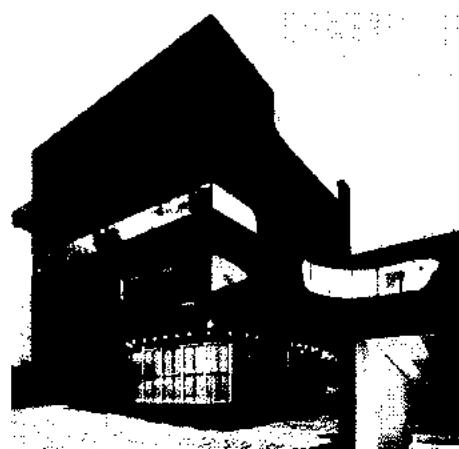


그림 2) 표피의 다양성 (엔 드롬미스터 패션빌딩, 조민석 메스터니스, 한국)

의 인식을 통한 패션과 건축의 만남이자 공유하는 문화의 접점으로 상관적 관계가 확대됨을 알 수 있다. 최근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는 과거에 비해 표피 연출을 통한 다양한 조형성을 시도하고 있으며 공간 자체만을 주개념으로 하는 근대건축과 달리 표피의 표현을 통하여 다변화된 문화 욕구에의 충족과 상업공간이 도시환경의 랜드 마크적 심벌화로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sup>5)</sup>

이렇듯 건축이 예술의 전반에 관한 자유 의지의 한 표현방법으로써 존재하며, 관념적 표현의 한계성에 대한 도전으로 접경예술(Art Frontiere)에 대한 수용과 재해석으로부터 발전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반영으로 미술의 오브제로서 패션이 도입되거나 예술적 표현의 장으로서 건축공간의 연출에 활용되고 있다.<sup>6)</sup> 따라서 예술 분야 중 인간의 신체를 감싸는 표피로 존재하는 패션과 건축은 더욱 더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개인의 습관과 그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은 패션과 건축에 더욱 잘 나타나며 변화된 환경을 반영함과 더불어 그 변화에 적응하며 개인의 정체성을 대변한다. 평론가 제프리 킵니스(Jeffery Kipnis)는 헤르조그 드 뮤론(Herzog & de Meuron)의 외피를 화장술(The cunning of Cosmetics)로 명명한다.

장식은 보석처럼 구분되는 실체로 몸에 부착되어, 구조와 몸의 원색성을 강화하는 반면 화장은 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화장은 언제나 표피하고만 관계를 맺는다. 장식이 실체로서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반면 화장은 홍조나 음영, 하이라이트, 오로라 혹은 공기처럼 작용한다.<sup>7)</sup>

표면효과의 측면에서 보면 '화장'은 적절한 묘사로 생각한다. Cunning(교활한 기교)이라는 표현은 외피를 구조체와 구분이 불가능하도록 관계 맺게 하는 헤르조그 드 뮤론 건축의 본질 역시 효과적으로 정의내리고 있다.<sup>8)</sup>



그림 3) 표피의 다양성 (Fomerina, Giorgio Arroso,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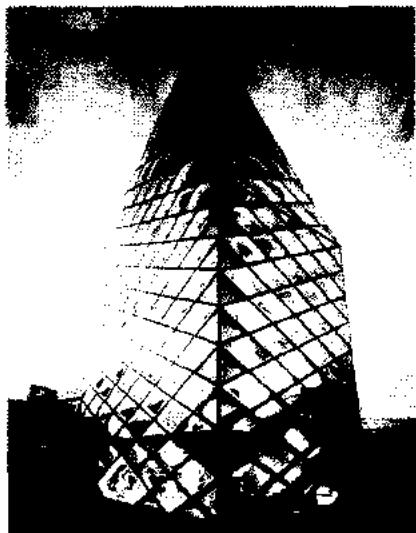
3) Flagship store: '전략적 선두 매장', 브랜드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이미지를 극대화한 매장으로 그 브랜드의 각라인별 상품을 구분해서 소비자들에게 가장 모범적이고 '준이 를 반한 트렌드를 세사하고 보여주는 대형점을 일컫는다. Eleanor Curtis, 'Fashion Retail', Published in Great Britain in by Willey-Academy, a division of John Wiley & Sons Ltd, 2004., p.20

4) H. Castle, 'Fashion + Architecture', Vol. 70, No. 6, 2000 by John Wiley & Sons Limited, pp.7~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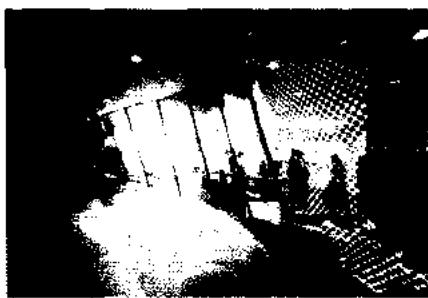
5) 강소연, 플래그쉽 스토어와 브랜드 이미지 특성과 디자인 표현경향에 관한 연구, 종인대학교 박사논문, 2007, p.104

6) 김혜정, 현대건축의 형태구성과 해체주의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논문, 1998, p.19

7) Jeffery Kipnis, 'The Cunning Of Cosmetics (Herzog & de Meuron)' EL Croquis, No 60/84, 2000, pp.405~411



(그림 4) 표피의 다양성(Herzog & de Meuron, Prada, 일본)



(그림 5) 표피의 다양성(Future Systems-Tako Kawasaki, Comme Des Garcons, 일본)

헤르조그 드 뮤런은 건축이 패션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편견을 비난하면서 건축에서 패션은 시대정신을 표현하는 적극적 창조물임을 강조하고 건축의 영속성을 오히려 자기시대를 표현할 때 시속된다고 말한다.

‘패션과 음악, 예술은 우리의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큰 요소들 중 하나로서, 새로운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현대건축에서 표면을 패션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프라이버시와 공공성 사이의 경계조직과 건축물이 주변 사회에 대응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표면을 인식한다는 의미이다. 헤르조그 드 뮤런이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람은 패션이라는 대개체를 통해 자신만의 건축을 창조하며 패션이 그 사람을 사회에 연결시켜 주는 매개체이듯 건축도 표면을 통해 도시와 인접하며 자신을 표현한다. 즉 패션 디자인은 인간의 제2의 스킨으로 인체와 가장 가까운 디자인 대상물이자 사회 문화적 표상이다. 건축에서 표피가 구조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투명화되고 비물질화됨에 따라 부각되고 있는 외피의 투명성은 건축구조의 과학적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외부 환경을 실내공간으로 유입시키는 역할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또한 패션 의상에 있어서 속옷이 겉옷을 뒤집고, 내부에 숨겨져 있던 솔기부분들이 외부의 장식적인 요소로 강조되며 의복의 일부가 공간으로 연장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패션의 표피화 현상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패션은 인체에서 분리되어 공간디자인으로 연장되고 건축에서 스킨은 경계적 표피에서 분리되어 공간 내부로 확장되어 표현되어지고 있다. 패션과 건축에 나타난 스킨에 대한 공통적인 개념은 디자인의 경계를 모호화하고 다양한 표현양식을 공유하며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있다.’

누구나 자신의 건축을 창출하고, 창출된 건축은 도시의 일부가 된다. 옷은 건물처럼 공적 부분과 사적 부분을 이어주는 고리의 일종이다. 반면 패션은 깊어지거나 공식적인 부분을 바꾸고 싶을 때 버릴 수 있지만, 건축에서는 그럴 수 없다. 역설적이지만, 시대의 모든 욕망과 취향을 합해 시대정신과 그 시대의 패션을 표현해야만 건축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작품에 모든 유행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패션과 음악, 그리고 특히 예술가와의 공동작업을 통해서 건축 외적인 곳에서 시대의 감각을 얻는다.’<sup>9)</sup>

이러한 주장은 패션의 개념이 유행을 주입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능적인 것임을, 시대에 반영할 때 건축도 일종의 자율적 패션일 수 있음을 설명한다.

헤르조그 드 뮤런의 작업에서 건물의 표면은 그들의 건축적 개념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신체는 건물에 비유되고 외피는 신체의 유품적 피부인 의복에 대응<sup>10)</sup>. 외부와 관계 맺는 적극적 연결고리로서 작용한다. 사람들이 의복이라는 인공적 표면을 통해 사적인 내밀함을 공적인 외부와 연결시키는 것처럼 건축은 표면을 매개체로 도시와 만나며 표면은 연계된다고 언급했다.

‘건축과 패션은 같은 DNA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를 반영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데 이의가 없다.’

프랭크 세리(Frank Gehry)

‘건축은 미래의 패션 디자이너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건축을 통해 노사에 옷을 입히고 있다. 갤러리 클라인에게 배운 건축가는 미래를 준비하고 다가오는 이벤트를 사색 및 예상하며 거울로 세계를 보는 일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건축가의 작업은 앤디 워홀의 훌륭한 무한한 가상 스튜디오로 조직화될 것이다.’

— 벤 반 버클(Ben van Berkel)

지금까지 제시한 패션은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봄아들여지는가에 영향을 미치는 큰 요소들 중 하나로서, 새로운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현대건축에서 표면을 패션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프라이버시와 공공성 사이의 경계조직과 건축물이 주변 사회에 대응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표면을 인식한다는 의미이다. 헤르조그 드 뮤런이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람은 패션이라는 대개체를 통해 자신만의 건축을 창조하며 패션이 그 사람을 사회에 연결시켜 주는 매개체이듯 건축도 표면을 통해 도시와 인접하며 자신을 표현한다. 즉 패션 디자인은 인간의 제2의 스킨으로 인체와 가장 가까운 디자인 대상물이자 사회 문화적 표상이다. 건축에서 표피가 구조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투명화되고 비물질화됨에 따라 부각되고 있는 외피의 투명성은 건축구조의 과학적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외부 환경을 실내공간으로 유입시키는 역할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또한 패션 의상에 있어서 속옷이 겉옷을 뒤집고, 내부에 숨겨져 있던 솔기부분들이 외부의 장식적인 요소로 강조되며 의복의 일부가 공간으로 연장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패션의 표피화 현상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패션은 인체에서 분리되어 공간디자인으로 연장되고 건축에서 스킨은 경계적 표피에서 분리되어 공간 내부로 확장되어 표현되어지고 있다. 패션과 건축에 나타난 스킨에 대한 공통적인 개념은 디자인의 경계를 모호화하고 다양한 표현양식을 공유하며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있다.

8) 유진상, 헤르조그 드 뮤런 건축의 외피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03, pp.2~3

9) Jeaque Herzog, Conversation with Jeffery Kipnis, 1997, EL Croquis, No 60/84, 2000, pp.28~29

10) 심은주 외, 패션과 실내디자인의 나타난 나, 외부 연결매체로서의 스킨개념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6.57호, pp.28~29

## 구조가 생동한다 – 이른바 ‘구조디자인’의 세계

### Structure is Behaving - The World of Structural Art

이주나 / 충북대학교 학술연구교수  
by Lee, Juna

구조체 없이 서어지는 건축물은 없다. 따라서 구조를 다루지 않는 건축디자인은 실은 없다. 그리니 현실의 건축디자인 안에서 구조를 디자인하는, 즉 구조를 설계개념에 맞게 궁리하고 고안해내는 작업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을까.

최근 우리는 국내외에서 구조체를 움직여 새로운 형태와 공간을 추구해내는 건축물을 제법 많이 만나고 있다. 꽤 관심을 끄는 형태들도 있는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구조체를 이용한 디자인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지를 생각해보자. 먼저 구조체가 이제까지의 중력에 저항하던 방식에서 벗어났다는 독특함에 관심이 끌릴 듯하다. 즉, 힘의 전달 방식에서 이제까지의 방식과 다른 것을 보게 되고, 가끔은 불합리하고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것 같은 형태에서 특이함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면은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느끼던 것이 실현된 것을 봤을 때 난해한 기술에 감탄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무게를 들 수 있는 부분은, 힘을 다루는 구조체를 이용하여 형태나 공간적인 측면에서 디자인 효과를 얻었다는 일거양득의 합리적 효과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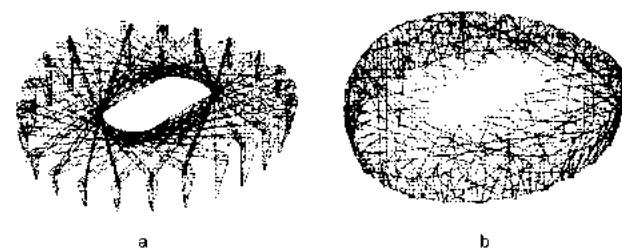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독특한 구성과 형태는 반복되어 발전하기 어렵다.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것도 그 배경에 디자인 합리성이 동반되어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가끔은 무리하게 구조에게 요구되고 있는 디자인 시도는 힘과 관련된 합리성을 언제나 내포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나 이것은 인상과 짐작일 뿐이다. 이 같은 구조디자인의 의미 체계화는 그 구조체가 힘을 다루는 진정한 처지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예로 진 세계에 부정형 그리드 설계의 유행을 불어넣은 이토 토요의 켄싱턴 가든 전시시설을 살펴보자(그림 1). 분명 구조체와 건축요소를 동일하게 하여 변화된 디자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주목받은 작품이었다. 작가는 몇 개의 선을 교차하여 얻어진 패턴을 나름 규칙적으로 발전시켜 불규칙 그리드패턴을 고안했다고 한다. 이러한 패턴의 표현

과 구조체는 분리될 수도 있었겠지만 작가는 그 패턴 자체가 구조체가 되는 방법을 택했다. 덕분에 구조체는 이제까지와 다른 복잡한 배열을 취하게 되었고, 면형처럼 느껴지는 구성을 보여주기 위해 매우 가늘고 얇은 부재를 선택, 이것이 불규칙하게 접합될 수 있는 복잡한 디테일을 고안해냈다.

일찍이 생각지 못했던 구조체의 형태구성이 우리에게 흥미를 주고 새로운 형태와 공간감을 제공하였지만, 힘의 흐름 자체는 활용력을 이용한 라멘구조를 복잡하게 배열한 것으로 구조적 효율을 기대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것은 비교적 소규모의 건축물로, 디자인을 시향하는 구조체의 변신이 그다지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또 다른 예로 베이징 올림픽 스타디움을 보자(그림 2). 현란한 구조체가 내부 스팬이 300m가 넘는 초대형 스타디움의 형태와 공간,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다. 외부형태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놀라운 공간감을 표현해 내고 있는 이 보면석이지 않은 구조체의 조합은, 구조시스템적으로 분석했을 때, 그림과 같이 두 가지의 시스템의 조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는 실제 주된 수직하중에 저항하는 철골 라멘구조시스템이고 b는 라멘골조의 안정성을 위해 부과된 안정구조시스템이다. 안정부재들은 형태구성효과를 위하여 불규칙한 배열



〈그림 1〉 웨인드 가든 서펜타인 갤러리\_이토 토요

을 취하고 있고 과노하게 사용된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섭합교·시공에서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또한 힘의 종류 중에 가장 부재효율이 떨어지는 훨씬력 리멘구조를 주 구조로 채택하여 구조시스템 자체에서 힘의 효율적인 저항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즉, 베이징 스타디움의 구조디자인은 다분히 이미지 구현을 목표로 한 디자인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켄싱턴 전시시설의 경우처럼 구조가 작은 경우라면 이야기가 길어질 것이 없다. 그러나 이것은 경간 300m에 도전하는 내공간 스타디움이었고, 힘의 영향은 커졌다. 너무 커진 부재체적과 현장용 접민이 허락된 시공상 등 때문에 구조의 부담은 과도하게 커졌고, 베이징 시는 큰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상부 개폐식 지붕을 포기해야만 했다.

이렇게 우리가 얼핏 구조체를 이용하는 디자인에 합리성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진정한 구조디자인을 위해서는 구조체의 이미지를 변형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구조가 어떻게 힘을 전달하게 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이미지에 대한 도전 못지않게 합리적인 힘의 전달방식 또한 끊임없이 모색되어야 한다.

사실 힘을 다루는 방법 즉, 힘의 전달체계인 구조시스템은 간단하다. 인장, 압축, 휨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 사용되는 세 가지 구조시스템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그림 3). 그중에 휨은 형태적 자유도를 가장 크게 가지고 있지만, 힘의 효율이 떨어지고, 인장과 압축은 높은 효율을 자랑하는 대신 형태에 제한을 가진다.



〈그림 3〉 인장, 압축, 휨구조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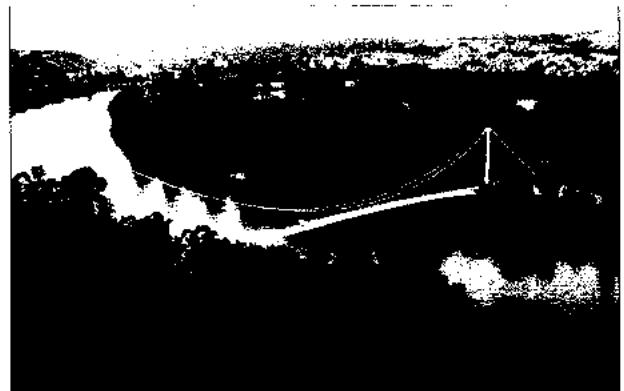
우리는 주어진 형태소선과 공간특성에 따라 이들 구조시스템을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한다. 재료에 재한이 있었던 과거에는 아치와 같은 일정구조만을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때도 있었고, 장대한 현수교와 같이 무조건 구조능력만을 생각하는 토목구조에서는 가장 효율 높은 인장구조만이 선호되기도 한다. 그러나 철근 콘크리트와 철골구조가 가능해진 근대 이후로 형태적 자유도가 높은 휨구조구조가 일상적으로 사용되어 오다보니, 건축에서는 훨씬력 라멘구조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만능의 구조시스템이 되어버린 듯하다.

이중 어느 구조시스템을 사용하던 간에, 구조디자인 측면에서, 다시 말하여 이미지와 힘의 효율적인 측면 둘 다를 고려하여, 여러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시대가 바뀌어 점점 대 공간이 나타나고 기술이 발전하다보니 앞서 설명한 세 가지 단순 구조시스템 뿐만 아니라 여기에 여러 부재의 조합을 이용한 복합적인 구조시스템(하이브리드 구조시스템이라 불리움)에 이르기까지 구성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구조디자인에 대한 우리의 연구와 고민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구조디자인이 당면한 과제는 기존 구조시스템의 변화적용과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 등을 통해 건축디자인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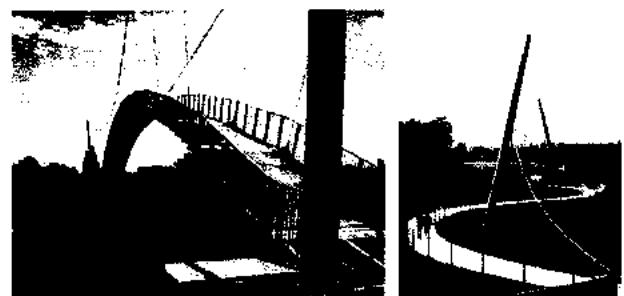
#### [인장구조시스템을 적용한 보도교 -요르그 슬라히]



헬하임 보도교(1987) : 지지기둥을 바깥쪽으로 면심시켜 기울이고 상판 하중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디자인하여 역동적인 이미지를 표현



맥스-오티스보도교(1989) : 단일기둥에 주 케이블만을 2쪽으로 하여 현수곡선으로 인한 형태구성과 하중분산 효과를 의도함



더스부르크 보도교(1999) : 유연한 현수구조의 뒷 정착케이블을 담기는 방식으로 다리상판을 들어올려 배가 통과 가능하도록 하는 가동식 다리를 고안

구조디자인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입축구조시스템이나 휨구조시스템은 너무나 일상적이므로, 아직 좀 낯설지만 상당한 가능성을 가진 인장구조시스템에 대해 그 접근방법을 살펴보자. 순수 인장구조시스템의 구조 원리는 현수교에서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다. 중앙에 고른 하중을 걸었을 때 아래로 둥글게 처지는 현수곡선을 이루며, 안쪽으로 들어오려는 추력에 저항하는 정착구조가 양지점에 필연적인 구조방식이다. 이때 순수하게 부재 내부에는 인장응력만이 발생하며 가장 높은 구조효율로 힘을 전달시키는 구조시스템이 돈다(그림 4). 이러한 인장구조 기본원리를 이용하여 디자인에 적용시켜나가는 양상은 독일의 구조디자이너 요르그 슬라히의 작품에서 살펴볼 수 있겠다. 슬라히의 인장구조는 주로 보도교 중심으로 시작되었는데, 점차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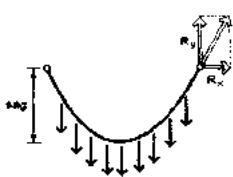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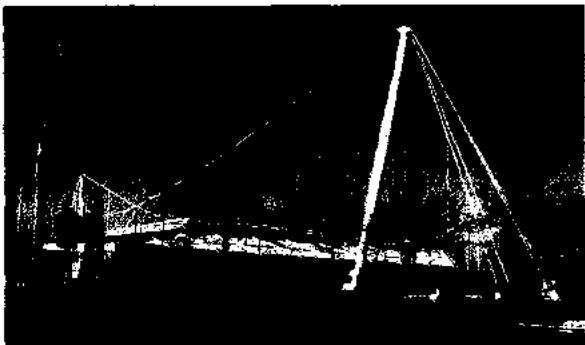


그림 4) 순수 인장구조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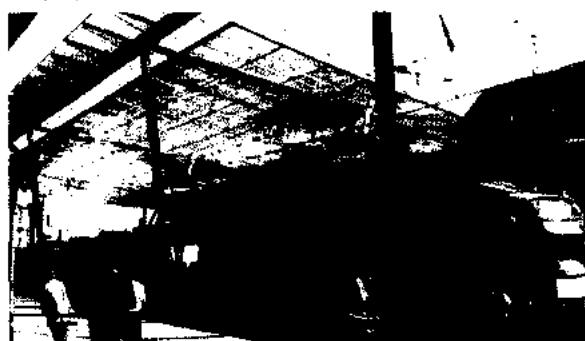
[인장구조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과 파사드 –요르그 슬라히]



· 칼스루에 유리파총 : 주 케이블은 2종으로 하고, 주 케이블에 매달리는 부재의 배열을 다르게 하여 차별화된 현수곡선을 구성함



· 웰 철도역 (1993) : 케이블의 처짐을 아주 적게하고 케이블에 의해 유리를 미감. 슬리드한 가장자리 보와 뒷받침 케이블로 정착구조 조성



· 헨트론의 철도역(2001) : 웰 철도역과 유사하지만, 유리판을 케이블 아래로 달아내고, 중앙에 삽입한 압축재로 정착구조를 형성. 가장자리 보는 물과 달리 보이드하게 구성



· 린肯 캠퍼스기호탑 유리 파사드 (1994) : 기의 평행하게 당겨진 케이블을 이용한 인장구조시스템으로 유리판면에 가치 부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투명 유리 파사드 면을 완성

건축물에 적용해나가며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해왔다. 현수곡선과 정착구조라는 동일한 기본구성을 가지지만, 인장재의 개수와 정착방식, 늘어진 정도, 기둥의 위치 등을 변화시켰다. 처짐을 거의 없애면서 강한 브리스트레스를 기해 유리 파사드에도 사용하는 등, 경우에 따라서 대범하고 긴장감을 주는 힘의 배치를 고안해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작품에서 보이듯이 순수인장구조를 사용할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의 공간이 실처럼 가벼운 부재로 연출된다. 그리고 구조체의 필연적인 현수곡선이 가진 형태적 수려함 또한 얻어낼 수 있다. 반면에 순수인장구조는 가벼운 만큼 안정성을 취하기 어렵고 정착이나 접합에서 기술적 어려움이 큰 구조방식이다. 구성의 변화에 따라 상당한 기술적 해결이 요구된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인장구조시스템에는 순수인장구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순수인장구조시스템은 가장 효율이 높은 구조방식이긴 하지만, 현수형이라는 제한이 있고 정착구조가 늘 확보되어야 하는 불리한 점도 있다. 따라서 압축구조나 휨구조와 같이 단단한 재료들을 사용하는 구조시스템에 인장재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그들의 효율을 둔는 방향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른바 복합구조시스템, 하이브리드 구조시스템이다.

인장복합구조시스템은 실로 매우 다양한 방식이 있고 점차로 새로운 구조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본고에서 간단히 언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중 가장 현실적인 적용이 용이하다고 판단하여 최근 본 저자가 주목하고 있는 '들립형 보구조' 시스템을 예로 설명하고자 한다.

들립형 보구조의 기본은 휨재인 보구조이다. 그러나 보의 하단에 짧은 압축재(끈지주)를 붙여대고 그 밑에서 인장재를 당겨 올려 휨재의 휨모멘트를 감소시키고 그 힘을 인장재로 옮겨오는 구조시스템을 말한다(그림 5). 단순보를 예를 들면 이 같은 인장재의 조합으로 인해 중앙부의 휨모멘트가 약 80% 감소효과를 얻게 되므로 부재체적 감소에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들립형 보구조를 사용한 경우의 건축물은 상당히 개방적인 공간감을 가질 수 있고 대공간도 가벼운 구조로 이뤄낼 수 있다. 또한 기본이 보구조이기 때문에 형태상의 제약 없이 자유로운 형태로 구성될 수 있으며, 내부에서도 형태구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장재에 따라오는 정착력은 상부 보가 압축력으로 충수하는 자체정착식 구조이기 때문에 별도로 정착구조를 고안할 필요가 없다. 보를 이용하는 구조시스템으로 현수구조보다 매우 안정적이고 시공 또한 비교적 용이하다.

이와 같은 구조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 들립형 보구조는 이미지와 부합되어 다양하게 변화되고 적용되고 있다. 이미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사례를 일일이 거론하는 것이 의미 없을 정도로 다수 활용되고 있다. 들립형 보구조의 활용으로 인해 개방적인 공간들의 기능과 표정이 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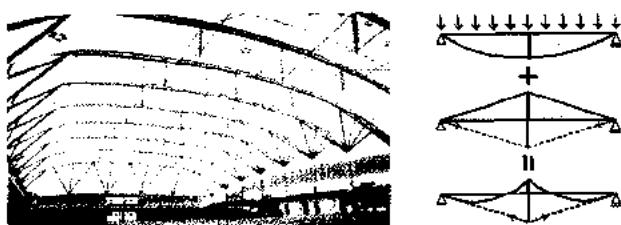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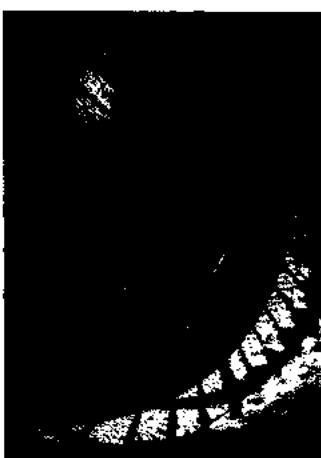


그림 5) 들립형 보구조 원리와 구성형태

화하고 건축물의 각부 구조가 더 가벼워지고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같이 구조의 힘의 합리성에 근거한 구조시스템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힘의 원리에서 요구되었다기보다는 이미지 표현에 치우쳐 조정되고 과장되기도 하는 경우를 빈번히 보게 된다는 것이다. 디자인이라는 작업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으로, 표현의 풍부함을 고려한다면 힘에 관계된 필수적인 부분과 표현을 위한 선택적인 부

#### [표현적 의도를 가진 드림형 보구조의 디자인 사례]



· 하베지 블의 관 : 국적인 공간연출을 위해 작은 공간에서도 지붕을 드림형 보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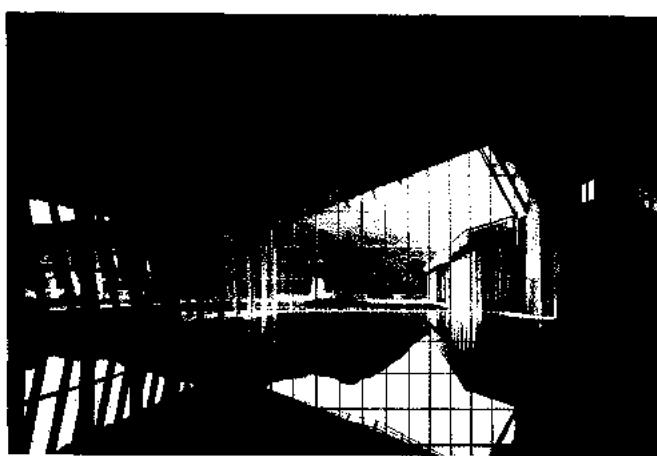
· 동경 도쿄보립 : 클래스 출의 내부 공간감을 위해 과장된 U자형 드지주를 과도하게 배열



· 모가미가와 공원 : 개방적이면서도 역동적인 공간연출을 위해 부재를 조밀하게 설치하고 드지주를 과장함



· 투모치마치 문화관 : 내부공간의 형태미를 위해 드림형 보 사용하고 과장된 드지주를 독특하게 조합 시킴



· 사운드아 뮤지엄 : 물질의 새로운 공간감을 위하여 콘크리트 보에 철재를 조합구성하고, 과도한 드지주를 배치함

분을 분별할 수 있는 설계기법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구조방식에는 라멘구조 외에도 실로 다양한 구조시스템 구성이 가능하고 이들은 구조체로 존재함과 동시에 건축물의 형태와 공간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대공간이나 유리 파사드 같이 요구되는 건축기능에 따라서 구조시스템의 차별화는 필수적인 것이 되기도 한다. 채택된 어느 하나의 구조시스템은 건축특성과 결합하여 수많은 방식으로 변화되고 조절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가진다. 건축가들이 구조의 본질인 힘의 흐름과 구성의 다양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다면 구조는 광대한 디자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구조에게 있어서, 마음껏 디자인한 건물을 어떻게든 세워내라는 숙제는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과제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프리폼 건축을 무너지지 않게 세워내기는 어렵고 막대한 기술이 늘지만, 본 저자는 그것을 구조디자인이라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또한 구조체를 현란한 형태로 세우고 덧붙이면서 형태적 아름다움을 찾아낸 수도 있겠지만 힘의 원리를 비껴가는 구성의 과대함을 보면서 구조디자인이라 이름 붙이는 것 또한 내기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공간과 아름다운 형태를 찾아가는 물체의 조합과정이 디자인이라고 할 때 그 물체의 힘의 조건 또한 함께 떤안하게 해나가는 과정을 구조디자인이라고 부르고 싶다. 목표하는 건축물의 형태와 공간을 놓고 그것을 꽂피울 만한 힘의 전달방법을 찾아내는 디자인, 구조와 건축의 균형을 찾아내는 디자인을 위한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졌으면 한다. ■

#### 참고문헌

1. 사이토마사오저, 박찬수외 2인역, '건축 공간 구조 이야기', 기문당, 2005.
2. A. Holgate, "The Art of Structural Engineering",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3. 이주나, "건축구조계획을 위한 인장시스템의 특성 및 유형분석",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4. 이주나, "건축계획에 있어 인장구조의 활용을 위한 드림형 보구조의 디자인수법",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5권 3호, 2009.3., pp.67~75.
5. 박찬수, 이주나, "구조를 이용하는 건축디자인의 구성스법과 전개현황",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5권 1호, 2009.1., pp.145~154.

## 건축저널의 여성성

### Femininity of Architectural Journalism

이오주은 / 건축프리랜서 기자  
by Michaela Y. Oh

#### 글을 시작하면서

저널계의 대선배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글제를 받았다. “건축저널 속 우먼파워의 세계와 저널리즘의 향방 점검”, 세부적으로는 “국내 각 건축잡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저널리스트를 중심으로 그들의 활동상을 살펴보고 건축 저널리즘의 현재와 향후 과제를 전망한다.”였다.

가슴이 뛰었다. 몸담고 있으면서도 저널 내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 저널리스트의 활동을 정리하는 것은 다음으로 미뤄야 할 것 같다. 사실 건축잡지 기자는 거의 여자, 여럿이 모이면 남자기자는 왕왕 청일점이 된다. 조경과 인테리어 잡지 를 포함해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 것이다. 이에 반해 데스크는 남성의 비율이 높다. 1세대 건축평론가라 불리는 전진삼·이주연 선배님과 〈건축과 환경(이하 C3)〉의 이우재 편집장님 등이 각기 다른 포지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故 최연숙 편집장님이 살아 계셨다면 〈와이드〉의 정귀원 편집장님과 함께 여성 편집장으로서 쌍벽을 이루었겠지만, 안타깝게도 4년의 투병 끝에 지난 8월 고인이 되었다. 그밖에 〈SPACE(이하 공간)〉의 임진영 기자와 〈PLUS〉의 최순영 기자가 고참기자로서 역할을 다하며 차세대를 기대하게 한다.

하지만 다시 필드로 돌아가 보면 짧게는 수개월에서 보통 1년 만에, 남녀 불문하고 이 ‘기자님’들께서 어디론가 사라진다. 지금도 작년에는 본 적이 없는 일률들이 취재 현장을 도맡고 있다. 이런 즈음에 건축 저널리즘, 그 중에서도 여성 건축저널리스트를 정리하는 것은—실명을 호명한 뒤 따를 후폭풍을 감당한다 해도 시기적으로 이른 것 같다. 그러나 의미 있는 주제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언젠가 건축 저널리즘의 계보를 정리할 수 있을 때, 제대로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건축계에서 건축저널의 위상이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입지와 흡사하다는 생각을 했다. 사실 건축계가 상당히 마초(Macho)적이고 보면 건축을 남성에, 건축저널을 여성에 대비시켜도 무리는 없을 것 같다. 기자로서 느낀 한계이기도 하지만 건축저널이 활로를 모색할 때 ‘여성성’이 새로운 키워드가 될 수 있겠다는 기대도 담겨 있다.

‘근육의 시대는 가고 여성의 시대가 왔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여성’이란 말 속에 소수자, 비주류 같은 전통적인 코드 말고도 다음 시대가 요구하는 대안이라는 새로운 의미가 부각된 것이다. 실상을 생각하면 아직은 괴리감이 있지만, 한 면에서는 탈-권위, 감성 기반,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도덕성과 일의 완성도까지 시대의 요청을 충족시킨다는 평가를 여성들이 받고 있다. 이는 여성의 본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소수자로 생존하기 위해 후천적으로 터득한 캐릭터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고 보면 비주류이기 때문에 학습하게 되는 경쟁력을 건축저널에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우선 체질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매체를 정의해야 할 테니 당장의 일은 아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내일의 거대담론보다는 찌라시처럼 흘날리는 오늘의 현상을 얘기하고 싶다. 왜 건축잡지의 처지가 흡사 여자 같은지에 대해서.

#### 건축저널의 여성성

남성과 여성처럼 건축가(실무와 학계를 통틀어)와 건축저널도 대등하지 못하다. 그러나 일본, 영국, 이탈리아 등 외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권위 있는 건축잡지가 많을수록 그 나라의 건축 수준이 담보되는 것을 보면 이는 우리만의 현실일 뿐이다. 그 점을 건축저널보다 건축가들이 더 아쉬워한다. 그러나 언뜻 보기엔 저널이 발전할 토양이 형성된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않다. 지난 20년간 건축 저널리즘에 대한 논의는 생각보다 많이 있었다. 무크지 〈간향〉은 1989~1990호에서 ‘건축과 저널리즘’에 대해 총론에 가까운 특집을 냈으며, 〈건축〉 1993년 8월호 특집 ‘한국 건축저널 그 바람직한 모색’, 〈간축문화〉 1999년 1월호 논단 ‘건축언론 재고’ 등을 비롯해 특히 〈건축〉 2006년 6월호는 저널리즘을 다룬 가장 최근 기획특집인데, ‘건축과 언론, 건축과 저널리즘’이란 제목으로 잡지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한 대 모여 건축저널의 현재를 진단하고 향방을 모색했다. 반면 건축역사학회 월례회의는 2002년 11월 ‘독일과 이탈리아의 건축저널을 통해 본 건축 문화’를 주제로, 유럽과 한국의 건축저널을 비교하는 의미 있는 자리 를 만들었으며, 이 밖에도 많은 칼럼을 통해 잡지 내외부에서 문제점

을 진단하고 내안을 제시 했다.

대체로, 매체 저마다의 철학을 가지고 특화될 것, 더욱 세분화된 전문 잡지, 양질의 담론과 비평, 이슈 발굴과 아젠다 형성, 집지로서의 유연성과 재미 등을 요구하며, 요즘엔 특히 국내 건축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에 강한 불만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잡지에 대한 애정, 한 매체의 독자가 되어 그들의 시도를 모니터하는 노력을 수반되지 않는다. 어느 기사가 좋았고 어느 기사가 나빴다고 꼭 집어 말할 수 없는 것은 잡지를 읽지 않은지 오래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건축가는 만성화된 회의와 불신으로, 저널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감으로 불평등의 역학 관계가 자리 잡아간다. 다수의 건축가들이 기자를 만나면 “난 잡지 안 봐요, 000 같은 외국 잡지를 보지”, “이 작은 나라에 무슨 잡지가 그렇게 많대요? 다 똑같으면서, 모두 없애고 하나만 남기라고 하세요”, “그 잡지 아직도 나와요?”, “기자들이 하도 많이 바뀌어서 이름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등으로 첫 인사를 대신한다. 매체와 기자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혹자는 생각 없이 사진으로 도배한다고 해서 건축 포르노라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인정 못 받는 건축잡지 기자가 어디를 가도 ‘기자님’, ‘기자님’ 하면서 융숭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에 기자들은 쉽게 의기양양해지는데 그 본질은 바로 건축 포르노의 죽지 않는 힘에 있다. 그리고 〈공간〉이나 〈C3〉 기사라면 과분한 대접은 더욱 노골적이 된다. 솔직히 어느 회사 신입사원이 명함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런 대접을 받아보겠나 싶다. 이 또한 건축저널의 부인할 수 없는 여성성이기도 하다. 기사도가 여성에 대한 존경심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건축가의 다음속에 기자의 자질에 대한 냉소가 가득하더라도 꽉득한 예우에는 흔들림이 없다. 그만큼 잡지는 건축가에게 중요한 홍보수단이고, 지명도를 높이는 유용한 매개체이다.

#### 건축전문기자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대한민국 남자들의 머리 안에는 ‘여자가~’라는 생각이 녹아 있다. 마치 그 ‘여자가~’처럼 건축전문기자들도 건축계 안에서 또 밖에서 ‘건축잡지 기자가~(기진가?)’, ‘우리나라 건축잡지가~(언론인가?)’라는 인식에 잡혀 있다. 주체적일수도 독립적일수도, 주도적 일수도 주류일수도, 기득권일수도 없는 건축저널, 거기다 불경기가 오면 얼마 버티지 못하고 폐간 아니면 심한 구조조정을 결정해야 하는 것마저 경기침체 앞에서 표적 실업의 대상이 되는 여성과 꼭 닮았다. 그 건축잡지 기자의 성비가 보여주는 불균형, 4~5년 전까지만 해도 남자기자가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입사지원자마저 여성이 대다수인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 같다.

〈꾸밈〉지 주간 시절을 회고하는 글에서 김정동 교수는 “건축기자로 몇 년을 일해도 건축지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심지어 건축기자 하면

장가 뜻 간다는 말도 있었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어도 나아지기 보단 더 심각해져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간설 경기는 점점 니빠지는데 건축저널에 종사해서는 비전도 생계도, 그나마 이상의 실현도 무엇 하나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가장이 될 남자들은 더욱 몸담기 어렵고, 여자들은? 그녀들도 결국 물이 새듯이 출판, 홍보, 기획 업계나 다른 매체로, 또는 대학원이나 결혼 등으로 어디론가 빠져나가고 있다. 건축잡지 기자가 결혼이나 진학과 병행할 수 있는 드문 직종임을 생각해보면 이는 인력의 누수 현상이다. 그렇게 살 길을 찾아가지 않고 열악한 급여와 복지, 낮은 대외 인지도를 극복하며 버틴다 해도 편집장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경력을 쌓는 동안 확보한 그들만의 전문성이 생산적으로 분출될 만한 시스템은 없다. 대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출판 편집자로 유도하거나 후배 기자를 관리하며 잡무를 보는 내근직을 권유한다. 내가 본 통계로는 일반적으로 5년을 넘기지 못하고 필드로부터 들어 안게 된다. 그러나 전문건축기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니 기자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필드에서 뛰어야 한다. 건축잡지를 제외하면 건축저널리스트를 양성하는 매체도 없는데 이렇게 훈련받은 인력들이 몇 년 안에 조로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 이000 기자

나는 2000년대 초 스냅에 잡지사로 진로를 정했던 것 같다. 학생 때였는데, 설계수업을 들으면서 가닥을 잡았다. ‘제 설계의 개념은 이러한 것으에서…’ 본인은 적어도 자신의 디자인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했지만 나는 발표 때마다 시기 치는 기분이 들어서 그런 말을 하기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건축이란 행위가 그 자체로 처음부터 반-자연적이며 권리 지향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개념에선 ‘인간을 중시하는’, ‘친환경적인’ 같은 수식어를 쓰지만 결과물을 보고 있노라면 그와 반대였다. 그 때 건축계에는 노출 콘크리트나 부식시킨 강판 등의 재료가 인기 있었고, 빙자와 미학이나 파주출판도시가 한국건축의 진로에 원기를 제시하고 있었으며, 해체주의나 미니멀리즘, 다시 확란에서 건너 온 굽어지는 형태가 대유행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건축가 없는 건축’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난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었고, 오랜 시간에 걸쳐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동네를 보면 그 안에 인간의 삶을 존중하는 공간의 손길이,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구축의 진실이 들어 있다고 느꼈다.

이런 고민은 아파트를 배울 때 더욱 심했다. 지금은 많은 건설 회사들이 브랜드를 걸고 실현한 형태지만, 그 때는 판상형 내신 타워형, 오픈 스페이스의 확보와 커뮤니티 형성 등이 단지 설계의 개념을 주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30~50층을 넘는 수백분의 일 우드락 타워를 보고 있노라면–오늘날 설물을 보면서도 마찬가지로 느끼지만–주거에서 인간이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아파트에 살게 될 이주민도 재개발에 밀려난 원주민도 모두. 그리고 이런 갈등, 물신자본주의가 팽배해 가는 시대에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에 대한 딜레마는, 건축

을 학문으로서 존경하던 한 학생으로 하여금 건축저널을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만든 계기가 되었다.

2005년, 나는 위와 같은 편향성을 품고 건축의 저널리즘을 고민하던 매체, 월간 〈건축인 POAR(이하 포아)〉의 기자가 되었다.–〈이상건축〉이 같은 해 정월에 폐간한 뒷에 저널리즘을 표방하는 잡지는 〈포아〉뿐이었다.–드디어 꿈을 실현하게 된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매체라면 편향성이 뚜렷해야 한다.’ 공격적이거나 적대적인 긴장감을 원했다가보다는 열린 대화, 무한 소통을 꿈꾸었다. 예를 들면 〈재〉개발을 지지하는 저널과 반대하는 저널’, ‘해외파를 지지하는 저널과 국내파를 옹호하는 저널’, ‘현란하게 꼬부라진 건축을 좋다 하는 잡지와 꼬르뷔지에 아래 근대건축의 언어를 고수하는 작품을 찾아내는 잡지’… 이런 식으로 그러나 더 많은 성찰을 담아서 매체가 자기만의 철학을 기저에 끌 때, 같은 작품을 다루더라도 다른 평가와 해석을 보여줄 수 있으니, 언론이라면 당당하게 편향성을 드러내 매체의 도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 쉽게 말해 좌와 우, 진보와 보수를까.

그러나 건축잡지는 전문지니까 정치색을 떠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진보와 보수가 정쟁의 상징이 아닌데, 전문적이라는 말이 곧 가치 중립을 뜻하는 것도 아니지만 일단 좌·우, 보수·진보란 표현 자체를 공격적으로 받아들여 반감부터 드러내곤 한다. 그러나 사람은 모든 현상 앞에서 입장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사안에 따라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으로 취해지는 것뿐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 건축계는 어느 분야보다 좌편향과 우편향의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양성의 공유란 견지에서 말이다. 하나의 사안에 다양한 해석이 공론의 장에서 묘이고 그것이 담론의 자격을 얻어 건축계에서 유통되고 소비되는 것, 이것이 건강한 건축 저널리즘이라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편향성에 관대한 만큼 상대의 편향성에 개방되어야 하며, 그러한 합의 속에서 생각이 교류할 때 건축계 전반에서 견실하고 풍요로운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당시의 생각을 지금 정리하자면 대략 이렇다.

그러나 2009년, 그 기자는 이전의 믿음에 대해 이렇다 할 말이 없다. ‘아니’라고도 ‘기’라고도, 그는 변두리의 인물이 되어 있다. 불과 5년 만에, 각설하고, 이 같은 회의를 활자화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지 알아보길 바란다. 그러나 이해반을 것을 포기하더라도 오랜 고민 끝에 펜을 들었다. 공교롭게도 한국의 2009년은 보수가 패권을 획득한 해이다. 진보의 상징, 김수환 추기경,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석 달 상간으로 고인이 되었으며, 진중권씨는 중대에 이어 총대까지 강단을 잊고 매파시즘의 중심에 선 것으로 보인다. 한예종은 이러한 변화에 또 다른 신호탄이었다. 이뿐이겠는가, 2008년부터 불과 2년 사이에 광장도 촛불도, 미디어도 사이버도 보수에 재편되는데 성공하고 있다. 잃어버렸다는 10년 동안 잠시 진보로 치우쳤던 중도는 어느새 보수에 동의하고 있는데 스스로 자각 하는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건축계는 이념보다 경기에 민감하다. 과연 그럴까? 사실 정치

와 경제를 떼어 생각하는 것에 어폐가 있다. 경기가 위축되면 사상계는 획일화를 요구받는다. 그러나 21세기의 경기 침체는 조금 다른 반응을 끌어내고 있는 것 같다. 미국, 특히 일본, 그리고 유럽은 우리와 동시대의 불경기를 겪으면서도 다른 정치적 선택을 했다. 이를 보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보수가 정권을 잡는다.’는 말이 옛 말임을 증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경제부터 살려놓고 보자’는 사람들이 패권을 잡았다. 그리고 이런 발상이 오늘 우리의 관심사인 건축저널에도 매우 오래전부터 실제적이고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 왔다. 여기에 앞에서 말한 건축가들의 냉소와 무관심이 더해지면, 사실상 건축 저널리즘이란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소외된 주제와 같다.

### 공공재로서의 건축 저널리즘

협회지의 역할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업지에 의존하는 것이 한국 건축저널리즘의 현실이고 보면, 매달 잡지를 내는 영세한 출판사들은 어떻게든 팔리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어떻게든 경비를 줄이고 몸집을 줄여 일단 살고 보는 것 이상으로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 올해 들어 건축잡지들은 노동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수없이 받고 있는 인턴 제도를 여과 없이 받아들여 이제는 인턴 혹은 학생기자의 이름으로 채용시장의 패턴을 재편하고 있다. 한 매체에서는 기자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청규직에 한해 식사 이상으로 자격 요건을 높인 적이 있는데, 일부에선 공감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거품이라는 비난을 등에 업기도 했다. 기자는 학력이 자질의 척도일 수 없다는 것, 기자의 자질이란 시사를 읽는 안목과 그 의미를 전달하는 기자 정신, 대사회적 사명감에 있다는 것 때문이었다.

발행인은 편집장에게 스스로 살아남는 건축잡지가 되어야 한다고 부끄럼 없이 말한다. 문화 사업이란 생각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벌이를 하라는 것이다. 편집장은 기자에게 스스로 살아남는 기자가 되라고 한다. 회사에 바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벌이를 하라는 것이다. 자유방임과 적자생존, 살아남는 방법이면 모두 설득력을 갖게 되는 미국식 시장논리가 공공재인 저널리즘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건축계가 얼마나 건강하지 못한가를 보여주는 중후이다. 비단 건축저널만의 문제가 아니란 것이다. 조금 다른 상황이 〈공간〉이라고 보이지만, 적자를 감수하는 물량공세가 언제까지 가능할는지 개인적으로는 오래오래 가능하길 바라지만 사실 그 물량이 잡지의 ‘상품성’에 투자되는 형국으로 보인다. 저널의 지적 노동이 생산한 재화—사진, 글, 취재, 기획 등—에 대한 정당한 시장가격을 형성하는 데 쓰이는 것 같지는 않다.

2005년 1월과 2006년 10월에 〈이상건축〉과 〈포아〉가 각각 폐간했다. 그 후 4년이 넘게 훌렸어도 그것이 건축계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논하는 포럼조차 없었다. 그러나 아들이 사라진 후 건축계에서는 서서히 저널리즘이 종적을 감추어 갔고, 담론은 천연기념물이 되며 국내 건축계에 대한 진단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 나가고 있다. 2008년 청간 한 격월간 〈와이드〉가 그 공백을 채워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그 발행인단은 간향미디어로 시작했던 20년 전부터 “우리는 모임과 그 구성원이 겉으로 드러나는 실체형이 아니다. 각자의 길에서 의견의 합이 필요할 때 선택적으로 익기 출발되는 기상의 실체라는 것이 더 적합하다.”(건축문화, 1997년 6월호)라는 철학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건축의 공공재로서 저널을 인식하게 하는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동안 〈공간〉과 〈C3〉가 지난 7월호와 8월호로 각각 지령 500호와 300호라는 기록을 세웠다. 또 최초의 건축전문지를 표방하며 198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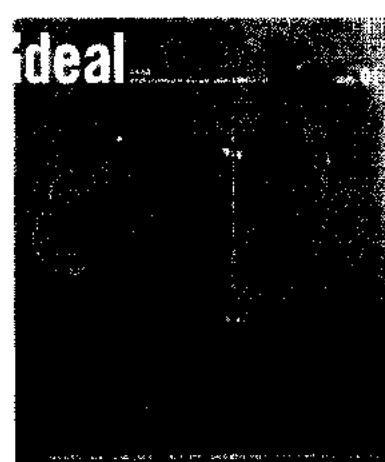
장간한 〈건축문화〉가 임형상 건재하다. 그러나 〈건축문화〉는 대부분의 건축잡지들과 다찬가지로 매체 정신보다는 생존 그 자체를 최대 쟁점으로 삼고 있으며, 한국 건축잡지의 해외 진출이란 점에서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C3〉와 〈공간〉은 우선시하는 가치가 조금 다른 것 같다. 나는 얼마 전부터 건축잡지가 아닌 종합 방송과 시사지에서 건축 저널리즘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으나 아직은 그 길을 알 수 없다. 다만 건축잡지에 지원하는 많은 기자 지망생들이 ‘어떤 건축기자가 되려는지’에 대한 확신이 선 다음에 이곳에 발을 들여놓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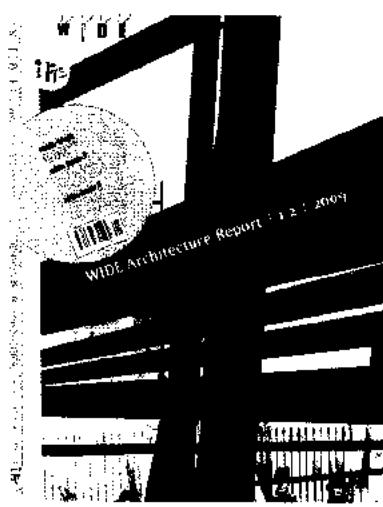
월간 건축인 POAR(2005년 10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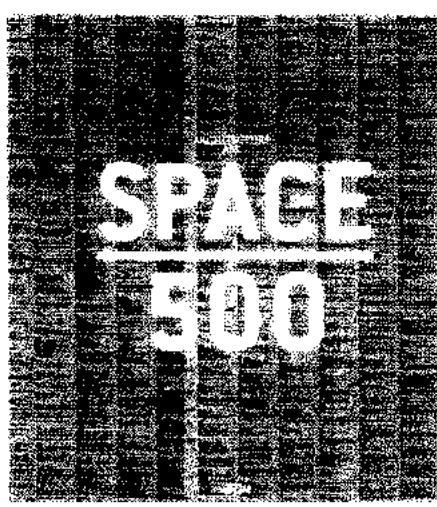
격월간 꾸밈(1990년 4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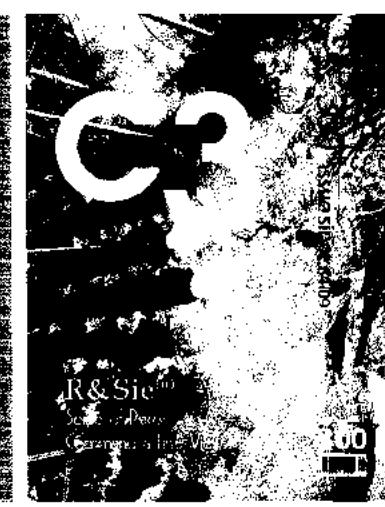
월간 이상건축 IDEAL(2005년 1월호)



격월간 건축리포트 WIDE(2009년 1~2월호)



월간 SPACE(500호)



월간 C3(300호)

Special Issue II

# 제1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1st Seoul International Architecture Film Festival

제1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Seoul International Architecture  
Film Festival)가 오는 11월 19일(목)부터 22일(일)까  
지 4일간 서울 광화문 미로 스페이스에서 개최된다.

처음 개최되는 서울국제건축영화제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주  
최하며 앞으로 건축사가 대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위한 가  
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일반 대중에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  
이 변변찮은 현실에서 영화제는 건축사에게 의의가 큰 행사  
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건축영화제는 건축을 부동산의 가치로만 보는 세태를  
바로잡아, 공간을 인식하는 방법과 건축사의 역할을 대중들  
이 보다 쉽고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몽할 수 있는  
훌륭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영화제에는 4일간 〈렘 쿨하스 Rem Koolhaas: A Kind of

Architect〉, 〈안토니오 가우디 Antonio Gaudi〉, 〈마이 아키  
텍트 My Architect : Louis Kahn〉, 〈마천루 The  
Fountainhead〉, 〈프랭크 게리의 스케치 Sketches of Frank  
Gehry〉 등 영화를 상영할 예정이다. 또 부대행사로 UCC 건  
축공모전과 영화감독 및 건축사의 강연회가 계획됐다.

이ول여 개막식은 11월 19일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 대강당  
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영화배우 및 감독, 건축계 저명인사,  
학계 및 기타 유력인사, 기자단(문화부) 등의 인사가 참석해  
영화제가 성공리에 지리실 수 있도록 축하하고 지원할 예정  
이다.

한편 대한건축사협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TF팀은 이와 같  
은 제1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건축사  
회원과 건축관련 인사, 관련학과 학생들에 대한 공감과 동  
참을 위한 대담회를 개최하고 이를 알리려 본지에 특집 대  
담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 대담



작장

김형수  
문화총보위원장  
주.CDS 건축사  
사무소 대표



최호정  
운영위원  
주.아키마루 건축사  
사무소 대표



신호근  
부집행위원장  
주.넥스트 건축사  
사무소 대표



강병국  
운영위원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우건축 건축사



유영식  
부집행위원장  
영화감독 (오감도)



한선희  
운영위원  
영화제 프로그램



**김형수\_요즈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건축계에 여러 어려운 일들이 많으데 서울국제건축영화제라는 행사를 기획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 물론 어떻게 보면 건축영화제가 건축사협회의 시급한 현안을 당장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대 국민 홍보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데 의의가 있다. 국민들이 건축사라는 브랜드를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는 전문적이고 문화적인 브랜드로 인식할 때 건축사협회와 건축사의 위상이 높아지고 협회가 추구하는 목표들을 이룰 수 있다. 건축영화제는 장기적으로 대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행사이다.** 오랜 준비끝에 이번 1월 19일 서울국제건축영화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어렵게 추진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축계 전문가와 영화계 감독, 영화제 전문위원께서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어떤 방향으로 꾸려져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 달라.

**한선희\_개인적인 얘기를 먼저 풀어야 할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영화 산업계의 전문 기자로 오랫동안 일해 왔고, 영상 미디어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이기도 하다. 영화를 볼 때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시각적인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공간 디자인이 영화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는가에 많은 관심을 기쳤었다. 단순히 영화 속 인물이나 줄거리 등에서는 느낄 수 없는 심미적 즐거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감독들이 건축사들과 협업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고, 영화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띠는 작품들을 건축예술의 관점에서 소개하고 싶어서 건축영화제에 함께하게 됐다.**

**강병국\_건축사로 일하면서도 건축 관련 영화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글을 써왔다. 건축계에서 건축영화 마니아로 많이 알려져서인지, 때로는 내가 건축사인지 영화계 인사인지 주가이 전도될 정도다.(웃음) 사실 5대양 6대주에 모두 건축영화제가 있다. 아시아에는 이스탄불 국제건축영화제가 개최되고, 한국영화는 물론 중국, 일본, 인도 영화가 전세계적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우리 건축인들이 영화에 무관심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개인적으로 건축의 대국민과의 소통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영화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영화제가 건축적인 내용을 담아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포맷이라는 점,**

**전세계적으로 다수의 건축영화제가 활발히 개최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대한건축사협회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행사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금 4년째 준비를 해서 올해 마지막이나 첫 번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신호근\_개인적으로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자주 보는 편인데, 실제 김형수 위원장을 만날 때 건축영화제 준비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공감을 하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참여하게 됐다.**

**건축영화제가 일반인들에게 건축사를 알리는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게 된다. 우리는 흔히 건축사라는 직업을 의사나 변호사에 비교하게 된다. 의사는 병이 났을 때 치료하는 역할을 하고, 변호사는 사건이나 사건이 났을 때 하는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건축사는 일반인들한테 좋은 공간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대중적 홍보가 많이 미약한 것 같다. 의사나 변호사들은 저마다 TV 프로그램 등 대중매체를 통해서 국민건강이나 법적 문제 해결에 대해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 그에 비해 건축사들은 일반 대중에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이 별로 없다. 이런 현실은 건축사들 스스로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건축은 단순히 어떤 건물의 외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것을 완공하기까지 고민의 과정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건축영화제는 건축을 건축물이나 부동산의 가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인식하는 방법과 건축사의 역할을 대중들이 보다 쉽게 을 비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최호정\_동의한다. 건축영화제의 목표는 건축사에 대해 국민들이 새롭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그동안 건축사라는 직업은 경제적 도구란가 생필품 도구 속에 묻혀왔으며, 따라서 그 진정한 역할은 사회적 인식 속에서 선혀 인식되거나 놓해 왔다. 다른 전문직이 비해 사회적 위상이 미약한 상황이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건축영화제를 통해서 우리 건축사들이 하는 역할이 단순히 도구의 역할이 아니라 문화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할 것이다. 이 문화적 역할을 통하여 건축의 부가가치를 사회 전반에 인식을시키고 건축사의 위상도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 건축이 있다는 점을 진실하게 보여주고 인식을 선진화하는 계기를 가졌으면 한다.**

**유영식\_나는 영화감독이며 김형수 위원장의 부탁으로 영화제에 참여하게 됐다. 이미 이 영화제에서 내 역할은 추진력 있게 행사 실무를 진행하는 데 힘을 쓰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건축과 영화가 만나는 건축영화제가 어떤 특징을 가질 수 있을지 생각해 봤다. 기본적으로 영화제는 첫 번째로 영화를 소개하는 것, 두 번째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 세 번째는 그 안의 이벤트를 공유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이뤄내는 데 필요한 것은 예산과 준비기간, 그리고 이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몫이 아닌가 싶다.**

**개인적으로 건축의 대국민과의 소통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영화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영화제가 건축적인 내용을 담아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포맷이라는 점,**

**전세계적으로 다수의 건축영화제가 활발히 개최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대한건축사협회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행사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금 4년째 준비를 해서 올해 마지막이나 첫 번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김형수\_개인적으로 건축의 대국민과의 소통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영화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물론 이미 많은 건축사들이 건축문화제라든지 건축전시회 등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중들이 더 관심을 갖는 코드가 뭘까 고민하다가 대중매체와 밀접하면서도 건축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가능성을 조사하고 분석했다. 그러다 보니 영화제가 건축적인 내용을 담아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포맷이**

라는 점, 전세계적으로 다수의 건축영화제가 활발히 개최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또 국내에서도 수많은 영화제들이 어떤 단체나 지방정부를 홍보하는데 적극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그것이 대한건축사협회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행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금 4년째 준비를 해서 올해 미약하나마 첫 번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강병국\_김형수 위원장과 2년 놓안 준비하면서 영화제를 준비한다는 것이 단순히 마니아들의 욕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또 돈에 의해 좌우되는 점이 많다는 점을 느꼈다. 이번 행사가 기폭제가 되어 첫 테이프를 잘 끊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감독들 중에서도 건축사 출신들이 있다. 예컨대 이스라엘의 아모스 지타이 감독은 <에덴> 같은 작품에서 영화와 건축의 고리를 흥미롭게 풀어나간다. 또 유명한 건축물이 등장하는 영화들도 많지만, 일반 관객들은 그에 대해서 잘 모른다. 최근에 개봉했던 <인터내셔널>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오랫동안 찍었는데, 많은 일반 관객들은 그런 부분을 눈여겨 보지 않아서 그 건축적 의미를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다. 하물며 <맨 인 블랙> 같은 블록버스터 영화에서도 구겐하임 미술관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영화제가 아니면 볼 기회가 없는 영화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해야 할 것 같다. 건축영화의 고전인 <마천루> 같은 작품은 반드시 상영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유영식\_이번 건축영화제는 좋은 영화를 소개하는 데 집중해야 할 듯 하다. 물론 예산 규모 때문만은 아니지만, 비교적 작은 규모로 치러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을 우선시하며, 사실상 아주 많은 돈을 들이고 감독이나 스탭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어렵게 구성해놓은 영화 속 공간이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공간들이 영화에서 매우 중요하며 그 공간을 만드는 건축사가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관객들이 영화를 볼 때 좀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는 첫회 영화제에 적합한 행사를 만들려면 상영작 선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강병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관객들이 영화를 볼 때는 공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화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주인공을 따라 관람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을 우선시하며, 사실상 아주 많은 돈을 들이고 감독이나 스탭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어렵게 구성해놓은 영화 속 공간이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으로 건축을 전공한 뒤 영화를 만들고 있지만, 작품을 할 때는 세트나 공간에 대해서 매우 고민을 많이 한다. 이번 건축영화제는 그런 공간들이 영화에서 매우 중요하며 그 공간을 만드는 건축사가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관객들이 영화를 볼 때 좀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선희\_첫 회에는 프로그램에 큰 욕심을 내지 않고 국내에서 상영이**

된 적이 없지만, 해외영화제에서 중요한 건축과 영화의 접목지점은 들어낸 작품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을 모을 생각이다.

영화, 또는 미디어를 매개고리로 관객들이 건축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 영화제 첫 회 때 소박하게 해야 될 목표가 아닐까 생각을 한다.

**신호근\_국내 건축사를 주제로 하는 영화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는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우리나라 건축은 많은 발전을 했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 흔히 건축이 대중적으로 인식되는 데 있어서 개발이라는가 건설적 접근방법은 폐 수준이 향상돼 있다. 하지만 문화 예술적인 관점에서 건축디자인 분야 등은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대중들한테 멀어져 있다. 또 대형건설회사의 아파트 브랜드는 상당히 알려져 있지만, 그것을 설계한 사람들, 즉 건축 분야 자체의 브랜드는 대중성이 별로 없는 것이다.**

**강병국\_학생들 대상 강의 커리큘럼에 '건축과 영화'라는 주제를 넣은 적이 있다. 학생들에게 "네가 생각하는 미래를 만들어보라"고 주문했는데, 대체로 영화감독들이 흔히 설정하는 디스토피아로서의 미래 도시를 따라하였다. 영화제가 좀더 복합적인 상상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이런 학생들의 창의력을 배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또한 건축사에 대해 관객들이 보다 넓은 시각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한 방송 드라마 등을 통해서 소개되는 건축사의 이미지도 편협하거나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영화 <내 머릿속의 자우기>에도 아파트 현장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과 다르게 많이 가공되어 있다. 건축전문가가 일년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이다.

**유영식\_사실 영화나 드라마에는 판검사나 의사가 주인공인 작품들이 많다. 그래서 대중들이 더 그쪽 세계에 대해서 친숙하게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그에 비해 건축사는 조금 뜯구름처럼 비춰진다. 설계하는 건축사들은 흔히 '꼼꼼남, 초식남, 소심남' 등으로 묘사되곤 한다.(웃음) 이번 영화제로 건축사들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하는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최호정\_드라마를 쓰시는 작가들에게 건축사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있을 뿐이자 건축사들도 드라마에 종종 나온다. 한데 건축사에 대한 인식은 너무 조그만 틀 안에서만 보여지고 있다. 예를 들어 드라마는 주인공들의 연애나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적인 자유 직업군은 얼마 되지도 않는 테다가, 건축사들은 흔히 연애할 시간도 없는 인물로 다뤄 지곤 한다.(웃음)**

한선희\_영화계의 입장에서, 그리고 학계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겠다. 건축영화제는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건축계의 중요한 행사가 될 수 있지만, 영화나 미디어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건축을 미디어와 접목 시킨다는 게 굉장한 짐재력과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 특히 요즘은 국가적으로도 모든 분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선진화시키려는 노력들이 장려되고 있는데, 건축과 영화 또는 미디어를 접목해서 사고하고 그에 걸맞은 담론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지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세련된 작업인 것만은 분명하다. 가령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영화학자들이 공간이나 건축을 주제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영화 장르로 볼 때도 필름 누아르는 대표적으로 도시 공간 자체가 그런 장르 연구의 주

다른 영화제들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의 하나다. 어떻게 하면 건축영화제가 다른 영화제 못지않게 비용 대비 독창성과 창의적인 특징을 갖고 일반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의 심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가령 영화 소개와 더불어 영화를 만드는 사람과 건축을 하시는 분들을 잘 조합해서 관객들에게 서로의 작품 세계에 대해 알리는 계기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영화감독이나 배우와 건축사가 만나서 영화를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행사를 발판으로 2회 때 더더욱 좋은 영화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규모에 맞게 행사를 잘 치리야 할 것이다.

1회 영화제에서 건축이나 건축사의 문제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면, 앞으로 회가 거듭될수록 도시의 문제,  
환경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까지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영화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협회가 우리만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경제 개념을 갖고 마케팅을 적극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건축계의 선후배들이 마케팅 개념으로 우리 스스로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많아지고  
우리 자신의 안목이 더 많이 깨어났으면 한다.

제가 되기도 하고, 또 현대 유럽의 모더니즘 영화에서도 도시를 매개로 인간의 감정의 소외나 피폐함 등을 형상화하는 작업을 해왔다. 하버드나 MIT 등에서는 건축을 주제로 한 영화만을 주제로 연구하는 교수들의 책을 꾸준히 내기도 한다.

유영식\_영화 제작에서 중요한 준비과정 중 하나는 장소 헌팅, 즉 로케이션이다. 영화에 적합한 장소를 찾고, 없는 장소를 만들고, 또 필요한 장소를 개조하는 작업이 모두 포함된다. 영화감독들은 미술이나 세트 감독과 함께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영화 속 이야기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을 주어진 예산 안에서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고 이용할 것인지를 이야기한다. 그만큼 영화가 공간을 다루는 방식, 건축적 사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인들이 건축사 분들과 너무 교류가 없었다는 생각을 해본다.

신호근\_협회 차원에서 앞으로 영화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툴을 통해서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접근 가능성을 확장해야 할 것이다. 건축사사무소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브랜드 있는 사무소는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지금 국내 대규모 사무소들이 1,000억 매출을 넘는 사무소도 있어 상당히 다양화돼 있다. 거기에 비해서 건축사를 소개 할 수 있는 기회는 건축 잡지 외에는 매우 제한돼 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언젠가 우리나라 건축사를 주제로 한번 영화를 찍었으면 하는 자그마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올해는 시간상 안 되겠지만, 국내 건축을 소개할 수 있는 영화를 직접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유영식\_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국내에 너무나 영화제가 많다는 것이다. 지난 2주 동안에도 네 개나 개최됐고, 가을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다. 제1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인데도 불구하고 규모나 예산상에서

김형수\_대부분 건축사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나 보유하고 있는 정신적인 자산에 비해서 국민들이 건축과 건축사들을 이해하는 폭이 부족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는 것 같다. 이번 영화제가 건축계가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확실한 장이 되었으면 한다.

한선희\_결국은 관객들에게 영화에서 보여지는 건축 관련 요소들을 환기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건축과 밀접한 영화들은 환경과 공간,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많다. 1회 영화제에서 건축이나 건축사의 문제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면, 앞으로 회가 거듭될수록 도시의 문제, 환경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까지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영화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영식\_이번 영화제로 교류가 이루어져서 다음 영화제에서는 우리 건축사들이 만들어낸 훌륭한 공간을 찾아가는 영화를 만들 수 있었으면 한다. 건축사와 건설현장을 따라가면서 찍은 다큐멘터리를 보면 시 놀란 적이 있었다. “저런 것은 우리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직업들을 해야 되는데”라는 빈성을 많이 했다. 다음 영화제에서는 개막작이든 스페셜 쟝션이든 건축사분 시리즈를 여러 명의 감독들이 찍고 영화를 통해 함께 토론하는 작업도 해봤으면 한다.

최호정\_젊은 건축사로서 바람이 있다. 협회가 우리만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경제 개념을 갖고 마케팅을 적극 할 필요가 있다. 건축이 우리나라에서 차시하는 경제 규모는 크지만 건축사의 우리의 사회적 위치는 그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앞으로 건축계의 선후배들이 마케팅 개념으로 우리 스스로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많아지고 우리 자신의 안목이 더 많이 깨어났으면 한다. 그래야 우리 건축사들이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으며 더 넓은 영역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

## 설계경기 | Competition

###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Noryangjin Fisheries Wholesale Market

당선작 / 이상림 정희원 · 서해천 정희원  
(주)공간 종합건축사사무소  
+ (주)선진엔지니어링  
+ (주)동주건축

대지위치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13-8번지 일원
지역지구	유통상업/제3종 일반주거지역, 역사문화미관지구
주요용도	도매시장, 소매시장, 판매시설, 사무실
대지면적	88,782.00m <sup>2</sup> (계획부지 면적: 32,173.00m <sup>2</sup> )
건축면적	17,248.38m <sup>2</sup>
연 면 적	118,346.02m <sup>2</sup>
건 폐 율	53.61%
용 적 률	161.02%
규 모	지하 2층, 지상 9층
발 주 처	수협중앙회
설계담당	공간건축 이현종, 최재원, 김광식, 전마숙, 허혁, 이재호, 강희선, 조광재, 김문정, 전대일, 김민철, 김진수, 박건웅, 이서현, 김윤희, 백광호 선진엔지니어링_강전웅, 임재빈, 황준근, 이동호, 조치은, 석진국, 손승환, 김동준, 김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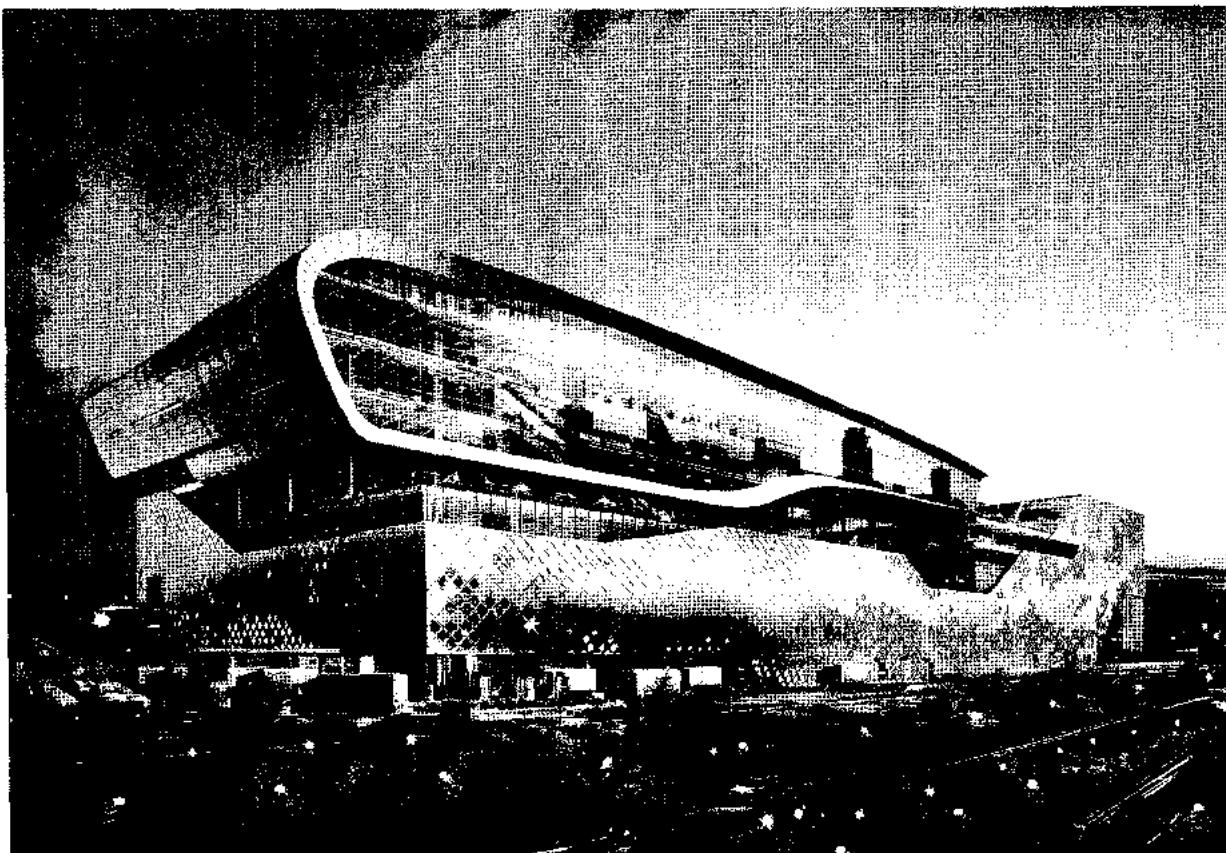
지난 40여 년간 서울과 수도권 수산물을 거래의 40%를 담당하고 있는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의 현대화 사업은 낙후된 건물의 환경 개선뿐 아니라 도매와 소매의 복합시장으로써의 특수조건을 이해하여 시장기능을 합리적으로 개선 시키는 동시에 노량진 수산시장이 가지는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 시켜 활성화된 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서울의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 보면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은 서울의 중심인 한강변에 위치하여 올린픽 대로, 여의도 등에서 인자성이 뛰어나며 한강로네상스, 노들섬 문화공간 등과 연계되어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써 상징성이 부여될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서울의 최고·최대 수산물 도·소매시장이라는 전통 개념에, 현대화된 도시 아이콘으로써 상징성을 부여하고 소비자 및 유통 종사자 모두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도심형 수산물 복합 물류, 유통센터를 계획하였다. 기능적으로 살펴보면, 도매와 소매 그리고 업무시설 등 각각의 용도에 따라 단순 명쾌하게 조성하여 도·소매 복합시장 기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들었다.

도매시장의 핵심시설인 경매장은 화물차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신속한 수평 플랫폼이 이뤄지도록 지상1층에 단일 층으로 계획하였고 3면 하역 도크와 전자 저온 경매장을 갖춘 현대화된 시설을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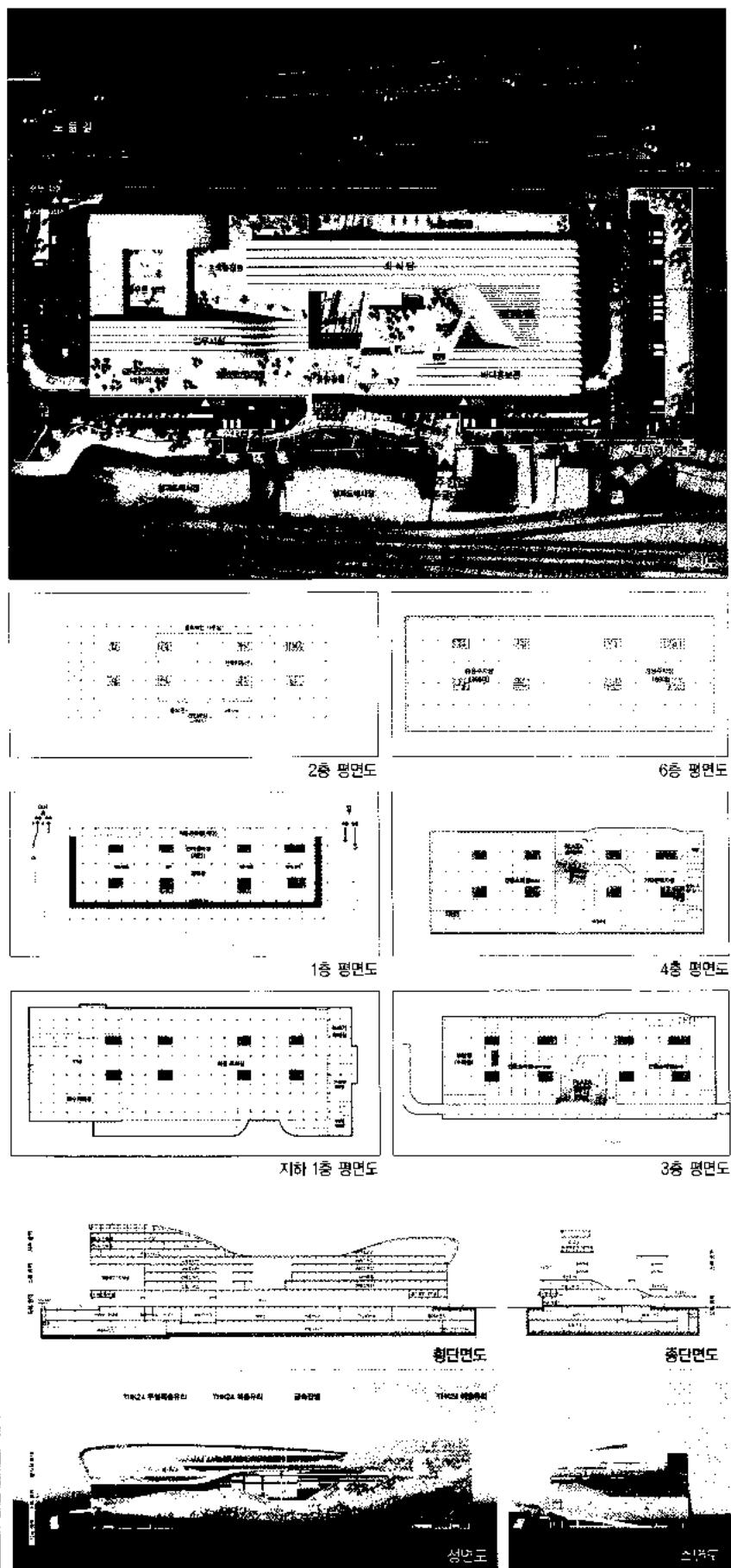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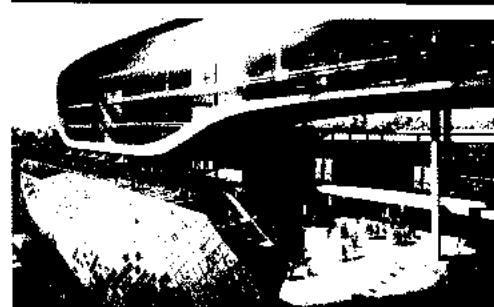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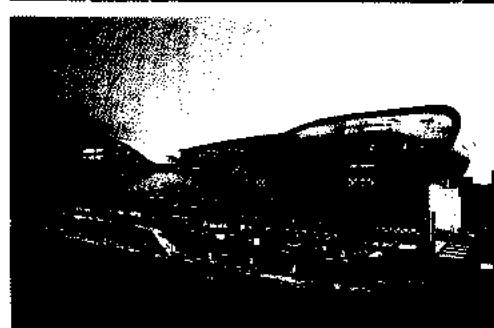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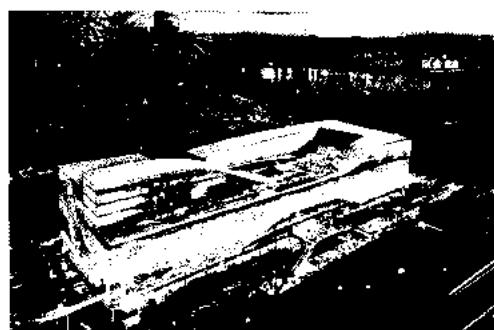
소매시설은 협소한 계획내지로 인해 경매장과 수냉계획이 불가능하므로 경매장 바로 위층에 집중 배치하여 신속한 수산물류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소비자의 접근을 고려 보행데크와 주 진입 플라자를 중앙에 계획하여 모든 매장이 균등한 접근성을 확보하여 소매시설 전체가 활성화 되도록 하였다.

조형계획은 저층부는 단순한 Mass에 창호 패턴의 변화를 통해 균질한 물성의 바다와 표면에 반사되는 빛의 이미지를 형상화 하였고, 소매시설 및 업무시설로



구성된 상층부 매스는 우선형의 유니크한 형태로 계획해 도매시장이 가지는 획일성에 변화를 주고 한강변의 Icon을 만들고자 하였다. 또한, 2600여평의 넓고 쾌적한 옥상공원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쉼터가 되는 공원과 같은 시장이 되도록 하여 시장(Market)과 공원(Park)이 함께하는 도심 공원형 시장 개념의 노량진 수산물 시장 'N-Parker'을 계획하였다.

현대화 된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은 수도권 수산물류 유통의 거점시설로써의 역할과 함께 시민들이 편하게 찾아와 쉬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도심형 복합유통센터로써 서울의 또 다른 아이콘(Icon)이 될 것이다. ■



# 전시와 축제의 한마당으로 초대합니다

## Invitations of Exhibitions and Festivals

김현미 / 정회원, 건축사사무소 일오십  
by Kim, Hyun-mi, KIRA

전시와 축제가 어우러진『한국건축산업대전 2009』가 '제로 혁명: 친환경 건축을 디자인한다'라는 주제 아래 2009년 10월 7일(수)부터 10월 11일(일)까지 5일간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요즘 초미의 관심사인 친환경과 관련된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하는 행사이다. 바로 우리 집안의 행사이며 축제인 것이다.

이번『한국건축산업대전』을 통하여 건축사의 위상을 높이며 대한건축사협회가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단체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해 본다.

작년에 이어 올해 사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답답하고 험한 마음이 드는 것은 왜일까? 우리 내부에 만연되어 있는 적당한 패배주의(?)와 무관심…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다른 전시회에 비하여 인지도도 떨어지고 전시회 구성도 풍성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든다. 비단 필자만이 드는 생각

은 아닐 것이다. 그래도 대한건축사협회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건축사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며, 그들(바로 우리)이 전시회를 기획하고 운영하는데도 말이다.

건축 전문가단체가 주최하고, 건축 관련 업체들이 참여하고, 건축 관련 전문가들이 관람하는 행사로『한국건축산업대전』이 대한민국에 유일무이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타 전시회에 비하여 뭔가 차별화 되어야하지 않을까? 전시회 사업위원회를 하면서 전문성이 뛰어나고 타 전시회와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려고 고군분투 해보아도 여러 가지 현실의 벽은 녹록치 않다. 좀 더 나은 전시회와 불거리가 풍성한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노력은 해보지만 부딪치는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다.

요즘 들어 전 세계가 경기 침체로 세계경기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건축분야의 모든 당사자들 또한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이번 전시회 준비에 모든 해당 업체들의 어려움이 적나라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현실만 평계하고 두 손 놓고 바라만 볼 것인가?

특히 건축사들의 위상 제고와 건축시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취지에서 열리는 전시회라면 모든 건축사의 참여가 절대적이다. 다른 단체의 행사도 아니고 우리 집안의 행사인데 우리가 남의 집 불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빨 벗고 나서야 할 때이다. 또한 앞으로 이 행사를 발전시켜 나가려면 몇몇의 사업위원들의 노력만이 아닌 우리 건축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건축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일반인들이 너무 많다. 일반인은 차치하고라도 다른 전문가들조차 건축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에 적잖이 당혹한 적이 있다. 필자뿐 아니라 많은 건축사들이 경험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건축산업대전」은 대한건축사협회를 외부에 알리고 건축사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나날이 새로운 설계기법과 공법, 자재가 쏟아져 나오고 급격히 변화하는 건축시장에서 가장 민감하여야 할 건축사들이 적당히 눈과 귀를 닫고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론 인터넷 정보의 흥수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수많은 정보 속에서 옥석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 그러한 측면에서 「한국건축산업대전」은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변화하는 현실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건축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 우리의 입지는 견고해지고 건축시장뿐 아니라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전시회에 참여하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으면서 뒤에서 불평만 한다면 대한건축사협회의 발전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건축사들이 함께 참여하여 서로 격려하고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고치면서 발전해 나갈 때 대한건축사협회와 건축사들의 위상이 높아지지 않을까?

누군가는 자고 일어나니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어 있더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우리의 업역이 날로 날로 줄어들고 있음을 접하게 된다. 씁쓸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이 외부의 영향도 있었지만 우리 내부에서의 문제는 무엇인지 재고해보아야 할 때이다.

지금은 전국 건축사들의 협력과 단합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람할 뿐 아니라 참여사들의 자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성원할 때 이 전시회는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지 않을까 한다. 그럼으로써 전시 참여사들의 적극적인 활동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내년, 내 후년에는 조금 더 풍성하고 알찬 전시회와 축제의 장이 만들어 지지 않을까? 우리는 전시회를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건축사들은 물론이고 모든 건축인들이 힘을 모아 「한국건축산업대

전」이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전시회로 발전되기를 기대해본다. 아울러 이번 전시회는 좀 더 나은 미래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물려주는 데에 일조를 하기 바란다.

이번 「한국건축산업대전」은 전시회와 아울러 다음과 같은 동시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첫째, 친환경 건축사 교육\_「친환경과 미래건축」이라는 주제 아래 국제기준에 맞는 건축사제도의 개선과 정부의 친환경 녹색성장정책과 친환경건축물에 관한 건축사들의 이해증진 및 관련기술의 보급·확대를 위한 전문교육이다. (소주제 : 패시브건축, 친환경건축과 디자인, BIM과 건축의 미래)

둘째, 전국 건축사 미술전\_대한건축사협회 미술동호회의 작품 전시로 건축사의 정서가 순수미술에 대한 일상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때 보다 좋은 건축을 창조하게 되는 예술적 흔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셋째, 친환경 건축 특별포럼\_「대한건축사협회 친환경위원회 주관으로 미래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설계의 기본 틀을 확립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건축물을 널리 알리는 선포지엄을 개최한다.

넷째, 각종 세미나….

- 한국철강협회 스테인리스강 녹색성장 산업발전 세미나 : 10/8(목)
- 한국경제TV 부동산 포럼 : 10/7(수)
- (사)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초고층 및 대규모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내장재 화재안전성 연구발표 : 10/9(금)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CM연구회 강연 및 토론회 : 10/7(수)

다섯째, 체험 이벤트\_신나는 건축체험학교 : 독일라이트너사와 공동 개발한 학습교재용 조립식 모형블럭으로 실제크기의 1:10 축소모형인 'BAUMI'로 기초조형 실습·공간구성 능력 강화·구조체의 역학이론 이해 등을 체험할 수 있다.

건축 관련 자재들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건축사들과 건축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많은 흥보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 건축산업에 대한 바른 이해와 대국민 홍보
- 건축전문가들 간의 건축산업 네트워크 구축
- 친환경 건축문화산업 기술력 강화 및 활성화 지원
- 국내외 새로운 시장개척 및 활성화 지원

이라는 목적으로 개최되는 「한국건축산업대전2009」에 건축사들과 건축 관계자 여러분을 초대한다. ■

한국건축산업대전 URL : [www.kaff.biz](http://www.kaff.biz)

# 유럽공동체(EU) 국가들의 설계공모제도와 독일연방국 전(前)수도 「본(Bonn)」시의 ‘교육의 집’ 공모 수상 심의위원회 수상결정 회의 참관기④

## Architectural Competitions in the EU-States & Experiencing the Jury session for the "House of Education" in the City of Bonn/Germany

이선구 / 송실대학교 건축학부 명예교수  
by Prof. Dr. Lee, Sunkoo  
Soongsil University, Seoul/Korea

건축설계 공모 개선 방안으로 한국건축가협회는

- 심사위원의 자격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검증된 건축사들이 주로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 심사위원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사전 공개한다.
- 평가 방법과 절차에 관한 한인 1표 방식과 토론을 거친 단계 별 과정을 통하여 평가 한다.
- 공모 규모에 따른 제출물 기준을 마련하고 설계 보상비를 지급한다.
- 설계 공모 심사후 출품작들을 공개 전시 한다.
- 설계 공모 운영지침을 의무화한다.
- 고 절규(絕叫)하고 있다.<sup>1)</sup>

그간 대한건축사협회의 기관지 ‘건축사’ 지의 연재물 ‘유럽공동체(EU)국가들의 설계 공모제도와 독일연방국 전(前)수도 「본(Bonn)」시의 ‘교육의 집’ 공모 수상심의위원회 수상결정 회의 참관기’<sup>2)</sup>를 읽은 독자들은 위의 절규에 대한 ‘모범 해답’ 이 이미 ‘회

의 참관기’ 속에 제시 되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 전문 심사위원

「본」시 ‘교육의 집’ 시상 심사위원 13인들 중 7인(과반수)은 모두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검증된’ 전문 심사위원들이다. 7인의 심사위원 중 2인은 실무를 수행중인 건축사이고, 5인은 건축사 자격을 갖춘 주업(主業)이 교수인 해당분야 전문가들이다.

### 심사위원 명단 사전 공개

심사위원의 사전공개 역시 명쾌하게 제시 되고 있다.

‘교육의 집’ 설계공모공시 발송일은 2008. 4. 22일이며 이날 공모주관 부서인 「본(Bonn)」시 건물관리청은 공모 참가자 모두에

1) 2009.7.29 한국건축가협회를 대표한 김홍수 위원의 “대통령 소속 국가 건축 정책위원회”의 발언 및 기고

2) 건축사 482, 483, 484 pp. 77-80, 80-85, 84-90

개 공모 심의위원회 위원들 – 심사위원, 부(副)심사위원 및 (표결된 없는 해당분야) 전문가 – 의 명단을 공모공시 문서에 처음부터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국의 설계공모의 경우, ‘도비행위의 우려’로 심지어 심사당일 새벽에 예측되는 개별 신사자에게 전화로 통보하는 것이 관행이며 이는 공모 참가자(응모자)들의 ‘예측되는 심사위원회들의 시전판리’와 일부 심사위원 명단 유출로 인한 특정 업체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낳게 하고 있다.<sup>3)</sup>

‘교육의 집’ 공모의 경우 공모문서 제 1장 공모절차’의 ‘1. 11 심사위원회’ 항은 13인의 심사위원과 9인의 부(副)심사위원의 명단, 지역, 자치단체 소속 정치인의 경우 소속정당이 제시되었고, 예비 검토자인 위탁업체의 이름 또한 제시 되고 있다.

공모작품 제출 마감일(2008.9.15)보다 무려 5개월 전인 공모공시 발송일(2008.4.22)에 심사위원을 비롯한 공모관계 인사들의 이름이 밝혀진 ‘교육의 집’을 비롯한 독일 연방국의 설계 공모의 경우, 공모 응모자들의 로비행위로 인한 잡음은 알려진 바 없다.

공모 공시시 이미 이름이 밝혀진 이를 심사위원회를 비롯한 인물들은 과연 로비행위에 무감각한 천사들인가?

참가기’의 ‘공모 시상식의 위원회 회의록’을 주의 깊게 읽은 독자들은 이들이 공정한 심의과정을 보장하는 도구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모 심사위원회 위원들은 심사위의 개최일 까지 개별 공모출품작들에 관하여 아무것도 아는 바 없으며, 응모자들과 과업에 관한 하등의 의견 교환도 하지 아니하였음을 천명하다.’

공모과정 참가자(표결권 있는 시상 심의위원 13인, 부 심사위원 8인, 내, 외부 사안 전문가 6인, 예비검토자 9인) 행정부서, 비용/기술 검토, 조절 모두가 서명행위를 통하여 2008.10.17 회의록 말미에 선서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메카니즘」이다.

서양인들에게 서명행위는 사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는 중요성에 비추어 이보다 더한 보증서는 없다고 말 할 수 있고 우리의 ‘익명의 심사위원에 숨어서 불공정한 행위를 일삼는 지금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인 것이다.<sup>4)</sup>

만약 서명을 통하여 공정한 심사를 천명한 인사가 나중에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 알려진다면 – 대개의 부당한 행위는 알려지게 마련이며 – 이들은 업계에서 불명예스러운 퇴진을하게 될 것이며, 아무도 이러한 모험을 감수하려 하지 아니할 것이다.

#### 평가 방법과 절차

‘교육의 집’ 공모 시상식의 회의록에서 볼 수 있듯이, 심의위원들은 평가 순회시에 개별 응모 작품들 앞에서 토론하며, 매 심의위원들은 7개

의 결선작품들에 대하여 서면(書面)판단을 실시하며, 이들 서면 판단들은 해당 전시 도면 앞에서 낭독되고, 토론되고 재가(裁可)되었다.

4개의 수상작과 3개의 매입작 7작품의 평가는 공모의 문서화(Dokumentation)에 포함되어 작품 공람시에 전시됨은 물론이고 추후 참고자료로서 남게 된다.

공모시 제출률 기준은 공모 공시문서 제2장 (연재 3회) ‘공모절차를 위한 제반서류’ 참고에 도면의 축척과 크기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교육의 집’의 경우, 초대공모에 한하여 작품 제작비가 보상되므로, 공모공시 문서 ‘1.14 상금 및 매입’ 항에 상금 액수를 명시 하였고, 이번 공모(유럽공동체 전역에 걸친 공개공모)에 작품 제작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 설계공모 응모 작품들의 공개전시

공모공시문서 1.17항 ‘공모결과 고시 및 공탁’ 항은 ‘모든 판단에 허가된 공모출품작들은 (제작자)이름 제시하에 14일간 공공에 전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모 출품작의 전시여부는 처음부터 명백하게 천명되어 추후 전시여부를 둘러싼 논란의 여지를 배제하고 있다.

위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우리 건축계가 이처럼 갈구(渴求)하는 그 투명성이 근저에 놓인 합리적인 설계 공모제도에 관한 해결책은, 「본」시 ‘교육의 집’ 공모 과정 세부 조명을 통하여 충분히 밝혀졌을 것이다.

우리의 설계공모제도 합리화에 관한 고민을 일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본」시 교육의 집 공모과정을 가능케한 도구는 바로 독일연방국의 공간계획, 도시계획 및 건설 분야에서의 설계공모 원칙과 기준(GRW1995 – 2003.12.23수정)이 있기 때문이다.

#### 운영지침: ‘공간계획, 도시계획 및 건설 분야에서의 설계공모 원칙과 기준(GRW1995 – 2003.12.23수정)’

독일 연방정부 교통, 건설 및 주택성 장관 「만프레트 시룹페」박사는 2003.12.22일 위 원칙과 기준 신판(新版)공포에 즈음하여, 오랜 설계 공모전통(최초의 공모 규칙의 도입은 1867년)을 배경으로 ‘독일 연방국의 공간계획, 도시계획 및 건설 분야에서의 설계공모 원칙과 기준’은 설계공모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공평하며 동반자적 협력과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및 기술적 목표들을 추구하여 독일연방국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고자 한다고 하였다.

우리의 설계공모제도 개선에 타산지석 또는 모범답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설계공모 운영 지침인 ‘원칙과 기준’의 틀격은 아래와 같다.

3) 김홍수, 위 박언 및 “파주시 밤주공사 입찰심사 교수: 건설사가 1,000만원 상품권 했다”, 중앙일보 09/8/5, p.22  
서현, “교수, 건축의 적인기”, 건축, 0801, pp.66~67

4) 김홍수, 위 같음글 참고

# 공간계획, 도시계획 및 건설분야에서의 설계공모 원칙과 기준(GRW 1995 ~ 2003. 12.23 수정)

## [ 전 문 ]

1. 원칙
  - 1.1 공모의 대상
  - 1.2 목적 및 목표
  - 1.3 시상 및 (작품)매입의 공고
  - 1.4 과업관계
  - 1.5 기획균등
  - 1.6 익명성
2. 공모의 종류
  - 2.1 공모목표
    - 2.1.1 아이디어 공모/2.1.2 실현공모
  - 2.2 공모의 제 단계
  - 2.3 공개공모
    - 2.3.1 허용범위/2.3.2 두 단계의 공모
  - 2.4 한정공모
    - 2.4.1 원칙/2.4.2 한정 공개공모/2.4.3 초대 공모/2.4.4 협력적 절차
  - 2.5 간소화된 절차
3. 공모 참가자
  - 3.1 공모 주관자
  - 3.2 공모참가자
    - 3.2.1 법적 형태와 대행권한/3.2.2 참가자격/3.2.3. 참가 비(非)자격/3.2.4 초대공모시 참가(의사)표시
  - 3.3 시상심의위원회
  - 3.4 시상심의위원, 전문가 및 예비검토자
    - 3.4.1 임명/3.4.2 시상심의 위원/3.4.3 전문가/3.4.4 예비검토자
  - 3.5 공모위원회
4. 포상(褒賞) 및 (작품)매입, 제작비 수가
  - 4.1 공모총액
  - 4.2 공모총액의 분배
  - 4.3 포상 등급두기
  - 4.4 제작비 수가
  - 4.5 다단계 공모
5. 공모 절차
  - 5.1 공모 공고
    - 5.1.1 고시(告示)/5.1.2 공모공고 내용/5.1.3 여타 공모내용 제서류
- 5.1.4 공모 제과업/5.1.5 판단 제기준/5.1.6 공모 서류에 대한 수수료(서류 보호 수수료)
- 5.2 공모참가자 선언
- 5.3 질의 응답(콜로퀴움)
  - 5.3.1 질의응답/5.3.2 콜로퀴움
- 5.4 공모 작품들의 형식적 처리
  - 5.4.1 작품표시/5.4.2 제출
- 5.5 예비검토
- 5.6 시상심의위 회의
  - 5.6.1 비공개원칙/5.6.2 시상심의위 진행과정/5.6.3 시상심의위의 구성/5.6.4 공모작품들의 하가/5.6.5 작품평가-결선(決選)/5.6.6 특별상 수여/5.6.7 시상 판정/5.6.8 (작품)매입 판정/5.6.9 시상심의위의 추천사항들/5.6.10 (작품)보완단계/5.6.11 시상심의위 회의록
- 5.7 공모작품들의 단계적 검토
6. 공모 종결
  - 6.1 결과 공시
  - 6.2 참가자격 및 (공모)과정의 검토
  - 6.3 공모작품 전시
  - 6.4 소유권, (작품)반송
  - 6.5 보증책임
7. 공모로부터의 결과
  - 7.1 계속작업
  - 7.2 계속작업에 대한 보상
  - 7.3 저작권
  - 7.3.1 계속작업시 작품의 사용/7.3.2 계속작업 없을시 작품의 사용/7.3.3 최초의 출판
8. 시상심의위원회의 경비보상과 전문가와 예비 검토자의 보상
  - 8.1 시상심의위원
  - 8.2 시상심의위원 대리인
  - 8.3 전문가와 예비검토자
  - 8.4 제비용 보상
9. 종결 제규정
  - 9.1 예외규정
  - 9.2 발효일자

- 부록 I : 공모공고시 필수적 사항목록
- 부록 II : 예비 검토의 일반적 진행절차
- 부록 III : 사상심의위의 일반적 진행절차
- 부록 IV : 합병 공모와 투자자공모의 특별절차

**발췌 : 공간계획, 도시계획 및 건설분야에서의 설계공모 원칙과 기준 (GRW 1995, 2003.12.23 수정)**

### 설계공모의 종류

설계공모의 목표에 따라 아이디어공모와 실현공모로 분류할 수 있다.

#### 아이디어 공모

아이디어공모에서는, 과제의 실현의도 없이 과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의 다양성이 추구되는데, 실현을 위한 공모 준비 또는 제한된 공모 참가자들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 기여한다.

#### 실현공모

실현 공모는 확정된 프로그램과 성취 요구사항들의 기초 위에 하나의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계획적 가능성을 보이고자 한다.

#### 초대 공모

요구되는 개괄적 작업의 깊이나 특별한 전문지식이 형편에 맞는 경우, 초대 공모가 실행된다. 초대 공모의 경우 참가자의 수는 3인 이상 7인 이하이어야 하며, 허용된 참가자의 이름은 공모문서 발송 시에 매(每) 참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참가자의 전문가적 적성을 검토기 위하여 적어도 2인의 독립적이며 시상 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참여자들로부터 요구되는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속하는 선발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 위원회의 구성 및 임명은 공모 공고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문의시 보일 수 있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협력적 절차

공모자, 시상 심판자, 공모 참여자간의 공모과제와 가능한 해결책에 관한 의견교환이 일어날 경우 협력적 절차로서 공모되며, 모든 참가자들은 동등한 정보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의견교환은 대담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공모자는 공모과제를 설명하고 참가자들은 개별적 또는 공동으로 심사위원회에 중간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는 전문 심사위원들로 구성되며, 심사위원의 수는 홀수이어야 하며, 공모 과제의 규모에 따라 7~11인이어야 한다.

공모자 측은 전문 심사위원들로부터 심사위원회와 공모자를 향시 연결할 수 있는 접촉 심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다수가 전문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최소 2인의 독립적인 전문가이어야 한다.

#### 심사위원

대상을 전문 심사위원은 지역 형편과 공모 전 과제에 특별히 친숙해야 한다. 과목 전문 심사위원은 이들의 직업상의 자질로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적 요구사항들을 탁월하게 만족시켜야 한다.

#### 전문가

전문가는 전문분야의 공인된 인물로서 공모 준비와 예비심사에 공모자와 심사위원회를 자문해야 한다.

#### 공모위원회

건축가 회의소와 엔지니어 회의소에 구성된 공모위원회는 공모준비와 실행에 자문적으로 동참한다.

자문은 특히 공모 종류, 요구된 성취, 참가 전제조건, 공모금액 및 심사 위원회의 구성과 기한에 관여하여 행해진다. 해당 공모위원회는 공고문서, 질의 응답과 대답과 심사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공모절차

##### 공모공고

공모공고는 아래의 목록에 열거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공모공고 이전에 청취되어야 한다.

1. 위탁자와 관계문서를 득할 수 있는 관청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2. 프로젝트 기술

3. 공모의 종류

4. 공개 공모인 경우 : 공모작품 도착 시한과 문서보호 수수료 책정

5. 제한공모인 경우

· 의도된 참가자의 수

· 경우에 따라 이미 선발된 참가자 명단

· 참가자 선발 기준

· 참가신청서 도착 기한

· 초청공모인 경우 : 선별위원회의 구성

· 공모 작품 제출 기한

· 협력적 과정인 경우 : 공모 프로그램을 참가자 전부와 함께 의견교환을 통하여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사

6. 경우에 따라 특수한 직업의 참여에 대한 유보 (留保)

7. 적용될 판단기준
8. 이미 선발된 심사위원의 명단
9. 심사위원회 결정에 공모자의 관련 종류와 규모, 실현공모의 경우 : 계속 위임의 규모
10. 상금과 작품구입의 수와 금액
11. 경우에 따라 제작수수료 또는 여타 비용배상 요구(청구권)
12. 경우에 따라 계속 위임 고려에 관한 요구
13. 공모참가자가 공모 규정위반 주장 검토를 청원하는 장소 이름 및 주소

#### 공모내용

공모과제는 모든 요구사항들을 포함적이며 오해의 여지 없이 서술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모의 계기 및 목표
2. 공모자 표시
3. 공모의 대상과 종류
4. 허용범위
5. 공모과제 서술
6. 학제간 공모의 경우 요구된 전문적 기여
7. 공모의 경제적 테두리 여건
8. 참가 자격
9. 허가지역 외(外)로부터의 초대된 참가자의 이름, 초대공모인 경우 모든 참가자의 이름
10. 시상위원, 대행 심사위원, 예비심사자 및 전문가들의 사무소 주소 제시 하의 성명
11. 공모문서 보호수수료와 문서 반송기일
12. 제출기한, 공모작 표시의 방법 및 제출주소
13. 질의 응답 및 롤로케이션 기일
14. 요구된 공모성취
15. 구속적인 예비사항 및 공모자의 고무사항
16. 시상위에 구속적인 판단기준
17. 상금, 매입 및 경우에 따라 작품 제작비 수와 금액
18. 이상의 공모 원칙들로 공모가 거행된다는 암시를 갖춘 공모조건
19. 공모 참가자의 선서 내용
20. 공모가 시행되거나 계속 계획 시 뒤따를 언어
21. 공모과제 해결을 위하여 결정적인 법적 근거 및 기술적 규정
22. 실현공모의 경우 수상자의 의도된 위탁 종류, 규모 및 일반 여건 및 수입료

#### 콜로퀴움

1. 난이한 계획과제의 경우 공모자는 공모참가자들과 시상위원회 위원들과의 대담(콜로퀴움)을 개최하여 공모에 관한 추가정보 및 과제 설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제한공모의 경우 이해관계자들과의 대담은 참가등록 기한 만기 전에 수행되어야 한다.
3. 대담 참가는 이해관계자를 또는 공모참가자들에게 참가 전제조건

으로 부과될 수 있다.

4. 대담은 통상 공모 진행 전반(前半)에 거행되어야 한다. 공모자가 시상위원회의 합의 하에 만들어진 참가자 대담 결과 회의록은 공모의 일부분으로서 공모참가자, 시상위원 및 심사자에게 송부 된다.

#### 예비심사

1. 공모작품들의 심사와 요구사항들의 선별은 심사위원회 회의 까지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예비심사는 공모작품들이 기한 내에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시간적으로 늦게 도착한 작품들을 표시한다. 예비심사는 공모작들을 개봉하고 일련번호, 제출시간, 설계표시번호와 임의로 선택된 위장번호와 함께 집합리스트를 작성한다. 위장 번호는 작품의 도착순서를 밝혀서는 안된다. 예비심사는 설계 표시 번호를 위장번호로 덮고 시상위원회에 제시토록 전시한다.
2. 예비심사는 성취상 결손을 확인하고, 공모자가 확정한 구속적인 사항을 준수하였는지를 제시한다. 예비심사는 판단 기준과 평가의 틀의 기초 위에 예비심사의 결과가 기재될 검토리스트를 작성 한다. 예비심사자는 예비심사 결과에 관한 기록을 만들어 시상위원회에 제출한다.
3. 예비심사는, 공모에 요구된 성취를 넘거나 공모자의 구속적인 조건에 저촉되는 표현들을 분리한다.
4. 시상위원회 개최까지 예비심사자는 시상위원이나 공모자 대표에게 개별 제출된 작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모작의 접근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5. 예비심사자는 시상위원회에 공모작품들의 근본적인 기능적 및 경제적인 특징을 밝히며 심사위원회가 간과(看過)할 위험이 있는 관점에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다.

#### 공모 시상위원회 회의

##### 비공개 원칙

시상위원회는 비공개로 개최된다. 시상위의 객관성이 보장되고 개별 시상위원이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경우, 특별한 인물의 입장(入場)이 공모에 허가될 수 있다.

##### 시상위원회 회의의 흐름

공모자에 의한 시상위원회의 구성 이후 시상위원회는 공모작들의 허가에 관한 예비심사의 확인 고려하에 집합하여 허가된 작품들을 참가자에게 제시된 판단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상(賞)의 인정 및 매입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시상위원회 회의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공모자에 의한 시상위원회 구성
  - 시상위원회 구성원 확인
  -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 보조원 참가 허가 등의 시상위원회 소속이 아닌 인물들의 출석권의 검토 및 회의 기록자의 결정

- 출석자 매인(每人)의 콜로퀴움 외에
  - 공모참가자와 공모과제 및 해결책에 관하여 어떤 의견 교환도 하지 않았다는,
  - 시상위원회 개최동안 이를 하지 않겠다는,
  - 예비심사에 등침하지 않을 경우, 시상위원회 개최시까지 공모작들에 관하여 여하한 정보도 획득하지 아니하였다는,
  - 비밀유지 하에 자문수행을 하겠다는,
  - 작품의 익명성을 보장하며,
  - 작품의 작가에 관한 추측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보증
- 공모과제 및 공모절차, 특히 판단기준과 여타 구속적 사항들의 공모 및 질의와 대담 회의록에 준한 토의
- 시상위원의 객관적인, 오직 공모에만 방향을 정한 판단을 준수코자 하는 개인적 책임

## 2. 원칙자문

- 시상위원회 위원장의 취임
- 예비 심사보고 및 전문가의 예비심사 결과에 관한 입장 표시
- 예비심사를 통한 정보순회에서 모든 작품들의 상세하며, 가치판단 없는 설명
- 공모지역 또는 대지의 답사와 추가로 얻은 인지의 서면 확정

## 3. 공모작품 허가

- 예비심사보고
- 전문가의 입장표명
- 허가 결정

## 4. 허가된 작품평가

- 작품 수에 따른 공모 절차의 종류와 저자의 설명서 및 예비심사와 전문가의 입장을 고려하여 첫 번째 순회에서 반장일치의 경우에만 배제 결의
- 서면 판결로서 결선에 채택된 공모작 결정
- 작품 순위 결정
- 상금, 구입 및 가능한 특별상 결정 및 계속작업 추천에 관한 결의 및 여타 문제(수정단계를 위한 추천 결의 등)
- 계속 작업에 관한 추천 및 여타 공모자 측으로부터 고려하여야 할 문제 등

## 5. 시상위원회 종결

- 서면 회의록 낭독 및 모든 심사위원들의 회의록 서명
- 작품저자 선언, 봉투 개봉, 저자 확인, 시상위원회의록 부록에 결과 확정
- 예비 심사위원회 해촉
- 위원장을 공모자에게 위임
- 공모작품들의 공공전시 장소와 시간을 공시하는 공모자의 결언

## 6. 공모작품들의 전시

공모자는 가능한 한 늦어도 시상 1개월 후에 모든 제출된 작품들을 공공 전시하여야 한다. 공모작품들은 공모참가들의 이름, 법인인 경우 저자와 협력자들의 이름과 함께 가격, 매입추천과 결선 선별예의 진입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시상위원회에 허가되지 않았거나 배제된 작품들은 표시하여야 하며 시상위원회의 회의록은 전시에 진열하여야 한다.

## 공모작품 평가 – 결선 투표구성

1. 첫 번째 평가순회에서 작품의 배제결의는 만장일치로만 수행될 수 있다. 다음부터는 심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기권은 작품의 배제제의 결의 시 배제동의로, 여타 제의 결의 시 거부로 간주된다.
2. 심사위원회는 허용된 작품들 중 어떤 것이 수상작인지, 구입 고려대상인지(결선대상)를 확정하고, 이 작품들을 서면으로 평가하고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결선대상 작품은 설계공모 수상 및 구입작품 수의 1.5배이어야 한다.
3. 결선투표에 선택된 작품들의 순위는 매순위에 투표로서 결정되며, 제안된 작품 어느 것도 필요한 과반수를 얻지 못할 경우 2개의 최다득표작 중 결선투표로서 결정한다.

## 특별상의 인정

결선에서 순위가 결정된 후 심사위원회는 공모자의 구속적인 조건 위반으로 분리된 표현이나 공모작을 특별순회에서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히 팔목할 만한 자극을 부여하는 작품은 시상 및 구입 판정 이전에 특별상을 배려할 수 있다. ■■■

## 참고문헌

- ‘설계시장의 경쟁논리와 설계공모’, 이선구, 통일독일 현대건축, The New German Architecture Since Reunification, pp.183~200, 시그마프레스 2004
- 독일의 공공건축 : ‘베를린시 노이쾰른구 ‘오토 한’ 고등학교 설계 공모 공고부터 당선작 결정까지 전(全)과정의 세부조명’, 이선구, 새건축사협의회, 계간 건축과사회, 2006/겨울, pp.70~90

협회소식\_kira news

이사회

제8회 이사회

2009년도 제8회 이사회가 지난 8월 12일 오후 2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설계자 감리 금지 법개정 추진의 건, 건축사사무소 명칭 관련 법개정 추진의 건, 건축사단체 통합창립대회 개최의 건, 친환경건축 관련사항 추진의 건, 특별회원 위촉 및 명예회원 추대의 건과 부의안건으로 2009년도 제1회 임시총회 부의안건 결정의 건, 위원회 등 운영규정 개정의 건, 2009년도 제1회 임시총회 개최의 건, 예비비 사용의 건, 건축문화진흥사업 지원금 배분의 건, 「2009 건축의날」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의 건, 사무기구 자체 개편의 건, 상근이사 선임의 건, 직원 승진 임용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설계자 감리금지 법개정 추진의 건
  -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적극 대응하기로 함.
  - 입법발의 의원을 통해 법개정 추진배경과 이유를 파악한 후 대응논리를 마련하기로 함.
  - ▷ 경남건축사회장과 김상부 이사 공조 (방문시, 법제위원장 동행)
- 제2호 : 건축사사무소 명칭관련 법개정 추진의 건
  - 건축사사무소 명칭은 반드시 고수하기로 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적극 대응하기로 함.
- 제3호 : 건축사단체 통합창립대회 개최의 건
  - '09.10월중 '(가칭) 대한민국건축사협회 창립대회'를 개최하기로 함.
  - ▷ 대회의 명칭과 단체의 표기 등을 재검토
- 제4호 : 친환경건축 관련사항 추진의 건

- 친환경건축과 관련된 4가지 사안을 함께 다루기로 함.

▷ 친환경건축 심포지엄 ('09.9.2 예정) : 의견 없음.

▷ 친환경건축률 탐방 ('09.10.12~15 예정) : 의견 없음.

▷ 친환경건축설계 아카데미 : 지금까지 이사회에 보고 또는 협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이영호 이사에게 전달

▷ 친환경건축 인증기관(연구원) 지정 : 논의되지 않음.

• 제5호 : 특별회원 위촉 및 명예회원 추대의 건

- 오늘 보고된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추천을 받아 추후 이사회에 상정하여 추대하기로 함.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2009년도 제1회 임시총회 부의안건 결정의 건

- 임시총회 부의안건으로 「통합정관(안) 및 「통합이행 및 운영규정(안)」 승인의 건」과 「공제사업 출자금 지원의 건」을 상정하기로 함.

▷ 통합정관(안)은 원안대로 승인하되, 전문 전체를 상정

▷ 통합이행 및 운영규정(안) 중 변경내용은 8월중 임시이사회에서 결정

▷ 공제사업 출자금 지원(안)은 원안대로 상정하되, 세부사항은 관련위원회에서 검토 추진

• 제2호의안 : 위원회 등 운영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하되, 회의록 서식에 대해서는 조총기 이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기로 함.

• 제3호의안 : 2009년도 제1회 임시총회 개최의 건

- 2009년도 제1회 임시총회 일시 및 장소를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일 시 : 2009년 9월 10일(목) 14시

▷ 장 소 : 본협회 회관 1층 대강당

• 제4호의안 : 예비비 사용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승인금액 : 45,000,000원

▷ 사용목적 : 2009년도 제1회 임시총회 개최 경비 충당

- 제5호의안 : 건축문화진흥사업 지원금 배분의 건  
- 위원대로 승인하되, 내년부터는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해당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지원하기로 함.
- 제6호의안 : 「2009 건축의날」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의 건  
- 회장단에 위임함.
- 제7호의안 : 사무기구 자체 개편의 건  
- 유보함.
- 제8호의안 : 상근이사 선임의 건  
- 상근이사를 아래와 같이 선임함.  
▷ 상근이사 : 전영철(연임)  
▷ 임 기 : '09.8.21 ~ '11.8.20(2년)
- 제9호의안 : 직원 승진 임용의 건  
- 제7호의안 유보에 따라 자동 폐기

## 위원회 개최 현황

### ■ 제2회 건축사 지위 향상을 위한 TF팀

제2회 건축사 지위 향상을 위한 TF팀 회의가 지난 8월 5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설계발주제도 합리화 방안 마련에 관한 건, 건축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에 관한 건, 기타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설계발주제도 합리화 방안 마련에 관한 건  
- 현행 제도 및 실태를 조사·입찰 통계자료, 국내외 자료조사 등하는 것이 필요 한바, 이에 대해 담당자(미국-김소라 위원, 프랑스-전문번역가를 통한 번역, 독일·영국-김상길 위원)를 지정하여 추진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에 관한 건  
- 건축관련 전문가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TF팀 안으로 마련하기로 함.  
▷ 건축기본법 시행령 00조(건축관련전문가의 범위) 법제5조3항의 건축관련 전문가로 함은 법제3조제7호의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 자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기획, 설계 및 유지관리 건축관련전문가는 별표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시공 건축관련전문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4조제8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 • 제3호 : 기타의 건

- 회원, 건축사사무소 직원, 각계인사들에게 이메일 서비스 필요  
▷ 대한건축사협회의 대외 홍보 및 추진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회원뿐만이 아닌 향후 건축사 회원이 될 사람들과 커뮤니티의 중요한 수단으로 소통의 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회원만을 위한 전용창구 필요  
▷ 시도건축사회에서 건축관련 서류를 신청하고 발급할 때에 건축사와 건축사보를 구분하여 건축사만을 위한 별도의 전용창구를 두는 방안이 필요함.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시행에 관한 건  
- 영화제 일시, 장소를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일시 : 2009년 11월 18일(수)~11월 21일(토)~4일간  
▷ 장소 : 광화문 미로스페이스(120석)  
- 광화문 대로변 위치(서울역사박물관 옆)로 광고 및 홍보효과 극대화
- 입장권 판매수익으로 대관료 충당
- ▷ 개막식 :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11월 18일 저녁)
- 참석대상 : 영화배우 및 감독, 건축계 저명인사, 학계 및 기타 유력인사, 기자단(문화부) 등
- 상영영화편수(1일 기준) : 5편 5회로 총 25회 상영
- 예상관객수 : 120명 × 5회 × 4일 = 2,400명

### ■ 제7회 법제위원회

제7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18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규제일몰제에 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건과 설계자 감리금지 법 개정안(윤영 국회의원)에 관한 건, 토지이용규제 관련 건의(안)에 관한 건, 건축법 해설집 발간, 원고 작성자 구성(안)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시행에 관한 건  
- 예산, 장소, 사무국 운영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시행키로 함.  
▷ 예산 수급의 건  
▷ 예산 집행의 건  
▷ 영화제 장소의 건(개막식 관련)  
▷ 영화제 사무국 운영의 건

### ■ 제4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TF팀

제4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TF팀 회의가 지난 8월 24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시행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 ▲ 협의사항

- 제1호 : 규제일몰제에 의한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관한 건  
- 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구조안전조사기관에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포함 시키는 법률에 대해 반대하며 지금까지 구조기술사 요구에 대한 대처논리를 바탕으로 전면 반대 및 성토의장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제2호 : 설계자 감리금지 법 개정안(윤영 국회의원)에 관한 건  
- 동 발의(안)에 대해 반대하며, 이에 대한 논리정리 및 대응이 필요함.  
▷ 사유 : 건축설계 이후 시공과정에서 작

은 변경은 항상 발생하고 있는데, 이 때, 설계자의 의도(창작)가 시공과정에서(색깔, 문양, 질감 등) 반영될 수는 없어 건축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없는 법안임.

• 제3호 : 토지이용규제 관련 건의(안)에 관한 건

-4전(건축과 관련한 법령의 일원화, 토지 형질변경 규제 및 토지분할·합병 규제, 연결개발제한 규제 및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공장설립 승인시 의제처리 등)의 회원의견에 대해 문구를 수정하여 법제 위원회(안)으로 정리하기로 하며,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집행부에서 전국경제 인연합회를 방문하여 설명·협의하는 것이 필요함.

• 제4호 : 건축법 해설집 발간, 원고작성자 구성(안)에 관한 건

-위원장이 제출한 건축법령 해설집 발간 계획(안)의 원고 작성자 구성 및 소요예산 등에 대해 사무처에서는 합리적인 계획(안)을 마련·시행

케어센터 설치사례발표)

- 2부 강의 : 김창현 위원(노인주거복지분야 사업추진에 따른정책제안)

- 제3호 : 한국건축산업대전에서의 연수교육 강의계획

-한국건축산업대전(10/7(수)~10/11(일)) 전시기간내 연수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순희위원, 이주나 교수가 강의기로 협의하였으며, 강의 일정 등에 관하여는 사업위원회와 추후 협의기로 함

■ 공제사업제2소위원회(2차)

공제사업제2소위원회(2차) 회의가 지난 8월 19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설계·공사감리등 공제 업무요령 고시 검토(안)의 건과 공제규정 개정 검토(안)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설계·공사감리등 공제 업무요령 고시 검토(안)의 건

-“설계·공사감리등 공제 업무요령 고시(안)”은 협회 내부결재를 거쳐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기로 협의 함. 다만, 협회에 위해가 되는 자구 등이 없는지 협회정책 연구실장에게 검토를 받을 것을 협의 함

- 제2호 : 공제규정 개정 검토(안)의 건

-“공제규정 개정 검토(안)에 대하여 협의 함

■ 제2회 여성주거복지위원회

제2회 여성주거복지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18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성주거복지위원회 사업 목표의 건과 노인주거복지 국제세미나 개최 계획과 한국건축산업대전에서의 연수교육 강의 계획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여성주거복지위원회 사업 목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동주택내 노인대 이케어센터 설치에 대한 연구를 목표로 세우고,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논의기로 함.

- 제2호 : 노인주거복지 국제세미나 개최 계획

-인천세계도시축전행사와 연계하여 국제세미나를 개최기로 함

▷ 국제세미나일정

- 일시 : 2009. 9. 22(화) 14:00~16:30

- 장소 : 인천송도 세계도시관 세미나실

- 1부 강의 : 기노시타요코(현재 일본의 데이

에 상정하도록 협의 함.

- 제2호 : 홈페이지 메인 화면 및 도메인 검토(안)에 관한 건

-홈페이지 메인화면은 이해가 쉽고 사용이 편리하도록 업무별로 메뉴를 만들고, 간결한 디자인, 밝은 색채를 사용하고, 저작권료가 필요없는 협회사옥의 사진을 활용하며, 형식은 4가지 시안 중 1번으로 할 것을 협의함.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들어갈 문구는 협회의 공제사업에 적합하도록 수정하고, 공제 회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는 것은 물론 협회의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 줄 것을 협의함.

최영집 회장, 제15차 아카시아 포럼 참석



우리협회 최영집 회장은 지난 8월 17일(월)부터 24일(월)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제15차 아카시아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대한건축사협회 대표단은 최영집 회장과 신춘규 이사로 구성된 공식 대표와 아카시아 임원인 이근창 아카시아 직전 회장, 정재숙 아카시아 교육위원회 위원장, 본 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몽골건축사협회(Union of Mongolian Architects) 주최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세계건축사연맹(UIA)의 루이스 콕스(Louise Cox) 회장과 러시아건축사협회의 엘레나 그리고르예바(Elena Grigoryeva) 부회장도 함께 초청돼 참석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아카시아 차기회장이 선출됐는데, 말레이시아 건축사협회(PAM)의 탕페이 양(Tan Pei Ing) 후보와 일본건축가협회(JIA)의 조지 쿠니히로(George Kunihiro) 후보가 팽팽한 접전을 벌인 끝에 조지 쿠니히로 후보가 1표차로 당선됐다. 아울러 포럼기간동안에는 제14차 아시아건축사대회의 주최 단체인 파키스

한국건축사협회(IAP)의 준비현황 보고가 있었으며, Forum 16의 개최지 확정은 ACA-14 개최지인 파키스탄 라호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2009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 전시회 개최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국토해양부, 대한건축사협회, (주)서울경제신문이 공동주최하는 2009한국건축문화대상의 시상식이 10월 5일 오후 2시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제18회를 맞이한 2009한국건축문화대상의 시상식에서는 준공건축물부문에 사회공공부문, 민간부문, 공동주거부문, 일반주거부문 4개 부문 대상, 본상, 우수상과 일반 및 신인·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건축물부문 대상, 우수상, 특선, 입선 수상자에게 각각 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 국토해양부장관상, 대한건축사협회장·(주)서울경제신문 사장상을 수여하게 된다. 아울러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 공헌자를 선정해 '올해의 건축문화인상'과 '공로상'을 수여한다. 이들 수상작들은 시상식과 아울러 동 장소 전시실에서 10월 9일까지 전시된다.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02-3415-6863

###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 제1기 미래친환경 저에너지 건축설계전문가 양성과정 수강생 오리엔테이션 개최



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한 건축단체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의 '제1기 미래친환경 저에너지 건축설계전문가 양성과정' 수강생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8월 22일 서초동에 위치한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는 관계자 외에 건축사를 포함한 대학생 등 총 100명의 수강생이 참석했다.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 김광현 원장(서울대 교수)은 "친환경 건축설계전문가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서게 될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기쁘다"며, "앞으로 친환경건축의 선두주자로 나아가기 위해 열심히 학업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8월 26일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는 '제1기 미래친환경 저에너지 건축설계전문가 양성과정' 강사진을 위한 워크숍이 개최됐다. 워크숍에 모인 40여명의 교수진들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논의를 가졌으며, 총 5개 분야로 나누어 분임토의를 진행했다.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의 '제1기 미래친환경 저에너지 건축설계전문가 양성과정'은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에 관한 제반 개념, 실천적 이론, 통합적 디자인 방법에 이르는 총체적인 전문성을 가진 친환경 건축 설계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0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9월 4일(금) 개강해 2010년 2월까지 총 5개월, 150시간의 강의가 진행된다.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사랑의 집짓기봉사로 감사장을 받아



서울특별시건축사회(회장 김영수)는 해비타트 서울지회와 공동협력사업으로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동참하는 등 적극적이고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건축사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서울시건축사회는 지난 9월 11일 여름 폭우로 무너진 서울 중구청관내 중

림동 156-177번지의 저소득 가정 주택을 새롭게 단장한 사업의 준공식 행사에서 설계와 감리를 부료 지원하는 등의 봉사활동으로 해비타트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 전라북도건축사회, 'BIM 설계 강좌' 개최



전라북도건축사회(회장 이성엽)는 지난 8월 28일 전라북도건축사회관 2층 KB국민은행 회의실에서 건축전문가로서의 자부심과 사회적 책임감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건축을 선도하고 회원 상호간의 만남과 정보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한 'BIM 설계 강좌'를 개최했다.

전북건축사회가 주최하고 (주)라인테크시스템, 건축사무소 상상(군산)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건축사와 사무소 직원 등 총 62명이 참석, BIM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줬다.

BIM컨설팅트 문진영 건축사(포치건축)는 'BIM설계에 대한 개요와 활용방안 적용사례'에 대해, 전북 군산의 김성렬 실장(상상건축)은 주택 설계를 직접 시연하는 순서도 마련했다.

### 충청남도건축사회 친선 골프대회 개최



충청남도건축사회(회장 신우식)가 주최하고 충남건축사회골프동호회가 주관한 '충남건축사회 친선 골프대회'가 지난 9월 14일 버드우드CC에서 개최됐다. 이날 '충남건축사회 친선 골프대회'에는 우리협회 최영집 회장, 장양순 이사와 충남건축사회 자문위원 도병수 변호사, 이준연 변호사 및 80여명의 회

원이 라운딩에 참석했다. 심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된 이 날 경기는 화창한 가을 날씨 속에 회원들의 단합과 친목도모에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다. 저녁 만찬은 시상식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이날 우승에는 (주)예가 건축사사무소 이형열 회원이 68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 제5회 대한건축사협회장기 전국건축사 축구대회 개최



제4회 대회 전경

제5회 대한건축사협회장기 전국건축사 축구대회가 10월 16, 17일 양일간 경남 남해 스포츠파크 운동장에서 개최된다.

전국건축사축구대회는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전국 건축사 축구동호회 축제로서 이번에는 부산광역시건축사회와 부산건축사동호회가 주관하며 대한건축사축구연합회가 후원한다.

참가팀은 강남, 강원, 광주, 경기, 경남, 경북, 대구, 대전, 마포, 부산, 서초, 송파, 전남, 전북, 제주, 울산, 충북 등 17개 동호회 20개팀, 500여명이 참가한다. 경기는 20팀이 예선리그 4개조 풀리그로 치러지며, 8강과 준결승 토너먼트를 통해 최종 우승을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건축사축구연합회는 매년 대한건축사 협회장기와 대한건축사축구연합회장기를 각각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한건축사협회장기는 충북 충주에서 개최돼 경남건축사축구동호회가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 건축계소식

##### '다양한 규모의 독일 건축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 전시회 개최



'다양한 규모의 독일 건축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 전시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아 전시회는 주한독일연방공학국대사관과 독일건축가협회 산하 건축교류네트워크(Network for Architecture Exchange-NAX)가 주최하며, 2009 서울 디자인 올림픽 기간인 10월 9일부터 24일까지 서울 플래툰 쿤스트할레(Platoon Kunsthalle)에서 개최된다.

엄선된 독일 건축가와 그들의 작품을 선보이게 될 이번 전시회의 전시장소인 '플래툰 쿤스트할레(Platoon Kunsthalle)'는 그 자체가 독일 건축가가 해외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의 사례이기도 하다.

전시는 세 부분으로 나뉘며, 현대 건축의 다양한 규모를 잘 보여줄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며, 베를린의 소형 개인주택 프로젝트에서부터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에 이르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해외 프로젝트 기획 과정도 소개된다.

전시의 코디네이터는 차벨 랄프(Ralf Zabel) 독일건축사, 독일건축가협회 건축교류네트워크(NAX)의 한국 주재원이다.

NAX(Network for Architecture Exchange)는 독일건축가협회가 건축가들의 해외 교류를 장려할 목적으로 2002년 설립한 기관이다.

- 문의: ralfzabel@gmail.com,  
[www.architectureexport.de](http://www.architectureexport.de)

##### '2009 건축의 날' 행사 개최



2008 건축의 날 전경

'2009 건축의 날' 행사가 9월 25일 오후 2시(기념식 오후 4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가 주관하며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정관계인사, 건축사, 대학교수, 실무종사자, 대사관 등 내 외빈 500여 명이 초청돼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행사에는 노들섬, 여수엑스포 국가관 등 국가 주요프로젝트 당선작 작품을 전시한 작품전시회와 조동성 교수(서울대 경영학과)의 초청강연 그리고 공로자 표창, 리셉션, 경품 추첨 등이 열려 어느 해보다 알찬행사가 될 전망이다. 주최 측인 건축 3단체는 이번 행사를 통해 건축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미래 건축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건축문화의 창달과 건축인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건축의 날은 우리민족의 역사적 건축물인 경복궁 창건일(9월 25일)을 기념해 제정된 건축인들의 기념일로, 미래의 한국건축문화의 방향성에 다양한 정보교류 및 그 공로를 치하하자는 의미로 건축 3단체가 하나 돼 마련한 행사다.

- 문의 : 대한건축학회 사무국, 02-525-1841~4

##### 2009 전국건축사미술전 개최



2008 전국건축사미술전 전경

원이 라운딩에 참석했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된 이 날 경기는 화창한 가을 날씨 속에 회원들의 단합과 친목도모에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다. 저녁 만찬은 시상식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이날 우승에는 (주)예가 건축사사무소 이형열 회원이 68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 제5회 대한건축사협회장기 전국건축사 축구대회 개최



제4회 대회 전경

제5회 대한건축사협회장기 전국건축사 축구대회가 10월 16, 17일 양일간 경남 남해 스포츠파크 운동장에서 개최된다.

전국건축사축구대회는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전국 건축사 축구동호회 축제로서 이번에는 부산광역시건축사회와 부산건축사동호회가 주관하며 대한건축사축구연합회가 후원한다.

참가팀은 강남, 강원, 광주, 경기, 경남, 경북, 대구, 대전, 마포, 부산, 서초, 송파, 전남, 전북, 제주, 울산, 충북 등 17개 동호회 20개팀, 500여명이 참가한다. 경기는 20팀이 예선리그 4개조 풀리그로 치러지며, 8강과 준결승 토너먼트를 통해 최종 우승을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건축사축구연합회는 매년 대한건축사 협회장기와 대한건축사축구연합회장기를 각각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한건축사협회장기는 충북 충주에서 개최돼 경남건축사축구동호회가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 건축계소식

##### '다양한 규모의 독일 건축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 전시회 개최



'다양한 규모의 독일 건축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 전시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아 전시회는 주한독일연방공학국대사관과 독일건축가협회 산하 건축교류네트워크(Network for Architecture Exchange-NAX)가 주최하며, 2009 서울 디자인 올림픽 기간인 10월 9일부터 24일까지 서울 플래툰 쿤스트할레(Platoon Kunsthalle)에서 개최된다.

엄선된 독일 건축가와 그들의 작품을 선보이게 될 이번 전시회의 전시장소인 '플래툰 쿤스트할레(Platoon Kunsthalle)'는 그 자체가 독일 건축가가 해외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의 사례이기도 하다.

전시는 세 부분으로 나뉘며, 현대 건축의 다양한 규모를 잘 보여줄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며, 베를린의 소형 개인주택 프로젝트에서부터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에 이르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해외 프로젝트 기획 과정도 소개된다.

전시의 코디네이터는 차벨 랄프(Ralf Zabel) 독일건축사, 독일건축가협회 건축교류네트워크(NAX)의 한국 주재원이다.

NAX(Network for Architecture Exchange)는 독일건축가협회가 건축가들의 해외 교류를 장려할 목적으로 2002년 설립한 기관이다.

- 문의: ralfzabel@gmail.com,  
[www.architectureexport.de](http://www.architectureexport.de)

##### '2009 건축의 날' 행사 개최



2008 건축의 날 전경

'2009 건축의 날' 행사가 9월 25일 오후 2시(기념식 오후 4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가 주관하며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정관계인사, 건축사, 대학교수, 실무종사자, 대사관 등 내 외빈 500여 명이 초청돼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행사에는 노들섬, 여수엑스포 국가관 등 국가 주요프로젝트 당선작 작품을 전시한 작품전시회와 조동성 교수(서울대 경영학과)의 초청강연 그리고 공로자 표창, 리셉션, 경품 추첨 등이 열려 어느 해보다 알찬행사가 될 전망이다. 주최 측인 건축 3단체는 이번 행사를 통해 건축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미래 건축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건축문화의 창달과 건축인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건축의 날은 우리민족의 역사적 건축물인 경복궁 창건일(9월 25일)을 기념해 제정된 건축인들의 기념일로, 미래의 한국건축문화의 방향성에 다양한 정보교류 및 그 공로를 치하하자는 의미로 건축 3단체가 하나 돼 마련한 행사다.

- 문의 : 대한건축학회 사무국, 02-525-1841~4

##### 2009 전국건축사미술전 개최



2008 전국건축사미술전 전경

'한국건축산업대전 2009'의 부대행사 중 하나로 열리는 '2009 전국 건축사 미술전'이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COEX Hall C(구 대서양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미술전은 대한건축사협회 미술동호회(회장 강성익)가 주최하며 '건축사의 정서가 순수 미술에 대한 일상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때, 보다 좋은 건축을 창조할 수 있다'는 모토로 개최된다. 한국건축산업대전 입장권을 소지한 관람객들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 문의 : 이원희 건축사(주.미공 종합건축사 사무소), 011-9036-7390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개최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개최하며, 9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교육은 11월 2일부터 11월 17일까지 12일 간(60시간) 이뤄지며, 장소는 서초동에 위치한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교육비용은 67만원이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홈페이지([www.sira.or.kr](http://www.sira.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 '인덱스 어워드' 수상작 특별전 개최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세계디자인수도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세계적 권위의 국제 공모전 '인덱스 어워드 2009 (Index : Award 2009)' 수상작 특별전을 SDO 개최 기간인 10월 9일에서 29일까지 21일간 잠실 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 에어돔에서 무료로 개최한다. '인덱스: 더 나은 삶을 위한 디자인 / INDEX: design to improve life'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디자인 전문가, 학생 및 시민, 디자인 기업, 문화 및 안관단체 등을 관람 타겟으로 2009년 인덱스 어워드 수상작 69점이 선보인다.

5개 부문으로 이루어진 수상작은 '몸(BODY)을 위한 디자인' 16점, '가정(HOME)을 위한 디자인' 12점, '일터(WORK)를 위한 디자인' 12점, '놀이(PLAY)를 위한 디자인' 7점, '공동체

(COMMUNITY)를 위한 디자인' 22점 등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련된 총 69점의 다양한 작품이 올림픽주경기장 트랙에 설치될 에어돔에서 825m<sup>2</sup> 면적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인덱스 어워드는 덴마크 황실이 후원하는 디자인재단인 '인덱스(INDEX)'가 주관하는 국제 공모전으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디자인 공모전의 하나로서 '더 나은 삶을 위한 디자인'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 KCC, 합판마루 제니아(ZENIA), 금강마루 칼리아(CALLIA)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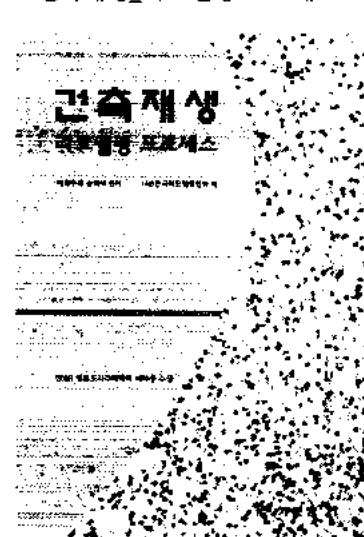
KCC는 합판마루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특판 시장의 차별화된 공략을 위하여 오크와 티크 등의 전통적인 인기 수종들과 자토바, 카비, 톤그레이 등의 특이 수종이 보강된 합판마루 '제니아 (ZENIA)'와 금강마루 '칼리아(CALLIA)'를 갖추고 있다.

고객의 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품을 다양하게 구성한 합판마루 '제니아 (ZENIA)'와 금강마루 '칼리아(CALLIA)'는 출시된 이후 고객들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합판마루 '제니아'와 금강마루 '칼리아'는 1급 내수합판을 사용한 환경친화적인 제품으로, 제품의 미적인 면과 함께 기능적인 면을 강조하였다. 또한 금강마루 '칼리아'는 고강도 HPM층을 사용하여 우수한 내마모성과 내오염성을 자랑한다.

- 문의처 : KCC 고객상담실 080-022-8200, <http://www.kccworld.co.kr>

#### 신간안내

##### 건축재생\_리모델링 프로세스



마츠무라 슈이치 편저,  
(사)한국리모델링협회 역 | 260쪽 |  
도서출판 기문당

신간 '건축재생\_리모델링 프로세스'는 급격한 변화의 요구에 직면한 국내 건설업계의 새로운 돌파구인 '건축재생' 즉 '건축물의 개·보수'라는 돌파구에 대해 일본 건설업계의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한 책이다.

역자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우리나라 상황에 맞추어 편역하였으며, 용어는 가급적 일본 원음을 살리되 친숙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편저자인 마츠무라 슈이치 도쿄대학 대학원 교수와 전문가 집필진이 편저했으며, 일본과 우리나라 상황을 비교한다면 새로운 방법의 습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문의 : 02-2295-6171

# PLAZA ARCHITECTS'

건축마당

통계  
statistics

## 2009년 건축허가 현황(7월)

(단위 : 동, 제곱미터)

### ■ 용도별

구 분	당월(7월)			누계(1~7월)		
	2008년	2009년	증가율	2008년	2009년	증가율
계	21,893	19,091	-12.8%	137,603	117,708	-14.5%
	11,038,003	7,830,063	-29.1%	69,325,180	47,310,926	-31.8%
주거용	7,556	6,152	-14.6%	26,449	36,156	-17.9%
	3,706,873	2,303,239	-37.9%	19,549,543	13,012,402	-33.4%
상업용	7,055	5,937	-15.8%	43,551	36,583	-16.0%
	2,650,547	2,177,791	-14.6%	20,981,082	13,466,070	-35.8%
공업용	2,089	1,750	-16.2%	4,607	10,478	-28.3%
	1,855,881	829,811	-55.3%	11,352,661	5,756,091	-49.3%
교육 및 사회용	1,324	1,495	12.9%	7,902	6,474	7.2%
	1,044,434	1,79,187	12.9%	7,541,852	6,799,145	9.8%
기타	3,889	3,457	-10.6%	25,094	24,037	-4.2%
	1,880,268	1,340,035	-28.7%	9,900,040	8,277,218	-16.4%

### ■ 구조별

구 분	당월(7월)			누계(1~7월)		
	2008년	2009년	증가율	2008년	2009년	증가율
계	21,893	19,091	-12.8%	137,603	117,708	-14.5%
	11,038,003	7,830,063	-29.1%	69,325,180	47,310,926	-31.8%
철근 철골조	18,412	15,843	-14.0%	116,887	97,581	-16.5%
	10,762,432	7,565,846	-29.5%	67,615,028	45,752,788	-32.3%
조적조	2,437	2,022	-17.0%	14,412	13,452	-6.7%
	200,285	157,563	-21.3%	1,203,182	1,057,984	-12.1%
목조	982	1,071	8.4%	5,718	6,314	10.4%
	70,398	79,988	12.8%	472,035	475,70	0.7%
기타	56	155	C.0%	586	361	0.0%
	4,388	6,666	C.0%	34,939	24,984	0.0%

### ■ 시도별

구 분	당월(7월)			누계(1~7월)		
	2008년	2009년	증가율	2008년	2009년	증가율
계	21,893	19,091	-12.8%	137,603	117,708	-14.5%
	11,038,003	7,830,063	-29.1%	69,325,180	47,310,926	-31.8%
수도권	7,853	6,043	-23.0%	50,733	35,899	-29.2%
	5,518,608	3,823,802	-30.7%	34,178,499	19,969,179	-41.6%
서울	1,491	951	-36.2%	9,143	6,236	-42.7%
	394,198	867,744	-37.8%	9,677,920	3,998,077	-58.7%
인천	797	803	0.8%	4,656	4,082	-12.3%
	649,583	475,306	-26.8%	3,122,518	2,229,761	-28.6%
경기	5,565	4,289	-22.9%	36,934	26,531	-28.0%
	3,474,827	2,480,732	-28.6%	21,378,061	13,741,347	-35.7%
차량	14,040	13,048	-7.1%	86,870	81,809	-5.8%
	5,519,395	4,006,261	-27.4%	35,146,681	27,341,746	-22.2%
부산	577	488	-18.9%	3,452	2,933	-15.0%
	244,495	239,625	-2.0%	2,01654	1,49,202	-31.5%
대구	582	454	-22.0%	3,313	2,414	-27.1%
	591,588	343,565	-41.9%	2,137,630	1,499,054	-29.9%
광주	379	317	-16.4%	2,227	1,785	-19.8%
	245,559	371,709	51.4%	13,6,687	1,211,133	-8.0%
대전	325	301	-7.8%	2,126	1,708	-19.7%
	315,046	104,468	-66.8%	1,569,401	912,894	-41.8%
울산	439	364	-17.1%	3,145	2,280	-28.1%
	16,138	103,060	-38.6%	2,274,635	796,696	-65.0%
강원	1,371	1,185	-13.6%	8,197	7,985	-1.5%
	341,399	248,333	-27.3%	2,220,903	2,512,076	13.1%
충북	1,258	1,045	-16.9%	8,440	7,382	-12.5%
	434,529	307,927	-29.2%	3,062,958	2,282,980	-25.5%
충남	1,862	1,441	-22.6%	0,059	9,051	-10.0%
	723,613	373,057	-48.4%	4,358,110	3,777,733	-13.3%
전북	1,285	1,398	8.8%	7,782	8,027	3.1%
	330,263	590,452	78.8%	2,590,466	2,588,228	-0.1%
전남	1,418	1,781	25.6%	9,371	10,797	15.2%
	456,679	348,061	-23.8%	2,463,249	2,229,662	-9.5%
경북	2,170	2,105	3.0%	13,208	13,213	0.0%
	806,918	432,648	-46.4%	4,266,505	3,595,785	-15.7%
경남	1,985	1,833	-7.7%	13,489	11,945	-11.4%
	785,593	456,929	-41.9%	6,109,038	3,677,915	-39.8%
제주	369	356	-3.5%	2,151	2,309	7.3%
	74,930	86,427	15.3%	705,445	838,388	18.8%

##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사무소수, 회: 회원수)

2009년 7월말

구 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총 역 사무소	합 계					
	1인	2인	3인 이상	소 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소 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소 계							
사회	자 회	자 회	자 회	자 회	자 회	자 회	자 회	자 회	자 회	자 회	자 회	자 회	자 회	자 회	자 회	자 회	자 회						
합계	5,377	5,377	116	232	10	30	5,241	5,377	1,665	1,665	264	528	50	377	24	36	29	219	1,941	2,565	7	7,182	7,942
서울	883	883	35	62	3	9	97	954	840	840	156	32	37	111	12	48	16	130	1,061	1,411	3	1,978	2,365
부산	461	461	18	38	2	5	461	503	91	91	20	40	2	8	0	0	3	27	116	164		594	667
대구	403	403	24	48	4	12	481	463	62	62	17	34	5	15	2	8	2	10	38	129		519	592
인천	250	250	2	4	0	0	252	254	56	56	8	13	0	0	1	4	0	0	65	76		317	330
광주	94	94	1	2	0	0	195	196	39	39	5	10	2	6	2	8	1	7	49	70		244	266
대전	232	232	9	18	1	3	242	253	35	35	6	12	4	12	2	8	1	17	48	84		290	337
울산	74	74	7	14	0	0	181	188	9	9	2	4	1	3	0	0	0	22	26			203	214
경기	705	705	3	6	0	0	708	711	222	222	20	40	4	12	0	0	2	11	248	285		996	998
강원	89	89	2	4	0	0	11	173	24	24	2	4	0	0	0	0	1	5	27	33		198	206
충북	93	93	4	8	0	0	197	201	34	34	3	6	0	0	2	8	2	15	41	63		238	264
충남	214	214	1	2	0	0	25	216	41	41	7	14	1	3	2	8	0	0	51	66		266	282
전북	232	232	2	8	0	0	236	240	20	20	3	6	2	8	1	4	0	0	26	36		262	276
전남	175	175	0	0	0	0	175	175	19	19	1	2	0	0	0	0	1	7	21	28		196	203
경북	338	338	4	8	0	0	342	346	32	32	5	9	0	0	0	0	0	0	37	42	1	379	385
경남	362	362	5	12	0	0	393	399	22	22	8	8	0	0	0	0	0	0	30	38		473	487
제주	105	105	0	0	0	0	105	105	9	9	1	2	1	3	0	0	0	0	11	14		116	119

##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 분	건축사회	회 원			준회원
		건축사	2급	계	
합 계		7,942	10	7,952	100.0%
서 울		2,365	3	2,368	33.9%
부 산		667	1	668	7.9%
대 구		592	0	592	7.7%
인 천		330	0	330	3.8%
광 주		266	3	266	3.7%
대 전		337	1	338	3.7%
울 산		214	0	214	2.6%
경 기		996	2	998	12.2%
강 원		206	0	206	2.6%
충 북		264	0	264	3.0%
충 남		232	3	235	3.1%
전 북		276	0	276	3.0%
전 남		203	0	203	1.9%
경 북		388	0	388	4.6%
경 남		437	0	437	5.0%
제 주		119	0	119	1.3%

##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 分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전임미처리	합 계	비 율
회 원 수	5,377	2,565	86	8,028	
비 율	66.98%	31.95%	1.07%	100%	
사무소수	5,241	1,941	-	7,182	
비 율	72.97%	27.03%	-	100%	

# PLAZA ARCHITECTS'

건축마당

해외잡지동향  
overseas journal

ARCHITECTURAL  
RECORD

ARCHITECTURAL RECORD



이번 호의 project 섹션에서는 Jean Nouvel의 Les Bains des Docks, Renzo Piano의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I.M. Pei의 Museum of Islamic Art, 그리고, Gehry의 Art Gallery of Ontario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Books 섹션에서는 'Looking at contemporary China'라는 주제 아래 쓰여진 책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건축유형별 연구 섹션에서는 건강증진센터를 주제로 Italy, Venice의 Ospedale dell'Angelo, New York에 지어진 Jacobi Medical Center, 그리고, Texas의 Methodist Stone Oak Hospital에 대한 기사가 흥미롭다.

## ■ Books

- In the Chinese City: Perspectives on the Transmutations of an Empire: by Prederic Edelmann. Actar, 2008
- Architecture of Modern China: A Historical Critique: by Jianfei Zhu. Routledge, 2009
- Caochandi: Beijing Inside Out: by Robert Mangurian, Mary-Ann Ray, PI LI, Darien Williams. Timezone 8, 2009

최현아 /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겸임교수  
by Choi, Hyun-ah

다른 표준 시간대와 다른 인식론을 가진 이 세 가지의 책은 중국의 건축과 도시 건설에 대한 실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국의 의미있는 건축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Jianfei Zhu는 그 지역이 가지는 통찰력과 이론을 섞어 조화를 이루었다.

Edelmann은 중국의 도시 문화를 만들어가는 작은 움직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Mangurian과 Ray 등은 도시촌에 가게를 만들어 도시가 그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한다.

중국을 정의한다는 것은 길을 잃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계속 방향을 물어보는 것과 같다. 이 각각의 책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에게 질문을 할 것이며 또 한 그 질문은 옳게 하고 있는 것일까?

## ■ Projects

Les Bains des Docks, France / Ateliers Jean Nouvel

Ateliers Jean Nouvel은 Le Havre의 자갈섬인 해안가에 평화스러운 오아시스와 같은 공공 수영장인 Les Bains des Docks를 창조해 낸다.

지난 수십 년간 페리나 정기선을 타고 Le Havre항에 도착하는 여행객들은 보다 빨리 이 항구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껴왔다. 영국해협을 따라 있는 이 오래된 산업항은 활황하고 모래투성이의 장소로 알려져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시로부터 버림을 받아온 아래 '콘크리트는 아름답다.'라는 유명한 견해를 가진 건축가 Auguste Perret에 의해 대부분 넉넉지 않은 예산으로 재건축되었다.

Perret의 재능에도 불구하고 여행객들은 거의 오래 머물고자 하는 열망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변하고 있다. 영프 해협터널이 완공된 아래 페리를 갈아타는 곳이라는 도시의 추락한 명성과 노화된 항구의 기반시설과 함께 Le Havre항은 활기차게 재탄생하고 있다. 현재 재생작업은 넓은 프랑스 항의 일부분을 신축과 낮은 창고들의 적절한 재사용을 통해 레저, 문화, 그리고 주거지역으로 변형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Jean



Les Bains des Docks

Nouvel의 작업 이외에 이미 눈에 띠는 성과를 가져다 준 또 하나의 프로젝트가 바로 이 Les Bains Des Docks이다. 이 Les Bains Des Docks은 공설 수영장의 개념을 다시 생각나게 한다. 외부는 상자형으로 주조된 콘크리트 외피로 되어 어두운 회색으로 도장되어 있으며 그 형태면에서 주변의 창고와 비례적으로나 심플한 외관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정면 왼쪽과 백색의 베라조로 된 계단은 순전히 흰색의 내부를 연출해 주고 있으며 태양광과 물, 준입체파의 블록형태의 삼자원 형태에 의해서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리셉션 데스크 뒤쪽에 있는 입구계단의 맨 위에 있는 잔디 너머에 있는 수영장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완전히 백색인 위네리에는 바닥, 천장, 그리고 벽이 모두 가로세로 20mm의 작은 모자이크 형태의 유리 타일로 되어 있다.

이 밝고 반투명한 모자이크 타일은 공간적인 연속성과 이 건물을 위한 모듈을 만들어 놓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책임을 맡고 있는 건축가 Mirco Tardio는 Le Havre의 특별하고 놀라울 정도의 태양광을 이용해서 내외부의 대조를 강조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한다. 밝게 빛나며 2개층 높이의 리셉션 공간은 백색이며 태양광을 흡수 받아 이 건물에 대한 처음의 감동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 준다. 이 공간에는 물, 빛, 그림자, 그리고 복욕을 위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듯 보인다. 또한 올림픽 사이즈의 수영장은 하늘을 향해 열려있으며 타일로 된 데크로 둘러싸여 있어 1년 내내 이용이 가능하다. 내부에는 냉탕과 온탕, 월풀, 사우나, 터키탕 등 12종류의 다양한 옵션이 있다. 또한 다양한 크기, 다른 온도, 그리고 다른 형태의

수영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분수, 물보라와 같은 장치들이 있거나 어떤 곳은 물로 된 베일에 둘러싸여 있기도 하다.

Les Bains는 동시에 청각, 촉각, 시각에 호소한다. 태양광을 약하게 해주는 필터, 물의 반짝거림, 반짝이는 천장은 반투명한 타일을 통과해서 굴절된다. 야간조명은 미묘하게 수면 아래와 천장에 반쯤 가려진 조명에 의해 빛난다. 이 곳, Les Bains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며 Le Havre에 확실하게 닿은 내려 우리가 데없이 행복하게 떠나닐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이다.

####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Illinois / Renzo Piano Building Workshop

*Renzo Piano Building Workshop*은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역사적인 구조들과 공공공간을 트레이드 마크인 고전주의로 다리를 놓는다.

여기에서 다시 *Renzo Piano*가 디자인한 또 다른 건물, 예술박물관이 있다. 지난 해 Los Angeles에 지어진 Broad Contemporary Art Museum의 완공과 Boston의 Harvard Art Museum의 보수를 위한 계획, New York City의 Whitney Museum의 새로운 분관의 진행과 더불어 이 Pritzker상 수상자는 탐나는 프로젝트들만 진행함으로써 건축가들 사이에서 자신이 거의 독보적 존재라는 것을 즐기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10년째 진행 중인 *The Art Institute of Chicago*의 새로운 건물은 사그러져가는 관리 속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Piano*가 Atlanta에 있는 High Museum을 위해 고용된 해였던 1999년에

위인을 받은 이 근대적인 건물은 5월에 문을 열었다. 그러나 이 건물에 주어진 규모와 Michigan로에 있는 Art Institute의 밴드 마크인 구조물과 시민들의 파라다이스라 할 수 있는 밀레니엄 파크 사이의 훌륭한 위치에 있는 이 새로운 건물은 단지 또 다른 건물이 아니었다. 원래 박물관 대지의 낚시 끝에 작은 규모로 종족을 하려고 하였으나 밀레니엄 파크가 세워질 계획에 따라 건물의 위치는 새로운 시청사가 건너에 있고 바로 맞은 편에 Pritzker 파비리온이 있는 Monroe가로 옮겨졌다.

"Menil 컬렉션과 그의 다른 박물관들을 봐 왔기 때문에 우리는 Piano가 예술을 위한 위대한 공간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알고 있었으며 이 근대적인 건물은 Art Institute와 도시의 심장부를 묶어줄 필요가 있었다." 고 Art Institute의 전임 책임자는 회상한다.

RPBW(Renzo Piano Building Workshop)은 보스턴 건축회사인 Shepley, Rutan, 그리고 Coolidge가 디자인한 기존의 구조물에 강한 연결을 창조해 냈다.

박물관-기존의 박물관은 확장과 더불어 완전히 리노베이션 되었다-에 가는 사람들은 예술 안에서 그들 자신을 잊어버리고 박물관 그 자체를 즐긴다는 조언을 하였다. Piano의 이 매우 혁신적이고 모듈화된 갤러리는 여러 구획으로 나뉘어져 박물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그 목적없는 방황을 충분히 총족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아트리움같은 Griffin Court는 적어도 그 정신적인 면에서 Michigan로에 면해 있는 입구로부터 들어오는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는 거대한 계단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Griffin Court 안에서는 은같은 느낌의 Frank Gehry의 Pritzker 파빌리온을 바라볼 수 있다. 태양광이 흘러들어오는 두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배 높이의 공간은 이 새로운 건물의 주 동선이 된다. 이 새로운 근대적인 건물의 매력적인 상자형의 매스는 밀라니엄 피크의 소외 열광적인 건축과 바로 마주하고 있으며 “나르는 카펫”이라고 불리우는 캐노피가 건물의 분위기를 제압하고 있다.

Piano는 3층에 조각 작품을 놓은 테라스와 그 맞은 편에는 레스토랑을 만들었다.

3층의 갤러리를 덮고 있는 막은 유리로 된 창과 나르는 카펫으로부터 자연광을 걸러낸다. 관대한 스케일, 미시건호와 이 도시의 유명한 스카이라인의 매력적인 광경을 가지고 있는 이 시카고를 견디는 것은 멋진 경험이다. 이 활기찬 건물은 시카고의 멋진 건축적 유산에 화답하듯이 시카고의 스카이라인에 아주 알맞게 스며들어 미래를 위한 무대를 다시 준비하고 있다.

#### Art Gallery of Ontario, Canada / Gehry International

Frank Gehry는 그와 갤러리의 과거를 재발견함으로써 Art Gallery of Ontario를 부분적으로 변형한다.

Art Gallery of Ontario(AGO)에서 Frank Gehry는 건축을 가지고 스피드와 균형이 중요한 하키 게임을 하였다.

Dundas가를 따라 달리는 차들의 움직임을 잡아내는 늦은 입구 파사드의 곡선형태

의 유리로부터 가파른 지그재그의 램프, 그리고 박물관의 중앙에 있는 나선 계단에 이르기까지 열렬한 하기 팬인 Gehry는 모든 것을 운지하게 하고 천천히 다니게도 하고 또 다시 쳐올리기도 하였다. 그가 태어나고 자랐던 이 도시의 첫 번째 건물인 AGO는 시간과 추억로 하여금 미묘한 역할을 하게 하였다.

건축가의 외조부님들이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살고 계셨기에 그는 박물관 근처에 있는 Grange Park에서 자주 놀았다.

그가 8살 때 처음 AGO를 방문했을 때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기존 건물 중앙에 있던 Darling&Pearson이 설계한 열주로 이루어진 공간인 Walker Court에서 John Marin의 바다그림을 보았다는 것을 아련하게 떠올리며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나면서 박물관의 부분적인 수리들이 계속되면서 전체적인 계획에서 Walker Court의 결출함은 서서히 사라져갔다.

1993년 이 박물관이 확장되어 오픈하였을 때 Barton Myers는 박물관을 주출입구를 동쪽으로 옮김으로써 Walker Court와 institute가 처음 보금자리를 둔 19세기 맨션인 Grange를 통해 생겨난 역사적 축에서 빗겨가게 하였다. Myers의 디자인은 Dundas가와 McCaulirk의 복잡한 교차로 가까운 곳에 주출입구를 옮겨 기존보다 덜 직접적이고 보다 혼란스러운 새로운 동선을 소개하였다. Gehry의 첫 번째 결정은 박

물관의 입구를 어린 시절의 기억대로 기존의 축에 맞추어 옮겨놓았다.

이 프로젝트 전체를 통해 나무를 다양한 방법으로 구부려서 사용함으로써 Gehry는 추상적인 방법으로 하키스틱과 모던 아이스 링크의 스케이트 표면의 판에 대한 느낌을 주상적인 방법으로 불러일으키게끔 하였다. 그의 새로운 Dundas가의 입면은 2층 높이의 창문, 스텔, 그리고 나무로 된 캐노피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 준다.

건물의 동쪽과 서쪽의 끝에서 Gehry는 전시를 알리는 배너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교차로를 향해 표면을 각이 지게 만들었다. 또한 현대미술과 유럽의 Thomson Collection을 위한 갤러리를 디자인하기 위해 다른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 새로이 지은 남쪽 타워에는 근대 미술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높이와 태양광을 이용하였고 반면 유럽의 예술작품을 위해서는 친근감이 느껴지는 공간을 만들어 내면서 기존의 갤러리를 리노베이션하여 사용하였다.

“Frank는 건물을 통한 여행을 만들어 냈다. 그의 디자인은 하나의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어떤 경험과 같은 것이다.”라고 AGO의 책임자이자 CEO인 Matthew Teitelbaum은 이야기한다.

그 형태로 단지 어떤 시선을 잡아놓는다기보다는 AGO는 움직임과 휴식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에 의해 사람들을 매료시킨다. ■



Art Gallery of Ontario

#### Frank Gehry Art Gallery of Ontario